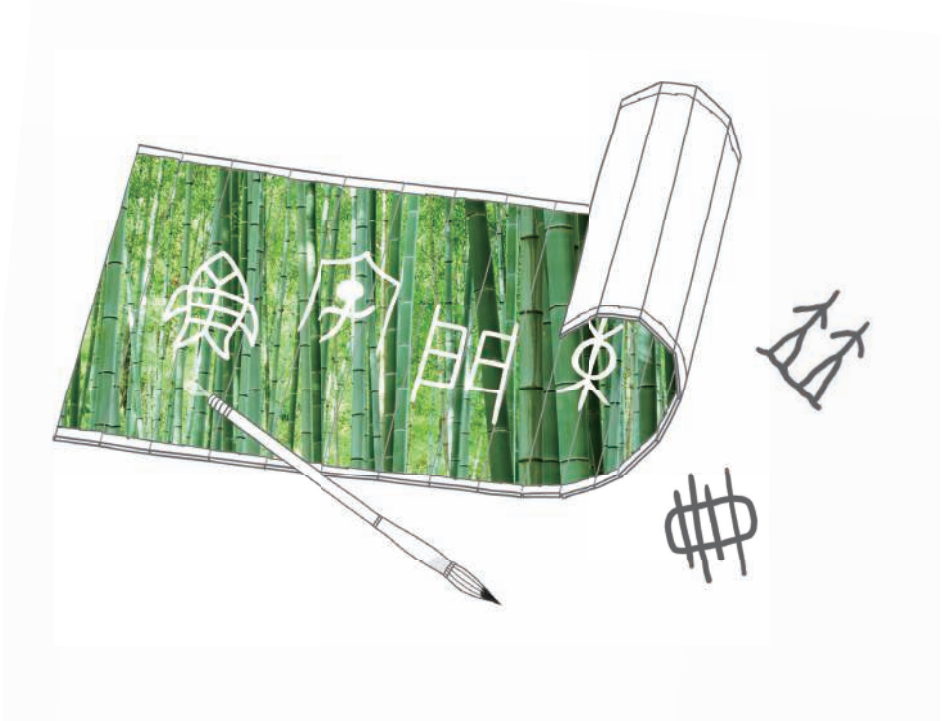
고등학교

한문 I

교사용 지도서

심경호
송혁기
송태명
임동헌
홍은정
홍경원



Mirae N

구성과 활용법

고등학교 《한문 I 》 교사용 지도서는 새로운 교육 과정에 따른 《한문 I 》 교과서의 내용을 상세히 해설하고, 학습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여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한문과 핵심 역량

한문과는 미래 사회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창의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역량, 심미적 감성 등을 중요한 역량으로 삼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

한자와 한문 자료 및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활용하여 생각과 감정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능력.

정보 처리 능력

한자와 한문 자료 및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 자료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그 의미를 평가·선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활용하는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한자와 한문 자료에 담겨 있는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지식과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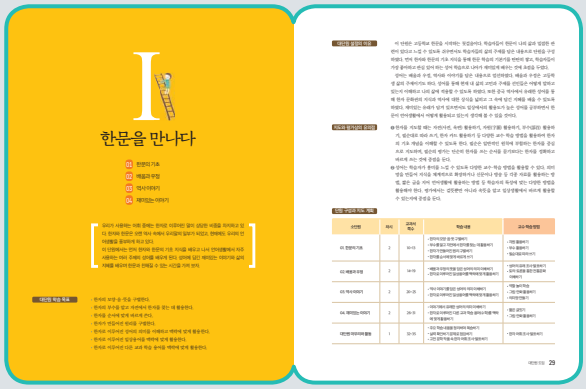
인성 역량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계발·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심미적 감성

다양한 유형의 한문 고전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과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❶ 대단원 시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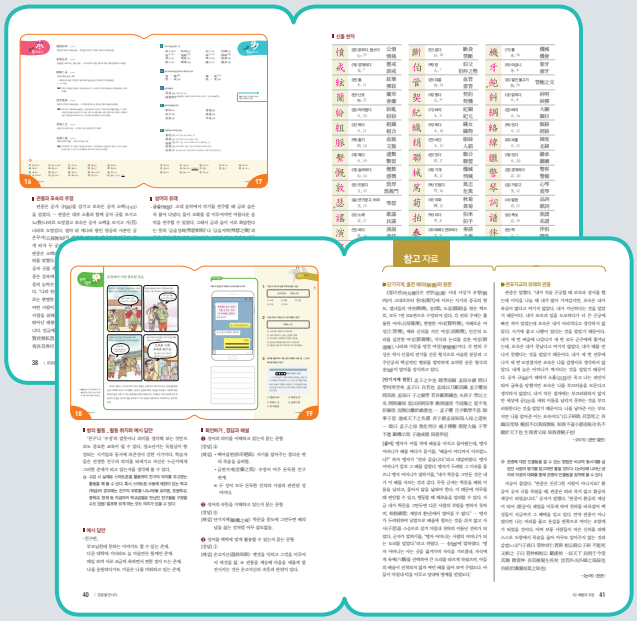


대단원 설정의 의의를 설명하고 성취 기준을 제시하여 교수·학습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다.

❷ 소단원 들어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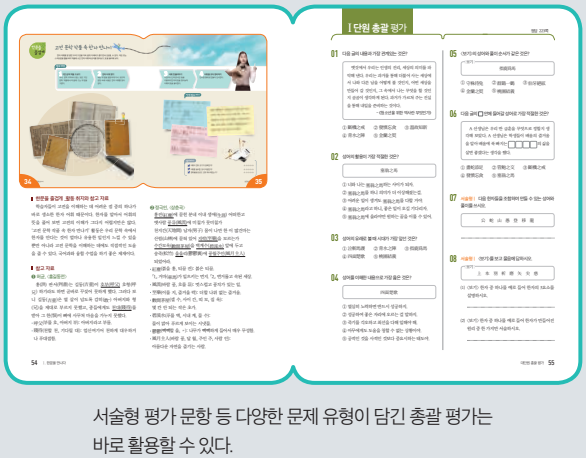
소단원 선정 이유, 학습 목표,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등을 제시하여 소단원 학습 계획을 구성할 수 있다.

❸ 소단원 전개하기



단원 학습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여 수업의 맥을 잡을 수 있으며, 교수·학습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주요 내용과 개념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여 판서나 수업 진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❹ 대단원 마무리하기



서술형 평가 문항 등 다양한 문제 유형이 담긴 총괄 평가는 바로 활용할 수 있다.

차례

총론

Ⅰ 2015 개정 교육 과정 08

Ⅱ 2015 개정 한문과 교육 과정 09

Ⅲ 연간 지도 계획 24

각론

Ⅰ 한문을 만나다
01 한문의 기초 30
02 배움과 우정 36
03 역사 이야기 42
04 재미있는 이야기 48

Ⅱ 단문, 지혜를 찾다
05 생활의 지혜 58
06 나를 돌아보는 삶 64
07 더불어 사는 삶 70

Ⅲ 이야기, 나를 성찰하다
08 거위의 지혜 80
09 양심의 소리 86

Ⅳ 한시, 노래로 말하다
10 고향 생각 96
11 이별 노래 102

Ⅴ 성어, 유래로 배우다
12 비유로 말하기 112
13 관점을 넓혀 보기 118

Ⅵ 인물, 삶에서 깨닫다
14 사관의 정신 128
15 예술가의 삶 134
16 그리운 영웅 140

Ⅶ 철학, 길을 묻다
17 인류의 스승 공자 150
18 묵자와 맹자 156
19 노자와 한비자 162

Ⅷ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20 천리마와 백락 172
21 고구려의 시조 178
22 초패왕의 최후 184
23 목민의 길 190

부록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200
대단원 총괄 평가 정답 223
참고 문헌 및 사진 출처 224

총론

Ⅰ 2015 개정 교육 과정 08

Ⅱ 2015 개정 한문과 교육 과정 09

Ⅲ 연간 지도 계획 24

I 2015 개정 교육 과정

① 개정의 배경

이번 개정은 현행 문·이과 구분에 따른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하고 융합형 인재 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초·중등 교육 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연계하여 개편할 계획임을 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교육부는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 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발표하였고(2014. 9월), 이어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확정·발표하였다(2015. 9월).

☑ 창의 융합형 인재: 인문학적 상상력, 과학 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② 개정의 방향

①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 교육을 강화
②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
③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의 함양이 가능한 교육 과정

③ 주요 개정 내용

① **핵심 역량 설정** →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② **문·이과 공통 과목 신설** → 공통 과목 도입, 통합사회·통합과학 신설
③ **인문·사회·과학 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 교육 강화** → 연극·소프트웨어 교육 등
④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 적정화**
⑤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제시** → 교실 수업을 교사 중심에서 학생 활동 중심으로 전환

☑ 공통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지식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 교육"으로 전환

핵심 개념·원리 중심으로 학습 내용의 적정화, 학생 중심 교실 수업 개선

통합사회·통합과학 등 공통 과목 신설을 통해 문·이과 통합 교육 기반 마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토대로 산업 현장 직무 중심의 직업 교육 체제 구축

▲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개정 방향

Ⅱ 2015 개정 한문과 교육 과정

① 한문 과목의 성격

한문은 고전 문언문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국제적 표기 수단의 하나였다. 우리 조상들 역시 수천 년 동안 한자와 한문을 사용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 왔으므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사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문으로 기록된 각종 전적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독해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상당 부분의 어휘가 한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다른 교과에서 주로 사용하는 학습 용어의 상당수가 한자 어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원활한 언어생활과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문 학습이 필요하다.

한문 기록 속에는 우리의 정신문화가 대부분 축적되어 있어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문제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자료가 많으므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한문 학습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생활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 온 전통문화 역시 한자를 주된 기록 수단으로 하여 보존·전승되고 있으므로 전통문화를 바르게 계승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문 학습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 중국, 일본 등 한자가 통용되는 한자 문화권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1/4이나 된다. 우리의 문화는 독창적인 민족 문화와는 별도로 이들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과 일정 부분 공유하는 정신문화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도 한문 학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① 언어생활과 동양 고전 이해의 도구

한문과는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이다.

② 선조들의 정신문화의 보고

한문과는 선인들의 삶과 지혜, 사상과 감정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교과이다.

③ 동아시아 공동의 고전 문언문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교과이다.

☑ 한문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언어생활에서의 활용과 다른 교과를 학습하는 데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한문으로 이루어진 각종 자료 및 이와 관련된 학문과 문화의 제 분야를 이해하는 데에도 기본적인 도구가 된다.

② 고등학교 한문 과목의 역량

한문과는 미래 사회에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창의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요구되는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 인성 역량, 심미적 감성 등을 교과의 중요한 역량으로 삼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은 한자와 한문 자료 및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활용하여 생각과 감정 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소통하는 능력이다.

정보 처리 능력은 한자와 한문 자료 및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한자 어휘 자료에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그 의미를 평가·선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활용하는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 능력은 한자와 한문 자료에 담겨 있는 다양한 영역의 폭넓은 지식과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을 바탕으로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인성 역량은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과 자질을 지속적으로 계발·관리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수용·실천함으로써, 공동체의 문제 해결 및 발전을 위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능력이다.

심미적 감성은 다양한 유형의 한문 고전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과 가치를 향유함으로써 삶의 질과 행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다.

▲ 2015 개정 한문과 역량(5개)

③ 고등학교 한문 교육 목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며,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고등학교 '한문Ⅰ'은 중학교 한문 교육의 성과 위에서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를 중심으로 중학교 '한문'에 비해 보다 심화된 한문 독해 능력의 신장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바탕으로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와 언어생활에 활용하며, 한문 자료를 이해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고,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계승·발전시키며,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한다.

고등학교 '한문Ⅰ' 과목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가.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900자의 음과 뜻을 알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나.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로 이루어진 한자 어휘를 익혀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한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문 독해에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라. 다양한 유형의 한문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심미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마.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며,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려는 태도를 지닌다.

바.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 2009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목표와 비교해 보면, <나>항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④ 내용 체계 _ 고등학교 한문 I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기능[1]
한문의 이해	한자와 어휘	한자의 모양·음·뜻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탐구하기 조사하기 분석하기 활용하기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	
		한자의 짜임	
		단어의 짜임	
		실사와 허사	
		품사의 활용	
	한문의 독해	문장의 구조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비평하기 감상하기 탐구하기 조사하기 분석하기 토의·토론하기 활용하기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	
		문장의 유형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한문의 활용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일상용어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탐구하기 조사하기 분석하기 활용하기
		학습 용어	
		성어	
	한문과 인성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읽기 풀이하기 이해와 공감하기 조사하기 토의·토론하기 적용하기
	한문과 문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읽기 풀이하기 이해하기 조사하기 토의·토론하기 적용하기
		한자 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1) 기능: 수행(practice), 탐구과정/전략, 사고 과정, 태도, 핵심 역량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서 학습자가 '내용(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

■ 고등학교 한문 Ⅱ

영역	핵심 개념	내용 요소
한문의 이해	한자와 어휘	한자의 모양·음·뜻
		단어의 짜임
		실사와 허사
		품사의 활용
	한문의 독해	문장의 구조
		문장 성분의 생략과 도치
		소리 내어 읽기
		끊어 읽기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한문의 활용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일상용어
		학습 용어
		성어
	한문과 인성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한문과 문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한자 문화권의 언어와 문화

■ 신·구 교육 과정 '내용 체계' 비교

【 2009 개정 교육 과정 】

영역	내용
독해	읽기
	이해
문화	한자 문화
	언어생활과 한자 문화
한문 지식	한자
	어휘
	문장

【 2015 개정 교육 과정 】

영역	핵심 개념
한문의 이해	한자와 어휘
	한문의 독해
한문의 활용	한자 어휘와 언어생활
	한문과 인성
	한문과 문화

5 성취 기준 해설 및 교수·학습 방법

① 한자와 어휘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높은 형상성과 강력한 의미 전달력, 풍부한 조어력을 지닌 문자이다. 따라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중심으로 한자와 한자어휘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문장 학습과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12한문I01-0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12한문I01-02]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12한문I01-03]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12한문I01-04]	한자의 짜임을 구별한다.
[12한문I01-05]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12한문I01-06]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12한문I01-07]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는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

■ 학습 요소

- 한자의 모양·음·뜻
- 부수, 자전 찾기
- 필순
- 한자의 짜임: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
- 단어의 짜임: 주술 관계, 술목 관계, 술보 관계, 수식 관계, 병렬 관계
- 품사, 품사의 활용

  (실사)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허사) 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

■ 성취 기준 해설과 교수·학습 방법

[12한문I01-04] 한자의 짜임은 일정한 구성 원리와 응용 원리에 따라 크게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意)', '형성(形聲)', '전주(轉注)', '가차(假借)' 등 6가지로 나뉜다. 이를 육서(六書)라고 한다. 이 중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은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원리이고, '전주'와 '가차'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응용하는 원리이다. '전주'와 '가차'는 학설이 다양하여 학습에 혼동을 주므로,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을 위주로 학습한다.

[12한문I01-05] '단어의 짜임'은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단어의 짜임을 문법적 기능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주술(主述) 관계는 주어(主語)와 서술어(敍述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

이며, 술목(述目) 관계는 서술어(敍述語)와 목적어(目的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술보(述補) 관계는 서술어와 보어(補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고, 수식(修飾) 관계는 수식어(修飾語)와 피수식어(被修飾語)의 관계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병렬(竝列) 관계는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그러나 한문의 단어는 그 자체만으로 완전한 의미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 단어의 짜임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는 단어가 문장 속에 위치하여 다른 어휘들과의 관계 아래에서 자신의 의미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파악할 때에는 문맥을 고려하여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술목 관계에서 서술어는 동작이나 행위 또는 소유(예: 有, 無)를 나타내고, 목적어는 그 대상이 된다. 목적어를 먼저 새기고, 서술어를 나중에 새긴다. 술목 관계의 단어는 어순(語順)이 우리말과 다르다.

[12한문Ⅰ01-06] 품사(品詞)는 어휘를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공통된 성질을 가진 것끼리 모아 놓은 단어들의 갈래를 말한다. 한문의 품사에는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실사'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허사'가 있다. 실사에 속하는 품사로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다. 명사(名詞)는 사물이나 개념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대명사(代名詞)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및 상태나 동작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수사(數詞)는 사물의 수량(數量)이나 차례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동사(動詞)는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행위, 심리 활동, 소유, 존재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형용사(形容詞)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이며, 부사(副詞)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여 정도, 범위, 시간, 부정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허사에 속하는 품사로는 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가 있다. 개사(介詞)는 일반적으로 명사나 대명사 등 명사류(名詞類) 앞에 놓여 그 명사류를 서술어와 연결해 주면서 처소, 대상, 도구, 시간, 원인, 비교 등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접속사(接續詞)는 단어와 단어, 어구(語句)와 어구, 문장과 문장 등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이고, 어조사(語助詞)는 단어나 어구 또는 문장의 앞, 가운데나 뒤에 와서 문법적인 의미나 어기(語氣) 등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감탄사(感歎詞)는 문장의 밖에 독립적으로 놓여 화자(話者)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응답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다만 허사의 경우 같은 품사에 속하는 허사들 간에도 문법적 기능과 의미 차이가 있으므로 각 허사의 특성을 명확히 이해하여 정확하게 문장을 독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허사: 어휘적 의미가 없거나 실재적이지 않고, 단지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단어. 허사의 종류에는 개사, 접속사, 어조사, 감탄사가 있음.

[12한문Ⅰ01-07] 한문의 단어는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뀌고 의미가 달라지기도 한다. 명사는 동사처럼 쓰여 문장에서 그 자체로 술어가 되

기도 하고, 동사 앞에서 부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수사도 동사 앞에서 부사처럼 쓰이기도 하며 동사는 명사처럼 쓰이기도 한다. 형용사는 그 뒤에 명사나 대명사 등이 올 때 '~라고 여기다'는 뜻을 갖기도 하며 명사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따라서 한문의 품사는 본래 지니고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에서의 쓰임인 활용까지도 고려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 요소	교수 학습 방법	
한자의 모양·음·뜻	• 자전(사전, 옥편) 활용하기 • 부수(部首) 활용하기 • 한자 카드 활용하기	• 자원(字源) 활용하기 • 필순대로 따라 쓰기
한자의 부수		
한자의 필순		
한자의 짜임	• 한자 구조 분석하기 • 한자 카드 활용하기	• 한자의 구성 성분 활용하기
단어의 짜임	• 단어 구조 분석하기 • 어휘 만들기	• 비교 · 분석하기 • 한자 카드 활용하기
실사와 허사	• 비교 · 분석하기 • 한자 카드 활용하기	• 허사 쓰임 유추하기
품사의 활용		

한자의 구성 성분 활용하기 특정 부분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한자, 예를 들어 '每'가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侮', '梅', '悔', '敏'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구성 성분을 통해 여러 개의 한자를 익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단어 구조 분석하기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자 어휘의 조어(造語) 방법을 이해하고 한문 독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비교·분석하기 둘 이상의 어휘를 제시하고 그 어휘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익히도록 한다. 또 짧은 문장을 활용하여 문장 속에서 실사와 허사를 구분하고 그 쓰임을 비교할 수도 있다. 교사는 지침만 제시하고 학습자가 스스로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허사 쓰임 유추하기 허사가 사용된 문장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허사를 찾아보도록 한다. 찾은 허사의 여러 가지 쓰임을 알려주고 제시문에서 가장 적절한 쓰임을 유추해 보도록 한다. 단순 암기보다는 허사가 활용된 예시를 제시하여 자연스럽게 허사의 특징을 익히도록 지도한다.

② 한문의 독해

한문은 고전 문언문으로 한자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던 국제적 표기 수단의 하나로서, 우리 조상들 역시 수천 년 동안 한문을 사용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해 왔다. 따라서 문장의 구조와 유형 등 문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과 주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한문 전적에 담긴 조상들의 사상과 감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2한문Ⅰ02-01]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12한문Ⅰ02-02]	문장에서 생략되거나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12한문Ⅰ02-03]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12한문Ⅰ02-04]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12한문Ⅰ02-05]	토가 달려 있는 글을 토나 문장 부호의 역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12한문Ⅰ02-06]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12한문Ⅰ02-07]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12한문Ⅰ02-08]	한시의 형식과 그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학습 요소

- 문장의 구조: 주술, 주술목, 주술보, 주술목보 구조
- 절(節)
- 문장 성분의 생략(省略)·도치(倒置)
- 문장의 유형: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 화자(話者)와 청자(聽者)
- 소리 내어 읽기와 끊어 읽기
- 글의 내용과 주제
- 한문 산문의 이해와 감상
- 한문 산문의 서술 방식(서사, 의론, 묘사, 서정)
- 한시의 이해와 감상:
  시체(詩體) - 오언시·칠언시, 압운(押韻), 대우(對偶), 시상 전개 방식

■ 성취 기준 해설과 교수·학습 방법

[12한문Ⅰ02-01] 문장 성분에는 주성분과 부속 성분, 독립 성분이 있다. 문장 성분은 하나의 단어뿐만 아니라 몇 개의 단어가 결합한 어구나 그 자체로 주어와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절(節)일 수 있다. 문장의 구조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일정한 결합 방식을 말한다. 주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주술 구조, 주술목 구조, 주술보 구조, 주술목보 구조 등이 있다.

☑ 주성분(主成分)은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필수적인 성분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부속 성분(附屬成分)은 주성분의 내용을 꾸며 뜻을 더하여 주는 문장 성분으로, 부사어, 관형어 따위가 있다.

[12한문I02-02] 한문의 문장 구조를 살펴볼 때는 제일 먼저 어순(語順)을 보고, 그 다음에 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어순이 바뀌면 비문(非文)이 되거나 문장의 성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한문의 문장은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 어순이 도치되어도 문장의 성분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령, 술목 구조의 기본 어순은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목적어가 뒤에 놓인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 아래에서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놓이기도 한다. 곧, 의문(疑問)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構文)에서 의문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또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지시 대명사나 인칭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에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온다. 또 한문은 문장 안에서 중복을 피하거나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문장 성분의 생략은 앞 뒤 문장을 살펴보아 생략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12한문I02-03] 문장의 유형은 문장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분류한 것이다. 문장의 유형을 화자(話者)가 나타내는 어기(語氣)를 기준으로 나누면 평서문(平敍文), 의문문(疑問文), 명령문(命令文), 감탄문(感歎文)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평서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이다. 긍정의 평서문과 부정의 평서문이 있다.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의문문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실제 대답을 요구하는 일반 의문문 외에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대답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의식적으로 물어보는 반어 유형이 있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종의 행동을 금지하게 하는 어조를 표현하는 유형과 원망이나 청유의 어조를 표현하는 유형이 있다. 감탄문은 사물이나 사실에 느낌을 받아 슬픔, 기쁨,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12한문I02-06] 글을 바르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단문, 산문, 한시 등에 사용된 단어나 구절의 뜻, 문장이나 문단의 의미, 글의 구조나 전개 방식, 그리고 문체와 분위기 등을 고려하여 풀이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을 구성하는 단어, 구절, 문장, 그리고 시구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 글의 주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문, 산문, 한시 등 글의 내용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내용이나 핵심이 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글의 주제가 표면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글의 내용으로부터 주제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할 수 있지만, 글의 주제가 글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글의 전체적 내용으로부터 그 이면에 함축

되어 있는 주제를 합리적으로 추측하여 파악하거나, 글의 제목, 핵심어, 지은이의 의도 등을 고려하여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한문I02-07] 한문 산문은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가령, 인물의 언행이나 사건의 경과를 서술하는 글들은 주로 서사적(敍事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사물의 이치를 따지거나 자신의 사상을 천명함으로써 남을 설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들은 주로 의론적(議論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산천(山川)의 경물(景物)이나 지리(地理) 또는 사회의 풍속(風俗)이나 인정(人情)을 기술하는 글들은 주로 묘사적(描寫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사람이나 사물, 사건에 대해 느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들은 주로 서정적(抒情的)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또한 한문 산문은 문학적인 글은 물론 역사적·철학적인 글이나 심지어 실용적인 글조차도 각기 감상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다. 여기서 감상(鑑賞)은 작품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의 가치를 평가·감정(鑑定)하고 아름다움과 재미를 느끼는 심미적(審美的) 활동이다.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고 감정할 때에는 작품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작품의 아름다움과 재미를 느낄 때에는 작품에서 자신이 느끼기에 특별히 멋있거나 재미있는 부분이 왜, 그리고 어떻게 멋있거나 재미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문 산문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서술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서술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표현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12한문I02-08]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한시의 시체(詩體), 압운(押韻), 대우(對偶),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 등 한시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한다. 한시의 시체(詩體)는 크게 고체시(古體詩)와 근체시(近體詩)로 나뉘며, 한 구(句)의 자수(字數)에 따라 오언시, 칠언시 등으로 나뉜다. 압운법(押韻法)은 한시에서 특정한 구(句)의 끝자리를 운모(韻母)가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때 압운된 글자를 운자(韻字)라고 한다. 운자는 대체로 짝수 구의 끝자리에 다는데, 첫째 구의 끝자리에도 달 수 있다. 대우법(對偶法)은 한시에서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우를 이루는 두 구는 앞의 구를 출구(出句), 뒤의 구를 대구(對句)라고 부른다. 한시(漢詩)의 시상(詩想) 전개 방식은 기승전결(起承轉結)의 네 단계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곧, 네 구(句)로 된 한시인 절구(絶句)의 경우, 기구(起句)에서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승구(承

☑ 고체시(古體詩)는 평측이나 자수에 제한이 없어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한시로, 사언·오언·칠언·잡언 따위가 있다. 근체시(近體詩)는 구수(句數), 자수, 평측 등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는 한시이다. 고체시와 상대되며, 중국 당나라 때에 정형이 이루어져 율시 및 절구가 대량으로 나타났다.

句)에서 시상을 이어받아 확대·발전시키며, 전구(轉句)에서 시상에 변화를 주어 장면이나 분위기를 비약·전환시켰다가, 결구(結句)에서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한시를 바르게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시상 전개 과정을 잘 살펴서 시 전체의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 요소	교수 학습 방법	
문장의 구조	• 문장 구조 분석하기 •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 허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 비교·분석하기	
문장의 유형	• 비교·분석하기	
소리 내어 읽기	• 낭송하기	
끊어 읽기	• 토 달아 읽기	
내용과 주제	• 토의·토론하기 • 그림·만화 활용하기 • 역사 신문 만들기	• 역할 놀이 학습 • 연극·방송 대본 만들기 • 가상 인터뷰하기
이해와 감상	• 토의·토론하기 • 그림·만화 활용하기 • 역사 신문 만들기 •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 역할 놀이 학습 • 연극·방송 대본 만들기 • 가상 인터뷰하기 • 감상문 쓰기

토 달아 읽기 이미 토가 달려 있는 문장을 교사가 먼저 소리 내어 읽으면 학습자가 함께 읽는 방법, 모둠별로 선창자(先唱者)를 정해 낭독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토는 종류가 매우 많고 현대 국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조사나 어미가 토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문장에 사용된 토를 중심으로 그 역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연극·방송 대본 만들기 글의 내용과 주제, 이해와 감상 등과 관련하여 연극이나 방송 대본을 만들어보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하되 대본 자체의 완성도에 치중하지 않도록 한다.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글의 내용과 관련 있는 시·소설·수필 또는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을 찾아보게 함으로써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한다.

③ 한자 어휘와 언어 생활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어휘는 상당 부분 한자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함축적이고 비유적인 뜻을 지닌 성어를 이용해 표현하는 경우도 흔하다. 또한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의 상당수도 한자 어휘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중심으로, 한자에 바탕을 둔 일상용어와 학습 용어, 성어를 익혀 언어생활을 원활히 하고 다른 교과에서 사용하는 학습 용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12한문Ⅰ03-01]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12한문Ⅰ03-02]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12한문Ⅰ03-03]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학습 요소

- 일상용어
- 학습 용어
- 성어(겉뜻, 속뜻, 유래)

■ 성취 기준 해설과 교수·학습 방법

[12한문Ⅰ03-02] 언어생활에서 사용되는 어휘 중에는 개념적, 추상적 의미를 표현하거나 심오한 사상이나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한자 어휘가 많다. '학습 용어'는 다른 교과에서 사용되는 어휘 중 해당 학문이나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 어휘를 말한다.

내용 요소	교수 학습 방법	
일상용어	•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 의미망 만들기	• 짧은 글 짓기 •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학습 용어		
성어	•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 의미망 만들기 •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기	• 짧은 글 짓기 •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의미망 만들기 의미망은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도식이다. 유의(類義) 또는 반의(反義)의 뜻을 갖는 단어를 조사하는 것도 그중 한 방법이다.

✓ 의미망(semanticmapping)이란 단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일종의 도식으로, 중심 개념과 관련 있는 단어들을 범주화하고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의미망 내의 낱말들은 개별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낱말은 의미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확장 관계를 통해 주변 낱말들과 관련을 맺고, 또한 수평적 확장 관계에 있는 낱말들은 서로 간의 공통성으로 인하여 수직적 확장의 관계를 맺기도 한다. 의미망 활동은 학습자가 새로운 용어를 접했을 때 이미 알고 있는 사전 정보를 활용해 적극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므로 효율적인 어휘 신장을 위한 교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④ 한문과 인성

한문 기록 속에는 현대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예컨대 인간의 존엄성 상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 이기주의의 만연 등에 대해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많다. 따라서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고 실천 가능한 내용을 정선하여 학습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12한문Ⅰ04-01]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 사상 등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학습 요소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에 대한 이해와 공감
- 현재적 의미와 가치 발견, 생활 적용, 가치관 정립, 인성 함양

■ 교수·학습 방법과 유의 사항

내용 요소	교수 학습 방법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 명언·명구 속에서 핵심 사상 찾기 • 영상 매체를 활용한 토의·토론하기 • 명언·명구 암송하기 • 자경문(自警文) 만들기 • 성찰 일지 쓰기

명언·명구 속에서 핵심 사상 찾기 학습한 문장을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핵심 사상(주제 의식)을 찾아봄으로써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선인들의 인간관, 학문관, 자연관, 역사관 등의 다면적 가치관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상 매체를 활용한 토의·토론하기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토의·토론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토의·토론의 과정에서 논쟁이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객관적이고 유연한 태도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한다.

☑ 영상 매체를 활용한 토의·토론하기 수업을 할 때 문제 상황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것을 선정하되 학습 내용의 바탕에서 해결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한문과 문화

우리 생활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전통문화는 대부분 한자를 주된 기록 수단으로 하여 보존·전승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만의 민족 문화와 별도로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과 일정 부분 공유하는 정신문화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 및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익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한자 문화권 내에서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도록 한다.

[12한문Ⅰ05-01]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12한문Ⅰ05-02]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 학습 요소

-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 성취 기준 해설과 교수·학습 방법

내용 요소	교수 학습 방법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 전통문화 그림으로 표현하기 • 문화유산 답사하기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 토의·토론을 통한 한자 문화권 이해하기 • 한자 문화권 언어·문화 사전 만들기 • 한자 문화권 상호 교류 사례 찾아보기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전통문화가 갖는 현재적 의미, 창조적 계승·발전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하여 모둠별로 토의·토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활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한자 문화권 언어·문화 사전 만들기 사전, 서적,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한자 문화권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한 한자 문화권 언어·문화 사전을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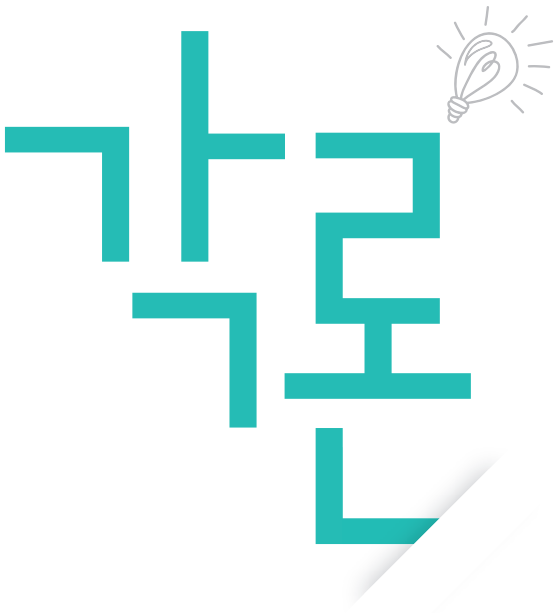
☑ 한자 문화권 언어·문화 사전 만들기 수업은 모둠별 또는 학급별 협동 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활용하여 장기적 수행 과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제 수행의 목표와 개인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 효율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며 교사는 정기적으로 활동을 관찰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한다.

Ⅲ 연간 지도 계획

※ 연간 34주, 68차시

대단원	소단원	지도 내용	차시	
Ⅰ. 한문을 만나다	01. 한문의 기초	• 한자의 모양·음·뜻 구별하기 •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하기 •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구별하기 •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쓰기	2	9
	02. 배움과 우정	•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2	
	03. 역사 이야기	•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2	
	04. 재미있는 이야기	•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2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대단원 정리하기 (활동) 고전 문학 작품 속 한자 만나기	1	
Ⅱ. 단문, 지혜를 찾다	05. 생활의 지혜	•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 구별하기 • 토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기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2	9
	06. 나를 돌아보는 삶	•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 구별하기 • 문장 부호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 함양하기	3	
	07. 더불어 사는 삶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3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대단원 정리하기 (활동) 우리 동네 지명 유래 조사하기	1	
Ⅲ. 이야기, 나를 성찰하다	08. 거위의 지혜	• 문장의 유형 구별하기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3	7
	09. 양심의 소리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3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대단원 정리하기 (활동) 가치 경매하기	1	
Ⅳ. 한시, 노래로 말하다	10. 고향 생각	•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통해 한시의 내용 이해하고 감상하기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2	5
	11. 이별 노래	•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시를 바르게 감상하기 •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시를 이해하고 감상하기	2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대단원 정리하기 (활동) 한시, 그림으로 새롭게 보기	1	

대단원	소단원	지도 내용	차시	
V. 성어, 유래로 배우다	12. 비유로 말하기	• 문장의 구조 구별하기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2	5
	13. 관점을 넓혀 보기	• 문장의 구조 구별하기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2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대단원 정리하기 (활동) 고사성어 스토리 보드 만들기	1	
VI. 인물, 삶에서 깨닫다	14. 사관의 정신	•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 구별하기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3	10
	15. 예술가의 삶	•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른 품사의 활용 구별하기 •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3	
	16. 그리운 영웅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 함양하기 •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3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대단원 정리하기 (활동) 영화와 함께 보는 역사	1	
VII. 철학, 길을 묻다	17. 인류의 스승 공자	• 문장에서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 함양하기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3	10
	18. 묵자와 맹자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3	
	19. 노자와 한비자	•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3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대단원 정리하기 (활동) 제자백가 사색(四色)으로 보기	1	
VIII.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20. 천리마와 백락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하기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3	13
	21. 고구려의 시조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3	
	22. 초패왕의 최후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하기 • 산문의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3	
	23. 목민의 길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 함양하기	3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대단원 정리하기 (활동) 한문 고전 속 인물 인터뷰하기	1	



I 한문을 만나다 28

II 단문, 지혜를 찾다 56

III 이야기, 나를 성찰하다 78

IV 한시, 노래로 말하다 94

V 성어, 유래로 배우다 110

VI 인물, 삶에서 깨닫다 126

VII 철학, 길을 묻다 148

VIII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170

I

한문을 만나다

01 한문의 기초

02 배움과 우정

03 역사 이야기

04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는 한자로 이루어진 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자와 한문은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말의 일부가 되었고, 현재에도 우리의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먼저 한자와 한문의 기초 지식을 배우고 나서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여러 주제의 성어를 배우게 된다. 성어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배우며 한문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보자.

대단원 학습 목표

-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대단원 설정의 이유

이 단원은 고등학교 한문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학습자들이 한문이 나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쉬우면서도 학습자들의 삶의 주제를 담은 내용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다. 먼저 한자와 한문의 기초 지식을 통해 한문 학습의 기본기를 탄탄히 쌓고, 학습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성어 학습으로 나아가 재미있게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성어는 배움과 우정,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내용으로 엄선하였다. 배움과 우정은 고등학생 삶의 주제이기도 하다. 성어를 통해 현재 내 삶의 고민과 주제를 선인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국 역사에서 유래한 성어를 통해 한자 문화권의 지식과 역사에 대한 상식을 넓히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재미있는 유래가 담겨 있으면서도 일상에서의 활용도가 높은 성어를 공부하면서 한문이 언어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❶ 한자를 지도할 때는 자전(사전, 옥편) 활용하기, 자원(字源) 활용하기, 부수(部首) 활용하기, 필순대로 따라 쓰기, 한자 카드 활용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한자의 기초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필순은 일반적인 원칙에 부합하는 한자를 중심으로 지도하며, 필순의 평가는 단순히 한자를 쓰는 순서를 묻기보다는 한자를 정확하고 바르게 쓰는 것에 중점을 둔다.

❷ 성어는 학습자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의미망을 만들어 지식을 체계적으로 확장하거나 신문이나 방송 등 각종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짧은 글을 지어 언어생활에 활용하는 방법 등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평가에서는 겉뜻뿐만 아니라 속뜻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소단원	차시	교과서 쪽수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01. 한문의 기초	2	10~13	• 한자의 모양·음·뜻 구별하기 •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하기 •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구별하기 •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쓰기	• 자원 활용하기 • 부수 활용하기 • 필순대로 따라 쓰기
02. 배움과 우정	2	14~19	• 배움과 우정의 뜻을 담은 성어의 의미 이해하기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성어의 유래 조사·발표하기 •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03. 역사 이야기	2	20~25	• 역사 이야기를 담은 성어의 의미 이해하기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역할 놀이 학습 • 그림·만화 활용하기 • 의미망 만들기
04. 재미있는 이야기	2	26~31	•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의 의미 이해하기 •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수학)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짧은 글짓기 • 그림·만화 활용하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32~35	•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기 •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 고전 문학 작품 속 한자 어휘 조사·발표하기	• 한자 어휘 조사·발표하기

1~2 차시

01 한문의 기초

학습 목표

-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단원 소개

이 단원은 '오늘날 우리가 왜 한자와 한문을 배워야 하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먼저 한자와 한문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한자의 3요소, 부수와 자전,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필순의 일반적 원칙 등 앞으로 한자와 한문을 배우기 위한 기초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중학교 한문과의 연계성 및 중학교에서 한문을 배우지 않은 학습자들을 고려하여 쉽게 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창의 활동'에서는 우리말 속에서 한자 어휘를 찾아보는 활동을 제시하여 학습자들이 한자와 한문은 배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에 필요 없는 옛날 이야기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앞으로 한자와 한문 학습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첫 시간은 학습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한자와 한문을 접한 경험을 발표하는 등 실생활의 사례를 통해 지도한다.

② 한자의 3요소를 알고, 한자를 바르게 읽고 쓰며 비슷한 모양의 한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한자의 부수와 자전에 대한 이해는 생활 속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스마트폰 한자 사전 앱, 인터넷 한자 사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자전을 찾는 기본 원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④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는 상형과 지사, 회의와 형성을 중심으로 지도하되, 전주와 가차의 원리는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⑤ 한자의 필순은 한자를 직접 써 보면서 자연스럽게 필순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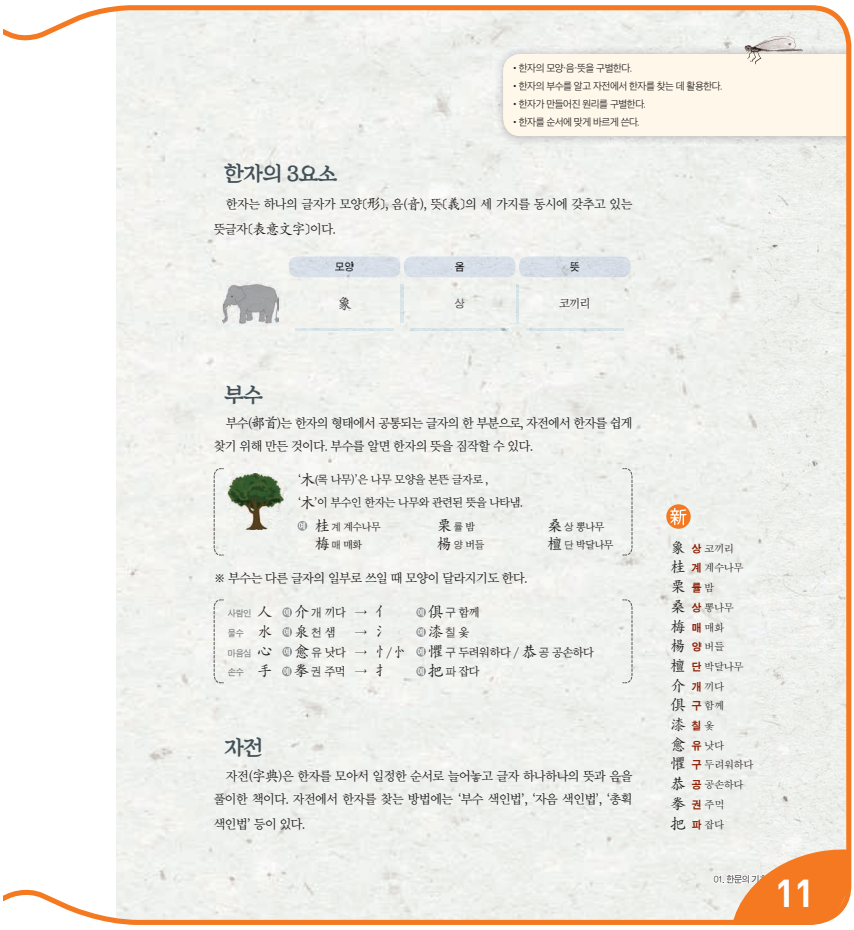
⑥ 평가는 확인하기 문제를 풀며 답을 고르는 과정을 통해 학습 내용을 떠올리고 배운 내용의 충분한 복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한자와 한문을 배우는 이유

한문은 한자로 이루어진 문장이나 글이다. 중국에서 만들어진 한자는 삼국 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데,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공용 문자로 사용되었다.

선조들은 한자와 한문을 삶과 생각을 기록하는 효율적인 의사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는 근간으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 한자와 한문이 우리말 속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현재까지도 한자 어휘가 우리말 어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등 한자와 한문은 우리의 생활과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한자와 한문을 배우면 첫째, 선인들의 사상과 감정은 물론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다. 둘째, 우리말 어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자 어휘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 원만한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셋째, 한자 문화권의 공통 문화를 이해하고 주변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에 참여할 수 있어 한자 문화권 나라 간 상호 이해 증진과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한자의 3요소

한자는 표의 문자로, 하나의 사물이나 개념을 하나의 글자로 나타낸다. 각각의 한자는 그 모양(形)과 그것을 구별하여 읽는 소리(音), 그 글자가 나타내는 뜻(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한자의 3요소라고 한다.

자형(字形)	天	地	人
자음(字音)	천	지	인
자의(字義)	하늘	땅	사람

부수의 이해

부수(部首)란 자전에서 한자를 쉽게 찾기 위해 만든 것이다. 한자의 자형(字形) 구성 면에서 각 글자마다 내포되어 있는 의미 부호(符號) 부분을 추출하고, 그 부분이 공통된 형태의 한자들을 분류하여 부수(部首)로 설정한 것이다. 부수는 어떤 한자의 핵심 의미이자 한자 분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자전에서 부수는 1획에서 17획까지 214자이다. 부수에 대한 이해는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히는 데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부수의 역사적 유래

한자를 자전(字典)에 수록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한다. 후한 때 허신(許愼, 30~124)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540부를 세우고 한자 9,353 글자를 분류하여 수록하는 부수법을 고안하였다. 허신의 부수법은 그 뒤 여러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청나라 강희제의 명으로 이루어진 《강희자전》에서는 5만여 글자를 214개의 부수로 분류하고 부수를 필획의 순으로 늘어놓았다. 우리나라, 일본, 타이완은 대개 강희자전식 부수법을 따른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부수를 재조정하였다. 1953년의 《신화자전》은 189부를 세웠고, 1986년~1993년의 《한어대사전》은 200부를 세웠다.

《강희자전》의 부수법은 글자를 빨리 찾기 위한 실용성을 중시하였지만, 《설문해자》의 부수법은 철학적 관념을 중시하였다. 《설문해자》는 한자를 육서(六書)의 원리에 따라 분석하여 의부(意符)의 구실을 하는 글자를 모두 부수자로 세우고, 그 부수자를 철학적 원리에 따라 배열하였다. 태극을 상징하는 '一(일)'부에서 시작하여 십이지(十二支)의 마지막 '亥(해)'부로 마치는데, 이것을 '시일종해(始一終亥)'라고 한다. 전체 부수의 개수는 '음수 6×양수 9×10배=540부'이다.

사실 한자는 부수보다 발음으로 찾는 것이 편리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자를 운(韻)에 따라 분류한 운서(韻書)가 더 발달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운(韻)을 배우지 않아 운서를 가지고 글자를 찾기 어려우므로 각 나라에서는 자국의 발음 순서에 따라 글자를 배열하는 방식의 색인을 더 많이 사용한다.

※ 《자전석요(字典釋要)》: 대한 제국 융희(隆熙) 3년(1909)에 지석영이 펴낸 자전. 글자의 소리와 뜻을 한글로 달고, 책 끝에 그림을 넣어 한자로 풀이하였다. 1책의 인본(印本). 《자전석요》는 한글로 한자를 풀이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자전이다.

▲ 《자전석요(字典釋要)》, 서울대 병원 의학 박물관 소장

《설문해자》로 보는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❶ 상형

象形者 畫成其物 隨體詰詘 日月是也
상형이란 그려서 그 사물을 이루는 것으로, 형체를 따라 구불구불한 모양이 되니 '日'과 '月'이 그러하다.

→ 상형은 사물의 모양을 그리는 데 있어 선을 구부리거나 펴서 만드는 방법이다. 사물의 형태를 본뜨는 상형은 문자 발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❷ 지사

指事者 視而可識 察而見意 上下是也
지사란 보아서 알 수 있고 살펴서 그 뜻이 나타나는 것으로 '上'과 '下'가 그러하다.

→ 지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無形)의 추상적 개념을 상징적인 부호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本(본)'이나 '末(말)'처럼 이미 만들어진 한자에 기호를 더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❸ 회의

會意者 比類合誼 以見指揮 武信是也
회의란 여러 종류의 한자를 배열하고 뜻을 합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武'와 '信'이 그러하다.

→ 회의는 두 개 이상의 상형자나 지사자를 합하여 그 의미와 의미를 결합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다. 회의는 한자를 만드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진일보한 한자를 만드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❹ 형성

形聲者 以事爲名 取譬相成 江河是也
형성이란 사물로써 뜻을 삼고 발음이 같은 글자의 소리를 취하여 서로 이루는 것으로, '江'과 '河'가 그러하다.

→ 형성은 모양(形: 의미 부분)과 소리(聲: 발음 부분)를 구분해서 결합하는 방법이다. 형성의 조자(造字) 원리는 방법이 쉽고 체계적인 정리가 가능하여 한자의 발전과 확장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❺ 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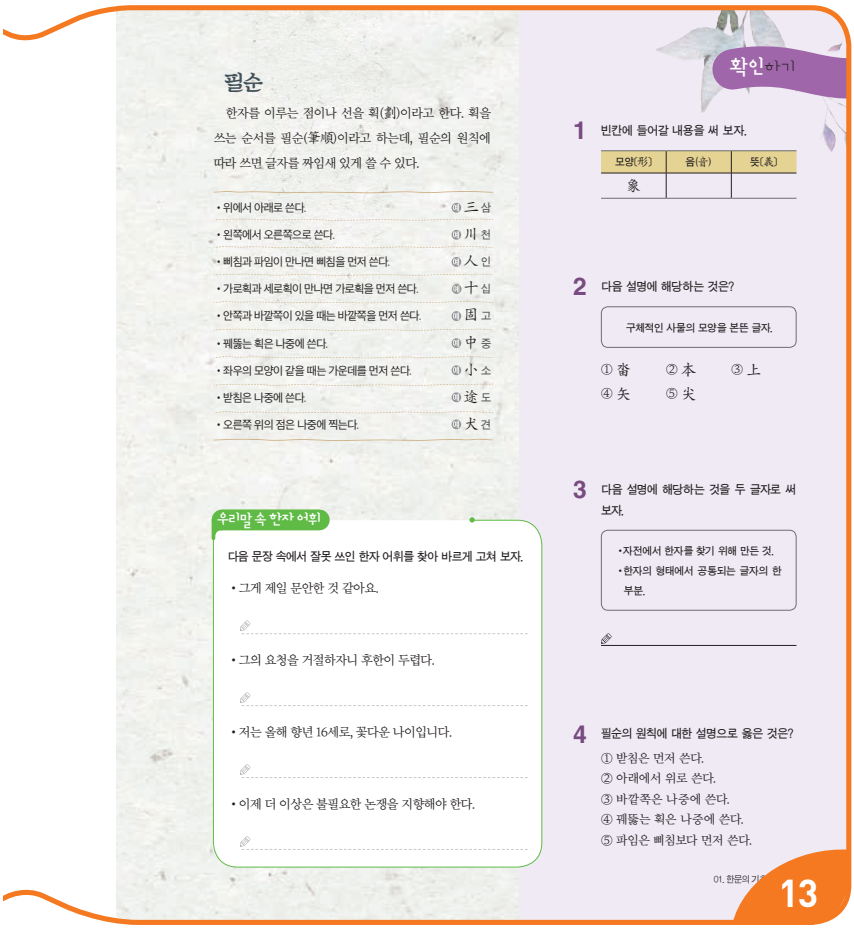
轉注者 建類一首 同意相受 考老是也
전주란 같은 유(類)의 글자를 한 수(首)에 세워 같은 뜻을 서로 주고받는 것으로, '考'와 '老'가 그러하다.

→ 전주는 같은 뜻을 지닌 글자들이 서로 풀이의 관계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의 의미를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방법이다. 기존 글자의 의미를 변화시켜 활용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❻ 가차

假借者 本無其字 依聲託事 令長是也
가차란 본래 그 글자가 없어 소리에 의거해서 사물을 기탁하는 것으로, '令'과 '長'이 그러하다.

→ 가차는 글자를 다른 뜻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다. '長(장)'은 '길다'는 뜻이지만 현령(縣令)과 현장(縣長)이 같은 뜻으로 쓰이는 예이다.



필순

한자를 이루는 점이나 선을 획(劃)이라고 한다. 획을 쓰는 순서를 필순(筆順)이라고 하는데, 필순의 원칙에 따라 쓰면 글자를 짜임새 있게 쓸 수 있다.

- 위에서 아래로 쓴다. ⓓ 三 삼
-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다. ⓓ 川 천
- 삐침과 파임이 만나면 삐침을 먼저 쓴다. ⓓ 人 인
- 가로획과 세로획이 만나면 가로획을 먼저 쓴다. ⓓ 十 십
- 안쪽과 바깥쪽이 있을 때는 바깥쪽을 먼저 쓴다. ⓓ 固 고
-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 中 중
- 좌우의 모양이 같을 때는 가운데를 먼저 쓴다. ⓓ 小 소
- 받침은 나중에 쓴다. ⓓ 途 도
- 오른쪽 위의 점은 나중에 찍는다. ⓓ 犬 견

우리말 속 한자 어휘

다음 문장 속에서 잘못 쓰인 한자 어휘를 찾아 바르게 고쳐 보자.

- 그게 제일 문안한 것 같아요.
- 그의 요청을 거절하자니 후한이 두렵다.
- 저는 올해 향년 16세로, 꽃다운 나이입니다.
- 이제 더 이상은 불필요한 논쟁을 지향해야 한다.

확인하기

1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모양(形)	음(音)	뜻(義)
象		

2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뜬 글자.

① 畜 ② 本 ③ 上
④ 矢 ⑤ 尖

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두 글자로 써 보자.

- 자전에서 한자를 찾기 위해 만든 것.
- 한자의 형태에서 공통되는 글자의 한 부분.

4 필순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받침은 먼저 쓴다.
② 아래에서 위로 쓴다.
③ 바깥쪽은 나중에 쓴다.
④ 꿰뚫는 획은 나중에 쓴다.
⑤ 파임은 삐침보다 먼저 쓴다.

01. 한문의 기

13

우리말 속 한자 어휘

❶ 활동 취지와 지도 방법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문을 공용 문자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일상의 언어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한자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학습자들이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환경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서 한자 어휘를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다. 어휘를 이루고 있는 한자를 알지 못해 어휘를 귀에 들리는 대로 쓰는 과정에서 고유어와 한자어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무심코 잘못 쓰는 한자 어휘를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우리말 속 한자 어휘와 한자·한문 학습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다.

❷ 정답과 해설

① 문안 → 무난 ※ 무난(無難): 별로 어려움이 없음.
② 후한 → 후환 ※ 후환(後患): 뒷날 생기는 걱정과 근심.
③ 향년 → 방년 ※ 방년(芳年): 한창 젊은 꽃다운 나이.
향년(享年): 한평생 살아 누린 나이.
④ 지향 → 지양 ※ 지양(止揚): 하지 않음.
지향(志向): 뜻이 쏠리어 향함.

한자의 필순

한자의 점과 획을 차례차례 써서 하나의 글자를 형성해 가는 순서를 필순(筆順)이라고 한다. 필순은 오랜 기간에 걸쳐 고안된 서법(書法)으로, 글자의 모양을 빠르고 맵시 있게 쓰기 위한 것이다.

예전에 글을 쓸 때는 대부분 붓을 이용했으므로, 서체의 변화와 발전은 붓글씨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붓을 한 번 움직여 쓸 수 있는 부분을 한 획(劃)이라고 하며, 획은 형태에 따라 점과 선으로, 선은 다시 직선과 곡선으로 구별한다. 필순은 결국 점과 선을 잇는 과정이다.

한자는 정방형(正方形)을 기본 모양으로 하기 때문에 한쪽을 너무 길거나 넓게 써서 글자 모양의 균형이나 비례가 맞지 않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자의 필순을 알면 한자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글자를 쓸 때 자체(字體)의 균형과 비례를 유지할 수 있어서 모양을 아름답게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한자를 써 내려갈 수 있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한자의 3요소를 구별하는 문항
[정답] 음(音): 상, 뜻(義): 코끼리
[해설] 한자는 모양과 그것을 읽는 소리, 그리고 그 글자가 나타내는 뜻을 가지고 있다.

❷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하는 문항
[정답] ④
[해설] '矢(시)'는 화살 모양을 본뜬 상형자이다.

❸ 부수의 의미를 묻는 문항
[정답] 부수
[해설] 부수를 알면 한자의 뜻을 짐작할 수 있으며, 부수는 다른 글자의 일부로 쓰일 때 모양이 달라지기도 한다.

❹ 필순의 원칙을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필순은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쓰는 방법이다.

신출 한자

象	(상) 코끼리 豕, 12	象牙 抽象
桑	(상) 뽕나무 木, 10	桑田碧海
檀	(단) 박달나무 木, 17	檀木 檀君
漆	(칠) 옻 水, 14	漆板 漆器
恭	(공) 공손하다 心, 10	恭敬 恭遜
羽	(우) 깃 羽, 6	羽化登仙
斤	(근) 도끼 斤, 4	千斤萬斤
尖	(첨) 뾰족하다 小, 6	尖端 尖銳
囚	(수) 가두다 口, 5	罪囚 囚人
洲	(주) 물가 水, 9	滿洲 三角洲
祀	(사) 제사 示, 8	祭祀 告祀
桂	(계) 계수나무 木, 10	桂皮 桂樹
梅	(매) 매화 木, 11	梅花 梅實
介	(개) 끼다 人, 4	介入 紹介
愈	(유) 낫다 心, 13	-
拳	(권) 주먹 手, 10	拳鬪 拳銃
禾	(화) 벼 禾, 5	禾穀 禾苗
丘	(구) 언덕 一, 5	丘陵 丘墓
析	(석) 쪼개다 木, 8	分析 解析
芳	(방) 꽃답다 艸, 8	芳年 芳春
吐	(토) 토하다 口, 6	吐露 懸吐
途	(도) 길 辶, 11	方途 中途
栗	(률) 밤 木, 10	生栗 栗谷
楊	(양) 버들 木, 13	垂楊 楊柳
俱	(구) 함께 人, 10	俱存
懼	(구) 두려워하다 心, 21	疑懼 悚懼
把	(파) 잡다 手, 7	把握 把持
矢	(시) 화살 矢, 5	弓矢 嚆矢●
畓	(답) 논 田, 9	田畓 開畓
岳	(악) 큰 산 山, 8	山岳 五岳●
州	(주) 고을 巛, 6	廣州 濟州
玆	(자) 이 玄, 10	來玆 今玆

한자 수업 지도 방법

한자 수업은 기초 한자(1,800자)의 음과 뜻을 아는 것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바람직한 한자 학습은 우리말을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학습자들에게 우리말 어휘력을 높이고 언어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이 교착어(膠着語)라는 점을 이해하게 한다. 특히 의미 단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한자가 몇 개 이상만 모여도 수많은 조어(造語)를 이룰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 한자 어휘 학습 효과의 전이(轉移)가 높은 대표적인 것은 용언류이다.

예 분(憤): 분(憤)하다, 분통(憤痛), 분노(憤怒), 격분(激憤), 분개(憤慨), 비분강개(悲憤慷慨) …

단(斷): 단식(斷食), 단면(斷面), 단절(斷絶), 절단(切斷), 판단(判斷), 결단(決斷) …

※ 교착어(膠着語): 언어의 형태적 유형의 하나.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 또는 어간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차례로 결합함으로써 문장 속에서의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언어로, 한국어, 터키어, 일본어 따위가 여기에 속함.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효시(嚆矢): 우는살.

→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시작되어 나온 맨 처음.

유래 효시는 전쟁을 시작할 때 우는살을 먼저 쏘았다는 데에서 유래하였다. 《장자》 〈재유편(在宥篇)〉의 "증삼과 사추가 걸왕이나 도척의 효시가 되지 않는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가?(焉知曾史之不爲桀跖嚆矢也)"라는 문장에서 그 쓰임을 찾아볼 수 있다.

* 사추(史鰌): 중국 춘추 시대 위(魏)나라 사람으로, 강직한 인물.
* 도척(盜跖): 중국 춘추 시대의 큰 도둑으로, 몹시 악한 사람.

● 오악(五岳/五嶽): 우리나라의 이름난 다섯 산. 동의 금강산, 서의 묘향산, 남의 지리산, 북의 백두산, 중앙의 삼각산을 이름. 오악은 동서남북과 중앙 지역을 대표하는 산으로, 봄가을에 제사를 지냈는데 이는 국가가 관장했다. 오악의 개념은 산악에 대한 신앙으로 중국 전국 시대 이후 오행 사상(五行思想)에 의하여 생겼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참고 자료

한자는 몇 글자나 될까

고유의 음과 뜻을 가진 한자는 4~5만 자 정도이다. 《강희자전》에는 약 4만 9천여 자가 실려 있지만, 현대 중국의 《신화자전》에는 1만 3천여 자가 실려 있다. 기원후 100년에 나온 《설문해자》에 9천여 자가 실려 있던 것을 생각하면, 실제 사용되는 한자의 수는 그리 늘지 않았다. 실상 한자 문화권에서 자주 쓰이는 한자는 4~5천 자 정도이다. 주요 한문 고전을 대상으로 한자 사용 빈도를 조사하면, 2천 500자가 96%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자 수

BC 1000	갑골문	4,500자
AD 100	설문해자	9,353자
1066	유편(類篇)	31,319자
1716	강희자전	47,035자
1990	한어대사전	54,678자
2012	국제문자부호집 유니코드 한자	76,000여 자

- 심경호, 《한학 입문》 참조

* 《유편(類篇)》: 중국 북송 때의 학자이자 정치가 사마광(司馬光, 1019~1086) 등이 편찬한 자서.

육서(六書)

《주례》 〈지관 보씨(地官保氏)〉에 따르면 귀족의 자제들은 여덟 살에 소학(小學)에 들어가 보씨(保氏)에게 육서(六書)를 배웠다고 한다. 《주례》에 주석을 붙인 후한 말기의 정현(鄭玄)은 정중(鄭衆)의 주를 인용하여 상형, 회의, 전주, 처사(處事), 가차, 해성(諧聲)을 육서라고 하였다. 또 《한서》 〈예문지(藝文志)〉의 '소학(小學)'에서는 보씨가 귀족 자제들에게 상형, 상의(象意), 상성(象聲), 전주, 가차의 육서를 가르쳤으며 이는 조자(造字)의 근본이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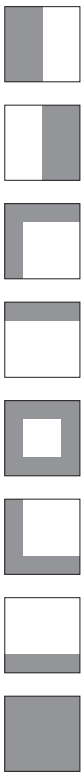
현재와 같은 육서의 분류와 분류 기준이 정착된 것은 허신이 저술한 《설문해자》에 근거하였다. 허신은 이 책의 서론에서 육서를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전주, 가차로 분류하였다. 이후 육서는 한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되었고, 한자의 어원을 탐색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한자에서 각 분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형자와 지사자가 가장 낮고, 형성자가 가장 높다.

종류	자수	비율	비고
상형	608자	2.5%	창조 원리 문(文)
지사	107자	0.4%	
회의	740자	3.1%	결합 원리 자(字)
형성	21,810자	90%	
전주	372자	1.5%	운용 원리 용자(用字)
가차	598자	2.4%	
합계	24,235자	100%	

▲ 송나라 정초(鄭樵)의 육서 분류법, 《통지(通志)》

부수의 위치와 이름

부수(部首)는 글자에서 놓인 위치에 따라 이름이 각각 다르다. 변, 방, 엄, 머리, 몸, 받침, 발, 제부수의 8가지로 나눈다. 부수의 위치를 이해하면 한자를 쉽게 익힐 수 있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도 도움이 된다.



변
한자의 왼쪽에 있는 부수
예 村(마을 촌, 부수: 木)

방
한자의 오른쪽에 있는 부수
예 功(공 공, 부수: 力)

엄
위와 왼쪽 아래로 위치한 경우의 부수
예 座(자리 좌, 부수: 广)

머리
한자의 윗부분에 있는 부수
예 花(꽃 화, 부수: ⺾)

몸
글자를 에워싸고 있는 위치의 부수
예 國(나라 국, 부수: 口)

받침
왼편에서 아랫부분까지의 부수
예 道(길 도, 부수: 辶)

발
한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부수
예 熱(더울 열, 부수: 灬)

제부수
한자 그대로가 부수
예 日(날 일, 부수: 日)

* 부수(전체 214자)를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로 분류하면 상형자가 149자, 추상적 상징의 약속인 지사자가 17자, 의미끼리의 결합인 회의자가 21자, 의미와 발음의 결합인 형성자가 27자이다.

1~2 차시

02 배움과 우정

학습 목표

- 배움과 우정의 뜻을 담은 성어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단원 소개

이 단원에서는 배움과 우정을 뜻하는 성어를 학습한다. 언뜻 보면 배움과 우정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질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진 단원인 것 같다. 하지만 학습자들의 학교생활 중 대부분을 '배움'과 '우정'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치 교육이나 인성 교육 차원에서 응용 가치가 큰 단원이다. 학습자들은 '배움'과 '우정'에 대한 큰 주제를 배우고 더 나아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당위적(當爲的)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한문을 처음 배우는 학습자들을 감안하여 학습자들이 어려운 한자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여 지도한다.

② 배움과 관련된 성어를 지도할 때에는 딱딱하고 교훈 위주의 설명이 되기 쉬우므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단순히 강조하기보다는 노력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어 지도한다.

③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준비하여 우정에 관해 지도하고, 우정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발표하게 하여 학습자 주도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④ 어조사 '之(지)'의 쓰임과 같은 한문 독해에 필요한 핵심 개념은 필수적으로 지도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풀이 중심이 아닌 문법 용어 중심의 설명(예 관형격 조사, 주격 조사)은 개정 한문과 교육 과정에서 지향하는 바가 아님에 유의한다.

02 배움과 우정

성어는 뜻을 두세너 글자 정도로 함축하거나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성어 속에는 옛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나 지혜가 담겨 있다. 배움과 우정을 주제로 한 성어를 통해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워 보자.

溫故知新

發憤忘食

斷機之戒

14

성어의 풀이와 이해

溫故知新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앎.

→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 '溫故'와 '知新'의 관계는 溫故 = 知新으로 대등하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선후 관계를 따져 보았을 때 溫故 > 知新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옛것만을 강조한다면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고 새것만 주장한다면 전통이 무시될 것이다. '溫故'에서 '知新'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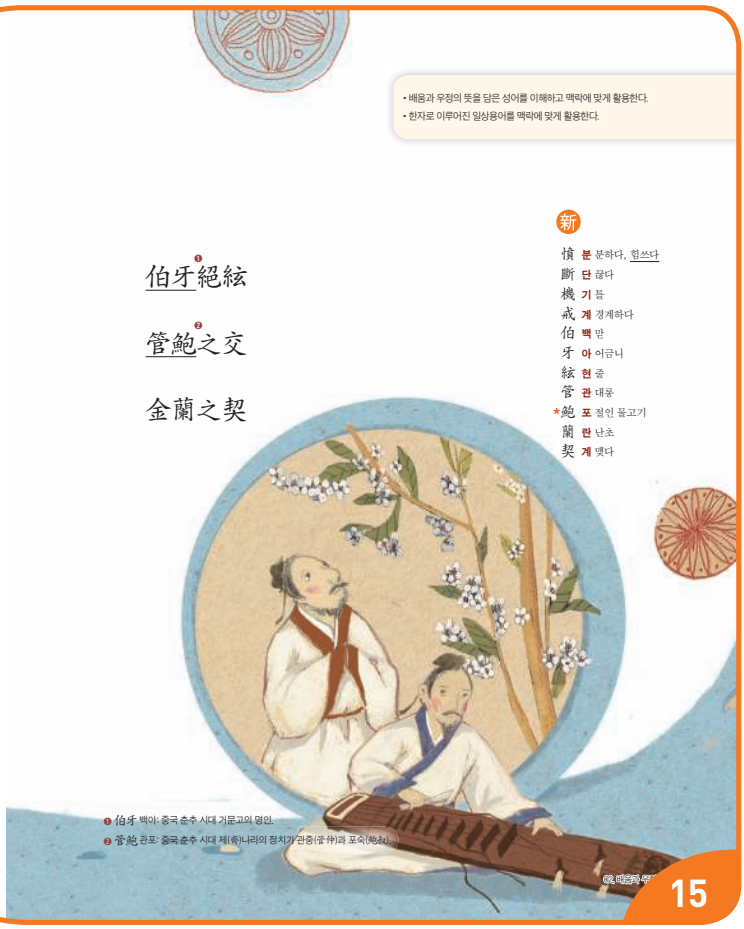
유래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溫故而知新 可以爲師矣)

-《논어》〈위정〉

發憤忘食

분(힘)을 내어 먹는 것을 잊음.

→ 끼니까지도 잊을 정도로 어떤 일에 열중하여 노력함.



유래 섭공이 자로에게 공자에 대하여 물었는데 자로가 대답하지 못하자 공자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그의 사람됨은 분을 내어 먹는 것을 잊고, 배움을 즐겨서 걱정도 없으며 장차 늙어 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일 뿐이다.'라고 말하지 못하였느냐?"(葉公問孔子於子路 子路不對 子曰 女奚不曰其爲人也 發憤忘食 樂以忘憂 不知老之將至云爾)

-《논어》〈술이〉

» 학문에 대해 '분(憤)'하는 마음은 〈술이〉 편의 다른 장에서도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공자가 말하였다. "(배우는 사람이 가슴에 궁금한 것이 가득 차서) 답답해하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를 계도해 주지 않고, 표현해 내지 못해서 더듬거리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나는 그를 일깨워 주지 않으며, 한 방면을 가르쳐 주면 나머지 세 방면을 스스로 알아서 반응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반복해서 그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子曰 不憤不啓 不悱不發 擧一隅不以三隅反 則不復也)"

斷機之戒

(짜던) 베를 끊은 경계.

→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짜던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음.

유래 맹자가 학업을 중단하고 돌아오자, 그 어머니가 짜던 베를 끊어 훈계하였다는 데서 유래함.

-《열녀전》

» 옷감을 짤 때 베의 가로 방향에 놓인 줄을 씨줄이라고 하고, 세로 방향에 놓인 줄을 날줄이라고 한다. 베를 끊는다는 것은 날줄을 끊는다는 의미다. 직물은 짜서 완성되었을 때 실용성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맹모는 짜던 베를 칼로 잘라 쓸모없게 된 베를 보여 주며 맹자에게 배움 역시 중도에 그만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가르침을 주었다.

伯牙絕絃

백아가 (거문고) 줄을 끊음.

→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유래 중국 춘추 시대에 백아(伯牙)는 거문고를 매우 잘 탔고 그의 벗 종자기(鍾子期)는 그 거문고 소리를 잘 들었는데, 종자기가 죽어 거문고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게 되자 백아가 절망하여 거문고 줄을 끊어 버리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는 데서 유래함.

-《열자》〈탕문편〉

管鮑之交

관중과 포숙의 사귐. →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

유래 나를 낳은 이는 부모이고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生我者父母 知我者鮑叔也)

-《사기》〈관안 열전〉

金蘭之契

쇠와 난초의 맺음. → 매우 두터운 우정.

유래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金〕를 자를 수 있고, 마음을 같이한 말은 그 향기가 난초〔蘭〕와 같다.(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역경》〈계사전상〉

관중과 포숙의 우정

관중은 공자 규(糾)를 섬기고 포숙은 공자 소백(小白)을 섬겼다. … 관중은 대부 소홀과 함께 공자 규를 모시고 노(魯)나라로 도망쳤고 포숙은 공자 소백을 모시고 거(莒)나라로 도망갔다. 얼마 뒤 제나라 왕인 양공의 사촌인 공손무지(公孫無知)가 반란을 일으켜 제나라에 임금이 없게 되자 두 공자는 먼저 제나라에 입성하려고 다투었다. 관중은 소백과 거나라에서 전쟁을 하다 활로 소백의 허리띠를 맞혔다. 소백은 왕위에 오른 다음 노나라를 협박하여 공자 규를 죽이도록 했다. 이때 소홀은 죽임을 당했고 관중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포숙이 환공에게 말했다. "관중의 능력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환공이 말했다. "나의 원수다. 죽여야겠다." 포숙이 말했다. "제가 듣기로는 현명한 임금은 사사로운 원한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그의 군주를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께서 만약 뛰어난 패왕이 되시고자 한다면 관중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임금께서는 반드시 그를 풀어 주셔야 합니다."(吾聞賢君無私怨 且人能爲其主 亦必能爲人君 如欲霸王 非夷吾其弗可 君必舍之)

-《열자》〈역명〉

성어의 유래

- **금슬**(琴瑟): 고대 음악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금과 슬은 꼭 붙어 다녔다. 둘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다. 그래서 금과 슬이 서로 화답한다는 뜻의 '금슬상화(琴瑟相和)'나 '금슬지락(琴瑟之樂)'과 같은 말이 생겨 났다. '금(琴)'은 크기가 작고 여성이 연주하는 악기였으므로 아내를 뜻하고, '슬(瑟)'은 크기도 크고 남성이 연주하였으므로 남편을 상징한다.

-《살아 있는 한자 교과서》 참조

- **안서**(雁書): 한무제(漢武帝) 때 소무(蘇武)가 흉노의 포로를 호송하러 갔다가 붙들렸다. 소무는 흉노에게 갖은 고초를 겪었지만 항복하지 않고 살아남았다. 무제가 죽고 소제(昭帝)가 즉위한 후, 한나라는 흉노에게 소무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흉노는 소무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자 한 사신이 "천자께서 사냥하시다가 기러기를 잡았는데, 기러기 발에 소무가 살아 있다는 비단 편지가 매여 있었습니다."라고 꾀를 내어 말했다. 흉노왕이 깜짝 놀라며 잘못을 사과하고 소무를 돌려주었고 소무는 19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한서》〈소무전〉

신출 한자

憤	(분) 분하다, 힘쓰다 心, 15	公憤 憤痛
戒	(계) 경계하다 戈, 7	懲戒 訓戒
絃	(현) 줄 糸, 11	絃樂 彈絃
蘭	(란) 난초 艸, 21	蘭草 春蘭
紛	(분) 어지럽다 糸, 10	紛亂 紛紛
組	(조) 짜다 糸, 11	組織 組合
脈	(맥) 줄기 肉, 10	血脈 文脈
繫	(계) 매다 糸, 19	連繫 繫留
慨	(개) 슬퍼하다 心, 14	慨歎 感慨
敦	(돈) 도탑다 攴, 12	敦厚 敦義門
*瑟	(슬) 큰거문고, 비파 玉, 13	琴瑟
謠	(요) 노래 言, 17	歌謠 民謠
演	(연) 펴다 水, 14	演說 演技
冠	(관) 갓 冖, 9	弱冠 冠詞
壓	(압) 누르다 土, 17	彈壓 壓迫
斷	(단) 끊다 斤, 18	斷食 禁斷
伯	(백) 맏 人, 7	伯父 伯仲之勢
管	(관) 대롱 竹, 14	血管 雷管
契	(계) 맺다 大, 9	契約 契機
紀	(기) 벼리 糸, 9	紀綱 紀元
織	(직) 짜다 糸, 18	織女 織物
絹	(견) 비단 糸, 13	絹絲 人絹
聯	(련) 잇다 耳, 17	聯合 聯盟
械	(계) 기계 木, 11	機械 刑械
篤	(독) 도탑다 竹, 16	篤志 危篤
菊	(국) 국화 艸, 12	秋菊 黃菊
拍	(박) 치다 手, 8	拍車 拍手
奏	(주) 아뢰다, 연주하다 大, 9	奏請 合奏
雁	(안) 기러기 隹, 12	鴻雁 木雁
眉	(미) 눈썹 目, 9	眉間 白眉
機	(기) 틀 木, 16	機械 機會
牙	(아) 어금니 牙, 4	象牙 齒牙
*鮑	(포) 절인 물고기 魚, 16	管鮑之交
糾	(규) 얽히다 糸, 8	糾明 糾彈
綱	(강) 벼리 糸, 14	大綱 綱目
絡	(락) 잇다 糸, 12	脈絡 經絡
緯	(위) 씨줄 糸, 15	緯度 北緯
繼	(계) 잇다 糸, 20	繼承 繼續
警	(경) 경계하다 言, 20	警察 警備
琴	(금) 거문고 玉, 12	心琴 奚琴
詞	(사) 말씀 言, 12	品詞 歌詞
譜	(보) 족보 言, 19	族譜 系譜
伴	(반) 짝 人, 7	伴侶 隨伴
鏡	(경) 거울 金, 19	眼鏡 望遠鏡

한자 카드 게임을 통한 한자 익히기

❶ 한자 카드(앞면에는 한자를 쓰고, 뒷면에는 음과 뜻을 씀)를 만들어 모둠별로 나눠 준다.

❷ 한자 카드를 보며 10분간 한자를 외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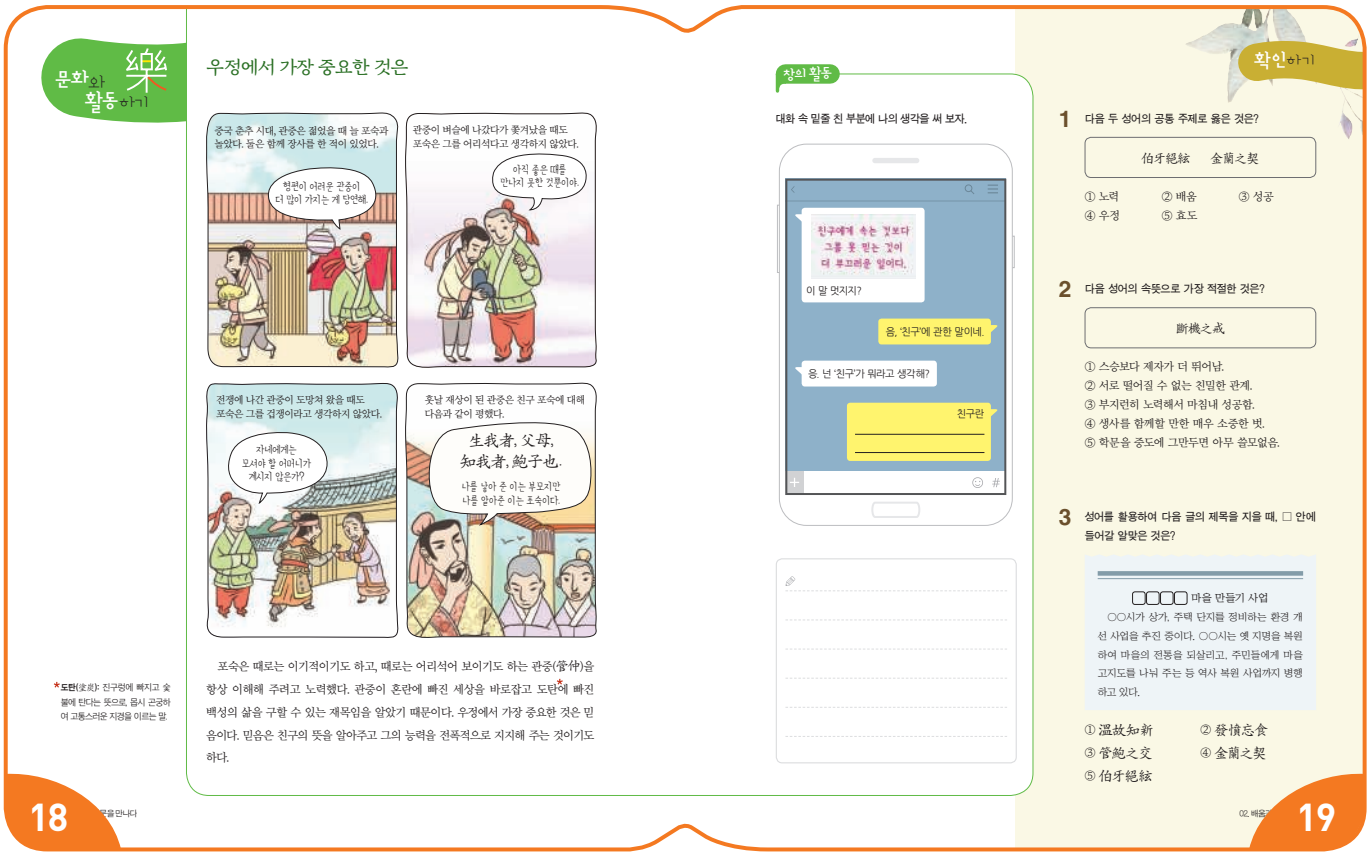
❸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전체 카드를 모아 가운데 두고, 순서를 정하여 차례대로 한자를 맞히게 한다.

❹ 카드의 앞면만 보고 음과 뜻을 맞히면 해당 카드를 가져가고 맞히지 못하면 다음 사람에게 차례가 넘어간다.

❺ 한자 카드를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이 승리한다.

사자성어 읽기 지도 방법

네 자로 이루어진 성어를 읽을 때 보통 의미상 두 부분으로 띄어 읽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예컨대 '目不識丁(목불식정)'의 경우 문장의 구조와 성분을 고려하여 띄어 읽는다면 '목∨불식∨정[눈이∨알지 못한다∨고무래를]'과 같이 세 부분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편의적으로 '목∨불식정'과 같이 크게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누어 읽기도 한다. 비슷한 예로 '용불용설(用不用說)'은 '용∨불용∨설'로 읽지 않고 '용∨불용설'로 읽는다.



창의 활동 _ 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친구'나 '우정'의 말뜻이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교육이 될 수 있다. 청소년기는 독립심이 형성되는 시기임과 동시에 의존성이 강한 시기이다. 학습자들은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은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수업 시 실제로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친구의 의미를 주고받는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혹시 스마트폰 사용에 제한이 있는 학교(학급)의 경우에는 친구의 부류를 나누어(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현재 등 지금까지 학교급별로 만났던 친구들을 구분할 수도 있음) 발표해 보게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예시 답안

• 친구란,
부모님한테 못하는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존재.
다른 대학에 가더라도 늘 마음만은 함께인 존재.
매일 보며 서로 조금씩 욕하면서 찐한 정이 드는 존재.
나를 응원하다가도 가끔은 나를 미워하고 있는 존재.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 백아절현(伯牙絕絃): 자기를 알아주는 참다운 벗의 죽음을 슬퍼함.
• 금란지계(金蘭之契): 우정이 아주 돈독한 친구 관계.
※ 두 성어 모두 돈독한 선의의 사귐과 관련된 성어이다.

❷ 성어의 속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⑤

[해설] 단기지계(斷機之戒): 학문을 중도에 그만두면 베의 날을 끊는 것처럼 아무 쓸모없음.

❸ 성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①

[해설]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앎. ※ 전통을 계승해 마을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은 온고지신의 속뜻과 관련이 있다.

참고 자료

단기지계, 출전 해의(解義)와 원문

《열녀전(列女傳)》은 전한(前漢) 시대 사상가 유향(劉向)이 고대로부터 한대(漢代)에 이르는 시기의 중국의 현모, 열녀들의 약전(略傳), 송(頌), 도설(圖說)을 엮은 책으로, 모두 7권 10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권의 주제는 훌륭한 어머니〔母儀傳〕, 현명한 아내〔賢明傳〕, 지혜로운 여성〔仁智傳〕, 예와 신의를 지킨 여성〔貞順傳〕, 인간의 도리를 실천한 여성〔節義傳〕, 지식과 논리를 갖춘 여성〔辯通傳〕, 나라와 가문을 망친 여성〔孽嬖傳〕이다. 각 편의 구성은 역사 인물의 전기를 산문 형식으로 서술한 본문과 그 주인공의 핵심적인 행위를 짤막하게 요약한 운문 형식의 송(頌)이 말미를 장식하고 있다.

[단기지계 원문] 孟子之少也 旣學而歸 孟母方績 問曰 學何所至矣 孟子曰 自若也 孟母以刀斷其織 孟子懼而問其故 孟母曰 子之廢學 若吾斷斯織也 夫君子 學以立名 問則廣知 是以居則安寧 動則遠害 今而廢之 是不免於廝役 而無以離於禍患也 … 孟子懼 旦夕勤學不息 師事子思 遂成天下之名儒 君子謂孟母知爲人母之道矣 … 頌曰 孟子之母 敎化列分 處子擇藝 使從大倫 子學不進 斷機示焉 子遂成德 爲當世冠

[풀이] 맹자가 어릴 적에 배움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맹자 어머니가 베를 짜다가 묻기를, "배움이 어디까지 이르렀느냐?" 하자 맹자가 "전과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맹자 어머니가 칼로 그 베를 잘랐다. 맹자가 두려워 그 이유를 물으니 맹자 어머니가 말하기를, "네가 학문을 그만둔 것은 내가 이 베를 자르는 것과 같다. 무릇 군자는 학문을 배워 이름을 날리고, 물어서 앎을 넓혀야 한다. 이 때문에 머무를 때 편안할 수 있고, 행동할 때 해로움을 멀리할 수 있다. 지금 네가 학문을 그만두면 다른 사람의 부림을 면하지 못하며, 화환(禍患: 재앙과 환난)에서 멀어질 수 없다." … 맹자가 두려워하여 낮밤으로 배움에 힘쓰는 것을 쉬지 않고 자사(子思)를 스승으로 섬겨 마침내 천하의 이름난 선비가 되었다. 군자가 말하기를, "맹자 어머니는 사람의 어머니가 되는 도리를 알았다."라고 하였다. … 송(頌)에 말하였다. '맹자 어머니는 사는 곳을 옮겨가며 자식을 가르쳤네. 자식에게 육예(六藝)를 선택하여 큰 도리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들의 배움이 진척되지 않자 짜던 베를 끊어 보여 주었도다. 아들이 마침내 덕을 이루고 당대에 명예를 얻었도다.'

관포지교의 유래와 관중

관중은 말했다. "내가 처음 곤궁할 때 포숙과 장사를 했는데 이익을 나눌 때 내가 많이 가져갔지만, 포숙은 내가 욕심이 많다고 여기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포숙과 일을 도모하다가 더 큰 곤궁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포숙은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시기에 좋고 나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세 번 벼슬에 나갔다가 세 번 모두 군주에게 쫓겨났는데, 포숙은 내가 못났다고 여기지 않았다. 내가 때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세 번 전투에 나가 세 번 도망쳤지만 포숙은 나를 겁쟁이로 생각하지 않았다. 내게 늙은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공자 규(糾)가 패하자 소홀(召忽)은 죽고 나는 죄인이 되어 굴욕을 당했지만 포숙은 나를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작은 절개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세상에 공(功)을 세워 이름을 날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다."(公子糾敗 召忽死之 吾幽囚受辱 鮑叔不以我爲無恥 知我不羞小節而恥功名不顯於天下也 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也)

-《사기》〈관안 열전〉

» 관중에 대한 인물됨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비교적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평가를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논어》에 나타난 공자와 자공의 대화를 통해 관중의 인물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자공이 물었다. "관중은 인(仁)한 사람이 아니지요? 환공이 공자 규를 죽였을 때, 관중은 따라 죽지 않고 환공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관중이 환공의 재상이 되어 (환공이) 패업을 이루게 하여 천하를 바로잡아 백성들이 지금까지 그 혜택을 입고 있다. 만약 관중이 아니었다면 나는 머리를 풀고 옷섶을 왼쪽으로 여미는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다. 어찌 보통 사람들이 작은 신의를 위해 스스로 도랑에서 목숨을 끊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과 같겠느냐?"(子貢曰 管仲非仁者與 桓公殺公子糾 不能死又相之 子曰 管仲相桓公 覇諸侯 一匡天下 民到于今受其賜 微管仲 吾其被髮左衽矣 豈若匹夫匹婦之爲諒也 自經於溝瀆而莫之知也)

-《논어》〈헌문〉

1~2 차시

03 역사 이야기

학습 목표

- 역사 이야기를 담은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단원 소개

이 단원에서는 중국 역사에서 유래하여 한자 문화권 나라에 널리 알려진 고사성어를 배우게 된다. 성어는 춘추 전국 시대부터 진(秦)나라를 거쳐 위(魏), 촉(蜀), 오(吳) 삼국 시대까지의 시대별로 제시하였다.

학습자들은 성어의 유래가 된 흥미진진하면서도 주요한 역사 사건과 배경 이야기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중국의 역사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다. 또한 성어의 유래를 통해 속뜻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역사가 현재의 우리에게 주는 의미심장한 교훈까지도 배우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본문 고사성어는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중국 역사의 간단한 소개와 함께 성어의 유래를 시대순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중국 역사와 관련한 지식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는다.

② 고사성어는 개인별, 모둠별 학습이 가능하다.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짧은 글짓기, 의미망 만들기,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기 등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성어의 겉뜻뿐만 아니라 속뜻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03 역사 이야기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들은 중국 역사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를 공통으로 사용한다. 초와 한, 그리고 위·촉·오 삼국의 전쟁과 같이 중국 역사상 흥미진진한 장면에서 유래한 성어를 배우며 역사 속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들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 보자.

吳越同舟　　指鹿爲馬

20

성어의 풀이와 이해

吳越同舟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한배에 타고 있음.

→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

유래 오나라와 월나라는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이지만 그들이 한배를 타고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다고 가정한다면 원수처럼 맞붙어서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양쪽 어깨에 붙은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처럼 서로 도울 것이다. -《손자》〈구지〉

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

→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

유래 진(秦)나라의 조고(趙高)가 이세 황제(二世皇帝)에게 사슴을 말이라고 속여 바친 일에서 유래함. -《사기》〈진시황 본기〉

• 역사 이야기를 담은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背水之陣　四面楚歌

桃園結義　泣斬馬謖[1]

新
*吳 오 나라 이름
越 월 뛰어넘다, 나라 이름
舟 주 배
鹿 록 사슴
背 배 등
陣 진 진 치다
*楚 초 나라 이름
桃 도 복숭아
*斬 참 베다
*謖 속 일어나다

[1] 馬謖 마속: 중국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무장.

背水之陣

물을 등지고 치는 진.

→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맞섬.

유래 한(漢)나라의 한신(韓信)이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군사들이 물러서지 못하고 힘을 다해 싸우도록 하여 조(趙)나라의 군사를 물리쳤다는 데서 유래함.

» 한신이 조나라와 싸울 때 강물을 등 뒤에 두고 진을 쳐서 이기자 여러 장수가 그 까닭을 물었다. 한신이 "병법에 '죽을 곳에 빠진 뒤라야 살 수 있고, 망할 곳에 놓인 뒤라야 남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또한 내가 평소에 훈련받은 사대부들을 따르게 한 것이 아니라 시장 바닥의 사람들을 몰아다가 싸우게 한 것이다. 그 형세로 보아 죽을 곳에 놓아두어 군사들에게 스스로 싸우게 하지 않고 지금 살 곳을 준다고 하면 모두 달아날 것이니, 어찌 그들을 얻어서 쓸 수가 있었겠소?"라고 대답하였다.(兵法不曰 陷之死地而後生 置之亡地而後存 且信非得素拊循士大夫也 此所謂驅市人而戰之 其勢非置之死地 使人人自爲戰 今予之生地 皆走 寧尙可得而用之乎)

-《사기》〈회음후 열전〉

四面楚歌

사방에서 (들려오는) 초나라 노래.

→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

* 面(면): (1) 얼굴 (2) 방위, 방향

유래 한(漢)나라 군사들이 밤중에 사방에서 초(楚)나라 노래를 부르자 고향 생각에 사기가 떨어진 초나라 군사들이 도망가 패배한 데서 유래함.

-《사기》〈항우 본기〉

桃園結義

복숭아나무 동산에서 의형제를 맺음.

→ 뜻이 맞는 사람끼리 같은 목적을 위해 행동을 같이할 것을 약속함.

* 결의(結義): 남남끼리 형제, 자매, 부자 등 친족의 의리를 맺음.

유래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桃園)에서 의형제를 맺은 데서 유래함.

-《삼국지연의》

泣斬馬謖

울며 마속의 목을 벰.

→ 큰 목적을 위해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

유래 삼국 시대 촉(蜀)나라 제갈량이 군령을 어겨 가정(街亭) 싸움에서 크게 패한 마속을 눈물을 머금고 참형에 처하였다는 데서 유래함.

-《삼국지》〈촉서·마속전〉

출전

- 《사기(史記)》: 중국 전한의 사마천(司馬遷)이 상고 시대의 오제(五帝)부터 한나라 무제 태초 연간(B.C. 104~101)의 중국과 그 주변 민족의 역사를 포괄하여 저술한 통사.
-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중국의 위, 촉, 오 세 나라의 역사를 바탕으로 전승되어 온 이야기들을 14세기에 나관중(羅貫中)이 장회 소설(章回小說)의 형식으로 편찬한 장편 역사 소설.
- 《삼국지(三國志)》: 중국 진(晉)나라 때 진수(陳壽)가 편찬한 위, 촉, 오 삼국의 정사(正史).

중국 역사 상식

- **신화의 시대**: 성군(聖君) 요임금과 순임금이 다스리던 시절. 태평성세(太平盛世)의 대명사. → 堯舜時代
- **하**(夏 B.C. 약 207~B.C. 약 1600): 전설상의 하나라.
- **은**(殷 B.C. 1600~B.C. 1046): 갑골문의 은나라. = 상(商)
- **주**(周 B.C. 1046~B.C. 256): 중국 역사에서 가장 길게 존재하여 중화 문명의 토대가 된 봉건제의 주나라.
- **춘추 시대**(春秋時代 B.C. 770~B.C. 403): 주나라가 동쪽으로 도읍을 옮긴 후부터 약 360년간의 전란 시대. 공자가 지은 역사책인 《춘추》에서 유래.
- **전국 시대**(戰國時代 B.C. 403~B.C. 221): 진(秦)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약 200년간의 과도기. '전국 칠웅'이라는 일곱 개의 제후국이 세력을 다툰 시기. → 吳越同舟
- **진**(秦 B.C. 221~B.C. 207):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 기원전 207년 한고조 유방에게 멸망. → 指鹿爲馬
- **한**(漢 B.C. 202~220): 초나라 항우와 한나라 유방의 대결에서 유방의 승리로 한나라 건국. → 背水陣, 四面楚歌
- **삼국 시대**(三國時代 220~280): 위(魏)나라 조비에게 후한(後漢)이 몰락한 후 기원전 3세기경 위, 촉, 오 삼국이 대립한 약 40년 동안의 시기. → 桃園結義, 泣斬馬謖

성어의 유래

- **합종연횡**(合從連衡): 전국 시대의 유세가였던 장의(張儀)와 소진(蘇秦)이 주장했던 정책인 합종책과 연횡책을 일컬음. 강대국이었던 진(秦)나라에 대항하여 6개의 나라(한, 위, 조, 연, 제, 초)가 연합하자고 주장한 소진의 계책이 합종책. 6개의 나라가 강한 진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진나라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장의의 연횡책.
- **국사무쌍**(國士無雙): 한(漢)나라의 명장 소하(蕭何)가 한신을 한고조 유방에게 추천할 때, "한신만은 국사로서 둘도 없는 사람입니다.(至如信者 國士無雙)"라고 한 데서 유래함.
- **순망치한**(脣亡齒寒): 춘추 시대 말 진(晉)나라 헌공이 괵(虢)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통과국인 우(虞)나라에게 그곳을 지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자 우나라 신하 궁지기가 이를 반대하며 "괵나라와 우나라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 사이라 괵나라가 망하면 우나라도 망할 것입니다. 옛말에 '수레의 짐받이 판자와 수레는 서로 의지하고,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립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괵나라와 우나라의 관계를 말합니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함.

신출 한자

*吳	(오) 나라 이름 口, 7	吳越同舟
鹿	(록) 사슴 鹿, 11	逐鹿● 白鹿潭
*楚	(초) 나라 이름 木, 13	楚辭 苦楚
*謾	(속) 일어나다 言, 17	泣斬馬謾
腸	(장) 창자 肉, 13	大腸 腸內
胞	(포) 태, 세포 肉, 9	細胞 同胞
臟	(장) 오장 肉, 22	肝臟 心臟
腰	(요) 허리 肉, 13	腰痛 腰絕●
屈	(굴) 굽히다 尸, 8	屈伏 屈從
複	(복) 겹치다 衣, 14	複雜 重複
抽	(추) 뽑다 手, 8	推測 抽籤
擴	(확) 넓히다 手, 18	擴張 擴充
縱	(종) 세로 糸, 17	縱列 縱隊
雙	(쌍) 두 隹, 18	雙頭 雙手
差	(차) 어긋나다, 사신 보내다 工, 10	差異 差使
越	(월) 뛰어넘다, 나라 이름 走, 12	越權 楚越
背	(배) 등 肉, 9	背信 背反
桃	(도) 복숭아 木, 10	桃花 黃桃
豚	(돈) 돼지 豕, 11	豚肉 養豚
肩	(견) 어깨 肉, 8	比肩 肩章
泳	(영) 헤엄치다 水, 8	水泳 遊泳
腦	(뇌) 뇌 肉, 13	腦裏 頭腦
痛	(통) 아프다 疒, 12	痛症 齒痛
超	(초) 뛰어넘다 走, 12	超過 超人
雜	(잡) 섞이다 隹, 18	雜誌 混雜
陳	(진) 베풀다, 묵다 阜, 11	陳列 陳述
縮	(축) 줄이다 糸, 17	縮小 縮尺
顧	(고) 돌아보다 頁, 21	顧客 回顧
脣	(순) 입술 肉, 11	口脣 丹脣皓齒
舟	(주) 배 舟, 6	方舟 舟軍
陣	(진) 진 치다 阜, 10	陣營 布陣
*斬	(참) 베다 斤, 11	斬首 斬新
肝	(간) 간 肉, 7	肝腸● 肝癌
肺	(폐) 허파 肉, 8	肺胞 肺炎
胃	(위) 밥통 肉, 9	胃臟 胃痛
裏	(리) 속 衣, 13	裏面 表裏
摘	(적) 따다 手, 14	指摘 摘發
簡	(간) 대쪽, 간략하다 竹, 18	簡略 簡易
具	(구) 갖추다 八, 8	具色 用具
腐	(부) 썩다 肉, 14	腐敗 腐蝕
橫	(횡) 가로 木, 16	橫列 縱橫
*廬	(려) 오두막집 广, 19	草廬 廬幕
咸	(함) 다 口, 9	咸興差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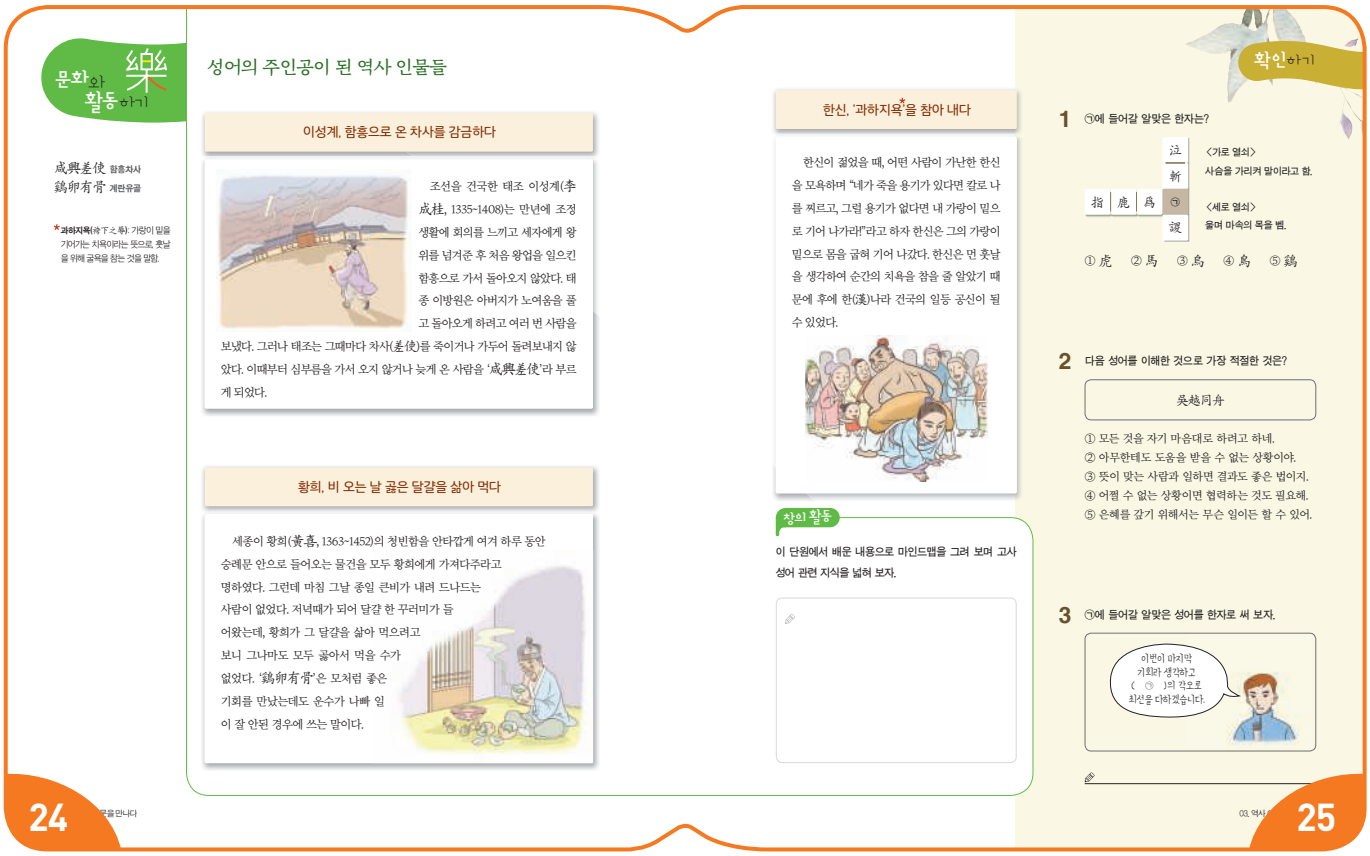
한자 수업 지도 방법 _부수가 같은 한자

'月(肉)' 부수는 신체와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여 뜻을 설명하도록 한다.

예 '胃(위)'는 田[위 모양을 본뜬 글자의 변형]과 부수 肉을 합한 글자로, 위장(胃腸), 위통(胃痛), 위암(胃癌), 비위(脾胃) 등에서 활용된다.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축록(逐鹿): 사슴을 뒤쫓는다는 뜻으로, 제위나 정권 따위를 얻으려고 다투는 일을 이르는 말.
- 간장(肝腸): 간과 창자. ≠ 肝臟(간장): 간이라는 장기.
- 요절(腰絕): 허리가 부러진다는 뜻으로, 몹시 우스워 허리가 아플 [웃는 것을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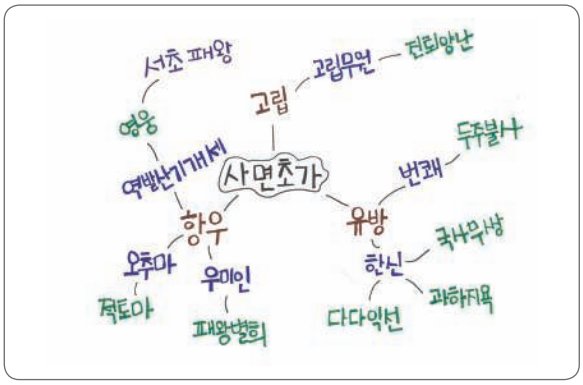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성어 마인드맵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 관련 사전 지식을 점검해 보며 성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이 활동은 성어를 배우기 전이나 성어를 배우고 나서 겉뜻과 속뜻, 유래와 의미 등을 정리해 보기 유용하다.

» 고사성어 한 개를 골라 가운데 칸에 제시하고, 다양한 마인드맵을 그려 본다. 이야깃거리가 풍부한 삼국지나 초한지와 관련해 다양한 내용으로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다.

학생 예시 작품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성어에 쓰인 한자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 읍참마속(泣斬馬謖): 큰 목적을 위해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

• 지록위마(指鹿爲馬):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

❷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오월동주(吳越同舟): 서로 적의를 품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게 된 경우나 서로 협력해야 하는 상황.

❸ 언어생활에서 성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背水(之)陣

[해설] 배수진(背水陣):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곳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맞섬.

※ 背水之陣은 줄여서 '背水陣(배수진)'이라고도 함.

참고 자료

《삼국지(三國志)》와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

《삼국지》와 《삼국지연의》는 다르다. 《삼국지》는 위, 촉, 오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정사(正史)이고, 《삼국지연의》는 원나라 때 나관중(羅貫中, 1330?~ 1400)이 삼국의 역사 이야기에 허구와 과장을 덧붙여 창작해 낸 장편 역사 소설이다. 《삼국지연의》는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오나라 마지막 황제 손호(孫皓)가 항복하여 천하가 통일될 때까지 삼국의 영웅들이 패권을 둘러싸고 벌이는 힘과 지혜의 다툼을 흥미진진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 나라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전해져 왔다. 오늘날에는 17세기 모종강(毛宗崗)이 다듬은 '모본(毛本)'이 정본으로 여겨지고 있다.

[활동] 다음 이야기는 허구일까? 진실일까?

-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하다
  → 도원결의 장면은 허구다. 다만 《삼국지》 〈관우전〉에 '선주(유비)는 두 사람과 같은 침상에서 잤는데, 그 은혜가 형제와 같았다.(先主與二人寢則同床 恩若兄弟)'고 서술되어 있다.
- 제갈공명, 적벽 대전에서 동남풍을 일으키다
  → 적벽 대전 또한 《삼국지》에서는 승패를 '큰 역병'이 갈라놓았다고 했다. '동남풍'이라는 언급은 있지만 제갈공명이 일으켰다는 서술은 없으며 제갈공명의 지략에 관한 서술 또한 보이지 않는다. 《삼국지》 〈선주전〉에 '선주(유비)는 제갈량을 보내 손권과 연합하였다. 손권은 주유와 정보 등에게 수군 수만 명을 보내 유비와 힘을 합쳐서 조조와 적벽에서 싸워 대파하고 조조의 군선을 불태웠다. … 당시 역병이 발생하여 위나라 군사가 많이 죽었으므로 조조는 군대를 이끌고 돌아갔다.(時又疾疫 北軍多死 曹公引歸)'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 화타, 독화살을 맞은 관우를 치료하다
  →《삼국지》에 관우가 뼈를 갉아 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나 그 의사가 화타라는 기술은 없다. 《삼국지》 〈관우전〉에 의원이 말하길, "화살촉에 독이 있어 뼛속에 들었으니 팔에 상처를 째고 뼈를 긁어서 독을 제거해야 병이 없어질 것입니다."라고 하였다.(醫曰 矢鏃有毒 毒入於骨 當破臂作創 刮骨去毒 然後此患乃除耳)

삼국지 관련 성어

- **계륵**(鷄肋): 닭의 갈비라는 뜻으로, 그다지 큰 소용은 없으나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을 이르는 말.
  유래 조조와 유비가 한중(漢中) 땅을 두고 다툴 때 조조의 군대는 전진하기도 수비하기도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 마침 조조에게 닭국이 바쳐졌는데, 조조는 닭의 갈비가 꼭 지금 상황과 같다고 생각했다. 그때 하후돈이 야간 암호를 정하려고 찾아왔는데 조조가 '계륵'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암호를 들은 양수(楊修)가 "닭의 갈비는 먹을 것도 없고, 버리기도 아깝다. 공은 돌아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夫鷄肋 食之則無所得 棄之則如可惜 公歸計決矣)"라고 하며 조조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퇴군할 짐을 쌌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함.
- **괄목상대**(刮目相對): 눈을 비비고 서로를 대함.
  유래 오나라 여몽은 무식한 장수였는데 손권의 충고로 전장에서도 책을 읽으며 공부하여 학식을 갖추게 되었다. 전부터 여몽을 잘 알고 지내던 노숙은 여몽이 박식해짐을 칭찬하자 여몽이 "선비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대해야 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하는 법이라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함.
- **비육지탄**(髀肉之歎): 넓적다리에 살이 붙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재능을 발휘할 때를 얻지 못하여 헛되이 세월만 보내는 것을 한탄함을 이르는 말.
  유래 유비가 유표에게 의지하고 있을 때, 유비가 변소에서 일을 보다 말을 타지 않아 넓적다리에 살이 붙은 것을 보고 나이가 들어서도 공을 이루지 못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 일에서 유래함.
- **식소사번**(食少事煩): 먹을 것은 적은데 할 일은 많음.
  유래 두 번째 출사표를 내고 위나라 공략에 나선 제갈량이 사마의와 대치하고 있을 때, 사마의가 촉나라 사신에게 제갈량을 두고 한 말에서 유래함.
- **칠종칠금**(七縱七擒): 일곱 번 잡았다가 일곱 번 풀어 준다는 뜻으로, 상대를 마음대로 다룸을 비유하거나 인내를 가지고 상대가 숙여 들어오기를 기다린다는 말.
  유래 《삼국지연의》에서 제갈량이 맹획(孟獲)을 일곱 번이나 사로잡았다가 일곱 번 놓아주었다는 데서 유래함.

1~2 차시

04 재미있는 이야기

학습 목표

-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단원 소개

이 단원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선인들의 삶과 지혜가 담긴 성어를 배우게 된다. 언어생활에서 자주 활용되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어를 통해 학습자들은 한문으로 이루어진 고사성어가 우리의 언어생활과 괴리된 것이 아님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어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통해 보다 폭넓은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성어의 유래가 된 우언(寓言)을 통해 진짜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선인들이 생각하는 삶의 지혜란 어떤 것인지 등을 깊이 사색해 보는 활동을 통해 성어 속에 담긴 이야기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삶의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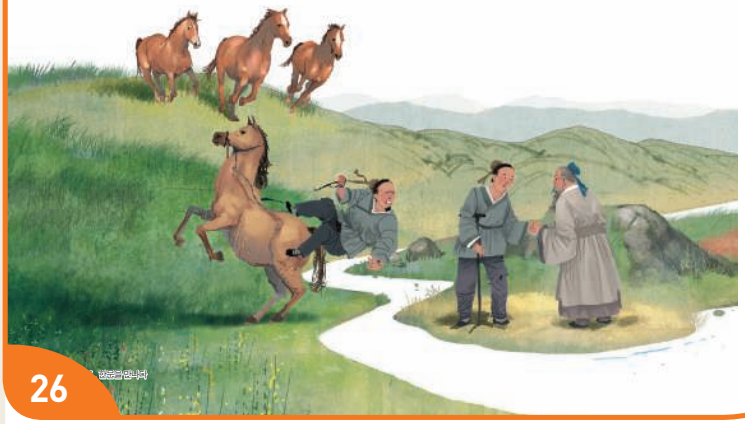
① 우언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는 풍자적이고 교훈적인 성격이 강하다. 표면적 의미를 이해한 후 다양한 측면에서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성어와 비슷한 현실 사례를 찾아보게 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성어의 겉뜻뿐만 아니라 속뜻을 알고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성어의 이면적 의미를 논술하여 수행 평가에 반영하는 것도 좋다.

04 재미있는 이야기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는 이야기의 배경을 알면 속뜻을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서 나온 고사성어를 배우고, 언어생활에서 활용해 보자.

塞翁之馬　　愚公移山



26

성어의 풀이와 이해

塞翁之馬

변방 노인의 말.

→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움.

* 塞 (1) (새) 변방　(2) (색) 막히다　　* 之(지): ~의

유래 변방 노인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서 노인이 낙심하였는데, 그 말이 준마를 끌고 와서 그 덕분에 좋은 말을 얻게 되었으나 노인의 아들이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노인이 다시 낙심함. 결국 그로 인하여 노인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어 죽음을 면한 일에서 유래함.

-《회남자》〈인간훈〉

《회남자(淮南子)》: 중국 전한(前漢)의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이 빈객과 방술가 수천을 모아서 편찬한 책으로, 원래 내외편(內外篇)과 잡록(雜錄)이 있었으나 현재는 내편만 전함.

愚公移山

우공이 산을 옮김.

→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

* 公(공): (주로 남자의 성이나 성명 뒤에 쓰여) 그 사람을 높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
* 愚公(우공): '어리석은 사람'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산을 옮기겠다는 노인의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은근히 풍자하고 있는 표현임.

유래 우공(愚公)이라는 노인이 집 앞을 가로막은 산을 옮기려고 산의 흙을 파서 나르자 이에 감동한 천제가 산을 옮겨 주었다는 데서 유래함.

-《열자》〈탕문〉

《열자(列子)》: 《노자》, 《장자》 등과 함께 도가 사상(道家思想)을 담고 있는 중국 고전으로, 전국 시대 열어구(列禦寇)가 지었다고 전해지는 책.

守株待兎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림.

→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유래 한 농부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부딪쳐 죽은 것을 잡은 후, 또 그와 같이 토끼를 잡을까 하여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데서 유래함.

-《한비자》〈오두〉

畫蛇添足

뱀을 다 그리고 나서 발을 덧붙여 그림.

→ 쓸데없는 일을 덧붙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 = 蛇足(사족)

유래 여러 사람이 술 한 잔을 놓고 뱀을 먼저 그리는 자가 그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뱀을 가장 먼저 그린 사람이 술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 있지도 않은 뱀의 발을 더 그려 내기에서 졌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함.

-《전국책》〈제책〉

群鷄一鶴

여러 마리의 닭 가운데서 한 마리의 학.

→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

유래 중국 삼국 시대 위(魏)나라 죽림칠현(竹林七賢) 중 한 명인 혜강의 아들 혜소는 아버지를 닮아 매우 똑똑하고 헌칠했다. 혜소가 벼슬을 받아 처음 낙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혜소를 보고 (혜강의 친구) 왕융에게 "혜소의 기상이 마치 닭 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의 야생 학 같았습니다."라고 말한 데서 유래함.

-《진서》〈혜소전〉

登龍門

용문에 오름.

→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 용문(龍門): 중국 황허(黃河)의 중상류에 있는 곳으로, 강기슭이 좁고 심한 급류가 있어 배나 물고기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고 함.

유래 물고기가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함.

-《후한서》〈이응전〉

읽고 풀이하기

塞翁之馬 새옹지마
변방 노인의 말.
→ 인생의 길흉화복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려움.
유래 변방 노인이 기르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서 노인이 낙심하였는데, 그 말이 준마를 끌고 와서 그 덕분에 좋은 말을 얻게 되었으나 노인의 아들이 준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져 노인이 다시 낙심함. 결국 그로 인하여 노인의 아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어 죽음을 면한 일에서 유래함.

愚公移山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김. →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짐.

守株待兎 수주대토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림.
→ 한 가지 일에만 얽매여 발전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
유래 한 농부가 우연히 나무 그루터기에 토끼가 부딪쳐 죽은 것을 잡은 후, 또 그와 같이 토끼를 잡을까 하여 그루터기만 지키고 있었다는 데서 유래함.

유래
화사첨족: 여러 사람이 술 한 잔을 놓고 뱀을 먼저 그리는 자가 그 술을 마시기로 하였는데, 뱀을 가장 먼저 그린 사람이 술잔을 들고 다른 손으로 있지도 않은 뱀의 발을 더 그려 내기에서 졌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함.

畫蛇添足 화사첨족
뱀을 다 그리고 나서 발을 덧붙여 그림.
→ 쓸데없는 일을 덧붙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 = 蛇足 사족

群鷄一鶴 군계일학
여러 마리의 닭 가운데서 한 마리의 학. → 많은 사람 가운데서 뛰어난 인물.

登龍門 등용문
용문에 오름. →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여 크게 출세하게 됨.
유래 물고기가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된다는 전설에서 유래함.

新
操 조 잡다　覺 각 깨닫다　慾 욕 욕심　鈍 둔 둔하다
忌 기 꺼리다　愼 신 삼가다　貪 탐 탐하다　銳 예 날카롭다
避 피 피하다　謹 근 삼가다　削 삭 깎다　邊 변 가
怠 태 게으르다　慢 만 거만하다　費 비 쓰다　倍 배 곱
恣 자 방자하다　傲 오 거만하다　踐 천 밟다　座 좌 자리

28 …문을 만나다

어휘 활용하기

1 부수가 같은 한자 - 心(忄)
• 心 심 마음　▸操心 조심　• 忌 기 꺼리다　▸忌避 기피
• 怠 태 게으르다　▸勤怠 근태　• 恣 자 방자하다　▸放恣 방자
• 感 감 느끼다　▸感覺 감각　• 愼 신 삼가다　▸謹愼 근신
• 慢 만 거만하다　▸傲慢 오만　• 慾 욕 욕심　▸貪慾 탐욕

2 뜻이 서로 상대되는 한자
• 添 첨 더하다　▸添加 첨가　• 虛 허 비다　▸虛費 허비
⇔削 삭 깎다　▸削除 삭제　⇔實 실 차다　▸實踐 실천

3 수학과 관련된 어휘
• 鈍角 둔각: 9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은 각. ⇔ 銳角 예각
• 對邊 대변: 다각형에서 한 변이나 한 각과 마주 대하고 있는 변.
• 倍數 배수: 어떤 수의 갑절이 되는 수. 어떤 정수의 몇 배가 되는 수.
• 座標 좌표: 평면이나 공간 안의 임의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수나 수의 짝.
• 直徑 직경: 지름. 원에서 중심을 지나는 직선으로 그 둘레 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

4 성어
• 乘勝長驅 승승장구: 싸움에 이긴 형세를 타고 계속 몰아침.
• 轉禍爲福 전화위복: 재앙과 화난이 바뀌어 오히려 복이 됨.
• 矯角殺牛 교각살우: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가 소를 죽임.
→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가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일을 그르침.
• 泥田鬪狗 이전투구: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 →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비열하게 다툼.

標 표 표하다　矯 교 바로잡다　徑 경 지름길　泥 니 진흙　驅 구 몰다　鬪 투 싸우다　轉 전 구르다　狗 구 개　禍 화 재앙

04. 재미있는 … 29

▌한비자와 수주대토

한비자는 많은 유학자들이 과거와 같은 도덕주의만 지향하는 행태가 마치 토끼가 나무 그루터기에 부딪쳐 죽어 주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리석음과 같다고 힐난하였다. 한비자는 유가를 자주 비판하였는데, 진반도갱(塵飯塗羹)도 비슷한 의미이다.

» 아이들이 서로 어울려 놀 때 마른 흙을 밥이라 하고, 진흙을 국이라 하며, 나무를 고기라고 한다. 그러나 해가 저물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가 밥을 먹는 건 진반도갱(塵飯塗羹: 흙덩이 밥과 진흙 국)을 가지고 놀 수는 있어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무릇 (유가들은) 상고(上古)의 노래를 전하며 칭송하는 자들은 말은 잘하나 진실하지 않다. 선왕의 인의(仁義)를 말하나 나라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이 또한 장난이지 그것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의를 사모하여도 약해지고 혼란스러운 것은 삼진(三晉)이고, 인의를 사모하지 않고도 강하게 다스려진 것은 진(秦)나라이다. 그러나 아직 황제가 되지 못한 것은 법치가 다하지 못해서이다.

- 《한비자》 〈외저설좌상〉

* 삼진(三晉): 중국 춘추 시대 말기에 진(晉)나라를 받든 세 재상인 위사(魏斯), 조적(趙籍), 한건(韓虔)이 각각 세운 위(魏)나라, 조(趙)나라, 한(韓)나라를 이르는 말.

▌수학과 관련된 어휘

수학 교과와 관련된 어휘는 한자로 뜻풀이를 하고 수학적 개념과 연결지어 보는 수업을 하면 흥미로울 수 있다.

❶ 지도 방법

① 스마트폰 자전을 통해 한자를 찾아 음과 뜻을 쓴다.
② 단어를 직접 풀이해 보도록 한다.
③ 해당 단어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발표하게 한다.

❷ 수학 교과 용어

- 半徑(반 반, 지름길 경): 반지름. 원이나 구의 중심에서 그 원둘레 또는 구면상의 한 점에 이르는 선분의 길이.
- 函數(함 함, 셀 수): 상자에 넣은 수. 두 개의 변수 x, y 사이에서, x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값이 변하는 데 따라서 y의 값이 종속적으로 정해질 때, x에 대하여 y를 이르는 말. y가 x의 함수라는 것은 $y = f(x)$로 표시함.
- 集合(모을 집, 모을 합): 모으거나 모임. 특정 조건에 맞는 원소들의 모임.

신출 한자

塞	(새) 변방 / (색) 막다 土, 13	要塞 語塞
株	(주) 그루 木, 10	株式 株價
添	(첨) 더하다 水, 11	添言 添加
龍	(룡) 용 龍, 16	恐龍 龍顔
避	(피) 피하다 辶, 17	回避 免避
覺	(각) 깨닫다 見, 20	視覺 感覺
慢	(만) 거만하다 心, 14	驕慢 慢性
貪	(탐) 탐하다 貝, 11	貪官 食貪
踐	(천) 밟다 足, 15	實踐 踐踏
邊	(변) 가 辶, 19	邊方 周邊
標	(표) 표하다 木, 15	標示 目標
轉	(전) 구르다 車, 18	轉入 移轉
泥	(니) 진흙 水, 8	泥田鬪狗

翁	(옹) 늙은이 羽, 10	家翁 衰翁
*兎	(토) 토끼 儿, 8	犬兎之爭 狡兎三窟
群	(군) 무리 羊, 13	群衆 群像
操	(조) 잡다 手, 16	操心 志操
怠	(태) 게으르다 心, 9	怠慢 勤怠
愼	(신) 삼가다 心, 13	謹愼 愼重
傲	(오) 거만하다 人, 13	傲慢 傲氣
削	(삭) 깎다 刀, 9	切削 添削
鈍	(둔) 둔하다 金, 12	老鈍 愚鈍
倍	(배) 곱 人, 10	倍數 倍率
徑	(경) 지름길 彳, 10	直徑 捷徑
禍	(화) 재앙 示, 14	禍福 禍根
鬪	(투) 싸우다 門, 20	鬪牛 血鬪

愚	(우) 어리석다 心, 13	愚直 愚鈍
蛇	(사) 뱀 虫, 11	毒蛇 龍頭蛇尾
鶴	(학) 학 鳥, 21	鶴首苦待
忌	(기) 꺼리다 心, 7	忌避 忌諱
恣	(자) 방자하다 心, 10	放恣 恣行
謹	(근) 삼가다 言, 18	謹弔 謹賀新年
慾	(욕) 욕심 心, 15	食慾 貪慾
費	(비) 쓰다 貝, 12	消費 浪費
銳	(예) 날카롭다 金, 15	銳角 銳利
座	(좌) 자리 广, 10	座席 座下
驅	(구) 몰다 馬, 21	驅迫 驅蟲
矯	(교) 바로잡다 矢, 17	矯正 矯導
狗	(구) 개 犬, 8	狗肉 兎死狗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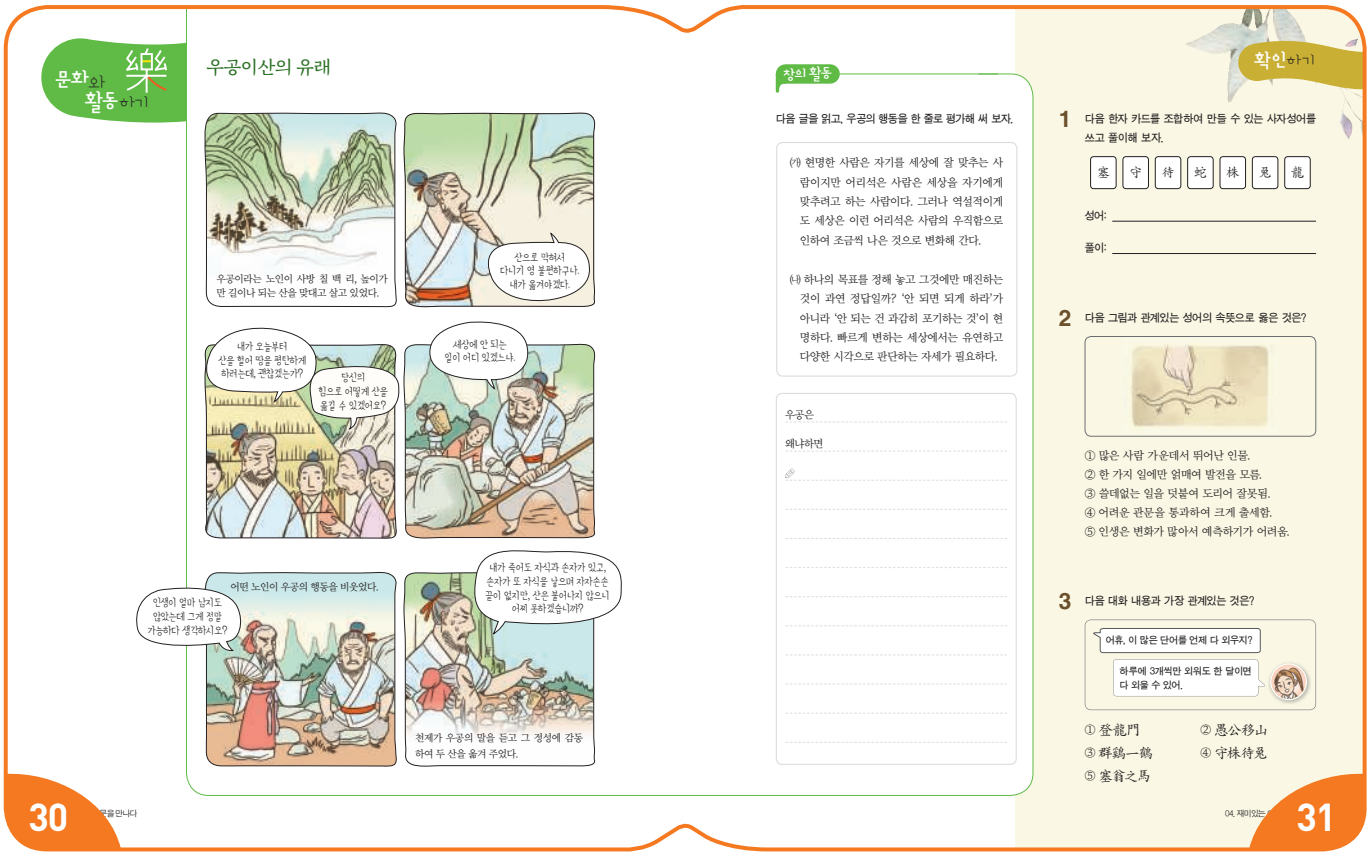
화사첨족 이야기의 배경

기원전 323년 초(楚)나라 장수 소양(昭陽)은 위(魏)나라를 공격하여 순식간에 여덟 개의 성을 빼앗는 대승을 거두고 여세를 몰아 제(齊)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였다. 제나라 왕이 어쩔 줄 몰라 하자 진(秦)나라 출신 유세가(책사)인 진진(陳軫)은 '화사첨족'의 비유를 들어 소양을 설득하여 철군하도록 하였다. 진진은 소양에게 당신은 이미 위나라를 공격하여 커다란 공을 세웠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관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실수라도 하면 '뱀의 발(蛇足)'을 그리려다 술을 빼앗긴 자와 같게 되니 때를 알고 멈출 줄 알아야 된다고 비유해 말해 준 것이다.

-《전국책》, 〈제책〉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견토지쟁(犬兎之爭): 개와 토끼의 다툼이라는 뜻으로, 두 사람의 싸움에 제삼자가 이익을 봄을 이르는 말.
- 용두사미(龍頭蛇尾):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처음은 왕성하나 끝이 부진한 현상을 이르는 말.
- 만성(慢性): 「1」 버릇이 되다시피 하여 쉽게 고쳐지지 않는 상태나 성질. 「2」 병이 급하거나 심하지도 않으면서 쉽게 낫지도 않는 성질. ⇔ 급성(急性)
- 토사구팽(兎死拘烹):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잡던 사냥개도 주인에게 삶아 먹히게 된다는 뜻으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을 때는 야박하게 버리는 경우를 이르는 말.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우공이산'은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마침내 성공한다는 교훈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요즘 시대에는 '우공'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우공'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을 읽고 자신의 생각은 어떤 것과 더 가까운지 생각해 보며 통합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확장 활동]
'우공(愚公)'에게 5자 평을 남겨 보는 활동을 할 수 있다.
→ 우공, 당신은 □□□□□!

예시 답안

- 우공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약삭빠르게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 우공은 미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너무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성어를 이루고 있는 한자의 음과 뜻을 아는지 묻는 문항

[정답] • 성어: 守株待兎
• 풀이: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림.

[해설] 守(수) 지키다, 株(주) 그루, 待(대) 기다리다, 兎(토) 토끼

❷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화사첨족(畫蛇添足): 뱀을 다 그리고 나서 발을 덧붙여 그림. → 쓸데없는 일을 덧붙여 도리어 잘못되게 함. = 蛇足(사족)

❸ 언어생활에서 성어를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우공이산(愚公移山): 우공이 산을 옮김.
→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함.

참고 자료

새옹지마 깊이 보기

동양에서는 만물을 파악할 때, '음양(陰陽)'의 양면이 존재한다고 여겼다. 해가 있으면 반대적 속성을 가진 달이 있고, 산에 양지가 있으면 반대편은 음지임을 간파했다. 한 개의 사물이 한 가지의 속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상반된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동양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그 일면을 보여 주는 성어가 바로 새옹지마이다. 새옹지마의 노인은 지혜를 상징한다. 노인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감정의 동요 없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다'고 했다.

새옹지마의 노인이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을 거시적,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안목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의 좁은 안목이 부딪히고 깨지는 인생의 경험 속에서 넓어지고 깊어진 것이다. 새옹지마의 주인공이 '노인'인 이유는 바로 발로 뛰고 몸으로 부딪히며 시간이 빚어내는 삶의 경험들에서 지혜가 생겨나고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활동]

'인공 지능은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는 물음에 답해 보자.

→ 지혜란, _____(이)다.

그렇기에 인공 지능은 지혜를 가질 수 없다 / 있다

수주대토와 함께 읽는 정인매리(鄭人買履)

정(鄭)나라에 신발을 사려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발을 자로 잰 다음 그 치수 잰 것을 자리에 놓아두었다. 그러고 나서 신발을 사러 시장에 갔는데 그 (치수 잰) 것을 깜빡하고 안 가져왔다. 이미 신발은 골라 놓았지만, 그 사람은 "치수 잰 것을 안 가져왔다."라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가져왔다. 하지만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시장은 모두 파했고, 그는 결국 신발을 살 수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찌하여 신발을 발에 신어보질 않았소?" 하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로 잰 것은 믿어도, 내 발은 못 믿소."라고 하였다.

-《한비자》〈외저설좌상(外儲說左上)〉

등용문의 원문과 풀이

'선비로서 그의 접대(인정)를 받는 사람을 이름하여 등용문이라 한다.(士有被其容接者 名爲登龍門)' 이 문장의 주해(註解)에 "(등용문) 하진(河津)은 일명 용문이니 물이 험해서 통하지 못하여 물고기나 자라의 무리도 올라갈 수가 없다. 강과 바다의 큰 물고기가 용문 아래에 모여든 것이 수천이었으나 올라갈 수 없었고 올라가면 용이 되었다.(登龍門 河津 一名龍門 水險不通 魚鼈之屬 莫能上 江海大魚 薄集龍門下數千 不得上 上則爲龍也)"라고 하였다.

-《후한서》〈이응전(李膺傳)〉

우공이산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 세상 사람은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당신이 먼저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를 세상에 잘 맞추는 사람인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야말로 어리석게도 세상을 자기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세상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의 우직함으로 인하여 조금씩 나은 것으로 변화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직한 어리석음, 그것이 곧 지혜와 현명함의 바탕이고 내용입니다. - 신영복, 《나무야 나무야》
- 하나의 목적이나 목표를 정해 계속해 파고드는 것은 수직적 사고 방식이다. 우공이산은 수직적 사고의 대표적 사례이다. 반면 수평적 사고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 고정관념이나 과거의 지배적 사고만 고집하지 않고 새롭고 다양한 시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다. 수평적 사고는 새로운 가정에 끊임없이 도전하게 한다.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안 되는 건 과감히 포기하라", "막히면 돌아가라"는 것도 수용해야 한다. "한 우물만 파라"는 격언도 이젠 바꿔야 할 때가 됐다. "파보다 나오지 않으면 얼른 다른 우물을 파라. 다른 곳에도 얼마든지 우물은 있다." - 김경집, 〈산을 옮긴 우공은 몰랐던 수평적 사고〉

[서술형 문제]

'우공이산'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의 두 글을 읽고, 자신은 두 가지 입장 중 어떤 삶의 태도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는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서술하시오.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학습자들이 고전을 이해하는 데 어려운 점 중의 하나가 바로 생소한 한자 어휘 때문이다. 한자를 알아서 어휘의 뜻을 풀어 보면 고전의 이해가 그다지 어렵지만은 않다. '고전 문학 작품 속 한자 만나기' 활동은 우리 문학 속에서 한자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 일인지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 문학을 이해하는 데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국어과와 융합 수업을 하기 좋은 제재이다.

참고 자료

❶ 허균, 〈홍길동전〉

홍(洪) 판서(判書)는 길동(吉童)이 호부(呼父) 호형(呼兄) 하기라도 하면 곧바로 꾸짖어 못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 길동(吉童)은 열 살이 넘도록 감히(敢-) 아버지와 형(兄)을 제대로 부르지 못했고, 종들에게도 천대(賤待)를 받아 그 한(恨)이 뼈에 사무쳐 마음을 가누지 못했다.

- 呼父(부를 호, 아버지 부): 아버지라고 부름.
- 賤待(천할 천, 기다릴 대): 업신여기어 천하게 대우하거나 푸대접함.

❷ 정극인, 〈상춘곡〉

홍진(紅塵)에 묻힌 분네 이내 생애(生涯) 어떠한고
옛사람 풍류(風流)에 미칠가 못미칠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나만 한 이 많건마는
산림(山林)에 묻혀 있어 지락(至樂)을 모르는가
수간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에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었어라.

- 紅塵(붉을 홍, 티끌 진): 붉은 티끌.
  「1」 거마(車馬)가 일으키는 먼지. 「2」 번거롭고 속된 세상.
- 風流(바람 풍, 흐를 류): 멋스럽고 풍치가 있는 일.
- 至樂(이를 지, 즐거울 락):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
- 數間茅屋(셀 수, 사이 간, 띠 모, 집 옥):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
- 碧溪水(푸를 벽, 시내 계, 물 수):
  물이 맑아 푸르게 보이는 시냇물.
- 鬱鬱(빽빽할 울, 〃):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매우 무성함.
- 風月主人(바람 풍, 달 월, 주인 주, 사람 인):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

Ⅰ 단원 총괄 평가

정답 223쪽

01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

> 옛것에서 우리는 인생의 진리, 세상의 의미를 파악해 낸다. 우리는 과거를 통해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나와 다른 남을 어떻게 볼 것인지,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인지,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과거가 가르쳐 주는 진실을 통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
> -《청소년을 위한 역사란 무엇인가》

① 斷機之戒 ② 發憤忘食 ③ 溫故知新
④ 背水之陣 ⑤ 金蘭之契

02 성어의 활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 塞翁之馬

① 너와 나는 塞翁之馬하는 사이가 되자.
② 塞翁之馬를 하니 의미가 더 이상해졌는걸.
③ 어려운 일이 생겨도 塞翁之馬를 다할 거야.
④ 塞翁之馬라고 하니, 좋은 일이 오길 기다리자.
⑤ 塞翁之馬에 올라야만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어.

03 성어의 유래로 볼 때 시대가 가장 앞선 것은?

① 泣斬馬謖 ② 背水之陣 ③ 指鹿爲馬
④ 四面楚歌 ⑤ 桃園結義

04 성어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四面楚歌

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하지.
② 성공하여 좋은 자리에 오르는 걸 말하지.
③ 죽기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해.
④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야.
⑤ 공적인 것을 사적인 것보다 중요시하는 태도야.

05 〈보기〉의 성어와 풀이 순서가 같은 것은?

보기

> 指鹿爲馬

① 守株待兎 ② 群鷄一鶴 ③ 伯牙絶絃
④ 金蘭之契 ⑤ 桃園結義

06 다음 글의 □ 안에 들어갈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A 선생님은 우리 반 급훈을 무엇으로 정할지 생각해 보았다. A 선생님은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 배움에 푹 빠지는 □□□□의 삶을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① 畫蛇添足 ② 管鮑之交 ③ 斷機之戒
④ 發憤忘食 ⑤ 塞翁之馬

07 서술형 | 다음 한자들을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성어와 풀이를 쓰시오.

> 公 蛇 山 愚 登 移 龍

08 서술형 |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

> 上 本 羽 析 磨 矢 尖 慈

(1) 〈보기〉 한자 중 하나를 예로 들어 한자의 3요소를 설명하시오.

(2) 〈보기〉 한자 중 하나를 예로 들어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중 한 가지만 서술하시오.

II

단문, 지혜를 찾다

05 생활의 지혜

06 나를 돌아보는 삶

07 더불어 사는 삶

긴 글보다 짧은 문장이 마음을 울리고, 삶을 바꾸어 놓을 때가 있다. 속담과 격언은 길이는 짧지만, 옛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를 온전히 담고 있어 우리에게 감동과 가르침을 준다.

이 단원에서는 한역(漢譯)되어 전해오는 속담과 여러 한문 고전(古典)에 뿌리를 둔 격언을 배우게 된다. 생활 속에서 깨달은 지혜가 담긴 말과 개인과 사회를 바라보는 깊이 있는 생각을 담은 문장을 감상해 보고 마음에 새길 만한 구절이 있는지 찾아보자.

대단원 학습 목표

-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 토나 문장 부호가 달려 있는 글을 토나 문장 부호의 구실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 비추어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대단원 설정의 이유

속담과 격언은 짧은 글 속에 옛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한문으로 전해지는 속담과 짧은 격언을 배우며 옛사람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할 수 있다. 속담에 담긴 지혜를 배우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자신을 돌이켜 보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❶ 단어의 짜임은 한자 어휘를 이해하고 한문 독해 능력 신장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❷ 일상용어를 학습할 때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지도하며 단순한 암기보다는 지시적, 문맥적, 비유적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❸ 명언·명구는 그 속에 담긴 핵심 사상과 주제를 찾아봄으로써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❹ 주제를 정해 모둠별로 토의·토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❺ 한문과에서 인성 교육은 개념적 원리나 지식보다는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태도가 형성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문 풀이에 그치지 않고 배운 내용을 학습자 스스로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소단원	차시	교과서 쪽수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05. 생활의 지혜	2	38~43	•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 구별하기 • 토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 바르게 끊어 읽기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 한자 문화권 속담 비교를 통한 속담의 의미 이해하기
06. 나를 돌아보는 삶	3	44~49	•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 구별하기 • 문장 부호의 역할을 이해하고 바르게 끊어 읽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이해하기	• 명언·명구의 이해를 통한 나의 좌우명 쓰기
07. 더불어 사는 삶	3	50~55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 영상 매체를 활용한 사회 문제 토의·토론하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56~59	•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기 •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 한자로 이루어진 지역 이름 조사·발표하기	• 명언·명구 속에서 핵심 사상 찾기 • 지역 문화유산 답사하기

1~2 차시

05 생활의 지혜

학습 목표

-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 토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는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단원 소개

속담(俗談)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을 말한다.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지혜에서 우러난 진리를 간결하고 친숙한 말로 표현한 것으로, 교훈적이거나 풍자적인 내용을 비유와 과장 등의 방법으로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또한 속담에는 그것이 통용되는 공동체의 문화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속담을 통해 공동체의 문화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기도 하다.

이 단원을 통해 학습자들은 현재 우리의 삶과 연계해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하는 한역(漢譯) 속담을 배우면서 한문 문장 속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과 한문 읽기에서 토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속담을 한문 문장으로 배우면서 한문에 호기심을 가지고 수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현토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현토 자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습의 흥미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평가는 토의 역할과 문법적 기능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② 단어의 짜임은 한자 카드를 배열하여 짜임에 맞는 단어를 만들어 보게 하거나 단어가 적혀 있는 카드를 보여주고 짜임을 물어 보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속담의 주제와 관련해 선인들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05 생활의 지혜

속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오는 말로, 간결한 표현 속에 풍자와 해학이 담긴 것이 특징이다. 오랜 세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함께해 온 속담을 배우면서 옛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지혜를 느껴 보자.

烏飛梨落이라. 〈순오지〉

同價紅裳이라. 〈송남잡지〉

孤掌難鳴이라. 〈동언해〉

38 Ⅱ. 단문, 지혜를 찾다

속담의 풀이와 이해

烏飛梨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아무 관계도 없는 일들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나 남의 의심을 받게 됨.

* 주술 관계: 주어 + 서술어

예 烏(오) + 飛(비) → 까마귀가〔주어〕 + 날다〔서술어〕
梨(이) + 落(락) → 배가〔주어〕 + 떨어지다〔서술어〕

同價紅裳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 같은 조건이면 보기 좋은 것을 가짐.

* 수식 관계: 수식어 + 피수식어

예 同(동) + 價(가) → 같은〔수식어〕 + 값〔피수식어〕
紅(홍) + 裳(상) → 다홍〔수식어〕 + 치마〔피수식어〕

孤掌難鳴

외손뼉은 울기가 어렵다.

→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

* 술보 관계: 서술어 + 보어

예 難(난) + 鳴(명) → 어렵다〔서술어〕 + 울기가〔보어〕

積功之塔, 不墮.

공을 (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 정성을 다한 일은 그 결과가 헛되지 않음.

속담 공든 탑이 무너지랴.

* 之(지): 어조사. ※ '之(지)'는 앞말이 뒷말을 꾸며 주는 구조로 쓰이며, '~의', '~(하)는' 등으로 풀이한다. 소리 내어 읽을 때는 之의 뒤에서 잠깐 휴지(休止)를 주어 읽는다.

我腹旣飽, 不察奴飢.

내 배가 이미 부르면 종의 배고픔을 살피지 않는다.

→ 자신의 처지가 나아지면 남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게 됨.

農夫餓死, 枕厥種子.

농부는 굶어 죽더라도 그 씨앗을 베고 눕는다(죽는다).

→ 「1」 어리석고 인색한 사람은 죽고 나면 재물이 소용없음을 모름.

「2」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투철한 의식을 지닌 사람.

한문 개념 _단어의 짜임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

- 주술 관계: 주어 + 서술어 예 烏飛
- 수식 관계: 수식어 + 피수식어 예 同價
- 술목 관계: 서술어 + 목적어 예 讀書
- 술보 관계: 서술어 + 보어 예 難鳴
- 병렬 관계: 성분이 같은 말들이 나란히 놓여 이루어진 단어.
  - 서로 상대되는 의미의 한자로 이루어진 경우 예 前後
  - 서로 비슷한 의미의 한자로 이루어진 경우 예 身體

속담의 발생과 문화적 의미

속담의 발생은 크게 역사(특정 사건)에 대한 묘사 등에서 발생된 것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묘사로 형성된 것이 있다. 속담은 보통 개인이 사용한 비유적 표현에서 시작하지만 사회적으로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성을 갖추고 있을 때 완성된다. 역사 사건이나 문학 작품 속 인물이나 벼슬 이름 등이 사용된 속담들이 많은 것은 그러한 특정 명사들이 이미 언중들의 생활 속에서 일반적 특징을 지닌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속담은 발생 배경과 함께 그 의미가 형성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속담이 정착함에 따라 발생 배경과 결합된 의미도 함께 내포하여 속담의 문화적 의미가 본격적으로 생성된다.

-《한·중 속담의 문화 언어학적 비교 고찰》 참조

한문 개념 _한문을 끊어 읽는 방법

한문을 끊어 읽는 방법에는 권점(圈點), 띄어쓰기, 구결(口訣), 현토(懸吐), 구두법(句讀法) 등 여러 가지가 있음.

- 권점(圈點): 글을 맺는 끝에 찍는 고리 형상의 둥근 점.
- 구결(口訣): 한문을 읽을 때 그 뜻이나 독송(讀誦)을 위하여 각 구절 아래에 달아 쓰던 문법적 요소를 통틀어 이르는 말. '隱(은/는)', '伊(이)'와 같이 한자를 쓰기도 하였지만, '亻(伊(이)의 한 부)', '厂(厓(애)의 한 부)'와 같이 한자의 일부를 떼어 쓰기도 하였다. ≒ 현토
- 구두법(句讀法): 문장 부호를 쓰는 방법.
- 토(吐): 한문의 문장에 붙이는 우리말로 된 조사나 어미.
  예 ~은/는, ~면, (이)라 등

» 현토(懸吐)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한문을 읽을 때 사용했던 방법이다. 주로 한자의 약체자(略體字)를 이용하거나 획을 줄여서 구결(토)을 달아 사용하였다. 예컨대, 《동몽선습》의 '天地之間萬物之中唯人最貴所貴乎人者以其有五倫也'라는 문장은 "天地之間 萬物之中厓(애) 唯人是(이) 最貴爲尼(하니) 所貴乎人者隱(는) 其有五倫也羅(라)"처럼 각 구절 아래 '厓(애), 是(이), 爲尼(하니), 隱(은/는), 羅(라)'와 같은 한자를 붙여 읽었다.

어휘 뜻풀이

- **비익조**(比翼鳥): 「1」 암컷과 수컷의 눈과 날개가 하나씩이어서 짝을 짓지 않으면 날지 못한다는 전설상의 새. 「2」 남녀나 부부 사이의 두터운 정.
- **오죽**(烏竹): 볏과의 여러해살이 식물. 대의 일종으로 높이는 2~20미터, 지름은 5~8cm이다. 줄기는 첫해에는 녹색으로 솜대와 비슷하지만 다음 해부터 자흑색으로 변하고, 잎은 피침 모양이다. 약 60년을 주기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후 말라 죽는다. 성숙한 것은 죽세공(竹細工)의 재료로 쓰고 관상용으로 재배한다.

▲ 比翼鳥(비익조)

▲ 烏竹(오죽)

(사진 출처: http://stdweb2.korean.go.kr/)

신출 한자

梨	(리) 배 木, 11	梨花 山梨
掌	(장) 손바닥 手, 12	掌握 管掌
墮	(타) 떨어지다 土, 15	墮落 失墮
奴	(노) 종 女, 5	奴隸 奴婢
枕	(침) 베개 木, 8	木枕 衾枕
沒	(몰) 빠지다 水, 7	陷沒 沒入
區	(구) 구분하다 匸, 11	區分 區域
環	(환) 고리 玉, 17	環境 循環
墳	(분) 무덤 土, 15	古墳 封墳
翼	(익) 날개 羽, 17	羽翼 左翼
値	(치) 값 人, 10	價値 數値
乳	(유) 젖 乙, 8	牛乳 母乳
樓	(루) 다락 木, 15	樓閣 望樓
息	(식) 쉬다 心, 10	休息 棲息
隨	(수) 따르다 阜, 16	隨筆 隨行

裳	(상) 치마 衣, 14	衣裳 紅裳
積	(적) 쌓다 禾, 16	積極 面積
腹	(복) 배 肉, 13	腹痛 心腹●
飢	(기) 주리다 食, 11	飢餓 飢饉
厥	(궐) 그 厂, 12	厥公● 厥女
礎	(초) 주춧돌 石, 18	基礎 礎石
郭	(곽) 성곽 邑, 11	城郭 外郭
墓	(묘) 무덤 土, 14	墓地 省墓
壞	(괴) 무너지다 土, 19	破壞 損壞
軒	(헌) 집 車, 10	東軒 烏竹軒
耐	(내) 견디다 而, 9	忍耐 耐久
臭	(취) 냄새 自, 10	惡臭 體臭
閣	(각) 누각 門, 14	閣僚 內閣
床	(상) 평상 广, 7	冊床 臨床
畏	(외) 두렵다 田, 9	敬畏 可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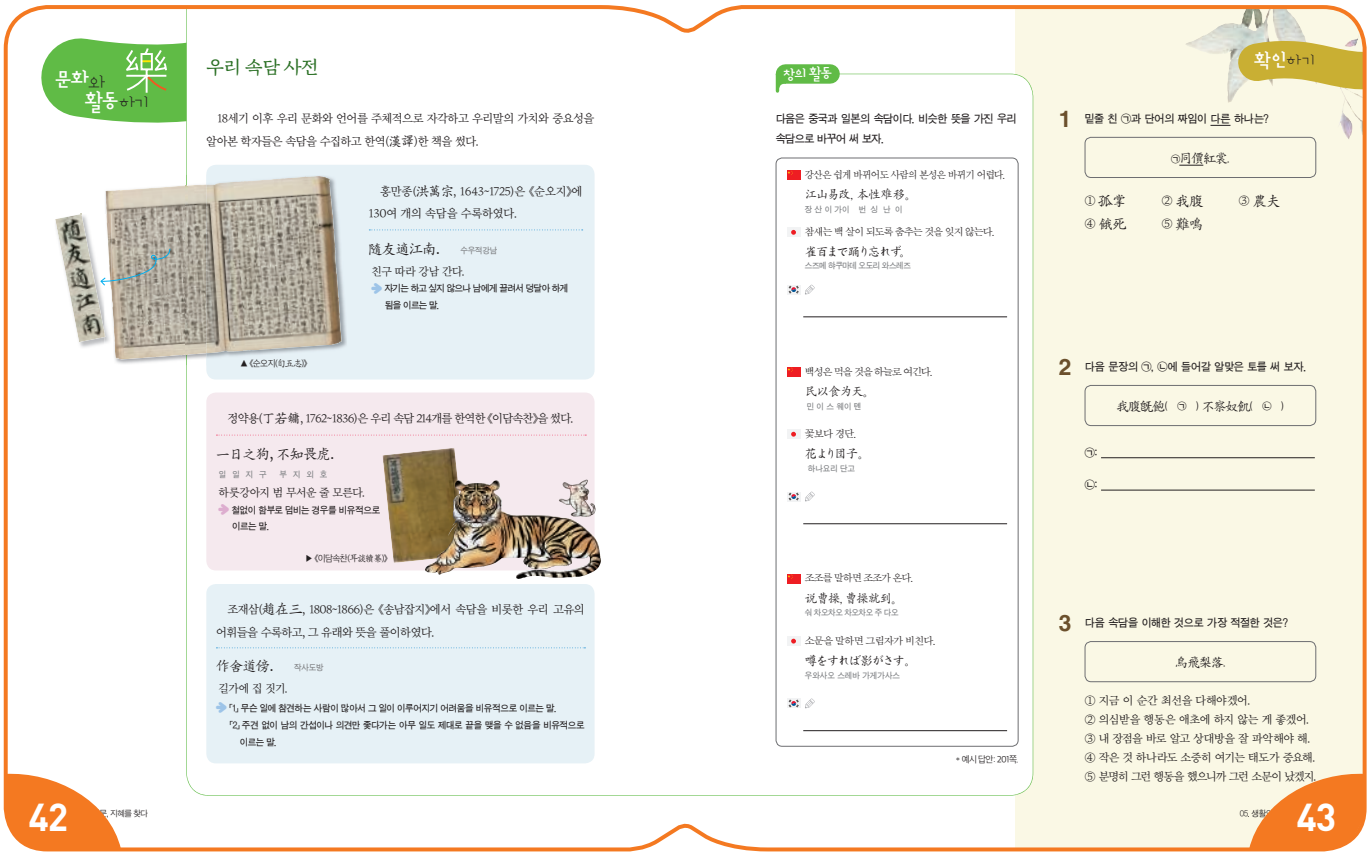
孤	(고) 외롭다 子, 8	孤立 孤獨
塔	(탑) 탑 土, 13	石塔 尖塔
飽	(포) 배부르다 食, 14	飽食 飽和
餓	(아) 주리다 食, 16	餓死 餓鬼●
埋	(매) 묻다 土, 10	埋立 埋沒
域	(역) 지경 土, 11	地域 海域
境	(경) 지경 土, 14	境界 地境
碑	(비) 비석 石, 13	碑石 碑文
崩	(붕) 무너지다 山, 11	崩壞 崩御●
婢	(비) 여종 女, 11	官婢 婢僕
努	(노) 힘쓰다 力, 7	努力
累	(루) 포개다 糸, 11	累積 累次
姑	(고) 시어머니, 잠시 女, 8	姑婦 姑息之計●
夢	(몽) 꿈 夕, 14	夢想 解夢
傍	(방) 곁 人, 12	傍聽 傍觀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심복(心腹): 「1」 배와 가슴. 「2」 썩 긴하여 없어서는 안 될 사물. 「3」 마음 놓고 부리거나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 아귀(餓鬼): 불교에서, 팔부의 하나. 계율을 어기거나 탐욕을 부려 아귀도에 떨어진 귀신으로, 몸이 앙상하게 마르고 배가 엄청나게 큰데,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늘 굶주림으로 괴로워한다고 한다. 「2」 염치없이 먹을 것을 탐하는 사람.

  * 팔부(八部): 사천왕에 딸린 여덟 귀신.
- 궐공(厥公) : '그'를 낮잡아 이르는 말.
- 붕어(崩御): 임금이 세상을 떠남.

  ※《예기》〈곡례〉 편에서, 천자가 죽으면 붕(崩), 제후는 훙(薨), 대부는 졸(卒), 사는 불록(不祿), 서민은 사(死)라고 하였다.(天子死曰崩 諸侯曰薨 大夫曰卒 士曰不祿 庶人曰死)
- 고식지계(姑息之計): 우선 당장 편한 것만을 택하는 꾀나 방법. 한때의 안정을 얻기 위하여 임시로 둘러맞추어 처리하거나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 내는 계책.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각 나라의 속담에는 그 나라의 문화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나라인 중국과 일본의 속담을 살피고, 속담의 주제와 소재를 비교해 보며 한자 문화권 나라의 문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예시 답안

- [중국] 江山易改, 本性难移。
  [일본] 雀百まで踊り忘れず。
  [한국]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 제 버릇 개 줄까.

- [중국] 民以食为天。
  [일본] 花より団子。
  [한국] 금강산도 식후경. /
  수염이 대 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 [중국] 说曹操, 曹操就到。
  [일본] 噂をすれば影がさす。
  [한국]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 /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⑤

[해설] 同價(동가): 같은 값. → 수식 관계

① 孤掌: 외손뼉. ② 我腹: 내 배.
③ 農夫: 농사 짓는 사람. ④ 餓死: 굶어 죽음.
⑤ 難鳴: 울기 어려움. → 술보 관계

❷ 토의 역할을 이해하고 끊어 읽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면, 라.

[해설] 내 배가 이미 부르면 종의 배고픔을 살피지 않는다.

❸ 속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오비이락'은 관계없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 남의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에 쓰는 말이다.

참고 자료

《순오지(旬五志)》

1678년 홍만종(洪萬宗)이 36세 때 지은 잡록으로 2권 1책으로 되어 있다. 책이 보름만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십오지(十五志)'라고도 한다. 처음에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으로만 전해져 왔기 때문에 자구(字句)가 틀리거나 빠진 것도 있고 단항(段項)의 누락이나 분합, 또는 상권과 하권의 구분마저 없는 경우도 있다. 《순오지》의 책머리에는 김득신(金得臣)의 서(序)와 홍만종의 자서(自序)가 있다.

"무오년 가을에 내가 병으로 서호에 누워 있으니 낮에도 사람을 만날 수 없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여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아 있었으나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이전부터 들은 것과 글 짓는 사람들의 여러 말과 민가의 속담 등을 기록한 후 사람을 시켜 책 한 권을 만들고 보니 이것을 시작한 날로부터 끝마친 날까지 겨우 십오 일이 걸렸다.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을 '순오지'라고 하였다. 책의 내용은 대개 내가 날이나 보내고 근심을 잊고자 한 것뿐이지 여러 대방가(大方家: 문장이나 학술이 뛰어난 사람)에게 보이자고 한 것은 아니다."(戊午秋 余臥病西湖 晝不得接人 夜則終宵無寐 呼燈起坐 無以爲懷 記得平昔所聞 詞家雜說 閭巷俚語 使人寫成一冊子 首尾只旬有五日耳 仍名之曰旬五志 蓋消景排憂而已 非敢示諸大方也)

《송남잡지(松南雜誌)》

조선 후기의 학자 조재삼(趙在三)이 편찬한 유서(類書)로 각종 전적에서 사물을 총망라하여 33부문으로 유집하고, 소항목을 설정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송남잡지》의 재미있는 속담 풀이

- 一夜萬里城(일야만리성): 지금은 남녀가 하룻밤을 자고 인연을 맺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을 때, 비록 단 하룻밤을 자고 가더라도 반드시 성을 쌓았다. 적을 막기 위해서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속담이 원래 "하룻밤을 자도 만인(蠻人: 미개한 종족)은 성을 쌓는다"인데 그 말이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본다.

  ※ 하룻밤을 자도 만리성을 쌓는다
  → 잠깐 사귀어도 깊은 정을 맺을 수 있음.

《이담속찬(耳談續纂)》

1820년(조선 순조 20년) 정약용(丁若鏞)이 명나라의 왕동궤(王同軌)가 엮은 《이담(耳談)》에 우리나라 고유의 속담을 증보하여 편찬한 속담집이다. 1936년 신조선사(新朝鮮社)에서 간행된 활자본 《여유당전서》 1집 24권에도 들어 있다. 이 책의 역(譯)은 양재건(梁在謇)으로 되어 있는데 《이담속찬》 210수와 《이담속찬습유(耳談續纂拾遺)》(廣陵 劉松田 選本) 31수, 중국 속담 177수가 실려 있다.

첫머리에 찬자의 머리말이 있는데 '이담'이란 '고금비언지췌(古今鄙諺之萃)'라 하였으며, 이어 중국 속언 170여 조를 소개하고 각 속언 밑에 주석을 달아 출전이나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다음에 '이하동언(已下東諺)'이라 하여 우리 속담 241수를 실었다. 예를 들면,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를 '三歲之習 至于八十(삼세지습 지우팔십)'이라 한역하여 싣고, 밑에 '어렸을 때 일은 마침내 나쁜 버릇이 되어 늙은 뒤에도 고쳐지지 않음을 말한다.(言幼眇時事 終爲惡習老而不改)'라고 뜻을 풀이해 놓았다. 맨 끝에 실린 네 개 속담만이 4자 또는 12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8자로 되어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이담속찬》의 맨 끝에 실린 4개 속담

- 惟杖無將(유장무장): 매 위에 장사 있나.
- 鯨鬪鰕死(경투하사):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 雖小唯椒(수소유초): 작은 고추가 더 맵다.
- 寧測十丈水深 難測一丈人心(영측십장수심 난측일장인심):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속은 모른다.

《동언해(東諺解)》

편자 미상의 《공사항용록(公私恒用錄)》에 기록되어 있는 한문 속담집으로 서법(書法)은 《순오지》와 같으나 한역이 《순오지》보다 미숙하고 배열도 자수대로 되어 있지 않고 조잡한 편이다. 《순오지》, 《열상방언》, 《송남잡지》, 《이담속찬》 등과 비교해 보면 번역이 다분히 우리 국어의 어순(語順)대로 직역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 《열상방언》이나 《이담속찬》처럼 음악적 성률(聲律)을 고려한 압운식(押韻式)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어국문학자료사전》

1~3 차시

06 나를 돌아보는 삶

학습 목표

-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 문장 부호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는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단원 소개

격언(格言)은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이다.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표현의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속담과 비슷하지만, 주로 살아가는 데 지표로 삼을 만한 내용을 담은 글을 지칭하며 속담에 비해 유래나 출처가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 단원에서는 짧은 문장으로 표현된 한문 격언의 풀이를 통해 한문 문장을 바르게 읽고 풀이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자들에게는 현재적 의미에서도 가치가 있는 격언을 배우면서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느끼고 내면화하여 현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통문화의 이해와 계승·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단어를 형성하는 의미 요소들 사이의 결합 관계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한자 어휘의 조어(造語) 방법을 이해하고 한문 독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격언을 고르고 주제를 정해 모둠별로 토의·토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활동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에 대해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실천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한문으로 이루어진 격언뿐 아니라 현재의 삶이나 인생에서 가치 있고 의미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명언의 예시를 통해 학습자들이 건전한 인성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도한다.

06 나를 돌아보는 삶

격언은 오랜 생활 체험을 통해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를 간결하게 표현한 말이다. 삶에 대한 통찰로 내면을 울리는 격언을 배우고 내 삶의 지침을 세워 보자.

有志者는 事竟成也라. 《후한서》

凡曰某事難者는 皆不爲也요 非不能也라. 《홍재전서》

44

문장의 풀이와 이해

有志者, 事竟成也.

뜻이 있는 사람은 일을 마침내 이룬다.

* 也(야): ~(이)다.

《후한서(後漢書)》: 중국 남북조 시대(南北朝時代)에 남조(南朝) 송의 범엽(范曄)이 편찬한 기전체(紀傳體) 사서. 중국 역대 왕조의 정사(正史)인 '25사(史)' 가운데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반고(班固)의 《한서(漢書)》,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와 함께 '4사(四史)'로 꼽힘.

凡曰某事難者, 皆不爲也, 非不能也.

대개 어떤 일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모두 하지 않는 것이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 凡(범): 대개 * 者(자): ~(이)라는 것

《홍재전서(弘齋全書)》: '홍재(弘齋)'는 정조의 호로, 정조가 동궁 시절부터 국왕 재위 기간 동안 지었던 여러 시문(詩文), 윤음(綸音), 교지 및 편저 등을 모아 편집한 문집.

滿招損, 謙受益.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받는다.

《서경(書經)》: 오경(五經)의 하나로, 중국 상고 시대(上古時代)의 정치를 기록한 책. 고대에는 제도상으로 사관(史官)이 있어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 변동, 문물 제도 등을 낱낱이 기록하였다고 함.

人必自侮然後, 人侮之.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 남이 그를 업신여긴다.

→ 남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가는 모두 자기 하기에 달렸음.

* 人(인) 남 ↔ 己(기) 자기　　* 之(지): 그(대명사)

《맹자(孟子)》: 유교 경전인 사서(四書)의 하나. 맹자와 그 제자들의 대화 따위를 기술한 책.

桃李不言, 下自成蹊.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아래에는 저절로 길이 생긴다.

→ 뛰어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자기를 선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를 흠모하게 됨.

» 복숭아와 자두는 맛이 있어 따 먹으러 오는 사람이 많아 나무 밑에는 자연히 길이 생긴다는 뜻이다. 덕행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남을 따르게 할 수 있음을 비유한 것이다. 《사기》 〈이장군 열전(李將軍列傳)〉에서 사마천이 한나라 장군 이광(李廣)의 큰 덕을 비유한 표현에서 유래하였다. 이광(李廣)은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장군이다. 흉노와 싸우면서 변경을 지킨 경험이 많은 노장이었는데, 그의 활은 백발백중이고 행동은 나는 듯이 빨라서 흉노는 이광을 '나는 장수'라는 의미의 '비장군(飛將軍)'이라고 불렀다. 이광이 북우평을 지키는 기간 동안 흉노는 한 번도 그곳을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광은 '사석위호(射石爲虎)' 돌을 범인 줄 알고 쏘았더니 돌에 화살이 꽂혔다는 뜻의 성어로 유명하다.

施恩勿求報, 與人勿追悔.

은혜를 베풀었으면 보답을 구하지 말고, 남에게 주었으면 후회하지 마라.

* 勿(물): ~하지 마라　　* 與(여): 주다

《명심보감(明心寶鑑)》: 고려 때 어린이들의 학습을 위하여 중국 고전에 나온 선현들의 금언(金言)·명구(名句)를 편집하여 만든 책.

격언의 이해

격언(格言)은 법언(法言), 금언(金言), 잠언(箴言), 경구(警句)라고도 한다. 도리에 합당하여 삶의 지표로 삼을 만한 내용을 간결한 표현으로 나타낸, 널리 알려진 말을 말한다. 격언은 관용어의 한 종류인데, 관용어에는 격언 외에도 속담, 금기어(禁忌語), 단순한 비유, 은어 등이 포함된다. 격언과 속담은 말해진 내용 이상의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격언과 속담은 언술의 효과를 높인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둘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힘들다. 격언은 주로 삶의 바른 이치, 도덕과 행동 규범 등이 강조된 것을 가리키지만, 속담 역시 삶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많다. 격언은 속담에 비해 발생 유래나 출처가 분명한 편이다.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참조

한문 개념 _구두법

구두법(句讀法)은 문장과 문장 사이 및 문장 내의 구절과 구절들 사이를 적당하게 끊어서 읽는 것으로, 구(句)는 문장과 문장 사이 휴지(休止)가 필요한 곳, 즉 하나의 문장이 완결되는 자리를 끊어 읽는 것이며, 두(讀)는 하나의 문장 내에서 구절과 구절들 사이에 정돈(停頓)이 필요한 곳을 끊어 읽는 것임.

- 문장의 끝: 온점(.), 물음표(?), 느낌표(!)
- 구절과 구절 사이: 반점(,)
- 대화를 표시하는 曰, 云의 뒤: 쌍점(:)
- 대화: 큰따옴표(" ")
- 인용: 작은따옴표(' ')

* 반점(半點): 쉼표. ','의 이름. 같은 자격의 어구를 연결할 때 쓰거나, 짝을 지어 구별할 때, 열거의 순서를 나타낼 때, 문장의 연결 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할 때,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뒤에, 한 문장에 같은 의미의 어구가 반복될 때, 도치된 어구 사이 등을 표시할 때 쓴다.
* 쌍점(雙點): ':'의 이름. 표제어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쓰거나, 희곡 따위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시(時)와 분(分), 장(章)과 절(節) 따위를 구별할 때, 의존 명사 대(對)가 쓰일 자리에 쓰인다.

성어의 유래 _형설지공

손강(孫康)은 집이 가난하여 기름이 없어 항상 눈을 비추어 글을 읽었다. 젊은 시절에는 탐욕이 없고 강직하였으며, 사람을 올바르게 사귀었다. 뒤에 어사대부(御史大夫)에 이르렀다. 진(晉)나라 차윤(車胤)은 자(字)가 무자(武子)이며, 남평(南平) 사람이다. 공손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았는데, 집이 가난하여 항상 기름을 구하지 못해 여름이면 비단 주머니를 만들어 수십 마리의 반딧불이를 담아 책을 비추어 밤으로 낮을 이었다. 환온(桓溫)이 형주(荊州)에 있을 때 그를 발탁하여 종사(從事)로 삼았는데, 명석하고 의리가 있어 매우 중히 여겼다. 차츰 벼슬이 바뀌어 장사(長史)가 되었고, 드디어 조정에 이름이 드러났다. 당시 차윤과 오은지(吳隱之)는 청빈하고 학식이 넓은 것으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또 감상하는 모임을 좋아했는데 성대한 자리가 있을 때 차윤이 있지 않으면 모두 말하기를, "차공(車公)이 없으니 즐겁지가 않소."라고 했다. (벼슬은) 이부 상서(吏部尙書)로 마쳤다.

-《몽구(蒙求)》

신출 한자

竟	(경) 마침내 立, 11	畢竟 竟夜●
謙	(겸) 겸손하다 言, 17	謙虛 謙遜
悔	(회) 뉘우치다 心, 10	後悔 悔改
訟	(송) 송사하다 言, 11	訴訟 訟事
驗	(험) 시험 馬, 23	經驗 體驗
誘	(유) 꾀다 言, 14	誘引 誘惑
讚	(찬) 기리다 言, 26	稱讚 讚辭
償	(상) 갚다 人, 17	報償 無償
躍	(약) 뛰다 足, 21	躍進 活躍
獻	(헌) 드리다 犬, 20	貢獻 獻身
娛	(오) 즐기다 女, 10	娛樂 歡娛
螢	(형) 반딧불이 虫, 16	螢光 螢雪之功
湯	(탕) 끓다 水, 12	溫湯 蔘鷄湯
苟	(구) 진실로 艸, 9	苟且
某	(모) 아무 木, 9	某種 某處
侮	(모) 업신여기다 人, 9	侮辱 受侮
訂	(정) 바로잡다 言, 9	修訂 訂正
詳	(상) 자세하다 言, 13	詳細 詳述
該	(해) 갖추다 言, 13	該當 該博
導	(도) 이끌다 寸, 16	引導 導體
頌	(송) 기리다 頁, 13	頌祝 讚頌
贈	(증) 주다 貝, 19	寄贈 贈與
磨	(마) 갈다 石, 16	硏磨 磨耗
央	(앙) 가운데 大, 5	中央 震央●
折	(절) 꺾다 手, 7	屈折 折衷
器	(기) 그릇 口, 16	武器 器具●
盤	(반) 소반 皿, 15	音盤 初盤●
臨	(림) 임하다 臣, 17	臨時 君臨
損	(손) 덜다 手, 13	損害 損失
*蹊	(혜) 지름길 足, 17	-
訴	(소) 호소하다 言, 12	呼訴 抗訴
昭	(소) 밝다 日, 9	昭詳 昭明
博	(박) 넓다 十, 12	博士 博愛
誌	(지) 기록하다 言, 14	日誌 雜誌
弘	(홍) 크다 弓, 5	弘報 弘益人間
跳	(도) 뛰다 足, 13	跳躍
貢	(공) 바치다 貝, 10	朝貢 貢物
了	(료) 마치다 亅, 2	終了 完了
剛	(강) 굳세다 刀, 10	外柔內剛
奮	(분) 떨치다 大, 16	奮發 奮鬪
銘	(명) 새기다 金, 14	銘心 座右銘●
池	(지) 못 水, 6	天池 電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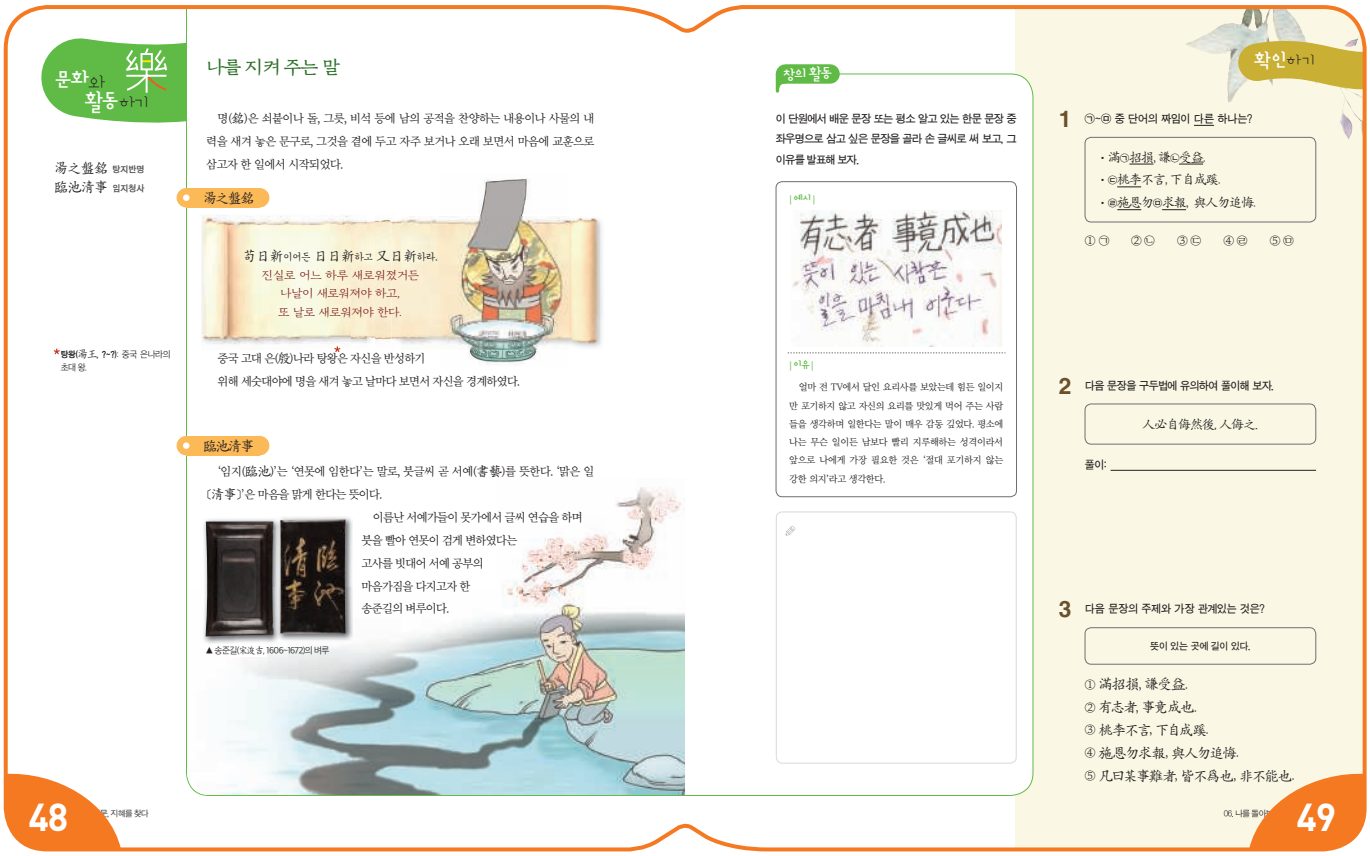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경야(竟夜): 밤을 새움. = 달야(達夜).
- 진앙(震央): 지진의 진원(震源) 바로 위에 있는 지점.
- 기구(器具): 세간, 도구, 기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기구(機構): 「1」 조직이나 기관의 구성 체계. 「2」 기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의 내부 구성. 「3」 역학적인 운동이나 작용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기계나 도구의 내부 구성.
- 초반(初盤): 「1」 운동 경기나 바둑, 장기 따위에서 승부의 처음 단계. 「2」 어떤 일이나 일정한 기간의 처음 단계.
- 좌우명(座右銘): 늘 자리 옆에 갖추어 두고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

성어의 유래 _대기만성

밝은 길은 어두운 듯하고, 나아가는 길은 물러나는 듯하고, 평탄한 길은 울퉁불퉁한 듯하고, 높은 덕은 낮은 계곡과 같고, 아주 하얀 것은 더러워 보이고, 넓은 덕은 부족한 것 같다. 건실한 덕은 빈약해 보이고, 질박한 도는 어리석어 보인다. 아주 큰 사각형은 귀(모서리)가 없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아주 큰 소리는 들을 수 없고, 아주 큰 형상은 모양이 없다. 도는 숨어 있어서 이름이 없다. 오직 도만이 잘 빌려주어 만물을 성하도록 돕는다.

-《노자》〈제41장〉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한문 문장을 일상생활에 활용하여 선인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건전한 가치관과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이다. 학생 작품의 다양한 예시를 보여 주는 것이 좋고, 작품을 만든 후 자신의 생활에서 가장 오래 머무르거나 자주 접하는 공간에 붙여 놓고, 자주 볼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문장 예시

- 有備無患(유비무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음. -《서경》
- 盈科而後進(영과이후진): 물은 조금이라도 낮은 곳이 있으면 먼저 그곳을 가득 채운 뒤에 앞으로 나아감.
  → 학문은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야 함. -《맹자》
- 自勝者強(자승자강):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임. -《노자도덕경》
-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내는 것임. -《화엄경》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알고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桃李(도리):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 → 병렬 관계

❷ 문장 부호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을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 남이 그를 업신여긴다.

[해설] 구두법(句讀法): 글을 쓸 때 문장 부호를 쓰는 방법.

❸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有志者 事竟成也(유지자 사경성야): 뜻이 있는 사람은 일을 마침내 이룬다.

참고 자료

■ 人必自侮然後 人侮之

맹자가 말하였다. "인(仁)하지 않은 자와 더불어 말할 수 있겠는가. 위태로움을 편안히 여기고, 재앙을 이롭게 여겨, 망하게 되는 짓을 좋아한다. 인하지 않으면서도 더불어 말할 수 있다면 어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집안을 패하게 하는 일이 있겠는가. 유자(孺子)가 노래하기를 '창랑(滄浪)의 물이 맑거든 나의 소중한 갓끈을 빨 것이요, 창랑의 물이 흐리거든 나의 더러운 발을 씻겠다.'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소자들아 저 노래를 들어보라. 물이 맑으면 갓끈을 빨고, 물이 흐리면 발을 씻는다 하니, 이는 물이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하셨다.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업신여긴 뒤에 남이 그를 업신여기며, 집안은 반드시 스스로 망한 뒤에 남이 그 집안을 망하게 하며, 나라는 반드시 스스로 공격한 뒤에 남이 공격하는 것이다. 《태갑》에 이르기를 '하늘이 만든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거니와,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하여 살 수 없다.' 하였으니, 이것을 말한 것이다."(夫人必自侮然後 人侮之 家必自毁而後 人毁之 國必自伐而後 人伐之 太甲曰 天作孼 猶可違 自作孼 不可活 此之謂也)

-《맹자》〈이루상〉

■ 桃李不言 下自成蹊

태사공은 말한다. "《논어》에 '그 자신이 바르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저절로 시행되고, 그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명령을 내려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이 구절은 바로 이장군(李將軍)을 두고 한 말인가? 내가 이광 장군을 목도한 적이 있는데, 성실하고 후덕하기가 마치 시골 사람 같았으며 언변도 능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죽었을 때에 천하에 그를 알든지 몰랐든지 간에 모두 그를 위해서 매우 애통해하였다. 그의 충실한 마음은 참으로 사대부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속담에 이르길 '복숭아나무와 자두나무는 말을 하지 않지만 그 아래에는 저절로 (작은) 길이 생긴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비록 사소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큰 이치가 비유되어 있다."(太史公曰 傳曰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其李將軍之謂也 餘睹李將軍悛悛如鄙人 口不能道辭 及死之日 天下知與不知 皆爲盡哀 彼其忠實心誠信於士大夫也 諺曰 桃李不言 下自成蹊 此言雖小 可以諭大也)

-《사기》〈이장군 열전(李將軍列傳)〉

■ 不爲也 非不能也

맹자가 말했다. … 왕께서 왕 노릇하지 못하는 것은 하지 않아서이지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故 王之不王 不爲也 非不能也)" 왕(제선왕)이 말했다. "하지 않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맹자가 말했다. 태산을 옆구리에 끼고 북해를 뛰어넘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른을 위해 나뭇가지를 꺾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는 하지 않아서이지 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왕께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하시는 것은 태산을 끼고 북해를 뛰어넘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왕께서 천하의 왕이 되지 못하시는 것은 바로 나뭇가지를 꺾는 종류인 것입니다."

-《맹자》〈양혜왕상〉

■ 滿招損 謙受益

순(舜)임금이 말하였다. "우(禹)야, 유묘(有苗)가 나를 따르지 않으니 네가 가서 정벌하라." 우(禹)가 마침내 여러 제후들을 불러 모아놓고 군사들에게 맹세하였다. "정연한 군사들이여, 모두 나의 명령을 들어라. 무지한 유묘(有苗)가 어둡고 미혹하며 공경스럽지 못하여 남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어진 체하며 정도(正道)를 어기고 덕을 무너뜨려서 군자가 초야에 묻혀 있고 소인이 높은 지위에 오르니, 백성들이 그를 버리고 보호하지 않으며 하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마침내 내가 너희 군사들을 거느리고 황제의 말씀을 받들어 죄를 지은 자를 치려 하니, 너희들은 부디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쳐야 능히 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30일 동안을 유묘(有苗)의 백성들이 명을 거역하자, 익(益)이 우(禹)에게 조언하였다. "덕(德)은 하늘을 감동시키니 아무리 먼 곳이라도 미치지 않음이 없습니다. 교만(가득참)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받게 되니 이것이 바로 천도(天道)입니다.(滿招損 謙受益 時乃天道) … 지극한 정성은 신명(神明)을 감동시키는 법이거늘, 하물며 이 유묘(有苗)야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우(禹)가 익(益)의 훌륭한 말에 절하면서 "아아, 너의 말이 옳다." 하시고는 군대를 거두어 돌아왔다. 순임금이 마침내 문덕(文德)의 교화를 크게 펴시어, 방패를 잡고 추는 춤과 일산(日傘)을 잡고 추는 춤을 빈주(賓主)의 뜰에서 추게 하셨는데, 70일 만에 유묘(有苗)가 와서 항복하였다.

-《서경》〈대우모(大禹謨)〉

1~3 차시

07 더불어 사는 삶

학습 목표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단원 소개

선인들은 자신을 바로 세우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보고, 원만한 관계의 시작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강조된 오늘날에는 다른 사람과 함께할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선인들이 남긴 말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나와 남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대우법이 사용된 글은 그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도록 지도한다.

②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이해하여 글의 주제를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그룹 활동을 통한 토의, 인터뷰 활동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③ 격언은 오랜 역사적 생활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생에 대한 교훈이나 경계 따위를 간결하게 표현한 짧은 글로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단원을 통해 문장의 풀이에서 더 나아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선인들이 가졌던 지혜와 사상을 바르게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한다.

07

더불어 사는 삶

선현들은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다. 고전 속 문장을 읽으며 어떤 마음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고,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자.

邦有道에 貧且賤焉이 恥也요

邦無道에 富且貴焉이 恥也니라. 《논어》

倉廩實이면 則知禮節하고 衣食足이면 則知榮辱이라. 《관자》

50

문장의 풀이와 이해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나라에 도(道)가 있을 때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유하고 귀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논어》〈헌문〉

* 且(차): 또, 또한
* 焉(언): ~ 그것(거기)에서 = 於之, 於是

이해 공자(孔子)는 올바른 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에서는 관직에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해야 마땅하므로 가난하고 천한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반대로 무도한 통치가 자행되는 나라에서는 그에 협조하지 않아야 마땅하므로 부유하고 귀한 자리에 오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였음.

倉廩實, 則知禮節,
衣食足, 則知榮辱.

곳간이 가득 차 있으면 예절을 알게 되고, 입을 옷과 먹을 것이 풍족하면 영예와 치욕을 알게 된다.

-《관자》〈목민〉

* 倉廩(창름): 곳간, 창고.
* 足(족): 넉넉하다, 풍족하다

이해 관중(管仲)은 백성들은 먹고사는 일이 해결된 뒤에야 예의염치를 알게 되므로, 먼저 나라가 잘살게 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음.

《관자(管子)》: 중국 춘추 시대의 제나라 재상인 관중(管仲)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책. 부민(富民), 치국(治國), 포교(布敎)를 서술하고 패도 정치를 역설하였다.

太山, 不讓土壤, 故能成其大,
河海, 不擇細流, 故能就其深.

태산은 (적은) 흙을 사양하지 않으므로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고,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으므로 그 깊음을 이룰 수 있다. -《사기》〈이사 열전〉

* 太山(태산): 중국의 산 이름. = 泰山(태산)
* 故(고): 그러므로
* 不擇(불택): 선택해서 가려 내지 않고 다 받아들임.

이해 이사(李斯)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너그러이 포용해야 태산이나 하해같이 크고 깊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였음.

참고 자료 _太山 不讓土壤

지금 사람을 뽑아 쓰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물의 사람됨이 옳은지 그른지를 묻지 않고 굽은지 곧은지를 말하지 않고, 진(秦)나라 사람이 아니면 물리치고 빈객이면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여색이나 음악이나 주옥은 소중히 여기고 사람은 가벼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하에 군림하며 제후들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듣건대, '땅이 넓으면 곡식이 많이 나고, 나라가 크면 인구도 많으며, 군대가 강하면 병사도 용감하다.'고 합니다. 태산은 (적은) 흙을 사양하지 않으므로 그 거대함을 이룰 수 있으며,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으므로 그 깊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왕은 여러 백성을 물리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덕을 천하에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는 사방의 구분이 없고 백성들에게는 다른 나라가 없습니다. 사계절이 조화되어 아름답고 귀신은 복을 내립니다. 이것이 오제와 삼왕에게 적이 없었던 이유입니다.(今取人則不然 不問可否 不論曲直 非秦者去 爲客者逐 然則 是所重者在乎色樂珠玉 而所輕者在乎人民也 此非所以跨海內制諸侯之術也 臣聞地廣者粟多 國大者人衆 兵彊則士勇 是以太山 不讓土壤 故能成其大 河海 不擇細流 故能就其深 王者不卻衆庶 故能明其德 是以地無四方 民無異國 四時充美 鬼神降福 此五帝三王之所以無敵也)

-《사기》, 〈이사 열전(李斯列傳)〉

한문 개념 _대우법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 앞의 구를 출구(出句), 뒤의 구를 대구(對句)라고 부른다. 대우법(對偶法)은 표현의 단조로움을 없애고 문장에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병렬되는 표현의 가락을 맞추는 데 그 본질이 있다. 이 맞춰진 가락에 의해 산출된 운율(韻律)은 표현을 아름답게 하는 한편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효과가 있다.

대우법이 활용된 문장의 예

大烹豆腐瓜薑菜(대팽두부과강채)
가장 좋은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이고
高會夫妻兒女孫(고회부부아녀손)
가장 훌륭한 모임은 부부, 아들딸, 손자라네.

» '대팽두부' 대련(對聯)이라 불리는 이 연구(聯句) 밑에는 작은 글씨로 다음과 같은 말이 써 있다. '이것은 촌 늙은이의 제일가는 즐거움이다. 비록 허리춤에 큰 황금 도장을 차고 밥상 앞에 시중드는 여인이 수백 명 있다 하더라도 능히 이런 맛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어휘 뜻풀이

- **중용**(中庸): 「1」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은, 떳떳하며 변함이 없는 상태나 정도. 「2」《중용》에서 말하는 도덕론.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이 도리에 맞는 것이 '중(中)'이며, 평상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용(庸)'이다. 「3」 유학 경전인 사서(四書)의 하나. 공자의 손자인 자사(子思)가 지은 것으로 중용의 덕과 인간의 본성인 성(性)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 **종묘**(宗廟): 조선 시대에, 역대 임금과 왕비의 위패를 모시던 왕실의 사당. 태조 3년(1394)에 착공하여 정전을 짓고 세종 3년(1421)에 영녕전을 세웠으나 임진왜란 때 타 버리고 광해군 즉위년(1608)에 다시 세운 것이 지금 종로 3가에 남아 있다.
- **영고성쇠**(榮枯盛衰): 인생이나 사물의 번성함과 쇠락함이 서로 바뀜.
- **교언영색**(巧言令色): 공자가 말하였다. "그럴듯하게 꾸민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듯이 꾸민 반질한 얼굴에는 인이 적도다.(子曰 巧言令色 鮮矣仁)" -《논어》〈학이〉

신출 한자

邦	(방) 나라 邑, 7	友邦 異邦
恥	(치) 부끄럽다 心, 10	羞恥 恥辱
辱	(욕) 욕되다 辰, 10	辱說 侮辱
秩	(질) 차례 禾, 10	秩序 品秩
程	(정) 길, 한도 禾, 12	過程 日程
庸	(용) 떳떳하다 广, 11	凡庸 庸劣●
優	(우) 넉넉하다 人, 17	優秀 優劣
裕	(유) 넉넉하다 衣, 12	餘裕 裕福
庶	(서) 여러 广, 11	庶民 庶子
睦	(목) 화목하다 目, 13	和睦 親睦
賴	(뢰) 의뢰하다 貝, 16	依賴● 信賴
廉	(렴) 청렴하다 广, 13	廉恥 淸廉
恕	(서) 용서하다 心, 10	忠恕 容恕
枯	(고) 마르다 木, 9	枯死 枯渴
妄	(망) 망령되다 女, 6	妄言 妄想
賤	(천) 천하다 貝, 15	貴賤 賤待
倉	(창) 곳집 人, 10	倉庫 營倉
壤	(양) 흙 土, 20	土壤 天壤之差●
底	(저) 밑 广, 8	徹底 海底
庫	(고) 곳집 广, 10	金庫 寶庫
廟	(묘) 사당 广, 15	宗廟 東廟
拙	(졸) 못나다 手, 8	拙作 拙劣
窮	(궁) 다하다, 궁하다 穴, 15	困窮 窮理
辭	(사) 말씀, 사양하다 辛, 19	讚辭 辭退
排	(배) 밀치다 手, 11	排斥 排除
配	(배) 짝 酉, 10	分配 配偶
諒	(량) 살펴 알다 言, 15	諒解 諒知
譽	(예) 기리다 言, 21	名譽 榮譽
衰	(쇠) 쇠하다 衣, 10	老衰 衰退
巧	(교) 공교하다 工, 5	巧妙 精巧
焉	(언) 어조사 火, 11	於焉間
*廩	(름) 곳집 广, 16	倉廩
擇	(택) 가리다 手, 16	選擇 簡擇
徹	(철) 통하다 彳, 15	貫徹 徹夜
寶	(보) 보배 宀, 20	寶物 國寶
卑	(비) 낮다 十, 8	卑下 卑屈
劣	(렬) 못하다 力, 6	劣惡 卑劣
班	(반) 나누다 玉, 10	兩班 班長
包	(포) 싸다 勹, 5	包含 內包
斥	(척) 물리치다 斤, 5	排斥 斥和碑●
慮	(려) 생각하다 心, 15	考慮 心慮
寬	(관) 너그럽다 宀, 15	寬大 寬容
繁	(번) 번성하다 糸, 17	繁榮 繁昌
豪	(호) 호걸 豕, 14	豪傑 豪放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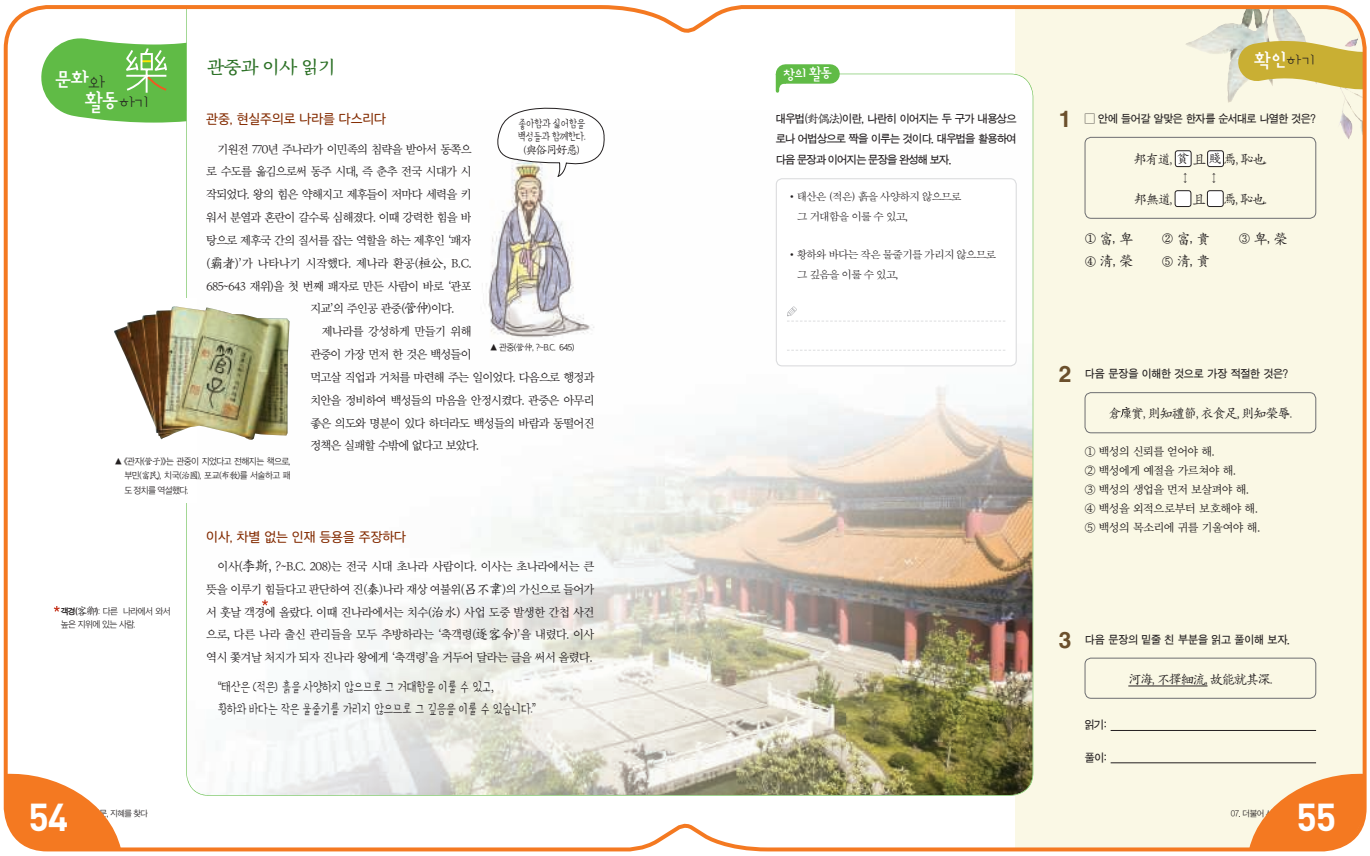
- 천양지차(天壤之差): 하늘과 땅 사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
- 용렬(庸劣): 사람이 변변하지 못하고 졸렬함.
- 척화비(斥和碑): 조선 고종 8년(1871)에 흥선 대원군이 척양(斥洋)을 결의하며 서울과 지방 각처에 세운 비석. '침범하는 양이(洋夷)와 화친(和親)할 수 없다.'라는 뜻을 새겨 넣었다.
- 의뢰(依賴): 「1」 굳게 믿고 의지함. 「2」 남에게 부탁함.

성어의 유래 _욕속부달

- 욕속부달(欲速不達): 일을 빨리하려고 하면 도리어 이루지 못함.

유래 자하가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매사에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마라. 서두르다 보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欲速則不達 見小利則大事不成)"라고 말한 데서 유래함.

-《논어》〈자로〉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개인의 삶에서 나아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생각해 볼 만한 내용 중에 대우의 형식으로 표현된 글을 제시하여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예시 답안

- 자연은 작은 생명체도 가리지 않으므로 위대함을 이룰 수 있었다.
- 만리장성은 작은 돌을 가리지 않으므로 그 장대함을 이룰 수 있었다.
- 허준은 작은 풀도 가리지 않았으므로 동양에서 가장 위대한 동의보감을 쓸 수 있었다.

* 만리장성(萬里長城): 중국의 북쪽에 있는 성. 춘추 전국 시대의 조(趙)·연(燕) 등이 변경 방위를 위하여 축조한 것을 진(秦)의 시황제가 크게 증축하여 완성하였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명나라가 몽골의 침입에 대비하여 쌓은 것이다. 길이는 2,700km.
* 《동의보감(東醫寶鑑)》: 조선 시대에, 의관(醫官)인 허준이 선조의 명에 따라 편찬한 의서(醫書). 동양에서 가장 우수한 의학서의 하나로 평가되며, 탕약편(湯藥篇)에는 수백 종의 향약명(鄕藥名)이 한글로 적혀 있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문장을 바르게 읽고 풀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貧(빈) ⇔ 富(부), 賤(천) ⇔ 貴(귀)

❷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곳간이 가득 차 있으면 예절을 알게 되고, 입을 옷과 먹을 것이 풍족하면 영예와 치욕을 알게 된다.
→ 백성들은 먹고사는 일이 해결된 뒤에야 예의염치를 알게 되므로, 먼저 나라가 (백성을) 잘살게 해 주어야 함.

❸ 문장을 바르게 읽고 풀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읽기: 하해, 불택세류,
풀이: 황하와 바다는 작은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

[해설] 河海(하해): 황하와 바다.

참고 자료

■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공자가 말했다. "도(道)를 돈독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며, 죽음으로 지켜 도를 잘 실천해야 한다. 위태로운 나라에는 들어가지 말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말 것이며, 천하에 도가 있으면 나와 벼슬하고, 도가 없으면 숨어야 한다. 나라에 도(道)가 있을 때 가난하고 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부유하고 귀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子曰 篤信好學 守死善道 危邦不入 亂邦不居 天下有道則見 無道則隱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논어》, 〈헌문〉

■ 倉廩實 則知禮節

무릇 땅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 힘쓸 일은 사계절의 농사일이요 지켜야 할 것은 곡식 창고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사람이 오게 될 것이고, 토지가 모두 개간되면 백성이 머물러 살 것이다. 곳간이 가득 차 있으면 예절을 알게 되고 입을 옷과 먹을 것이 풍족하면 영예와 치욕을 알게 된다. 윗사람이 법도를 지키면 육친(六親)이 돈독해지고, 사유(四維, 예의염치)를 베풀면 군주의 명령이 지켜진다. 그러므로 형벌을 줄이는 요체는 사치와 교묘한 것을 금하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법도는 사유를 펼치는 데 있다. 백성을 따르게 하는 법도는 귀신을 밝히고, 산천에 제를 올리며 종묘를 높이고 조상을 공경하는 데 있다. 천시(天時)에 힘쓰지 않으면 재물이 생기지 못하고, 지리(地利)에 힘쓰지 않으면 창고를 채우지 못하고, 들판을 황무지로 비워 두면 백성들은 간사해지고 위에 법도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령이 든다. 사치를 금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문란해진다. … 사유를 펼치지 않으면 나라는 마침내 멸망하게 된다.(凡有地牧民者 務在四時 守在倉廩 國多財 則遠者來 地辟擧 則民留處 倉廩實 則知禮節 衣食足 則知榮辱 上服度 則六親固 四維張 則君令行 故省刑之要 在禁文巧 守國之度 在飾四維 順民之經 在明鬼神 祗山川 敬宗廟 恭祖舊 不務天時 則財不生 不務地利 則倉廩不盈 野蕪曠 則民乃菅 上無量 則民乃妄 文巧不禁 則民乃淫 … 四維不張 國乃滅亡) -《관자》, 〈목민〉

* 사유(四維): 나라를 다스리는 데 지켜야 할 네 가지 원칙. 곧 예(禮)·의(義)·염(廉)·치(恥)를 이름.

■《사기》〈관안 열전〉

관중(管仲) 이오(夷吾)는 영수(潁水: 현재 허난성 서북부 지역) 출신이다. … 관중이 기용되어 제나라 정치를 맡으니, 제나라 환공은 패주가 되어 아홉 번 제후들을 규합하여 단번에 천하를 바로 잡았다. 관중의 계책 덕분이었다. … 관중이 국정을 맡아 제나라의 상이 되어 바닷가의 작은 제나라를 화물이 서로 통하고 재화가 쌓이는 부유한 나라와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로 만들고 백성들과 좋고 싫음을 함께했다. 그래서 관중은 이렇게 말했다. … "곳간이 가득 차 있으면 예절을 알게 되고 입을 옷과 먹을 것이 풍족하면 영예와 치욕을 알게 된다. 위에서 법도를 지키면 육친이 굳건해진다. 예의와 염치가 느슨해지면 나라가 망한다. 아래로 내리는 명령은 물이 땅으로 흐르듯 민심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말은 간결하고 실행은 쉬워졌다. 풍속이 하고자 하는 대로 그에 맞추어 주었고, 풍속이 원치 않으면 그에 따라 없애 주었다. 관중은 국정을 수행하면서 화가 될 것도 복이 되게 하고, 실패할 것도 성공시켰다. 물가를 중시했고 거래를 신중하게 처리했다. … 가(柯)나라의 회맹에서 환공이 조말(曹沫)과의 약속을 어기려고 하자 관중이 약속을 지키게 함으로써 제후들이 제나라로 귀의하게 했다. 그래서 "주는 것이 얻는 것임을 아는 것이 정치의 요체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관중은 공실보다 더 부유하여 삼귀(三歸)와 반점(反坫)을 갖추고 있었으나 제나라 사람들은 그가 사치스럽다고 여기지 않았다. 관중이 죽고도 제나라는 그 정치를 준수하여 늘 제후들보다 강했다. …(管仲旣任政相齊 以區區之齊在海濱 通貨積財 富國彊兵 與俗同好惡 故其稱曰 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 上服度則六親固 四維不張 國乃滅亡 下令如流水之原 令順民心 故論卑而易行 俗之所欲 因而予之 俗之所否 因而去之 其爲政也 善因禍而爲福 轉敗而爲功 貴輕重 愼權衡 … 於柯之會 桓公欲背曹沫之約 管仲因而信之 諸侯由是歸齊 故曰 知與之爲取 政之寶也 管仲富擬於公室 有三歸反坫 齊人不以爲侈 管仲卒 齊國遵其政 常彊於諸侯 …)

-《사기》〈관안 열전〉

* 삼귀(三歸): 관중이 축조한 삼귀대(三歸臺)라는 화려한 누대.
* 반점(反坫): 술잔을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자리. 《논어》에 한 나라의 임금이라야 두 임금이 만날 때 반점을 둘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음.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지명(地名)의 유래를 조사하며 우리의 문화유산을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 지역의 문화유산 답사를 통하여 활동지를 작성하고, 답사 후 활동으로 동영상이나 프레젠테이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발표하도록 한다. 활동을 통하여 전통문화의 심미적 가치를 발견하고 계승·발전을 위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 **가락동**(可樂洞): 조선 시대 '가락골'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예전에 한강이 범람해 송파 일대가 침수되자 주민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가히 살 만한 땅'이라고 하여 가락리(可樂里)라 부른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있음.
- **명륜동**(明倫洞): 조선 시대 유학 교육을 맡은 최고 기관인 성균관(成均館) 유생들을 가르치던 '명륜당(明倫堂)'에서 유래함.
- **세검정**(洗劍亭):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조선 영조(1748년) 때 세운 창의문(彰義門) 밖에 있던 정자로, 인조반정 때 이귀, 김유 등이 이곳에 모여 광해군 폐위를 결의하고 '칼을〔劍〕 갈아 씻었던〔洗〕 자리'라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 함.
- **왕십리**(往十里): 조선 초 무학 대사가 도읍을 정하려고 할 때 이곳에서 도선 대사의 변신인 늙은 농부로부터 십 리를 더 가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왕십리'라 전해짐.
- **이태원**(梨泰院): 조선 시대에 이태원(梨泰院)이라는 역원(驛院)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했다고도 하고, 이 마을에 '배나무'가 많이 있던 데서 마을 이름이 유래되었다고도 함.
- **제물포**(濟物浦): 강화도 조약(1876년) 이후, 1883년에 인천이 개항될 때 '물자가 건네지는〔濟〕 포구(浦口)'라는 뜻에서 제물포라는 지명이 유래함.
- **태릉**(泰陵): 태릉은 불암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사적 201호로, 조선 11대 중종의 계비이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 윤씨의 능임.

Ⅱ 단원 총괄 평가

정답 223쪽

[01~04]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孤掌難鳴이라.
(나) ㉡積功之塔은 不墮라.
(다) ㉢我腹旣飽면 不察奴飢라.
(라) 滿招損은 謙㉣受益이라.
(마) ㉤倉廩實이면 則知禮節하고 衣食足이면 則知榮辱이라.

01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단어의 짜임이 같은 것은?

보기
桃李不言, 下自成蹊.

① ㉠ ② ㉡ ③ ㉢
④ ㉣ ⑤ ㉤

02 (가)~(마) 중에서 토를 붙인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03 다음 내용과 가장 관계있는 것은?

백성들은 먹고사는 일이 해결되어야 예의와 염치를 알게 되므로 먼저 나라가 백성들을 잘살게 해 주어야 한다.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04 (다)의 '我'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信賴 ② 配慮 ③ 淸廉
④ 意志 ⑤ 寬容

[05~06] 다음 문장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太山, 不讓土壤, 故能成其大,
河海, 不擇細流, 故能就其(㉠).

05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① 恥 ② 悔 ③ 侮
④ 深 ⑤ 賤

06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해.
②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포용하겠어.
③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지키는 삶을 살겠어.
④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인들을 잊지 말아야지.
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소중히 아껴 써야지.

07 서술형 | 다음 문장의 음을 〈조건〉에 맞게 쓰시오.

人必自侮然後人侮之

조건
문장 부호를 표시할 것.

08 서술형 | 다음 문장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凡曰某事難者, 皆不爲也, 非不能也.

III

이야기, 나를 성찰하다

08 거위의 지혜

09 양심의 소리

많은 정보가 때로는 판단력을 더 흐리게 하기도 하고, 경제의 발전이 배금주의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현대인이 직면한 이와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옛글을 읽다 보면 선인들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며 살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한문으로 쓰인 하나의 완결된 글을 배우게 된다. 호흡에 맞게 문장을 띄어 읽으면서 글을 감상해 보자.

대단원 학습 목표

-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대단원 설정의 이유

인간은 성찰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성숙한 존재로 거듭난다. 성찰은 욕심이나 이기심을 다스려 인격을 성장하게 한다. 성찰은 자신의 내면과 현실을 돌이켜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는 인생의 부단한 여정이다.

이 단원에서는 두 편의 완결된 문장을 학습하고자 한다. '거위의 지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게 하고, '양심의 소리'는 도덕 불감증에 걸린 현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모두 옛글이지만 호흡에 맞춰 문장을 띄어 읽으며 행간의 의미를 짚다 보면 무엇이 인생을 값지게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되묻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두 글을 통해 학습자들은 성찰은 거창한 질문에 답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신의 삶이나 행동을 되돌아보며 실천으로 완성해야 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❶ 새로 나온 한자와 단어는 그 음과 뜻을 정확히 알아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❷ 이야기가 있는 완결된 글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단원이므로 학생들이 지루해하거나 어렵지 않게 지도하고, 스스로 문장을 직접 풀이하는 연습을 하게 하여 한문 독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❸ 문장의 유형은 문장을 바르게 풀이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므로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문장을 풀이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❹ 세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는 유래를 통해 속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난 후, 신문 기사나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실생활에서 성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찾아보게 하여 언어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❺ 단원 학습 목표에 유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되 교과서에서 제시한 평가 문항에 국한하지 말고 창의 활동과 대단원 활동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소단원	차시	교과서 쪽수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08. 거위의 지혜	3	62~67	• 문장의 유형 구별하기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하기 •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과학)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읽고 풀이하기 • 학습 용어 조사하기
09. 양심의 소리	3	68~73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 이해와 공감하기 • 토의·토론하기 • 자경문 만들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74~77	•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기 •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 가치관 경매 게임을 통해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 발표하기	• 활용하기 • 토의·토론하기

1~3 차시

08 거위의 지혜

학습 목표

-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단원 소개

행복이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행복이란 자신에게 알맞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이나 결과에서 기쁨이나 즐거움 혹은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삶의 목표와 가치관의 부재로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시선과 사회가 정한 잣대에 자신을 맡긴 채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삶의 균형과 평화를 잃기도 한다.

이 단원에서 만나게 되는 야생 거위는 육체의 편안함이 주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이 본래 가진 야생성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예전처럼 하늘을 날 수 있도록 주인이 주는 먹이를 더 이상 먹지 않고 몸이 가벼워져서 다시 하늘로 날아갔다.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비결은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 거위의 심리적 변화에 유의하여 한문으로 쓰여진 완결된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새로 나온 한자와 어휘는 음과 뜻을 정확히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문을 읽을 때는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구두와 문장의 어기에 유의하도록 읽는다.
③ 일화에 등장하는 야생 거위가 보여 준 지혜로움이 무엇인지 말해 보고 현재적 의미를 깨우칠 수 있도록 한다.
④ 문장의 유형은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므로,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습의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한다.

08 거위의 지혜

주인이 주는 밥을 먹지 않고 열흘을 굶은 야생 거위가 있다. 날 수 없어도 편하게 먹으며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지켜 내고 다시 자유롭게 하늘을 날 것인가? 야생 거위의 이야기를 통해 지혜롭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人有畜野鵝者하여 多與煙火之食한대

鵝便體重하여 不能飛라.

62

본문의 풀이와 이해

人有畜野鵝者, 多與煙火之食,

사람 중에 야생 거위를 기르는 사람이 있어서
(거위에게) 불에 익힌 음식을 많이 주었는데

* 野鵝(야아): 야생 거위.
* 與(여): 주다
* 煙火之食(연화지식): 불에 익힌 음식. →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

鵝便體重, 不能飛.

거위가 곧 몸이 무거워져서 날 수 없었다.

* 便(변): 곧, 바로

翁聞之曰: "智哉! 善自保也."

옹이 그것을 듣고 말하였다.

"지혜롭구나! 스스로 잘 지켰도다."

* 翁(옹): 늙은이. 여기서는 성호 이익을 말함.
* 善(선): 잘하다
* 智哉(지재): 지혜롭구나! → 감탄문
  ※ 哉(재): ~(이)도다!, ~(이)구나!

» 야생 거위가 자신을 지키는 길은 눈앞의 먹이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거위의 행동에 나타난 거위의 심리(변화)를 살펴 보자.

거위의 행동	거위의 심리(변화)
불에 익힌 음식을 먹음.	눈앞의 이익에 몸을 맡김.
몸이 무거워져 날 수가 없음.	편안한 삶에 길들여짐.
갑자기 음식을 먹지 않음.	자신의 본성(야생성)을 잃게 된 것을 깨달음.
주인이 먹을 것을 더 주어도 먹지 않음.	자신의 본성(야생성)을 찾기 위해 인내함.
열흘 쯤 지나자 몸이 가벼워짐.	야생의 본성을 다시 찾게 됨.
하늘로 날아감.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자신의 본성을 찾아 날아감.

-《관물편》

後忽不食, 人以爲病, 益與之食而不食.

후에 갑자기 먹지 않으니 사람이 병이 났다고 여겨 (거위에게) 먹을 것을 더욱 주었으나 먹지 않았다.

* 以爲(이위): ~(이)라고 여기다
* 而(이): 그러나

旬日而體輕, 凌空而去.

열흘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 旬日(순일): 열흘.
* 凌空(능공): 하늘 높이 오르다
* 而(이): ~하여

작가와 출전

- 이익(李瀷, 1681~1763): 조선 영조 때의 학자.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자신(子新), 호는 성호(星湖). 유형원의 학풍을 이어받아 실학의 대가가 되었으며 특히 천문, 지리, 의학, 율산(律算), 경사(經史)에 업적을 남겼다. 관계(官界)에 나가지 않고 경기도 광주군 첨성리(瞻星里, 현재 경기도 안산)에서 평생 동안 초야의 학자로 지내며 저술과 후진 양성에 전력하였다. 주변에 있던 '성호(星湖)'라는 호수의 이름을 따서 스스로 호를 지었다고 한다. 저서에 《성호사설》, 《성호문집》이 있다.
- 《관물편(觀物篇)》: 성호 이익(李瀷)이 식물, 가축, 새 등 생활 주변의 사물을 면밀히 관찰하고 느낀 것을 틈틈이 기록한 메모를 모은 책으로, 77조의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관물(觀物)'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송(宋)나라의 철학자 소옹(邵雍, 1011~1077)인데, 그는 눈으로 보는 '이목관물(以目觀物)', 마음으로 보는 '이심관물(以心觀物)', 이치로 보는 '이리관물(以理觀物)'을 제시하였다.

한문 개념 _문장의 유형

화자(話者)가 나타내는 어기(語氣)를 기준으로 나누면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❶ **평서문**(平敍文):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하고 싶은 말을 단순하게 진술하는 문장. 문장 끝에 '也(야)', '矣(의)' 등의 종결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긍정의 평서문과 부정의 평서문이 있다.

예 言心聲也.: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
不問馬.: 말은 묻지 않았다.

❷ **의문문**(疑問文):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하여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보통 '何(하)', '誰(수)', '孰(숙)' 등의 의문사를 쓰고 문장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어조사 '乎(호)' 등을 씀.

예 禮與食孰重?: 예와 음식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가?

❸ **명령문**(命令文):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요청하는 문장. '勿(물)', '無(무)', '請(청)' 등 금지 또는 요청의 뜻을 나타내는 말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예 非禮勿視.: 예가 아니면 보지 말라.

❹ **감탄문**(感歎文): 사물이나 사실에 느낌을 받아 슬픔, 기쁨, 놀라움 등의 감정을 나타내는 문장. 문장 앞에 감탄사인 '嗚呼(오호)' 등을 사용하거나 '乎(호)', '哉(재)' 등 감탄의 어기를 나타내는 어조사를 문장 끝에 씀.

예 智哉!: 지혜롭구나!

성어의 유래

• 노마지지(老馬之智): 늙은 말의 지혜. → 「1」 아무리 하찮은 것일지라도 저마다 장기나 장점을 지니고 있음. 「2」 경험을 쌓은 사람이 갖춘 지혜.

성어 제(齊)나라 관중(管仲)과 대부 습붕(隰朋)이 환공을 따라 고죽국(孤竹國)을 정벌하였다. 전쟁이 길어져 봄이 가고 겨울이 돌아왔는데 길을 잃었다. 관중이 말했다. "늙은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 늙은 말을 풀어 전군이 그 뒤를 따라 행군한 지 얼마 안 되어 길을 찾았다.

-《한비자》〈세림〉

신출 한자

畜	(축) 가축 / (휵) 기르다 田, 10	家畜 畜産
旬	(순) 열흘 日, 6	中旬 三旬
格	(격) 격식 木, 10	價格 資格
伸	(신) 펴다 人, 7	伸縮 伸張
供	(공) 이바지하다 人, 8	提供 供給
康	(강) 편안하다 广, 11	康寧 健康
僞	(위) 거짓 人, 14	眞僞 僞造
旋	(선) 돌다 方, 11	旋回 旋風●
芽	(아) 싹 艸, 8	發芽 胚芽
朔	(삭) 초하루 月, 10	朔日 朔望
媒	(매) 중매 女, 12	中媒 媒介
裂	(렬) 찢다 衣, 12	龜裂 決裂
菌	(균) 버섯, 세균 艸, 12	保菌 殺菌
茶	(다/차) 차 艸, 10	茶禮 茶菓
*鵝	(아) 거위 鳥, 18	野鵝
*凌	(릉) 오르다 冫, 10	凌蔑
付	(부) 부치다 人, 5	納付
佐	(좌) 돕다 人, 7	王佐 保佐
提	(제) 끌다 手, 12	提出 提案
欄	(란) 난간 木, 21	欄干 空欄
慧	(혜) 지혜 心, 15	知慧 慧眼
禽	(금) 새 内, 13	禽獸 家禽●
培	(배) 북돋우다 土, 11	培養 栽培
潮	(조) 밀물 水, 15	潮流 潮力
球	(구) 공 玉, 11	地球 球形
紫	(자) 자줏빛 糸, 12	紫朱 紫外線●
院	(원) 집 阜, 10	病院 法院
忽	(홀) 갑자기 心, 8	忽然 忽待
智	(지) 지혜 日, 12	智慧 智能
納	(납) 들이다 糸, 10	貢納 納入
補	(보) 깁다, 돕다 衣, 12	補完 補充
健	(건) 굳세다 人, 11	健全 健實
蒼	(창) 푸르다 艸, 14	蒼天 蒼空
疾	(질) 병 疒, 10	疾病 疾患
獸	(수) 짐승 犬, 19	怪獸 猛獸
慣	(관) 익숙하다 心, 14	慣習 慣行
觸	(촉) 닿다 角, 20	觸媒 接觸
核	(핵) 씨 木, 10	中核 核心
玄	(현) 검다 玄, 5	玄米 玄武巖
疫	(역) 전염병 疒, 9	免疫 防疫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선풍(旋風): 「1」 회오리바람. 「2」 돌발적으로 일어나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
-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주로 알이나 고기를 식용하기 위하여 기른다. 닭·오리·거위 따위.
- 자외선(紫外線): 파장이 엑스선보다 길고, 가시광선보다 짧은 전자기파.
  ※ 가시광선(可視光線):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등적색, 등색, 황색, 녹색, 청색, 남색, 자색의 일곱 가지가 있다.

학습 용어 _과학

- **퇴적암**(堆積巖): 퇴적 작용으로 생긴 암석.
- **화성암**(火成巖): 마그마가 냉각·응고되어 이루어진 암석.
  ※ 현무암(玄武巖): 화성암의 하나. 검은색이나 검은 회색을 띠고 등등 모양인 것이 많으며, 입자가 미세하고 치밀함.
- **변성암**(變成巖): 퇴적암 또는 화성암이 땅 밑 깊은 곳에서 온도, 압력 따위의 영향으로 변질하여 이루어진 암석.
  ※ 암석은 생성 과정(원인)에 따라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된다.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수오재기(守吾齋記)〉는 '나를 지키는 집(서재)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이다. 정약용(丁若鏞)은 이 글에서 자신을 지키지 못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나(吾)'를 지켜야 한다고 하였다. 〈수오재기〉를 읽고 '나'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작성해 보며 현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예시 답안

- **나를 지킨다는 의미**: 겉으로 보이는 '나'만이 진정한 내가 아니다. 본질적 자아는 내 속에 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본질적 자아를 지킨다는 의미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가치에 매몰되기 쉽다. 눈에 보이는 가치, 다른 사람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가치(약속)를 지키며 사는 것이 진정 나의 삶이다.
-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지키고 싶다. 예를 들어 가족, 친구들과의 우정, 자기 자신과 한 약속 등이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 사람이 병이 났다고 여기다.
㉯ 먹을 것을 더욱 주었으나 먹지 않았다.

[해설] ㉮ 以爲(이위): ~(이)라고 여기다
㉯ 而(이): 그러나

❷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智哉!(지재): 지혜롭구나!

❸ 글의 주제를 바르게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⑤

[해설] 善自保也(선자보야): 스스로 잘 지켰도다!

※ '善(선)'의 여러 가지 뜻
(1) 착하다 예 善惡(선악), 善良(선량)
(2) 좋다 예 最善(최선), 多多益善(다다익선)
(3) 잘하다 예 善戰(선전), 善防(선방)

참고 자료

《관물편(觀物篇)》 읽기

• 벌레의 지혜를 깨닫다

옹이 뽕나무를 키웠다. 나무가 처음 자랄 때부터 벌레가 있었는데 이름은 양갑(楊甲)이다. 나무껍질을 갉아 내고 그 속에 새끼를 낳았다. 새끼가 자라면서 나무 속을 갉아 먹는데 가지에서부터 줄기로, 줄기에서부터 뿌리로 갉아 먹어 가면서 중간중간 나무에 구멍을 뚫어 공기가 통하는 창을 만들었다. 벌레를 제거하자니 나무가 상할 것이고 내버려 두자니 나무가 말라 죽게 생겼다. 결국 말라 죽게 놓아둘 바에야 차라리 껍질을 가르고 벌레를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나무를 쪼개서 찾도록 했다. 그런데 창구멍이 서쪽에 있으면 벌레는 동쪽에 있고, 창구멍이 남쪽에 있으면 벌레는 북쪽에 있었다. 깊숙이 숨어서 해를 멀리한 것이다. 아! 미물이지만 지혜롭구나.(翁養桑 初成有蟲 名楊甲 齧樹膚 窠其種 種長而食木心 從枝而榦 從榦而根 竅以爲氣窓 欲去 則木傷 不去 樹枯 與其終枯 不若刳膚以去蠹 命鑿破以覓之 窓西 則蟲東 窓南 則蟲北 蓋邃蟄而遠害 噫 微物亦智矣)

• 닭에게서 배우다

닭이 벌레를 잡자 다른 닭이 그것을 빼앗았다. 미처 삼키기 전까지는 서로 좇아다니며 뺏으려 들었지만 다 삼키고 나면 곧 그만두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였다. 옹이 말하였다. "사람이 세상에서 명예와 이익을 다툴 때에는 일이 이미 끝났는데도 화를 더욱 심하게 내고 혹은 서로 살상하는 지경까지 이르니, 닭을 보고 마땅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一鷄得蟲 一鷄奪之 其未食也 相逐而爭之 旣食 則便止 無幾微色 翁曰 人之於世 爭名爭利 事旣往 而怒愈甚 或至於殺傷 觀於鷄 宜知愧矣)

• 꿀벌에게서 인간 세상을 보다

꿀벌에는 여왕벌이 있다. 여왕벌은 지혜와 힘이 있는 것이 아닌데도 벌들을 거느리며 모든 벌이 복종한다. 뭇 벌은 뭇 벌을 낳고 여왕벌은 여왕벌을 낳으니 분수가 정해져서 바뀌지 않는다. 옹이 말하였다. "천하의 국가를 꾸려 나가는 세습 전통을 벌에게서 보는구나."(蜜蜂有王 王非有智力 可以禦衆 而群蜂服焉 群蜂種蜂 蜂王種王 分定而不易 翁曰 天下爲家世襲傳統 於鋒斯見)

이달충(李達衷) 〈애오잠병서(愛惡箴幷序)〉

유비자(有非子) 무시옹(無是翁)에게 찾아가서 이르기를, "근자에 여럿이 모여서 인물을 평론하는데 어떤 사람은 옹(翁)을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옹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 옹은 어찌하여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 대접을 받고, 어느 사람에게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지요." 옹이 듣고 해명하기를, "남이 날 보고 사람이라 하여도 내가 기뻐할 것이 없고, 남이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하여도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사람다운 사람은 나를 사람이라 하고 사람 아닌 사람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나는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른다.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나는 기뻐할 일이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나는 또한 기뻐할 일이며, 사람다운 사람이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면 나는 두려워할 일이요, 사람 아닌 사람이 나를 사람이라 하면 또한 두려워할 일이다. 기뻐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마땅히 나를 사람이라 하고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인지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지를 살필 일이다. 그러므로 오직 인(仁)한 사람이어야 능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나니, 나를 사람이라 하는 사람이 인한 사람인지 나를 사람이 아니라 하는 사람이 인한 사람인지."라고 하였다. 유비자가 웃으면서 물러갔다. 무시옹이 이것으로 잠(箴)을 지어 자신을 일깨웠다. 잠에 이르기를, "자도(子都: 춘추 시대 정(鄭)나라의 미남자)의 어여쁜 것이야 뉘가 아름답다 아니하며 역아(易牙: 제나라 환공(桓公)의 신하로 음식을 잘 만들기로 유명함)의 음식 만든 것이야 뉘가 맛있다 아니하랴. 좋아함과 미워하는 것이 시끄러울 때 어찌 자기 몸에 반성하지 아니하랴."

- 〈한국고전번역원(이가원 역)〉

이달충 〈애오잠병서〉의 이해

어떤 사람이 평가하느냐에 따라 사물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나 나에 대한 평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행실을 떳떳하고 올바르게 한다면 어떠한 평가도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아니다. 진정한 평가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1~3 차시

09 양심의 소리

학습 목표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단원 소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과 공기와 음식 같은 외부 조건도 필요하지만, 공동체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적인 규범도 반드시 필요하다. 양심과 부끄러움은 개인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도덕 규범이다. 양심은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판단하고 옳은 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도덕적 의식이고, 부끄러움은 양심에 거리끼어 볼 낯이 없거나 떳떳하지 못한 자기 성찰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중국 후한 시대 양심을 지키며 살았던 양진의 일화를 배우게 된다. 양심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규범임을 이해하고, 양심과 부끄러움이 우리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글을 읽을 때는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구두와 문장의 어기에 유의하도록 읽는다.

② 내가 만약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었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솔직한 대화를 이끌어 내게 하여 토론해 보고 이야기의 현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양심을 지키며 참된 삶을 살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 조사해 보고,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덕목과 의미에 대해 생각하도록 한다.

④ 문장의 유형(부정문)은 문장을 바르게 읽고 풀이하기 위해 설명하되,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습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09 양심의 소리

중국 후한 시대, 양진이 동래 태수가 되어 부임해 가던 길에 창읍에 묵게 되었다. 깊은 밤, 양진이 머물던 곳으로 예전에 자신이 벼슬에 천거해 주어서 이제는 창읍의 현령이 된 왕밀이 찾아오는데…….

王密❶이 爲昌邑❷令하여 謁見하고

至夜에 懷金十斤하여 以遺震❸이라.

震曰: "故人은 知君이로되 君이 不知故人은 何也오?"

❶ 王密 왕밀: 중국 후한(後漢) 때 산동성(山東省) 창읍(昌邑)의 현령(縣令).
❷ 昌邑 창읍: 중국 산동성(山東省) 창읍시(昌邑市).
❸ 震 진: 중국 후한(後漢) 때 형주(荊州) 자사(刺史) 양진(楊震).

본문의 풀이와 이해

王密, 爲昌邑令, 謁見,
至夜, 懷金十斤, 以遺震.

왕밀이 창읍의 현령이 되어 (양진을) 찾아뵙고
밤이 되자 황금 열 근을 품고서 양진에게 바쳤다.

* 王密(왕밀): 중국 후한(後漢) 때 산동성(山東省) 창읍(昌邑: 중국 산동성 창읍시)의 현령.
* 謁見(알현): 지체가 높고 귀한 사람을 찾아가 뵘.
* 斤(근): 무게의 단위. 1근은 16냥(兩)으로, 한대(漢代)에는 1근이 약 223g이었음.
* 楊震(양진): 중국 후한(後漢) 때 형주(荊州) 자사(刺史).

震曰: "故人知君, 君不知故人, 何也?"

양진이 말했다. "나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가 나를 모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震曰: "天知, 神知, 我知, 子知, 何謂無知?"

양진이 말했다.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 子(자): 그대(2인칭 대명사)

密愧而出.

왕밀이 부끄러워하고 나갔다.

성어 사지(四知): 두 사람만의 비밀이라도 어느 때고 반드시 남이 알게 됨.

-《후한서》〈양진전〉

* 故人(고인): 옛 친구. 여기서는 양진이 자기 자신을 가리킴.
* 君(군): 그대(2인칭 대명사)
* 不(불): 첫소리가 'ㄷ'이나 'ㅈ'인 글자 앞에서는 '부'로 읽음.
  예 不同(부동), 不足(부족)

문장의 유형

- 君不知故人: 그대가 나를 모르다 → 부정문
- 君不知故人, 何也?: 그대가 나를 모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 의문문

密曰: "暮夜, 無知者."

왕밀이 대답했다. "늦은 밤이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 모야(暮夜): 이슥하여 어두운 밤

성어 모야무지(暮夜無知): 이슥한 밤에 하는 일이라서 보고 듣는 사람이 없거나 알 사람이 없음.

참고 자료 _《목민심서》에 나온 청렴 이야기

- 송(宋)나라 농부가 밭을 갈다가 옥을 얻었다. 이를 사성(司城) 자한(子罕)에게 바쳤더니 그는 받지 않았다. 농부가 청하기를, "이것은 저의 보배입니다. 상국(相國)께서는 받으소서." 하였다. 자한이 "그대는 옥을 보배로 삼고 나는 받지 않는 것을 보배로 삼으니, 내가 받는다면 그대와 내가 다 보배를 잃는 셈이다." 하였다.(宋之野人耕而得玉 獻之司城子罕 子罕不受 野人請曰 此野人之寶也 願相國受之 子罕曰 子以玉爲寶 我以不受爲寶 若我受之 爾與我皆喪寶也)

- 공의휴(公儀休)가 노(魯)나라 정승으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물고기를 선물하였는데 받지 않았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이 물고기를 즐긴다고 해서 선물하는 것인데 왜 받지 않으십니까?" 하니, 공의휴가 "물고기를 즐기기 때문에 받지 않소. 이제 재상이 되었으니 스스로 물고기를 마련할 수 있소. 지금 물고기를 받다가 도리어 면직되면 다시 누가 내게 물고기를 주겠소? 내가 그런 까닭에 받지 않는 것이오." 하였다.(公儀休爲魯相 客有遺魚者不受 客曰 聞君嗜魚 遺君魚 何故不受也 休曰 以嗜魚故不受也 今爲相 能自給魚 今受魚而免 復誰給我魚者 吾故不受也)

-《목민심서》〈율기(律己)〉

한문 개념 _부정문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부정사를 사용함.

- 不(불): 아니다 ※ 형용사와 동사류를 부정함.
  - 예 不知(부지): 알지 못한다.
- 無(무): ~이/가 없다 ⇔ 有(유)
  - 예 無聲(무성): 소리가 없다.
- 非(비): ~이/가 아니다 ※ 주로 명사류를 부정함.
  - 예 非仁者(비인자): 어진 사람이 아니다.
- 未(미): 아직 ~이/가 없다, 일찍 ~이/가 아니다
  - 예 未聞(미문): 아직 듣지 못했다.
- 莫(막): (어떤 것)이/가 없다. ※ 대명사를 포함한 부정사
  - 예 莫非王土(막비왕토): 왕의 땅이 아닌 것이 없다.

※ 금지를 나타내는 뜻을 가진 한자

- 勿(물): ~하지 말라.
  - 예 己所不欲, 勿施於人.(기소불욕 물시어인)
- 毋(무): ~하지 말라. 예 愼勿言我死(신물언아사)
- 無(무): ~하지 말라. 예 無道人之短(무도인지단)

성어의 유래 _월단평

중국 후한(後漢) 때 허소(許劭)의 자(字)는 자장(子將)으로, 여남(汝南, 현재 허난성)의 평여(平輿) 사람이다. 젊어서 명예와 절개가 높았고, 인륜을 좋아하였으며, 평가하는 것이 많았다. … 조조(曹操)가 이름나기 전 천했을 때 항상 말을 낮추고 예물을 두텁게 갖추고 자기를 지목해 품평해 줄 것을 청하였다. 허소가 조조의 사람됨이 천하다고 생각해 상대하려고 하지 않자 조조는 몰래 엿보다가 허소를 위협하였고 허소는 어쩔 수 없이 말했다. "당신은 평화로운 시대에는 간사한 도적이 될 것이고,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영웅이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조조가 크게 기뻐하며 갔다. … 처음 허소와 그의 형 허정(許靖)은 모두 명성이 높았는데, 함께 마을 사람들을 자세히 따져 논평하는 것을 좋아해 매달 제목을 바꾸어 품평하였다. 그래서 여남의 풍속에 '월단평(月旦評)'이 있게 되었다.(許劭字子將 汝南平輿人也 少峻名節 好人倫 多所賞識 … 曹操微時 常卑辭厚禮 求爲己目 劭鄙其人而不肯對 操乃伺隙脅劭 劭不得已 曰 君淸平之奸賊 亂世之英雄 操大悅而去 … 初 劭與靖俱有高名 好共核論鄕黨人物 每月輒更其品題 故汝南俗有 月旦評焉) -《후한서》〈허소전〉

신출 한자

謁	(알) 뵙다 言, 16	謁見 拜謁
謂	(위) 말하다 言, 16	所謂 可謂
鉛	(연) 납 金, 13	亞鉛 鉛筆
像	(상) 형상 人, 14	銅像 胸像
鎖	(쇄) 쇠사슬 金, 18	連鎖 封鎖
鑄	(주) 쇠 불리다 金, 22	鑄造● 鑄物
祕	(비) 숨기다 示, 10	祕密 神祕
妨	(방) 방해하다 女, 7	無妨 妨害
拘	(구) 잡다 手, 8	拘束 拘留
鬼	(귀) 귀신 鬼, 10	鬼神 惡鬼
慙	(참) 부끄럽다 心, 15	慙悔 慙愧
胡	(호) 오랑캐 肉, 9	胡亂 胡馬●
評	(평) 평하다 言, 12	評價 批評
拒	(거) 막다 手, 8	拒絕 拒否
懷	(회) 품다 心, 19	懷疑 懷柔
愧	(괴) 부끄럽다 心, 13	慙愧 自愧
亞	(아) 버금 二, 8	亞流 亞聖●
塊	(괴) 덩이 土, 13	金塊 大塊
封	(봉) 봉하다 寸, 9	密封 開封
周	(주) 두루 口, 8	周邊 周圍
輸	(수) 보내다 車, 16	輸出 輸入
條	(조) 가지 木, 11	條項 條目
振	(진) 떨치다 手, 10	不振 振興
靈	(령) 신령 雨, 24	神靈 靈魂
飜	(번) 뒤집다 飛, 21	飜覆 飜譯
蝶	(접) 나비 虫, 15	蝶泳 胡蝶夢
荒	(황) 거칠다 艸, 10	荒亡 荒廢
震	(진) 벼락 雨, 15	地震 震源●
屬	(속) 무리 尸, 21	所屬 金屬
銅	(동) 구리 金, 14	銅錢 靑銅
鋼	(강) 강철 金, 16	鋼鐵 鋼玉
鑛	(광) 쇳돌 金, 23	鑛山 鑛物
綿	(면) 솜 糸, 14	綿花 綿織物
謀	(모) 꾀하다 言, 16	謀叛 謀略
件	(건) 물건 人, 6	事件 案件
確	(확) 굳다 石, 15	確定 確信
魂	(혼) 넋 鬼, 14	魂神 鬪魂
覆	(복) 다시, 뒤집히다 襾, 18	反覆 顚覆
旦	(단) 아침 日, 5	元旦 旦夕●
點	(점) 점 黑, 17	點火 點心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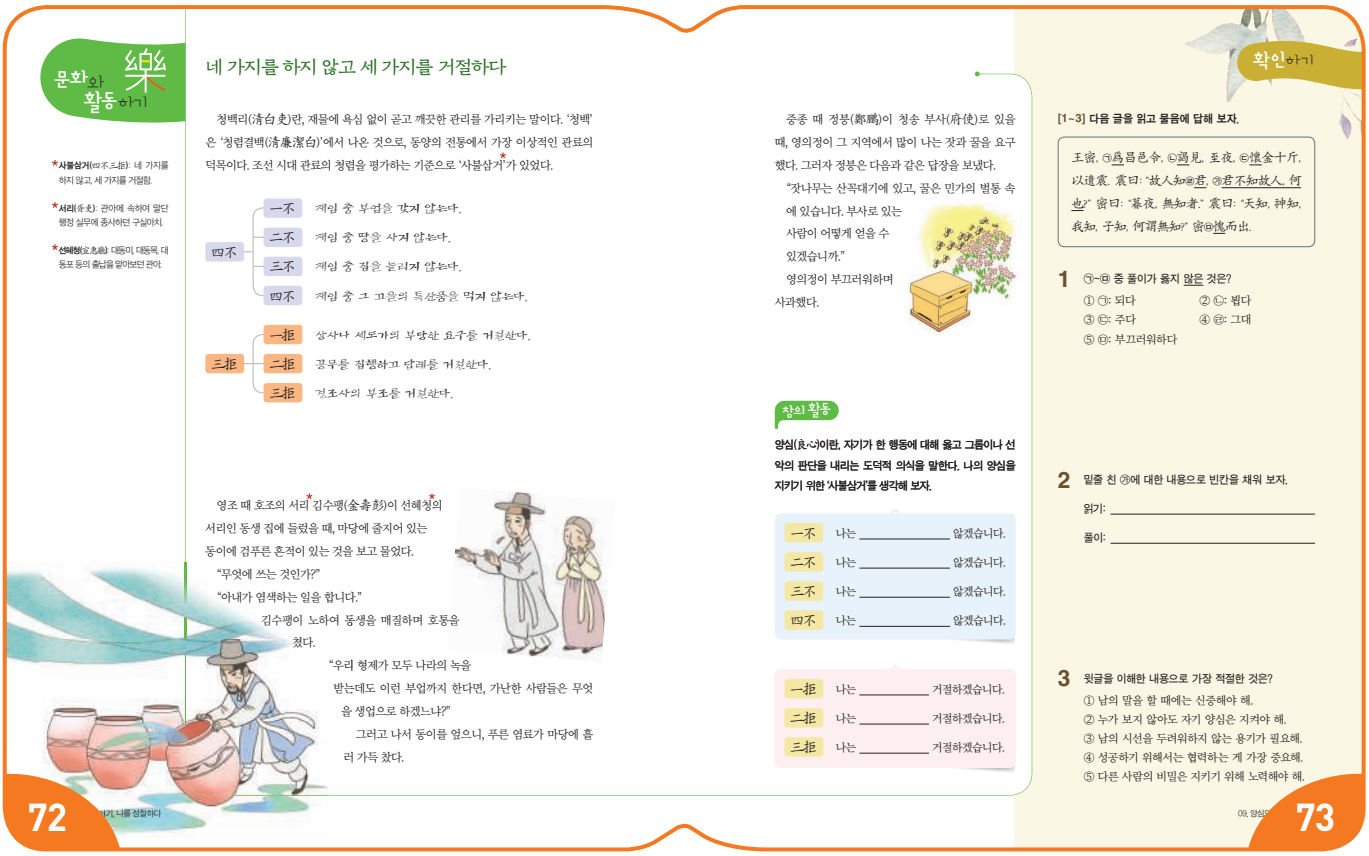
- 진원(震源): 「1」 최초로 지진파가 발생한 지역. 지진의 원인인 암석 파괴가 시작된 곳으로, 위도와 경도 지표에서부터의 깊이로 표시한다. 「2」 사건이나 소동 따위를 일으킨 근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아성(亞聖): 유학에서 공자 다음가는 성인(聖人)이라고 하여 맹자(孟子)를 이르는 말.
- 주조(鑄造): 녹인 쇠붙이를 거푸집에 부어 물건을 만듦.
- 호마(胡馬): 예전에, 중국 북방 등지에서 나던 말.
- 단석(旦夕): 「1」 조석(朝夕) 「2」 시기나 상태 따위의 위급함이 절박한 모양.

성어의 유래_ 호접몽

- **호접몽**(胡蝶夢): 나비에 관한 꿈. → 인생의 덧없음.
  = 장주지몽(莊周之夢): 장자의 꿈. → 나와 외물(外物)은 본디 하나이던 것이 현실에서 갈라진 것에 불과하다는 이치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말.

유래 옛날에 장주(莊周)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 펄펄 나는 나비였는데 스스로 기분 좋고 뜻에 맞아 내가 장주인지 알지 못했다. 얼마 후 꿈에서 깨어 보니 갑자기 장주가 되었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던 것인지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되었던 것인지 알지 못했다. 장주와 나비는 분명한 구별이 있으니 이것을 사물의 변화〔物化〕라고 한다.

-《장자》〈제물론〉



문화와 활동하기 樂

*사불삼거(四不三拒): 네 가지를 하지 않고, 세 가지를 거절함.

*서리(胥吏): 관아에 속하여 말단 행정 실무에 종사하던 구실아치.

*선혜청(宣惠廳): 대동미, 대동목, 대동포 등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

네 가지를 하지 않고 세 가지를 거절하다

청백리(淸白吏)란, 재물에 욕심 없이 곧고 깨끗한 관리를 가리키는 말이다. '청백'은 '청렴결백(淸廉潔白)'에서 나온 것으로, 동양의 전통에서 가장 이상적인 관료의 덕목이다. 조선 시대 관료의 청렴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불삼거'가 있었다.

四不
- 一不 재심 중 부업을 갖지 않는다.
- 二不 재심 중 말을 사지 않는다.
- 三不 재심 중 집을 늘리지 않는다.
- 四不 재심 중 그 고을의 특산물을 먹지 않는다.

三拒
- 一拒 상사나 세도가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다.
- 二拒 공무를 집행하고 담례를 거절한다.
- 三拒 경조사의 부조를 거절한다.

영조 때 호조의 서리* 김수팽(金壽彭)이 선혜청*의 서리인 동생 집에 들렀을 때, 마당에 쌓여 있는 동이에 검푸른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물었다.

"무엇에 쓰는 것인가?"

"아내가 염색하는 일을 합니다."

김수팽이 노하여 동생을 매질하며 호통을 쳤다.

"우리 형제가 모두 나라의 녹을 받는데도 이런 부업까지 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을 생업으로 하겠느냐?"

그러고 나서 동이를 엎으니, 푸른 염료가 마당에 흘러 가득 찼다.

중종 때 정붕(鄭鵬)이 청송 부사(府使)로 있을 때, 영의정이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잣과 꿀을 요구했다. 그러자 정붕은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

"잣나무는 산꼭대기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에 있습니다. 부사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의정이 부끄러워하며 사과했다.

창의 활동

양심(良心)이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 옳고 그름이나 선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을 말한다. 나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사불삼거'를 생각해 보자.

- 一不 나는 _____ 않겠습니다.
- 二不 나는 _____ 않겠습니다.
- 三不 나는 _____ 않겠습니다.
- 四不 나는 _____ 않겠습니다.

- 一拒 나는 _____ 거절하겠습니다.
- 二拒 나는 _____ 거절하겠습니다.
- 三拒 나는 _____ 거절하겠습니다.

확인하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王密, ㉠爲昌邑令, ㉡遇見, 至夜, ㉢懷金十斤, 以遺震. 震曰: "故人知㉣君, ㉤君不知故人, 何也?" 密曰: "暮夜, 無知者." 震曰: "天知, 神知, 我知, 子知, 何謂無知?" 密㉥愧而出.

1 ㉠~㉥ 중 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① ㉠: 되다 ② ㉡: 뵙다
③ ㉢: 주다 ④ ㉣: 그대
⑤ ㉥: 부끄러워하다

2 밑줄 친 ㉤에 대한 내용으로 빈칸을 채워 보자.

읽기: _____

풀이: _____

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남의 말을 할 때에는 신중해야 해.
② 누가 보지 않아도 자기 양심은 지켜야 해.
③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해.
④ 성공하기 위해서는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해.
⑤ 다른 사람의 비밀은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해.

09. 양심을

72

Ⅲ. 이야기, 나를 성찰하다

73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양심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조선 시대 '사불삼거(四不三拒)'를 활용해 '하지 않아야 할 것〔四不〕'과 '거절해야 할 것〔三拒〕'을 나의 삶에 적용해 보는 활동이다.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행동을 돌아보고, 바른 양심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데 활동 취지가 있으므로, 배운 내용을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 一不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 二不 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三不 나는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 四不 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지 않겠습니다.

- 一拒 나는 무임승차의 유혹을 거절하겠습니다.
- 二拒 나는 학교 폭력의 유혹을 거절하겠습니다.
- 三拒 나는 무단 외출의 유혹을 거절하겠습니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문장 속 한자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 ㉢懷金十斤(회금십근): 황금 10근을 품고서,
• ㉠爲昌邑令(위창읍령): 창읍의 현령이 되어
• ㉡謁見(알현): 찾아뵙다.
• 故人知㉣君(고인지군): 옛 친구가 그대를 아는데
• 密㉥愧而出(밀괴이출): 왕밀이 부끄러워하고 나갔다.

❷ 문장을 바르게 읽고 풀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 읽기: 군부지고인, 하야?
• 풀이: 그대가 나를 모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해설] 君(군): 그대(2인칭 대명사), 何(하): 어찌(의문의 뜻)

❸ 문장의 주제를 이해하고 바르게 감상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사지(四知): 네 가지가 알고 있음. → 두 사람만의 비밀이라도 어느 때고 반드시 남이 알게 됨.

참고 자료

〈양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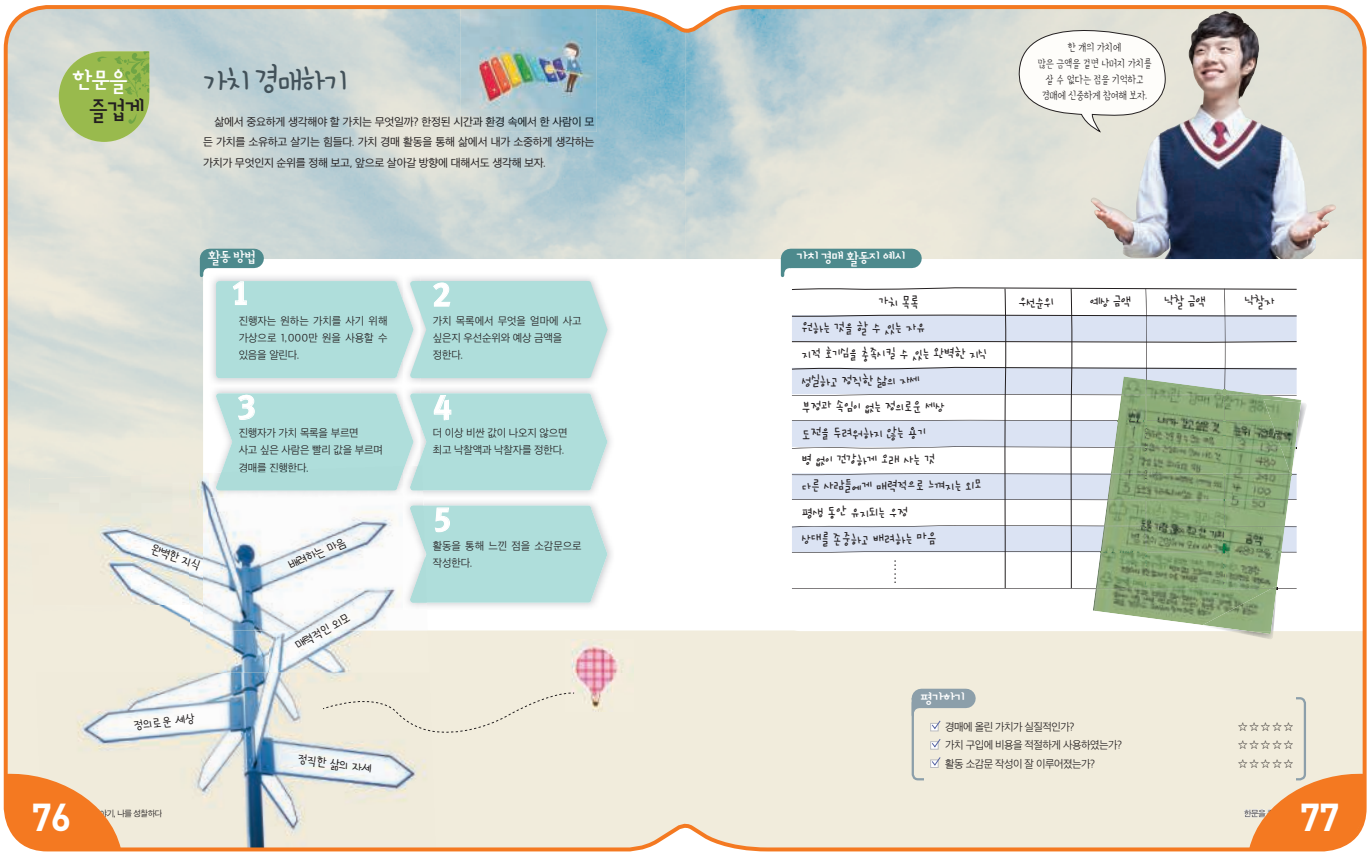
양진의 자(字)는 백기(伯起)이고, 홍농(弘農) 화음(華陰) 사람이다. … 양진은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태상(太常) 환욱에게서 《구양상서》를 수학했다. 경전을 두루 섭렵했으며 자세하고 깊게 연구했다. 당시 선비들은 그를 '관서의 공자 양백기'라고 하였다. 호주(湖州: 현재 저장성)에 은거하면서 주군의 명에 수십년 간 응하지 않아 여러 사람들이 그를 '만모(晩暮: 벼슬에 나가는 시기가 매우 늦음)'라 말했다. … 양진의 나이가 오십이 되어서야 비로소 주군에 벼슬하였다. 대장군 등즐(鄧騭)이 양진의 현명함을 듣고 그를 무재(茂才)로 뽑았는데, 네 번 벼슬을 옮겨 형주 자사(荊州刺史)와 동래 태수(東萊太守)가 되었다. 군으로 부임할 때 창읍을 경유하였는데, 예전에 (양진이 형주 자사로 있을 때) 천거해 주었던 형주의 무재 왕밀이 창읍의 현령이 되어 (양진을) 찾아뵙고 밤이 되자 황금 열 근을 품고서 양진에게 바쳤다. 양진이 말했다. "나는 그대를 아는데 그대가 나를 모르는 것은 어째서인가?" 왕밀이 대답했다. "늦은 밤이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양진이 말했다. "하늘이 알고 귀신이 알고 내가 알고 그대가 아는데 어찌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가?" 왕밀이 부끄러워하고 나갔다. 후에 탁군 태수(涿郡太守)가 되었다. 양진은 성품이 공정하고 청렴하여 개인적인 인사(선물)는 받지 않았다. 자손들은 항상 거친 밥을 먹고 걸어다녔는데 옛 친구와 어른들이 자손들을 위해 가산(家産)을 장만하게 하려고 하자 양진이 좋아하지 않으며 말하였다. "후세들에게 청백리의 자손이라 불리는 것을 남겨 주는 것이 가장 후하지 않겠습니까?" 원초(元初) 4년에 태복(太僕)이 되었고, 태상(太常)으로 승진하였다. 이전에 박사를 천거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많았는데, 양진이 천거한 진류, 양륜 등의 명사는 학업에 뛰어나 선비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양진은 널리 명성을 떨치면서 거듭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 영녕 원년에는 유개(劉愷)를 대신해 사도에 올랐다.(故人知君 君不知故人 何也 密曰 暮夜無知者 震曰 天知 神知 我知 子知 何謂無知 密愧而出 後轉涿郡太守 性公廉 不受私謁 子孫常蔬食步行 故舊長者或欲令爲開産業 震不肯 曰 使後世稱爲淸白吏子孫以此遺之 不亦厚乎 元初四年 徵入爲太僕 遷太常 先是博士選擧多不以實 震擧薦明經名士陳留楊倫等 顯傳學業 諸儒稱之 永寧元年 代劉愷爲司徒)

- 후한서, 〈양진전〉

우리 시대 청백리 제도의 조건

지금 우리 시대는 사회 문화에 맞는 청백리 코드를 발견해야 한다. 좋은 제도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면서도 외부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비롯된 사회도덕을 담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고찰해야 한다. 가령 조선 시대의 주자 성리학하에서는 '근검'이 사회의 주요 덕목이었지만, 오늘날의 자유 민주주의 이념하에서는 '행복'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진다. '살림살이를 경영하지 않아 가족들의 식량이 자주 떨어지는' 공직자보다는 '경제적 여유 속에서 어려운 이웃도 돕고 재능 기부도 하는' 공직자를 더 선호하는 시대에 맞는 공직 윤리를 함께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 이때 조선 시대의 청백리 사례와 유적지는 '전통의 창조(invention of tradition)'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박물관 유물 찾듯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현대인들에게 울림이 없이 '옛날에 이러저러 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전통을 새롭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새로운 목적을 위해 낡은 모델을 활용한' 사례가 세종과 정조에게서 나타난 것처럼, 경기 청백리의 사례와 유적지 역시 "반(半)허구" 수준에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한마디로 청백리 역사에 새로운 의미와 기능을 부여해야만 오늘날 계속해서 호명 되어 왔다가 공허하게 되돌아가는 반복을 그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백리 제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 상황을 충분히 감안한 가운데 내재적 공직 윤리를 도출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른바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가령 세종 시대에 청백리를 선발하고, 제도화하는 이면에는 '뇌물로 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부패로 인한 위기 의식이 있었다. 그리고 어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토론하는 과정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조말생 뇌물 사건의 경우 수년간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모든 공직자에게 서경(署經: 임금이 새 관원을 임명한 뒤에 그 성명, 문벌, 이력 따위를 써서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臺諫)에게 그 가부를 묻던 일)을 확대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촉발했다. 중요한 것은 세종이 이 과정을 경연 등의 어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다루면서 그 대상자까지도 수용할 정도의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21세기 대한민국에 맞는 청백리 제도가 나와야 한다.

- 박현모, 〈경기 청백리에서 한국형 리더십 스토리 찾기〉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시간과 돈, 에너지 등의 재화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그것을 사용한다. '가치 경매하기' 활동은 학습자들은 각자 추구하는 가치들의 우선순위를 체계화하여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각 가치의 특성과 가치관의 의미를 이해하고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지 학생들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한다.

❶ 활동 소감문 작성 시 유의 사항 예시

❶ 경매에서 내가 산 가치는 무엇인가?
❷ 경매를 하면서 가장 사고 싶었던 가치는 무엇인가?
❸ 내가 정한 우선순위와 내가 산 가치는 일치하였는가?
❹ 내가 낙찰자가 되었거나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❺ 경매를 하기 전 내가 가장 사고 싶었던 가치는 무엇인가?
❻ 사고 싶었는데 사지 못한 가치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❼ 경매를 마치고 난 뒤의 느낌을 자유롭게 작성하시오.

❷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찾기 활동 예시

❶ A4 종이를 한 장씩 준비한다.
→ A4 종이를 반씩 4번 접으면 16개의 칸이 생긴다.
❷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나는 대로 16가지 정도 적어 본다. 예 가족, 친구, 건강, 사랑 …
❸ 종이에 적은 가치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한다.

(1)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에 적은 16가지 중에 8가지를 버려야 할 위기 상황이라면 어떤 것을 버릴 것인지 심사숙고하여 × 표시를 해 보자.
(2) 또 다시 어려운 상황이 닥쳐 위에 남은 8가지 중 또 다시 4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떤 것을 버릴 것인지 × 표시를 해 보자.
(3) 살아가면서 또 다시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여 위의 4가지 중 1가지만을 남기고 모두 버려야 한다면 어떤 것을 버릴 것인지 × 표시를 해 보자.

❹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 같이 그 가치를 동시에 큰소리로 외쳐 본다.

Ⅲ 단원 총괄 평가

정답 223쪽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人有(㉠)野鵝者, 多與煙火之食, 鵝便體重, 不能飛. 後忽㉡不食, 人以爲病, 益與之食而不食. ㉢旬日而體輕, 凌空而去. 翁聞之曰: "(㉣)"

01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① 食 ② 與 ③ 畜
④ 生 ⑤ 言

02 ㉡의 이유로 옳은 것은?

① 날아가기 위해서
② 심한 병에 걸려서
③ 먹이를 주지 않아서
④ 먹이가 맛이 없어서
⑤ 먹이를 더 얻어 내기 위하여

03 ㉢에 해당하는 숫자는?

① 3일 ② 5일 ③ 10일
④ 15일 ⑤ 30일

04 윗글의 내용상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혜롭구나! 스스로를 잘 지켰으니.
② 놀랍구나! 오랫동안 먹지를 않았으니.
③ 안타깝구나! 먹지 않고서 날아가다니.
④ 어리석구나! 불에 익힌 음식을 먹다니.
⑤ 불쌍하구나! 많이 먹고서 날지 못하다니.

[05~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王密, 爲昌邑令, ㉠謁見, 至夜, 懷金十斤, 以遺震. 震曰: "故人知君, ㉡君不知故人, 何也?" 密曰: "暮夜, 無知者." 震曰: "㉢天知, 神知, 我知, 子知, 何謂無知?" 密愧而出.

05 ㉠의 음으로 옳은 것은?

① 알견 ② 알현 ③ 의견
④ 상현 ⑤ 접견

06 ㉡문장의 유형은?

① 긍정문 ② 부정문 ③ 의문문
④ 명령문 ⑤ 감탄문

07 서술형 | 윗글에서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어휘를 찾아 풀이하시오.

08 서술형 | '震'이 ㉢과 같이 말한 이유를 5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Ⅳ

한시, 노래로 말하다

10 고향 생각

11 이별 노래

한자와 한자 어휘가 지닌 상징성과 함축성, 음악성 등은 한문학에서 '한시'라는 독특한 예술미를 형성하였다.
이 단원에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헤어짐의 슬픔을 노래한 한시를 만나게 된다. 한시의 형식이 낯설겠지만 마음을 열고 시인이 살았던 삶과 시대에 관심을 가지면 시를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시인의 마음을 상상해 보고 시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우리의 정서를 풍요롭게 해 보자.

대단원 학습 목표

-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시를 바르게 감상한다.
- 한시의 형식과 특징 및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이해하고 감상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대단원 설정의 이유

이 단원에서는 상징성과 함축성, 음악성을 특징으로 하는 '한시'를 배우게 된다. 한시는 정교한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달래고 위안을 주며 시대를 노래하는 시(詩)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먼저 이백과 두보라는 중국 문학사에서 가장 뛰어난 두 시인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시를 비교 감상하면서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별의 슬픔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노래한 시를 만나게 된다. 우리나라 이별시의 백미라 일컬어지는 고려 시대의 뛰어난 시인 정지상의 〈송인(送人)〉과 조선 시대 문장의 대가 박지원의 〈연암억선형(燕巖憶先兄)〉을 통해 우리 선조들이 남긴 한시의 멋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❶ 한시의 형식과 특징, 시상 전개 방식 등 한시에 관한 기초 지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❷ 한시의 기초 지식을 토대로 시 전체의 분위기를 읽어 내고 한시 속에 담긴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해 지도한다.

❸ 이백과 두보의 시, 정지상과 박지원의 시는 주제가 같으므로 두 시를 비교·분석해 보는 수업을 기획하는 것도 좋다.

※ 한시의 내용과 관련 있는 소설·수필 또는 대중가요,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다른 창작물을 찾아보게 하여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한다.

❹ 한시의 평가는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다양한 산출물 및 참여 태도를 종합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고등학교에서 한시를 처음 배우는 만큼 한시의 형식적 특징을 배워 한시를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소단원	차시	교과서 쪽수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10. 고향 생각	2	80~85	• 한시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통해 한시의 내용 이해하고 감상하기 •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 감상하기 •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11. 이별 노래	2	86~91	•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시 바르게 감상하기 •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 이해하고 감상하기	• 감상문 쓰기 • 낭송하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92~95	•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기 •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 한시를 그림으로 표현하기	• 전통문화 그림으로 표현하기

1~2 차시

10 고향 생각

학습 목표

-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단원 소개

이 단원은 한문학의 꽃이라 불리는 한시를 배우는 단원이다. 수많은 한시 중에서 중국 문학사에서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이백과 두보의 대표 작품을 골라 단원을 구성하였다. 이백과 두보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각자의 개성으로 자기만의 영역을 개척해 '이두(李杜)'라고 칭해질 만큼 중국의 대표 시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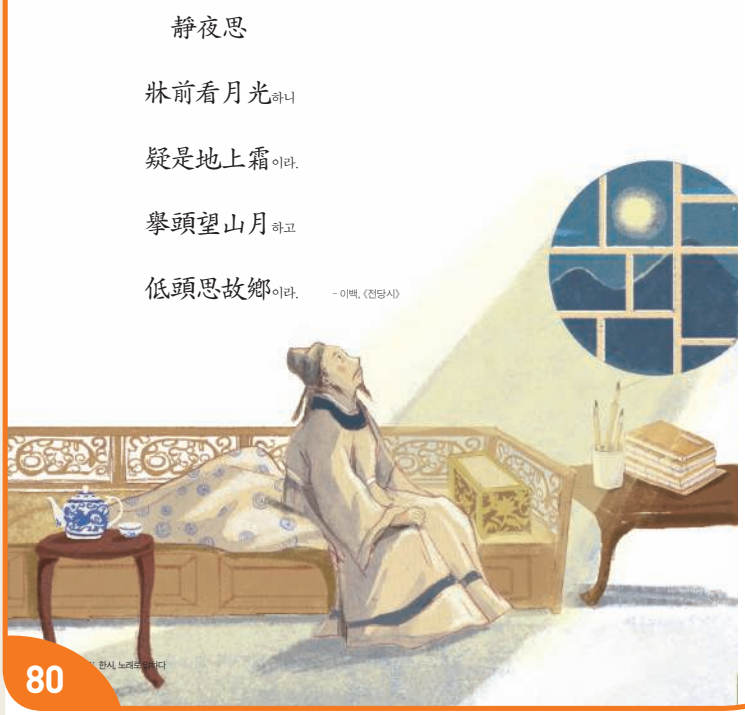
위대한 두 시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한자 문화권 문화에 대한 상식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두 인물의 대조적인 삶을 비교해 보면서 같은 주제를 다르게 표현한 시를 감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한시와 문학에 대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한시는 그 형식과 특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형식과 특징을 한시 이론으로만 가르치는 것은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다. 한시의 형식적 특징을 동요, 시조, 랩 등의 학습자와 친숙한 장르와 연결해 공통점을 중심으로 지도한다.

② 한시의 학습은 이해와 감상이 중요하므로 그림·만화 활용하기, 가상 인터뷰하기,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감상문 쓰기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한시는 회화적 성격을 가졌다. 한시를 배우기 전에 한시를 그림과 연관하여 살펴보는 수업(대단원 도입 활동)을 기획해도 좋다.



10 고향 생각

중국 문학사에서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는 이백과 두보는 같은 시대에 살면서 나라의 번영과 전란을 함께 겪었다. 두 시인이 시 속에 담은 마음은 무엇일까? 같은 주제를 노래한 두 시를 비교하며 감상해 보자.

靜夜思

牀前看月光하니
疑是地上霜이라.
擧頭望山月하고
低頭思故鄕이라. - 이백, 〈전당시〉

80

〈정야사〉의 이해와 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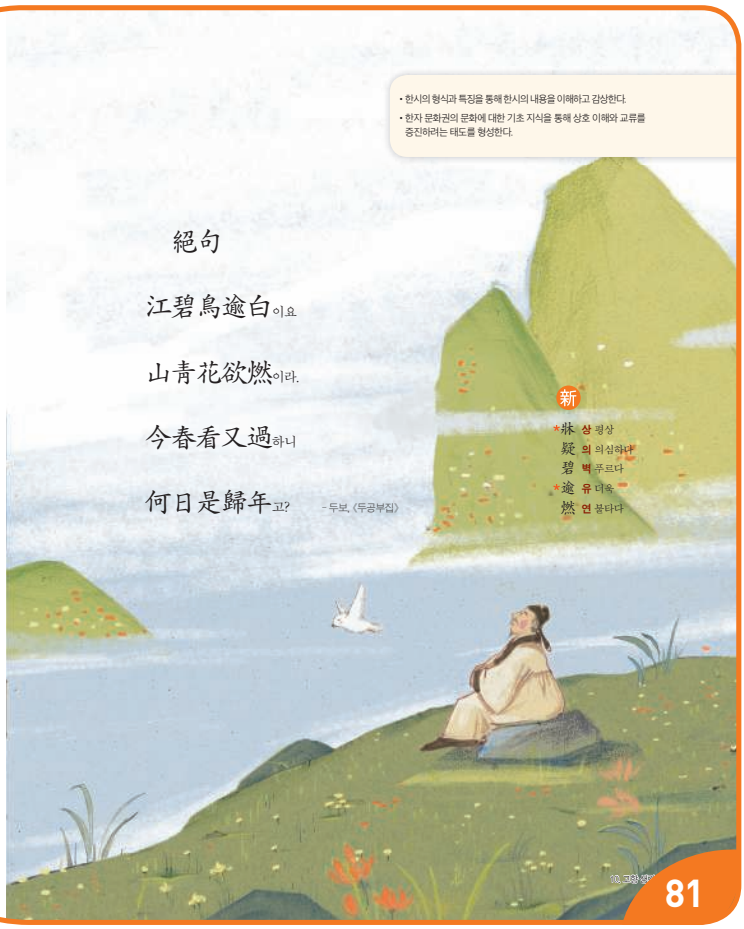
靜夜思 고요한 밤의 생각
牀前看月光, 침상 앞 달빛을 보니
疑是地上霜. 아마도 땅 위의 서리인가.
擧頭望山月, 고개 들어 산 위의 달을 바라보고
低頭思故鄕. 고개 숙여 고향을 생각한다.

- 이백, 《전당시》

한시의 특징

- 한시의 형식: 오언시
- 운자: 光(광), 霜(상), 鄕(향)
- 대우: 제2구(출구), 제3구(대구)
- 시간적 배경: 가을밤.
- 주제를 심화시키는 소재: 산 위의 달
- 시선의 이동: 침상 앞 달빛.(서리로 착각) → 산 위의 달.(고향 생각)

《전당시(全唐詩)》: 중국의 당시(唐詩)를 모은 책. 청나라 성조 44년(1705)에 칙명에 따라 팽정구(彭定求) 등이 완성하고, 1707년에 성조의 서문(序文)을 붙여 간행하였다.



감상 객지에서 맞은 고요한 밤, 침상에 비치는 달빛을 보니 마치 땅 위에 하얗게 서리가 내린 듯하다. 고개를 들어 달을 보니 문득 고향에도 저 달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만 고개를 떨구고 만다. 감정을 직접 표출하지 않고 작은 몸짓을 통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 이백의 비수(悲愁)의 시는 비수 나름으로 탁월하다. 널리 알려져 회자되는 이 오언 절구가 그 점을 잘 말해 준다. "침상 앞에 월광을 본다." '牀(상)'은 침대. 중국의 침대는 서양의 그것만한 크기이거나 그것보다 크며, 방 중앙에 둔다. 사람들은 밤에만 거기서 잠을 자는 것이 아니다. 낮에 할 일 없는 시간에도 그 위에서 뒹굴뒹굴한다. 그런데 지금은 밤이다. 침상 앞의 바닥까지 스며들어온 달빛. 그것은 땅 위에 내린 서리처럼 희고도 미세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다. 이미 침상 위에 몸을 눕혀도 좋을 시간이다. 하지만 고요한 밤에 상념에 젖은 사람은 우두커니 서 있다. 혹은 그 언저리를 서성이고 있다. 그러고는 "고개 들어 산 위 달을 바라보고, 머리 숙여선 고향을 생각한다."

-《당시 읽기》

〈절구〉의 이해와 감상

絕句 절구

江碧鳥逾白,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고,
山靑花欲燃. 산이 푸르니 꽃이 불타는 듯하네.
今春看又過, 올봄도 보건대 또 지나가니
何日是歸年? 어느 날이 돌아갈 해인가?

- 두보, 《두공부집》

한시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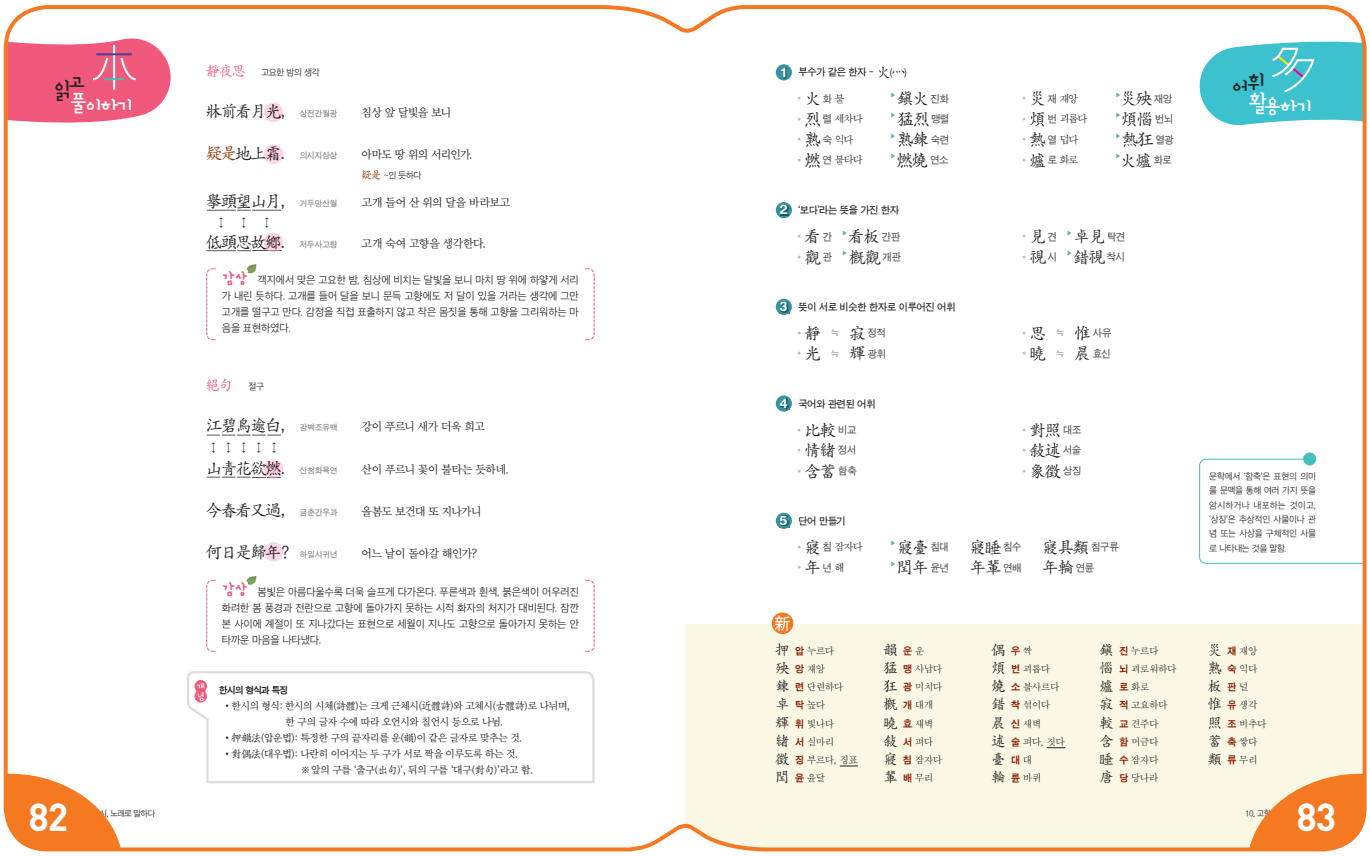
- 한시의 형식: 오언 절구
- 대우: 제1구(출구), 제2구(대구)
- 운자: 燃(연), 年(년)
- 시간적 배경: 늦은봄.

《두공부집(杜工部集)》: 두보(杜甫)의 시문집으로 북송(北宋)의 왕수(王洙)가 편찬. '공부(工部)'는 두보의 벼슬 이름.

감상 봄빛은 아름다울수록 더욱 슬프게 다가온다. 푸른색과 흰색, 붉은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봄 풍경과 전란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시적 화자의 처지가 대비된다. 잠깐 본 사이 에 계절이 또 지나갔다는 표현으로 세월이 지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다.

» 이 시는 언제 지은 것인지 판가름할 수 없다. 마흔여덟 살 이후 처자식을 이끌고 방랑길에 나선 뒤 어느 만춘(晩春)에 지은 것임에는 틀림없다. 제목에 절구라고 한 것은 짧은 노래라는 뜻이다. 첫 번째 구 "강물 파랗고 새 더욱 흰데"에서 … '碧(벽)'이란 글자의 본래 뜻은 푸른 옥(碧玉)이다. 따라서 '江碧(강벽)'이란 말도 벽옥처럼 심녹색(深綠色)을 띠는 수면을 뜻한다. … 그런데 그 심녹의 수면 위를 날아가는, 혹은 그 위에 떠 있는 순백색의 새. 순백이라는 색깔은 왠지 나그네의 슬픔을 자아낸다. … 이 짤막한 시의 밑바닥에는 중국 시에서 늘 유력한 두 감정이 흐르고 있다. 하나는 앞서 말한 추이(推移)의 감각이다. 추이하는 만물의 하나로서 인간 생명도 시시각각 추이하여 늙어 간다. 비애의 시는 거기에서 생겨난다. 환락의 시도 또한 거기에서 생겨난다. 천지(天地)의 추이는 유구한 데 비하여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 … 또 한 가지. 인간은 불완전한 데 비하여 자연은 완전하다고 하는 감정이다. 자연, 특히 산천초목은 늘 질서와 조화가 가득하고, 알맞은 행위를 알맞은 시기에 드러내 보일 수 있다. …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 자연과 인간 그 둘은 그래서 격리되어 있다. 이 격리에 대한 슬픔. 그것은 두보의 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국 시 속에 흐르고 있는 보편적 감정의 하나다.

-《당시 읽기》



한시의 형식

❶ 한시의 시체(詩體)

- **고체시**(古體詩): 중국 당(唐) 이전에 널리 쓰여졌던 시의 형태로, 평측이나 자수와 같은 형식에 제약이 없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의 한시. 근체시와 상대되며, 사언·오언·칠언·잡언 따위가 있다. 고시(古詩) 혹은 고풍(古體)이라고도 한다.
- **근체시**(近體詩): 중국 당나라 때에 정형이 이루어진 형태로, 구 수(句數), 자수, 압운(押韻), 평측(平仄) 등에 대한 엄격한 규칙이 있는 한시. 율시(律詩), 절구(絕句), 배율(排律) 따위가 있다. 근체(近體) 혹은 금체(今體)라고도 한다.
  - **절구**(絕句): 근체시(近體詩) 형식의 하나. 기(起)·승(承)·전(轉)·결(結)의 네 구로 이루어졌는데, 한 구가 다섯 자로 된 것을 오언 절구, 일곱 자로 된 것을 칠언 절구라고 한다.
  - **율시**(律詩): 여덟 구로 되어 있는 한시체(漢詩體). 한 구가 다섯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오언 율시라고 하고, 일곱 자로 되어 있는 것을 칠언 율시라고 한다.
  - **배율**(排律): 오언(五言)이나 칠언(七言)의 율시를 열 구 이상 늘어놓은 한시.

한시의 특징

❶ **압운법**(押韻法): 특정한 구의 끝자리를 운(韻)이 같은 글자로 맞추는 것. 이때 압운된 글자를 운자(韻字)라고 한다. 운자는 보통 짝수 구의 끝 글자에 다는데, 오언 절구의 경우 제1구는 압운하기도 한다.

» 압운은 랩의 라임(rhyme)과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

❷ **대우법**(對偶法): 나란히 이어지는 두 구가 내용상으로나 어법상으로 서로 짝을 이루도록 하는 것. 대우를 이루는 두 구는 앞의 구를 '출구(出句)', 뒤의 구를 '대구(對句)'라고 한다. 율시는 함련과 경련에서 반드시 대우를 이루어야 하지만, 절구의 경우 기구와 승구(1, 2구), 전구와 결구(3, 4구)에서 대우를 이루기도 한다. 대우로 표현하면 운율이 형성되기 때문에 대우법은 표현을 아름답게 하는 한편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효과를 갖는다.

» 대우법의 쉬운 예: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❸ **평측법**(平仄法): 한시를 지을 때 구를 이루는 각 글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평성에 해당하는 한자와 측성에 해당하는 한자를 일정하게 배치하는 규칙.

» 고등학교 한문 과목에서는 평측법을 따지지 않는다.

신출 한자

*牀	(상) 평상 爿, 8	寢牀
*踰	(유) 더욱 辵, 13	踰月●
韻	(운) 운 音, 19	韻律 脚韻
災	(재) 재앙 火, 7	火災 人災
煩	(번) 괴롭다 火, 13	煩雜 煩悶
鍊	(련) 단련하다 金, 17	鍛鍊 製鍊
爐	(로) 화로 火, 20	火爐 鎔鑛爐
槪	(개) 대개 木, 15	大槪 槪略
惟	(유) 생각 心, 11	思惟 惟獨
晨	(신) 새벽 日, 11	昏定晨省
緖	(서) 실마리 糸, 15	端緖 情緖
含	(함) 머금다 口, 7	含有 含蓄
寢	(침) 잠자다 宀, 14	寢臺 寢室
類	(류) 무리 頁, 19	類似 種類
輪	(륜) 바퀴 車, 15	輪回 輪廓
疑	(의) 의심하다 疋, 14	疑問 疑心
燃	(연) 불타다 火, 16	燃料 燃費
偶	(우) 짝 人, 11	偶然 對偶
殃	(앙) 재앙 歹, 9	殃禍 災殃
惱	(뇌) 괴로워하다 心, 12	煩惱 苦惱
狂	(광) 미치다 犬, 7	發狂 狂氣
板	(판) 널 木, 8	板子 看板
錯	(착) 섞이다 金, 16	交錯 錯誤
輝	(휘) 빛나다 車, 15	光輝 輝煌
較	(교) 견주다 車, 13	比較 日較差
敍	(서) 펴다 攴, 11	敍事 敍述
蓄	(축) 쌓다 艸, 14	貯蓄 蓄積
臺	(대) 대 至, 14	土臺 舞臺
閏	(윤) 윤달 門, 12	閏年● 閏月
唐	(당) 당나라 口, 10	唐詩 唐惶
碧	(벽) 푸르다 石, 14	碧海 碧眼
押	(압) 누르다 手, 8	押韻 押留
鎭	(진) 누르다 金, 18	鎭痛 鎭火
猛	(맹) 사납다 犬, 11	猛獸 猛毒
熟	(숙) 익다 火, 15	成熟 未熟
燒	(소) 불사르다 火, 16	燒却 燒失
卓	(탁) 높다 十, 8	卓子 卓越
寂	(적) 고요하다 宀, 11	寂寞 閑寂
曉	(효) 새벽 日, 16	曉晨 曉星
照	(조) 비추다 火, 13	照明 照會
述	(술) 펴다, 짓다 辵, 9	論述 陳述
徵	(징) 부르다, 징표 彳, 15	象徵 特徵
睡	(수) 잠자다 目, 13	睡眠 昏睡
輩	(배) 무리 車, 15	先輩 輩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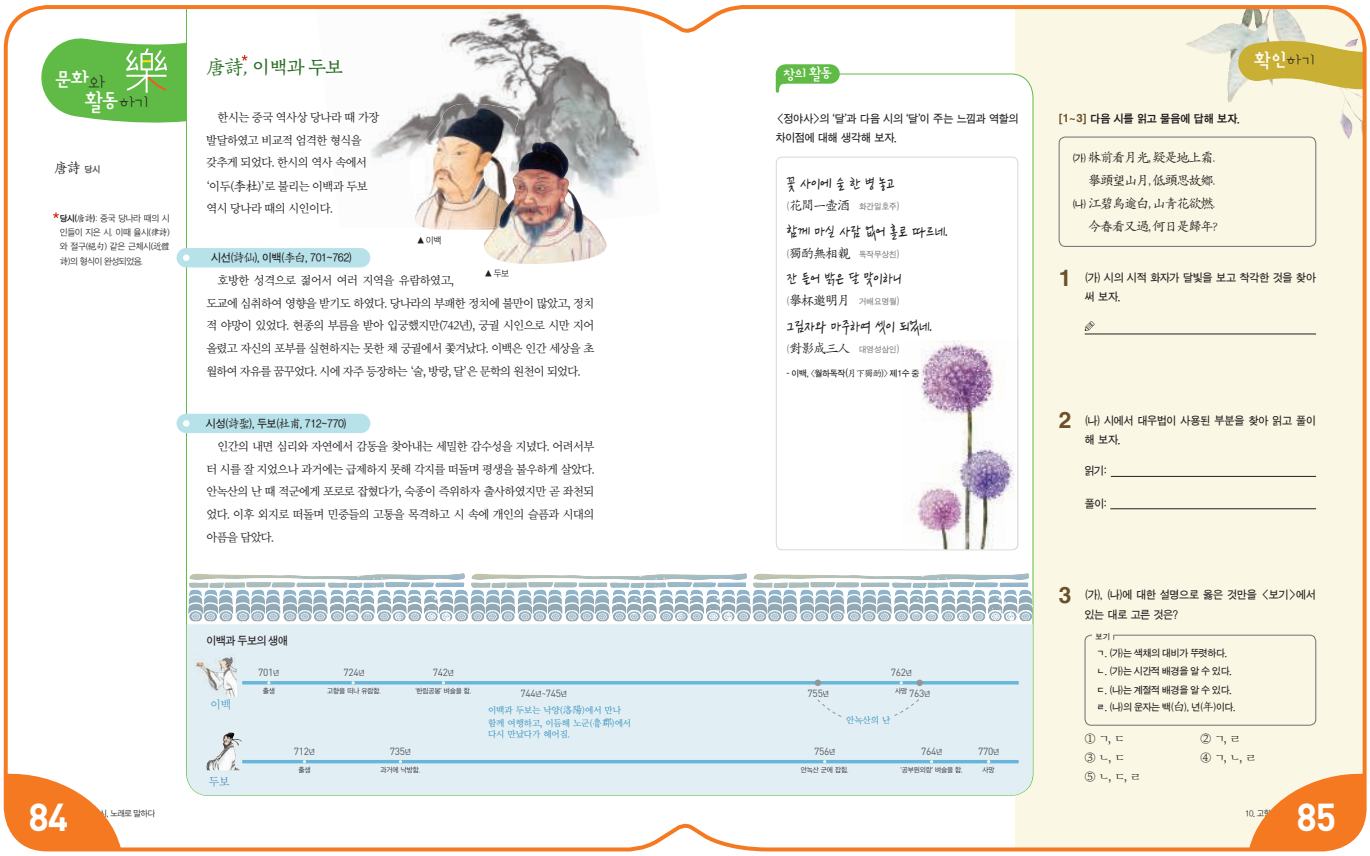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유월(踰月): 그달 그믐을 넘김.
- 윤년(閏年): 윤달이나 윤일이 든 해. 지구가 태양을 한 번 공전하는 데에 365일 5시간 48분 46초 걸리므로 태양력에서는 그 나머지 시간을 모아 4년마다 한 번 2월을 하루 늘리고, 태음력에서는 1년을 354일로 정하므로 계절과 역월(曆月)을 조절하기 위하여 19년에 일곱 번, 5년에 두 번의 비율로 1년을 13개월로 하여 윤년으로 만든다.

성어의 유래 _마이동풍

- 마이동풍(馬耳東風): 동풍이 말의 귀를 스쳐 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아니하고 지나쳐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유래 당나라 시인 이백의 〈답왕십이한야독작유회(答王十二寒夜獨酌有懷)〉 시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도 머리를 흔드니 마치 동풍이 말귀를 스치는 격이네.(世人聞此皆掉頭, 有如東風射馬耳)"에서 유래하였다.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달을 사랑하기로 유명한 이백의 〈월하독작(月下獨酌)〉에서 달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비교하며 감상하는 활동이다. 모둠별로 시를 풀이해 보고 시적 상황을 파악하게 한 후, 시구의 의미를 정리하도록 한다.

예시 답안

- 정야사에 등장하는 달은 두 가지의 모습이다. 한 가지는 '地上霜(지상상)'으로 서리처럼 서늘하고 차가운 느낌이다. 이어 등장하는 달은 '山月(산월)'로 고향을 생각나게 하는 달이다. 두 가지의 느낌을 조합하면 〈정야사〉의 달은 나그네의 서늘하고 쓸쓸한 외로움을 보여 주는 달임을 알 수 있다.
- 〈월하독작〉에서의 달은 꽃밭에서 나와 그림자와 함께 벗하며 술 마시는 친구처럼 등장한다. 〈정야사〉에 비해 낭만적인 감성이 느껴지지만 사람이 아닌 달과 내 그림자와 벗한다는 것에서 이백에게는 떨칠 수 없이 깊은 외로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한시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地上霜(땅 위의 서리)

[해설] '아마 땅 위의 서리인가(疑是地上霜)'라는 승구를 통해 달빛으로 착각한 것이 땅 위의 서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❷ 한시에 사용된 대우법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 읽기: 강벽조유백, 산청화욕연.
• 풀이: 강이 푸르니 새가 더욱 희고,
산이 푸르니 꽃이 불타는 듯하네.

[해설] 江碧鳥逾白(강벽조유백), 山靑花欲燃(산청화욕연).

❸ 한시의 특징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가) 시는 '달〔月〕'과 '서리〔霜〕'라는 시어를 통해 '가을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고, (나) 시는 '올봄〔今春〕'이라는 시어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이백과 두보

이백과 두보는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 같은 시기에 살았다. 똑같이 당시의 언어와 시적 형식을 이용하여 선비 세계에서 시를 지었으며, 마찬가지로 각지를 방랑하다 생애를 마쳤다. 실제로 이 두 시인은 낙양에서 만난 적이 있다. 위대한 두 시인, 방랑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두 시인은 낙양(洛陽, 중국 허난성〔河南省〕 서북부에 있는 성)에서 마주쳐 교유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의 시는 비교하기 곤란할 정도로 각각 전혀 다른 경지를 전개하고 있다.

❶ **두 시인의 공통점:** 이백과 두보 모두 일찍이 관직에 뜻을 품었다. 고관대작의 집에 드나들며 시재로 이름이 나 관직에 나가길 희망했다. 십여 년 만에 어렵게 관직을 얻게 되지만 서툰 처세로 관직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것도 비슷하다. 이후 십여 년 동안 중국 전역을 방랑하는 것도 유사하다. 관직을 얻기 전에는 고관대작에게 벼슬을 구걸했고, 관직을 잃고 난 후에는 지방 관리들에게 생활을 의지하는 비참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특히 둘의 삶은 '안사의 난'이라는 역사적 사건 때문에 굴절되었다. 이백은 방랑을 삶을 살다 안사의 난을 겪는데, 현종의 아들인 영왕의 군대에 참여했다가 반역의 무리로 지목되어 죽을 고비를 넘겼다. 두보는 어렵게 관직을 얻어 가족을 데리러 가던 길에 안사의 난을 겪었다. 반군에 의해 장안에 억류되거나 현종 계열로 분류된 방관 일파로 지목되어 관직에서 쫓겨나는 처지가 된다. 둘의 죽음도 비슷하다. 둘 모두 방랑 중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다. 항간에는 이백이 술에 취해 물 속의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고, 두보는 오랜만에 얻은 소고기를 먹고 배탈이 나 죽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백은 옆구리가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객사했다는 설이 유력하며(762년, 향년 62세), 두보는 어떻게 죽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배를 타고 상강을 내려가다 악주 근처에서 생애를 마감했을 것으로 추정된다(770년, 59세).

❷ **이백과 두보의 차이점:** 둘은 출신이 매우 달랐다. 두보는 대대로 관리를 지낸 명문가 출신이었으나, 이백은 아버지의 성도 이름도 확실치 않은 상인이었다. 관직에 나가기 위해 두보는 과거를 보려 하지만, 이백은 출신 때문에 과거를 볼 자격이 없었다. 따라서 이백은 실력자의 추천(몇 번 시험에서 낙방한 두보 역시 이 길을 택하게 된다)이나, 왕실과 유착되어 있던 도교 교단을 통해 조정에 진출하는 방법을 찾았고, 결국 도사 오균의 추천으로 (도사의 신분으로) 천자를 알현하게 된다. 이백이 바라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의 〈고풍(古風)〉이라는 시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고 퇴청하여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춤과 노래를 즐기는 호사스런 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반면 관료 가문 출신의 두보는 국가와 인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려 했고, 그는 전쟁의 참화가 없는 평화로운 사회와 그 속에서 유지되는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다. 이백이나 두보 모두 관직에 진출하기 위해 무던히 애썼지만 결국 그 목적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둘은 사람을 대하는 모습 또한 매우 차별점을 가졌다. 주위 사람에 대한 태도 또한 상반되는데, 이백은 가는 곳마다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지만 금방 헤어지고 또 다른 친구를 사귄다. 두보는 교제의 범위는 좁지만, 몇 안 되는 벗들과 깊은 친교를 유지했거나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백과 두보의 관계에서도 그런 각자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백은 두보를 곧 잊은 듯하지만 두보는 두고두고 이백을 떠올리며 전달될 가망성이 없는 편지를 시로 짓곤 했던 것이다.

- 다카시마 도오시, 《이백, 두보를 만나다》 참조

〈정야사〉의 시체

《전당시》의 〈정야사〉는 《이태백문집》과 마찬가지로, '寢牀前看月光 疑是地上霜 擧頭望山月 低頭思故鄕'이다. 《이두시선》에서 '五言短古 不可明白說盡 含糊則有餘味如此篇也'라 하였듯이 〈정야사〉는 일찍부터 오언 고시로 알려져 왔다. 곽무청의 《악부시집》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악부풍의 시로 간주되었으며, 《만수당인절구》에 수록되어 절구로도 간주되었다.

- 압운: 평수운(平水韻)으로 보면 하평성(下平聲) 제7 陽韻(양운)의 霜(상)과 鄕(향)을 격구 압운했다고 할 수 있다. 제1구 光(광) 자도 역시 하평성 陽韻(양운)이어서 첫 구에도 압운한 것이 된다.
- 평측: 제3구가 근체시의 2-4부동(不同)과 점법(粘法)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근체시의 절구와는 맞지 않는다.

» 이 시는 오언 고시로 보거나 절구의 형식과 유사하되 절구의 근체시 형식보다 앞서는 고절구(古絕句)로 보는 것이 옳다. 하지만 고절구를 절구의 일종으로 보는 설에 따르면 오언 절구라고 할 수도 있다.

1~2 차시

11 이별 노래

학습 목표

-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시를 바르게 감상한다.
-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단원 소개

이 단원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인 이별의 정한을 담고 있는 두 한시를 배운다. 이별은 인간이면 누구나 겪게 될 일로 고등생들도 공감할 수 있는 제재이다. 특히 이별의 한시 중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두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였다. 널리 알려져 있는 정지상의 〈송인〉은 우리나라 이별시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다. 화려한 수사와 정교한 표현이 한시의 맛을 느끼기에 충분한 작품이다. 그리고 박지원의 〈연암억선형〉은 산문에 뛰어났던 박지원의 보기 드문 한시 작품으로 가족과의 이별을 담담히 표현한 수작이다. 두 작품을 통해 임과의 이별, 가족과의 이별이 주는 슬픔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한시의 학습은 이해와 감상이 중요하므로 그림·만화 활용하기, 가상 인터뷰하기,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감상문 쓰기 등의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송인〉은 국어(문학) 교과서에서도 많이 수록된 작품이다. 한문 수업에서 원문으로 배우는 것이 국어 수업에서 번역문으로 배우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직접 번역해 보는 과정을 통해 한시를 원문으로 읽는 참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③ 〈연암억선형〉은 한시 자체로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박지원의 작가론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박지원의 〈백자 증정 부인 박씨 묘지명〉과 비교하여 가족을 잃은 슬픔이 산문으로 표현되는 것과 시로 표현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11 이별 노래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이별을 경험한다. 헤어짐의 슬픔과 그리운 마음은 때로는 긴 글보다 짧게 함축하여 표현할 때 더 깊은 울림을 주기도 한다. 이별의 슬픔이라는 보편적 감정을 절묘하게 담은 두 시를 감상해 보자.

送人

雨歇長堤草色多 한대
送君南浦❶動悲歌라.
大同江❷水何時盡고?
別淚年年添綠波라. - 정지상, 《동문선》

❶ 南浦 남포: 대동강 하구의 포구.
❷ 大同江 대동강: 평안남도에 있는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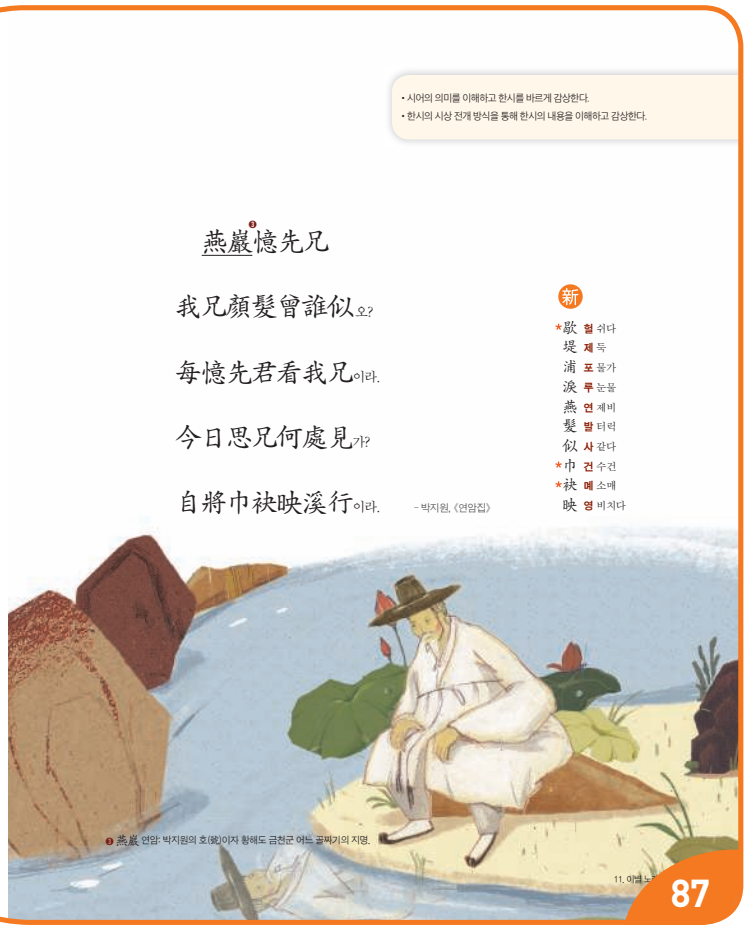
86

〈송인〉의 이해와 감상

送人 임을 보내며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비 그친 긴 둑에 풀빛 짙은데
남포에서 그대 보내니 슬픈 노래 들려오네.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까?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니.
-《동문선》

한시의 특징

- 한시의 형식: 칠언 절구
- 운자: 多(다), 歌(가), 波(파)
- 주제: 이별의 슬픔.
- 시상 전개 방식: 기승전결, 선경후정
- 수사법: 과장법, 도치법, 설의법



감상 비 온 뒤 맑게 갠 강가의 풍경이 유난히 푸르고 새롭다.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슬퍼하는 이별 노래이다. 아름다운 풍경과 슬픈 노래가 대비되는 가운데 문득 시인의 눈앞에는 끝없이 아득한 대동강이 보인다.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남포에서 이별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더해져서일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친다. 이 시는 이별의 슬픔을 눈물로 강물이 불어난다는 과장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 〈송인〉은 고려 시대 시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정지상이 개경에서 유학하기 전 평양에 살 때 지은 작품이다. 1, 2구는 비 온 뒤 맑게 갠 유난히 푸릇푸릇함이 가득한 풍경의 아름다운 날 하필 이별을 마주하는 대비적 모습이 매우 돋보인다. 이 시의 묘미는 3, 4구인데 기발한 착상과 전환이 묘미가 드러난다.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까'라는 표현으로 시상의 단절로 주었고, 사람들의 눈물로 대동강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과장법을 썼다. '이별'의 아픔은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듯 영원할 거라는 읊조림을 통해 이별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공감의 슬픔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전구와 결구의 의미상의 도치와 과장법 등의 화려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별에 대한 섬세한 표현으로 한국 이별시의 백미로 손꼽히고 있다.

〈연암억선형〉의 이해와 감상

燕巖憶先兄
연암에서 돌아가신 형님을 생각하며
我兄顔髮曾誰似? 今日思兄何處見?
每憶先君看我兄. 自將巾袂映溪行.
우리 형님 모습 일찍이 누구와 닮았던가?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날 때마다 우리 형님을 보았네.
오늘 형님을 그리워하니 어디에서 볼까?
스스로 옷차림을 갖추고 시내에 비추러 가야겠네.
-《연암집》

한시의 특징
- 한시의 형식: 칠언 절구
- 운자: 兄(형), 行(행)
- 주제: 죽은 형에 대한 그리움.

감상 돌아가신 아버님과 형님은 외모가 닮았다. 아버님이 그리울 때는 형님의 얼굴을 보며 그리움을 참을 수 있었다. 이제 형님마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형님이 그리울 때면 혹시 자신의 모습에서 형님을 볼 수 있을까 싶어 시냇가로 얼굴을 비추러 간다.

» 〈연암억선형〉은 개성 외곽에 있는 연암에 숨어 살 때 선형을 그리워하며 지은 시이다. 정조 11년(1787) 연암의 형 박희원(朴喜源)이 향년 58세로 별세하였다. 연암 골짜기로 몸을 피해 있던 박지원은 형님이 그리워졌다. 이제 형님의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것인가? 그때 형님과 자신이 닮았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의관을 정제하고 나가서 흐르는 냇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 보며 형님의 자취를 찾아보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표현으로 부친과 자식, 형과 아우의 관계를 그려냈다.

출전

- 《동문선(東文選)》: 신라 때부터 조선 숙종 때까지의 시문(詩文)을 모아 엮은 책. 조선 성종 9년(1478)에 서거정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정편(正編) 130권과 중종 때 신용개, 숙종 때 송상기 등이 편찬한 속편(續編) 21권이 있다. 우리나라 한문학의 총결산이라 할 만하다. 154권 45책.
- 《연암집(燕巖集)》: 조선 정조 때의 실학자 박지원의 시문집. 시문·서간과 〈열하일기〉 따위가 수록되어 있으며, 광무 5년(1901)에 김택영이 간행하였다.

알고 풀이하기

送人 임을 보내며

雨歌長堤草色多, 비 그친 긴 둑에 풀빛 짙은데
우 철 장 제 초 색 다 多 많다, 짙다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서 그대 보내니 슬픈 노래 들려오네.
송 군 남 포 동 비 가 動 움직이다, 울려 퍼지다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까?
대 동 강 수 하 시 진

別淚年年添綠波.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니.
별 루 연 년 첨 록 파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 - 기승전결
起 시상을 불러일으킴.
承 일으킨 시상을 이어받음.
轉 변화를 주어 전환함.
結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함.

감상 ㉮ 비 온 뒤 맑게 갠 강가의 풍경이 유난히 푸르고 새롭다. ㉯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을 슬퍼하는 이별 노래이다. ㉰ 아름다운 풍경과 슬픈 노래가 대비되는 가운데 둔득 시인의 눈앞에는 끊임이 아득한 대동강이 보인다. ㉱ 대동강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은 남포에서 이별하는 사람들의 눈물이 더해져서일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친다. 이 시는 이별의 슬픔을 눈물로 강물이 불어난다는 과정법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燕巖憶先兄 연암에서 돌아가신 형님을 생각하며

我兄顔髮曾誰似? 우리 형님 모습 일찍이 누구를 닮았던가?
아 형 안 발 증 수 사 顔髮 얼굴과 머리카락. → 모습.

每憶先君看我兄.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날 때마다 우리 형님을 보았네.
매 억 선 군 간 아 형 先君 돌아가신 아버지.

今日思兄何處見? 오늘 형님을 그리워하니 어디에서 볼까?
금 일 사 형 하 처 견 何處 어느 곳.

自將巾袂映溪行. 스스로 옷차림을 갖추고 시내에 비추러 가야겠네.
자 장 건 메 영 계 행 將 가지다 巾袂 두건과 소매. → 옷차림.

감상 돌아가신 아버님과 형님은 외모가 닮았다. 아버님이 그리울 때는 형님의 얼굴을 보며 그리움을 참을 수 있었다. 이제 형님마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형님이 그리울 때면 혹시 자신의 모습에서 형님을 볼 수 있을까 싶어 시냇가로 얼굴을 비추러 간다.

88 Ⅳ. 한시, 노래로 말하다

어휘 활용하기

1 부수가 같은 한자 - 艸(艹)
- 英 영 꽃부리 / 英敏 영민 / 茫 망 아득하다 / 茫然 망연
- 莊 장 장엄하다 / 莊嚴 장엄 / 葬 장 장사 지내다 / 葬儀 장의
- 蒸 증 찌다 / 汗蒸 한증 / 蓮 련 연꽃 / 木蓮 목련
- 蔬 소 나물 / 菜蔬 채소 / 蔽 폐 가리다 / 隱蔽 은폐

2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 離 리 (1) 떠나다 / 離別 이별
  (2) 떨어지다 / 距離 거리

3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 戀 ≒ 慕 연모 / 懇 ≒ 切 간절
- 容 ≒ 貌 용모 / 整 ≒ 齊 정제

4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
- 장부 { 丈夫: 다 자란 씩씩한 남자. / 帳簿: 계산을 적어 두는 책. }
- 가공 { 加工: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듦. / 架空: 이유나 근거가 없이 꾸며 냄. }

5 국어의 표현법과 관련된 어휘
- 誇張法 과장법: 사물을 실상보다 지나치게 크거나 작게 하는 표현법.
- 倒置法 도치법: 변화를 끌어내기 위하여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쓰는 표현법.
- 詠歎法 영탄법: 감탄사 등을 이용하여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표현법.
- 漸層法 점층법: 문장의 뜻을 점점 강하거나 크게 하여 절정에 이르도록 하는 표현법.

新
敏 민 민첩하다 / 茫 망 아득하다 / 莊 장 장엄하다 / 葬 장 장사 지내다 / 儀 의 거동
蒸 증 찌다 / 汗 한 땀 / 蓮 련 연꽃 / 蔬 소 나물 / 蔽 폐 가리다
隱 은 숨다 / 離 리 떠나다 / 距 거 떨어지다 / 戀 련 그리워하다 / 慕 모 그리워하다
懇 간 간절하다 / 切 절 끊다, 간절하다 / 貌 모 모양 / 整 정 가지런하다 / 齊 제 가지런하다
丈 장 어른 / 帳 장 장막 / 簿 부 장부 / 架 가 시렁, 지지하다 / 誇 과 자랑하다
張 장 베풀다 / 倒 도 넘어지다, 거꾸로 / 置 치 두다 / 詠 영 읊다 / 歎 탄 탄식하다
漸 점 점점 / 層 층 층

89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 _기승전결

'기승전결'은 동양의 전통적인 시작법(詩作法)의 한 종류로, 한시에서 시구를 구성하는 방법이다. 네 줄로 이루어진 절구(絕句)는 각 구의 명칭을 기구(1구), 승구(2구), 전구(3구), 결구(4구)라고도 부르는데, 기승전결법은 이 네 구의 교묘한 구성으로 한 편의 절구를 만드는 방법이다. 즉 기구에서 시상을 불러일으키고, 승구에서 일으킨 시상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며, 전구에서는 장면과 사상에 변화를 주어 새롭게 전환시키고, 결구는 전체를 묶어서 여운과 여정이 깃들도록 전체의 시상을 마무리해 끝맺는 것이다.

» 특히 전구는 변화를 주어 긴박한 부분으로, 옛사람들은 전구를 중요시하였다. 전구는 활쏘기에서 시위를 당기는 것에, 결구는 화살을 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한다. 〈송인〉 시를 보면 전구의 역할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난다. '대동강 물은 어느 때나 마를까?'라는 뜬금없는 표현을 통해 어안이 벙벙해져 있을 무렵, '이별의 눈물이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니.'라는 결구를 읽고 나면 대동강 물과 이별의 눈물이 등치되는 경지가 눈앞에 펼쳐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 시학의 이해》 참조

어휘 뜻풀이 _수사법

수사법(修辭法)은 효과적·미적 표현을 위하여 문장과 언어를 꾸미는 방법을 말한다. 크게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으로 나눈다.

- **비유법**(比喩法):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비유하여 표현하는 수사법.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의성법, 의태법, 풍유법, 제유법, 환유법, 중의법 따위가 있다.
- **강조법**(強調法): 어떤 부분을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수사법. 열거법, 과장법, 반복법, 대조법 따위가 있다.
- **변화법**(變化法): 문장이나 말의 지루함과 단조로움을 덜기 위하여 변화를 주는 수사법. 도치법, 대구법, 설의법, 인용법, 반어법, 역설법, 생략법, 문답법, 돈호법 따위가 있다.

» 설의법(設疑法):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편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수사법이다. 평서문으로 진술해도 좋을 문장을 일부러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고 나타내고자 하는 생각 등을 강조하여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수사적 의문문이라고도 한다. 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정말 아름답지 않니?"라는 표현은 아름답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한 것이다.

신출 한자

*歇	(헐) 쉬다 欠, 13	間歇泉● 歇價
淚	(루) 눈물 水, 11	催淚 落淚
似	(사) 같다 人, 7	近似 似而非
映	(영) 비치다 日, 9	映畫 反映
莊	(장) 장엄하다 艸, 11	莊嚴 莊重
蒸	(증) 찌다 艸, 14	蒸氣 蒸發
蔬	(소) 나물 艸, 16	菜蔬 蔬飯
離	(리) 떠나다 隹, 19	離別 分離
慕	(모) 그리워하다 心, 15	戀慕 思慕
貌	(모) 모양 豸, 14	全貌 容貌
丈	(장) 어른 一, 3	聘丈● 大丈夫
架	(가) 시렁, 지지하다 木, 9	架橋 架空
倒	(도) 넘어지다, 거꾸로 人, 10	壓倒 轉倒
歎	(탄) 탄식하다 欠, 15	歎息 恨歎
堤	(제) 둑 土, 12	堤防 防潮堤
燕	(연) 제비 火, 16	燕雀 燕尾服●
*巾	(건) 수건 巾, 3	頭巾 手巾
敏	(민) 민첩하다 攴, 11	敏感 過敏
葬	(장) 장사 지내다 艸, 13	葬禮 埋葬
汗	(한) 땀 水, 6	汗蒸 發汗
蔽	(폐) 가리다 艸, 16	掩蔽 隱蔽
距	(거) 떨어지다 足, 12	距離 相距
懇	(간) 간절하다 心, 17	懇切 懇請
整	(정) 가지런하다 攴, 16	整頓 端整
帳	(장) 장막 巾, 11	帳幕 通帳
誇	(과) 자랑하다 言, 13	誇示 誇大
置	(치) 두다 罒, 13	位置 措置
漸	(점) 점점 水, 14	漸次 漸進
浦	(포) 물가 水, 10	浦口 南浦
髮	(발) 터럭 髟, 15	白髮 假髮
*袂	(메) 소매 衣, 9	短袂 衣袂
茫	(망) 아득하다 艸, 10	茫然 茫漠
儀	(의) 거동 人, 15	弔儀 賻儀
蓮	(련) 연꽃 艸, 15	木蓮 蓮根
隱	(은) 숨다 阜, 17	隱密 隱退
戀	(련) 그리워하다 心, 23	戀愛 悲戀
切	(절) 끊다, 간절하다 刀, 4	切斷 切迫
齊	(제) 가지런하다 齊, 14	一齊 整齊
簿	(부) 장부 竹, 19	名簿 帳簿
張	(장) 베풀다 弓, 11	主張 緊張
詠	(영) 읊다 言, 12	吟詠 詠歎法
層	(층) 층 尸, 15	層階 斷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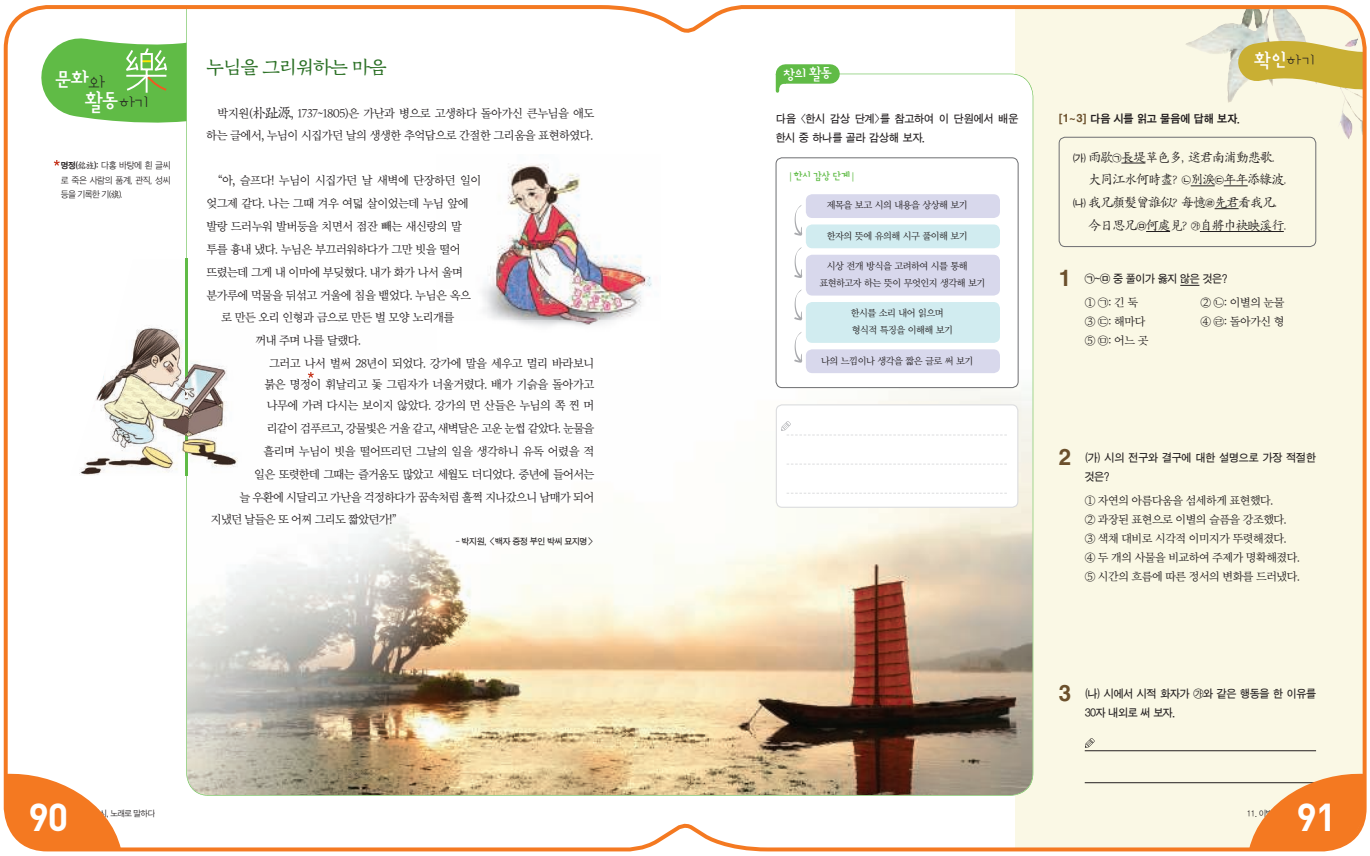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간헐천(間歇泉): 일정한 간격을 두고 뜨거운 물이나 수증기를 뿜었다가 멎었다가 하는 온천. 화산 활동이 있는 곳에서 많이 나타난다.
- 연미복(燕尾服): 남자용 서양 예복. 보통 검은 나사로 만드는데, 가슴은 두 겹이고 단추는 셋이며, 저고리의 앞은 허리 아래가 없고 뒤는 두 갈래로 길게 내려와 마치 제비의 꼬리처럼 보인다.
- 빙장(聘丈): 다른 사람의 장인(丈人)을 이르는 말.

시어의 유래 _남포

'남포(南浦)'는 중국 초나라 시인 굴원(屈原)이 "그대 손잡고 동쪽으로 가서 사랑하는 임을 남포로 떠나보내네.(子交手兮東行, 送美人兮南浦)"라고 읊은 후에 '이별'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 실제 헤어지는 장소가 어디든 이별의 장소를 '남포'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 정지상의 〈송인〉은 고려 시대 가장 아름다운 한시로 꼽히는데, 부벽루 현판에 걸린 〈송인〉을 본 중국 사신들조차 시의 아름다운 표현을 극찬했다고 한다.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한시를 배우면 학생들은 자신의 힘으로 한시를 보고 내용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 배운 한시를 직접 풀이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 한시 감상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예시 답안

〈송인〉 시는 칠언 절구이며 기승전결의 시상 전개 방식이 매우 잘 표현된 시이다. 제1구와 제2구에서는 비온 뒤 대동강변의 싱그러운 풍경과 이별의 슬픔을 대비시켜 이별의 안타까움을 한층 더 고조시켰다. 그리고 제3구에서 시상을 반전하여 갑자기 대동강 물이 언제 마르냐는 표현을 통해 시의 묘미를 살렸다. 제4구에서는 이별의 한을 대동강물에 비유해 이별 슬픔을 극대화했다. 시 한 편 속에 대조법과 도치법, 과장법 등의 다양한 표현 기교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작가가 매우 고심하여 지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화려한 수사로 임과 이별하는 슬픈 정서가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해마다 이별의 눈물이 보태져 대동강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표현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서도 매우 신선하다고 느껴질 만큼 수작이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한시를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先君(선군): 돌아가신 아버지.

❷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과 특징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이별의 눈물 때문에 대동강이 마르지 않는다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슬픔을 강조하고 있다.

❸ 한시를 풀이하고 시적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돌아가신 형님과 닮은 자기 모습에서 그리운 형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하여.

[해설] '스스로 옷차림을 갖추고 시내에 비추러 가야겠네.'라는 구절을 통해 돌아가신 형님이 그리울 때면 형님과 닮은 내 모습을 시내에 비추어 보며 형님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지상(鄭知常, ?~1135)

고려 인종 때의 문신·시인. 서경(西京)인으로 초명은 지원(之元). 호는 남호(南湖).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 슬하에서 성장했다. 1112년(예종 7)에 과거에 급제하여 1113년에 지방직으로 벼슬을 시작했다. 시(詩)에서뿐만 아니라 문(文)에서도 명성을 떨쳐 당대에 김부식(金富軾)과 쌍벽(雙璧)을 이루었다. 1135년 묘청의 난에 연루되어 김부식에게 피살되었다. 시에 뛰어난 고려 12시인 중의 한 사람으로 꼽혔으며, 역학과 노장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저서에 《정사간집(鄭司諫集)》 있다.

-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백운소설》에 실린 정지상과 김부식 이야기

시중(侍中) 김부식(金富軾)과 학사 정지상은 문장으로 함께 한때 이름이 났는데, 두 사람은 알력이 생겨서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다. 세속에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지상이, '임궁(琳宮)에서 범어를 파하니(琳宮梵語罷) 하늘 빛이 유리처럼 깨끗하네(天色淨琉璃)'라는 시구를 지은 적이 있었는데, 김부식이 그 시를 좋아한 끝에 그를 구하여 자기 시로 삼으려 하자, 정지상은 끝내 들어 주지 않았다. 뒤에 정지상은 김부식에게 피살되어 음귀(陰鬼)가 되었다. 김부식이 어느 날 봄을 두고 시를 짓기를, '버들 빛은 일천 실이 푸르고(柳色千絲綠) 복사꽃은 일만 점이 붉구나(桃花萬點紅)' 하였더니, 갑자기 공중에서 정지상 귀신이 부식의 뺨을 치면서, "일천 실인지, 일만 점인지 누가 세어보았는냐? 왜, '버들 빛은 실실이 푸르고(柳色絲絲綠) 복사꽃은 점점이 붉구나(桃花點點紅)'라고 하지 않는가?" 하자, 김부식은 마음속으로 매우 그를 미워하였다. 뒤에 김부식이 어느 절에 가서 측간에 올라 앉았더니, 정지상의 귀신이 뒤쫓아 와서 음낭을 쥐고 묻기를,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왜 낯이 붉은가?" 하자, 부식은 서서히 대답하기를, "언덕에 있는 단풍이 낯에 비쳐 붉다." 하니, 정지상의 귀신은 음낭을 더욱 죄며, "이놈의 가죽 주머니는 왜 이리 무르냐?" 하자, 부식은, "네 아비 음낭은 무쇠였더냐?" 하고 얼굴빛을 변하지 않았다. 정지상의 귀신이 더욱 힘차게 음낭을 죄므로 부식은 결국 측간에서 죽었다 한다.

- 〈한국고전번역원(김동주 역)〉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조선 정조 때의 문장가·실학자. 자는 중미(仲美)·미중(美仲). 호는 연암(燕巖)·연상(煙湘). 돈령부지사를 지낸 조부 슬하에서 자라다가 16세에 조부가 죽자 결혼, 처숙(妻叔) 이군문(李君文)에게 수학, 학문 전반을 연구하다가 30세부터 실학자 홍대용과 사귀고 서양의 신학문에 접하였다. 1777년 권신 홍국영에 의해 벽파로 몰려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황해도 금천의 연암협으로 이사, 독서에 전념하다가 정조 4년(1780)에 진하사(進賀使) 박명원(朴明源)의 수행원으로 청나라에 동행하여 청나라의 실제적인 생활과 기술을 눈여겨 보고 귀국, 기행문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유려한 문장과 진보적 사상으로 이름을 떨쳤다. 1786년부터 본격적인 벼슬을 하였고 1797년 면천 군수가 되었다. 이듬해 왕명을 받아 농서 2권을 찬진하고 1800년(순조 즉위) 양양 부사에 승진, 이듬해 벼슬에서 물러났다. 당시 홍대용, 박제가 등과 함께 청나라의 문물을 배워야 한다는 이른바 북학파의 영수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을 강조하였으며, 자유 기발한 문체를 구사하여 여러 편의 한문 소설을 발표, 당시의 양반 계층 타락상을 고발하고 근대 사회를 예견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창조함으로써 많은 파문과 영향을 끼쳤다. 문집에 《연암집(燕巖集)》이 있다.

- 두산백과 참조

[활동] 박지원이 〈연암억선형〉을 지은 시기의 상황을 보고, 시적 화자의 감정을 추측해 보자.

1세 1737년.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남.
16세 결혼.
23세 모친 사망. 장녀 출생.
31세 부친 사망.
35세 큰누이 사망.
42세 어린 시절을 돌봐 주던 형수 사망. 연암 골짜기 이주.
44세 한양으로 돌아옴. 청나라 연행.
《열하일기》 저술 시작. 《호질》, 《허생전》 지음.
51세 부인 사망. 형 사망. 〈연암억선형〉 지음.

我兄顔髮曾誰似? 每億先君看我兄.
今日思兄何處見? 自將巾袂映溪行.

69세 사망.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한시는 음악성과 함께 회화적인 성격도 강하다. 한시 한 편이 그대로 한 폭의 풍경화처럼 묘사되는 경우도 있고, 경치가 앞에 놓여 시상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한시에서 풍경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은 한시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림을 읽는 연습을 통해 한시에서 경물(景物)에 담긴 의미를 읽어 내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 野水無人渡, 孤舟盡日橫. '들 물엔 건너는 사람이 없어 외로운 배 하루 종일 가로 걸렸네.' 이 제목이 주어졌을 때, 2등 이하로 뽑힌 사람 가운데 어떤 이는 물가에 매여 있는 빈 배의 뱃전에 백로가 한쪽 다리로 서서 잠자고 있는 장면을 그렸고, 또 어떤 이는 아예 배의 봉창 위에 까마귀가 둥지를 튼 모습을 그렸다. 그런데 1등을 한 그림은 그렇지가 않았다. 사공이 뱃머리에 누워 피리를 빗겨 불고 있었다. 시는 어디까지나 건너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 사공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아예 사공도 없이 텅 빈 배보다는 하루 종일 기다림에 지친 사공이 드러누워 있는 배가 오히려 이 시의 무료하고 적막한 분위기를 드러내기에는 제격일 듯싶다.
- 嫩綠枝頭紅一點, 動人春色不須多. '어린 초록가지 끝에 붉은 한 점, 설레는 봄빛은 짙다고 좋은 것은 아닐세.' 궁정 화가들은 일제히 초록빛 가지 끝에 붉은 하나의 꽃 잎을 그렸다. 모두 등수에는 들지 못했다. 어떤 사람은 푸 른 산과 푸른 강이 화면 가득한 가운데, 그 산허리를 학 한 마리가 가르고 지나가는데, 그 학의 이마 위에 붉은 점 하나를 찍어 '홍일점'을 표현하였다. 그런데 정작 일등으로 뽑힌 그림은 화면 어디에서도 붉은색을 쓰지 않았다. 다만 버드나무 그림자 은은한 곳에 자리 잡은 아슬아슬한 정자 위에 한 소녀가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모습을 그렸을 뿐이었다. 중국 사람들은 흔히 여성을 '홍(紅)'으로 표현하곤 하였으므로, 결국 그 소녀로써 홍일점을 표현했던 것이다. - 정민, 《한시 미학 산책》

» 홍일점(紅一點)은 '많은 푸른 잎 가운데 한 송이 붉은 점, 사람을 울리는 봄빛은 많을 필요가 없네.'(萬綠叢中紅一點 動人春色不須多) 왕안석의 〈영석류화(詠石榴花)〉에서 유래하였다.

Ⅳ 단원 총괄 평가

정답 223쪽

[01~04] 다음 한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 〈送人〉

(나) 我兄㉢顔髮曾誰似? 每憶㉣先君看我兄.
今日思兄何處見? 自將㉤巾袂映溪行.
- 〈燕巖憶先兄〉

01 ㉠~㉤의 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① ㉠: 비가 와서 쉬다 ② ㉡: 해마다
③ ㉢: 모습 ④ ㉣: 돌아가신 아버지
⑤ ㉤: 옷차림

02 ㉮를 풀이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풀이하는 것은?

① 江 ② 水 ③ 何
④ 時 ⑤ 盡

03 (가) 시에서 3, 4구가 의미상 도치되어 생기는 표현상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각적 이미지가 뚜렷해졌어.
②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살렸어.
③ 의미의 단절로 반전의 효과가 생겼어.
④ 짝을 이루는 구가 생겨 의미가 명확해졌어.
⑤ 대조의 수법으로 심상을 더욱 심화하고 있어.

04 (나) 시에서 서로 닮은 사람을 모두 나열한 것은?

① 我兄, 先君 ② 我兄, 自
③ 先君, 自 ④ 我兄, 先君, 自
⑤ 先兄, 先君

[05~08] 다음 한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牀前看月光, 疑是地上霜.
擧頭望山月, 低頭思故鄕. - 〈靜夜思〉

(나) ㉠江碧鳥逾白, 山靑花欲燃.
今春看又過, 何日是歸年? - 〈絕句〉

05 ㉠을 풀이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풀이하는 것은?

① 江 ② 碧 ③ 鳥
④ 逾 ⑤ 白

06 (나) 시에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으면?

> 시상에 변화를 주어 분위기를 비약·전환시키는 곳.

① 江碧鳥逾白 ② 山靑花欲然
③ 今春看又過 ④ 何日是歸年
⑤ 今春看又過 何日是歸年

07 (가), (나)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의 작자는 두보이다.
② 두 시는 운자의 위치가 같다.
③ 두 시는 모두 대우법이 쓰였다.
④ 다른 주제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⑤ 두 시의 3, 4구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08 서술형 | (가) 시와 관련해 〈보기〉의 ㉠에 들어갈 것을 시에서 찾아 쓰시오.

보기

시인이 바라본 것		시인이 생각한 것
月光	→	(地上)霜
山月	→	(㉠)

V

성어, 유래로 배우다

12 비유로 말하기

13 관점을 넓혀 보기

성어는 수천 년 전 이야기에서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도 언어생활에서 자주 사용한다. 성어의 유래는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선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 단원에서는 생동감 있는 비유가 담긴 성어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성어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를 짧은 글로 읽게 된다. 글을 읽으면서 한문 문장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동시에 생각의 폭을 넓혀 보자.

대단원 학습 목표

-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대단원 설정의 이유

우리말 표현 속에는 수많은 성어가 있다. 고사성어(故事成語)는 수천 년 역사의 현장에서 만들어진 것이 많다. 성어의 유래가 되는 고사(故事, 유래가 있는 이야기)를 통해 역사를 살았던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의 삶과 지혜를 만날 수 있다.

Ⅰ단원에서 다양한 역사적 배경과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성어를 이해하고 언어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데 중점이 있었다면, 이번 단원에서는 성어의 유래가 되는 이야기를 한문 원문으로 배우게 된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문으로 배우게 되면 글을 바르게 읽고 풀이하는 능력은 물론 한문의 기본적인 문법 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와 뛰어난 비유로 표현된 글을 통해 원문을 직접 풀이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❶ 새로 나온 한자와 단어는 그 음과 뜻을 정확히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❷ 성어의 유래가 되는 문장을 통해 학생들이 한문 학습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❸ 고사성어의 뜻과 유래를 이해한 후 신문 기사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고사성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직접 조사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❹ 문장의 구조와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읽고 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한다.
❺ 학습 목표에 유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성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소단원	차시	교과서 쪽수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12. 비유로 말하기	2	98~103	• 문장의 구조 구별하기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기 • 문장의 구조 비교·분석하기
13. 관점을 넓혀 보기	2	104~109	• 문장의 구조 구별하기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신문이나 방송 영상 활용하기 •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110~113	•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기 •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 고사성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토리 보드를 만들고 상황에 따른 역할극 하기	•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 역할 놀이 학습

1~2 차시

12 비유로 말하기

학습 목표

-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단원 소개

우언(寓言)은 사람이나 인격화한 동식물, 기타 사물 등을 주인공으로 하여 그들의 행동 속에 풍자와 교훈의 뜻을 나타내는 이야기이다. 우언은 보통 다른 이야기를 통해 진실을 비유하거나 작은 사실을 빌어 큰 사실을 비유하는 형식으로 표현되며, 대개 짧고 간단한 이야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비유로 표현된 우언은 진지하거나 딱딱한 주제나 내용이 간단한 이야기 구조 속에 녹아 있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쉬우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철학적 성격과 사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교훈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주로 사용한다. 중국 역사 속에서는 제자백가 사상가들이 철학과 사리를 바탕으로 상대를 설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였다.

이 단원에서는 '각주구검(刻舟求劍)', '조장(助長)'이라는 고사성어로 널리 알려져 있는 두 개의 우언(寓言)을 배우게 된다. 학습자들은 교훈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우언을 배우며 한문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비유로 말하는 고사성어를 알고 언어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문을 읽을 때는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구두와 문장의 어기에 유의하도록 읽는다.

③ 문장의 구조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습의 흥미를 잃지 않게 한다.

12 비유로 말하기

비유란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비슷한 현상이나 다른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다. 비유로 말하면 듣는 사람이 대상을 보다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 옛사람들은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비유를 사용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했는지 알아보자.

楚人이 有涉江者러니 其劍이 自舟中으로 墜於水어늘

遽契其舟曰: "是는 吾劍之所從墜라." 하고

舟止에 從其所契者하여 入水求之라. 《여씨춘추》

98

각주구검의 풀이와 이해

楚人有涉江者, 其劍, 自舟中, 墜於水,

초나라 사람 중에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칼이 배 안에서부터 물에 떨어지자

* 自(자): ~로부터

遽契其舟曰: "是, 吾劍之所從墜."

급히 그 배에 새기면서 말하였다.
"여기가 내 칼이 떨어진 곳이다."

* 契(계): 맺다, 새기다. = 刻(각)
* 是(시): 이곳, 여기
* 之(지): ~이/가
* 所(소): 곳(장소)

조장의 풀이와 이해

宋人有閔其苗之不長而揠之者,

송나라 사람 중에 그 벼 싹이 자라지 않는 것을 걱정하여 그것을 뽑아 올린 사람이 있었는데,

* 閔(민): 걱정하다 = 憂(우)　　* 揠(알): 뽑다

芒芒然歸, 謂其人曰:
"今日, 病矣! 予助苗長矣!"

매우 피곤한 모양으로 돌아와서는 집안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오늘은 피곤하구나! 내가 벼 싹이 자라는 것을 도와주었다!"

* 芒芒然(망망연): 피곤한 모양.
* 其人(기인): 집안사람들. = 家人(가인)
* 病(병): 피곤하다
* 矣(의): 어조사. ※ 문장 끝에 쓰여 완료(종결)의 뜻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냄.

其子趨而往視之, 苗則槁矣.

그 아들이 달려가서 그것을 보았더니 벼 싹이 말라 있었다.

* 則(즉): 접속사. ※ 인과 관계나 전환의 뜻을 나타냄.

- 《맹자》 〈공손추상〉

성어 조장(助長): 자라는 것을 도와줌.
→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

※ 알묘조장(揠苗助長): 곡식의 싹을 뽑아 올려 성장을 도움.
→ 서두르다 도리어 해를 봄.

Q 왜 하필 송나라 사람일까?

A 송나라는 춘추 시대 주나라가 은(殷) 왕조의 후손에게 봉토를 주었던 제후국이었다. 은 왕조의 후예인 송나라 사람들이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희화화하거나 폄하하여 어리석은 사람으로 기록한 예가 많다. 한비자의 '수주대토(守株待兔)'이야기에서도 밭 갈던 농부가 송나라 사람이었다.

舟止, 從其所契者, 入水求之.

배가 멈추자 그 새긴 곳을 따라 물에 들어가 그것을 찾았다.

* 入水求之(입수구지): '之(지)'는 '칼(劍)'을 가리키는 대명사.
* 각주구검(刻舟求劍) = 계주구검(契舟求劍)

- 《여씨춘추》 〈찰금〉

성어 각주구검(刻舟求劍): 배에 새겨 두고 칼을 찾음.
→ (융통성 없이)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

《여씨춘추(呂氏春秋)》: 중국 진(秦)나라의 여불위가 학자들에게 편찬하게 한 사론서(史論書). 유가를 주로 하고 도가와 묵가의 설도 다루었으며 12기(紀), 8람(覽), 6론(論)으로 분류하였다.

* 여불위(呂不韋, ?~ B.C. 235): 중국 전국 시대 말기 진(秦)나라의 재상(宰相). 조(趙)나라에 인질이 되어 있었던 진나라 장양왕(莊襄王)을 도와 그 공로로 승상(丞相)이 되고 시황제로부터 중부(仲父)로 존칭되었지만 밀통(密通) 사건에 연루되어 실각(失脚)하였다.

한문 개념 _문장의 구조(1)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일정한 결합 방식.

• **주술 구조**: 주어 + 서술어

예

	舟(주)	止(지)
풀이	배가	멈추다
성분	주어	서술어

• **주술보 구조**: 주어 + 서술어 + 보어

예

	劍(검)	墜(추)	於水(어수)
풀이	칼이	떨어지다	물에
성분	주어	서술어	보어

• **주술목 구조**: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예

	愚公(우공)	移(이)	山(산)
풀이	우공이	옮기다	산을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성어의 유래 _ 구밀복검

중국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 이임보(李林甫)가 재상일 때, 재주와 명망, 공과 업적이 자기보다 뛰어나거나 임금에게 두터운 총애를 받아 세력과 지위가 장차 자기를 압박할 만한 사람은 반드시 온갖 계책으로 제거하였고, 문학을 하는 선비들은 더욱 꺼려서 혹은 그와 함께 잘 지내는 척하다가 달콤한 말로 속이고 몰래 그를 함정에 빠뜨리니 세상 사람들이 이임보는 "입에는 꿀이 있고 배 속에는 칼이 있다."라고 하였다.(李林甫爲相 凡才望功業 出己右及爲上所厚 勢位將逼己者 必百計去之 尤忌文學之士 或陽與之善 啗以甘言而陰陷之 世謂李林甫 口有蜜 腹有劍)

-《자치통감》

* 이임보(李林甫, ?~752): 중국 당(唐) 현종(玄宗) 때의 재상(宰相). 교활하고 권모술수에 능해 아첨을 일삼고 유능한 관리들을 배척하였다. 조정에 있는 19년 동안 권력을 장악해 당을 쇠퇴의 길로 이끈 인물로, 간신(奸臣)의 전형(典型)으로 여겨진다.

신출 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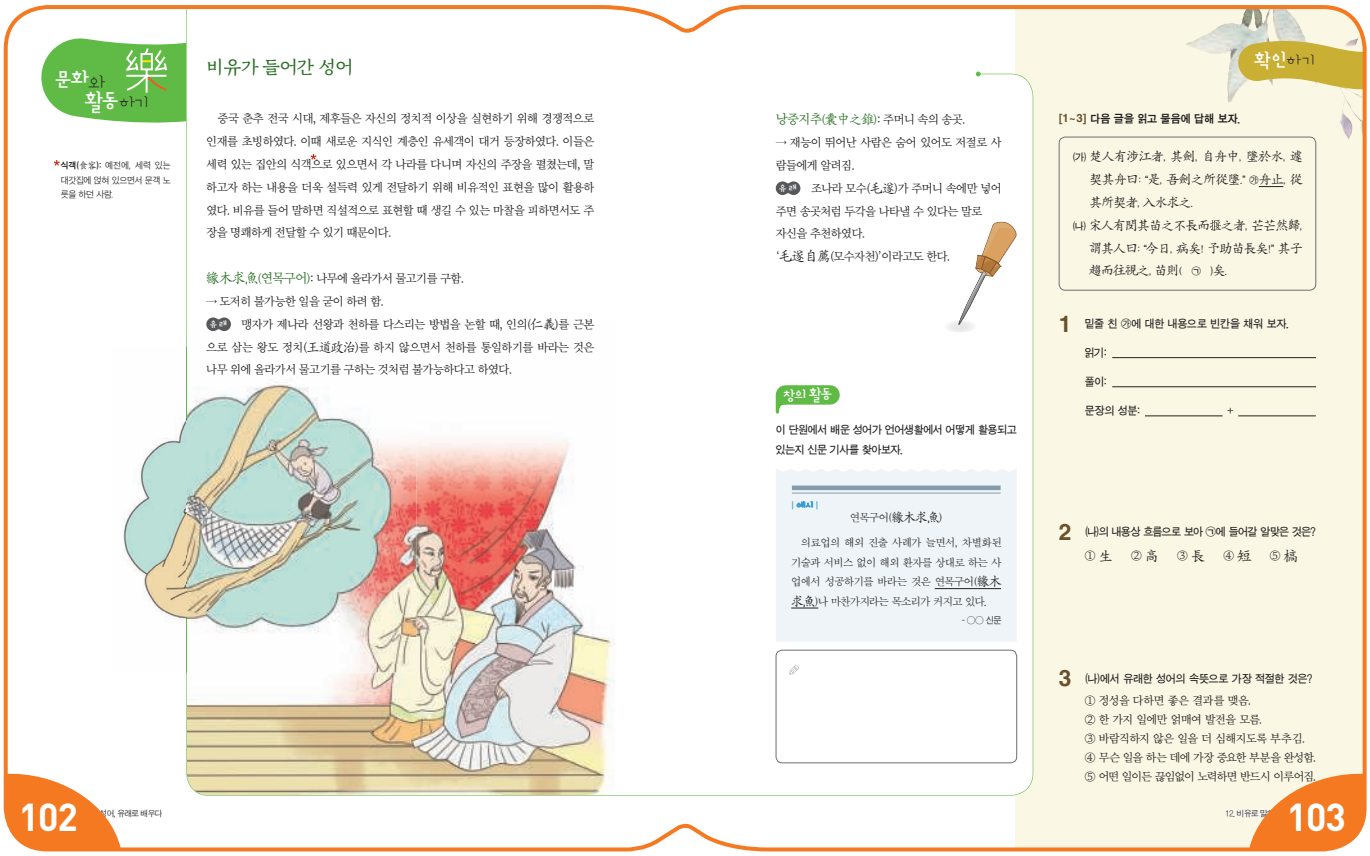
涉	(섭) 건너다 水, 10	交涉 涉獵●
*遽	(거) 급히 辶, 17	急遽
苗	(묘) 싹 艸, 9	苗木 種苗
予	(여) 나 亅, 4	-
刻	(각) 새기다 刀, 8	刻刀 板刻
泊	(박) 머무르다 水, 8	民泊 宿泊
狀	(상) 형상 犬, 8	狀況 狀態
派	(파) 갈래 水, 9	分派 派生
蜜	(밀) 꿀 虫, 14	蜜月 蜜語
儉	(검) 검소하다 人, 15	儉素 儉約
龜	구/(귀) 거북 龜, 16	龜船 龜鑑
蜂	(봉) 벌 虫, 13	養蜂 蜂起
錄	(록) 기록하다 金, 16	記錄 抄錄
漏	(루) 새다 水, 14	漏水 漏泄●
緣	(연) 인연, 잡고 오르다 糸, 15	因緣 緣分
劍	(검) 칼 刀, 15	劍客 劍道
*宋	(송) 나라 이름 宀, 7	南宋 唐宋
*揠	(알) 뽑다 手, 12	揠苗助長
*趨	(추) 달리다 走, 17	趨勢 歸趨
沈	(침) 잠기다 水, 7	沈沒 沈潛
粧	(장) 단장하다 米, 12	化粧 粧飾
濯	(탁) 씻다 水, 17	洗濯 濯足
遣	(견) 보내다 辶, 14	遣外 派遣
檢	(검) 검사하다 木, 17	檢查 檢證
乞	(걸) 빌다 乙, 3	乞食 求乞
鑑	(감) 거울 金, 22	鑑賞 鑑定
霧	(무) 안개 雨, 19	煙霧 霧散
載	(재) 싣다 車, 13	登載 揭載
騰	(등) 오르다 馬, 20	急騰 暴騰
遂	(수) 드디어 辶, 13	未遂 完遂
*墜	(추) 떨어지다 土, 15	墜落 失墜
*閔	(민) 근심하다 門, 12	-
*芒	(망) 까끄라기 艸, 7	芒種
*槁	(고) 마르다 木, 14	枯槁 槁木●
默	(묵) 잠잠하다 黑, 16	沈默 默認
況	(황) 하물며, 상황 水, 8	情況 現況
漂	(표) 뜨다 水, 14	漂流 漂白
洪	(홍) 넓다 水, 9	洪水 洪魚
查	(사) 조사하다 木, 9	調查 查察
援	(원) 돕다 手, 12	援助 救援
逐	(축) 쫓다 辶, 11	逐出 角逐●
鼓	(고) 북 鼓, 13	鼓手 鼓舞
壇	(단) 단 土, 16	祭壇 講壇
零	(령) 떨어지다 雨, 13	零上 零細
薦	(천) 천거하다 艸, 17	薦擧 推薦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섭렵(涉獵): 물을 건너 찾아다닌다는 뜻으로, 많은 책을 널리 읽거나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경험함.
- 고목(槁木): 말라 있는 나무.
  ※ 고목(枯木): 말라서 죽어 버린 나무. 죽은 나무.
- 각축(角逐): 서로 이기려고 다투며 덤벼듦.
- 누설(漏泄/漏洩): 「1」기체나 액체 따위가 밖으로 새어 나감. 「2」 비밀이 새어 나감.

'구밀복검'과 비슷한 뜻을 가진 성어

- 면종복배(面從腹背): 겉으로는 복종하는 체하면서 내심으로는 배반함.
- 소리장도(笑裏藏刀): 웃는 마음속에 칼이 있음. →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마음속에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음.
- 표리부동(表裏不同): 겉과 속이 다름. → 겉으로 드러나는 언행과 속으로 가지는 생각이 다름.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가 언어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보는 활동이다. 성어를 바르게 이해하고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면 언어생활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말과 글의 이면에 담긴 숨은 뜻을 생각해 보는 습관이 길러져 삶 속에서 대상을 보는 안목을 높게 키울 수 있다. 다양한 글이나 신문 기사 속에서 성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한다.

예시 답안

❶ 刻舟求劍
- 시대착오적 발상이 '각주구검'과 다르지 않다.
- 언제까지 현실을 부정하면서 '각주구검'할 것인가.
- 시대의 흐름과 소통을 거부하면서 '각주구검'식 정치를 반복했다.

❷ 助長
- ○○ 게임은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다.
- 지역 차별을 '조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 ○○○ 개그맨이 유튜브에서 급식체를 가르쳐 언어 파괴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문장의 구조를 구별하고 문장 성분을 아는지 묻는 문항

[정답] • 읽기: 주지
• 풀이: 배가 멈추다
• 문장의 성분: 주어 + 서술어

[해설] 舟止(주지): 주어 + 서술어

❷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⑤

[해설] 其子趨而往視之, 苗則槁矣.(기자추이왕시지 묘즉고의): 그 아들이 달려가서 그것을 보았더니 벼 싹이 말라 있었다.

❸ 성어의 유래를 알고 속뜻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조장(助長): 자라는 것을 도와줌.
→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더 심해지도록 부추김.

참고 자료

각주구검 원문 읽기

감히 법을 따지지 못하는 사람은 백성들이다. 법을 죽음으로 지켜야 하는 사람은 관리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법을 바꾸는 사람은 현명한 군주이다. 옛날에 71명의 군주가 있었는데 그들의 법은 모두 달랐다. 서로 다르게 하려고 힘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해가는 형세가 달랐기 때문이다. 초나라 사람 중에 강을 건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칼이 배 안에서부터 물에 떨어지자 급히 그 배에 새기면서 말하였다. "여기가 내 칼이 떨어진 곳이다." 배가 멈추자 그 새긴 곳을 따라 물에 들어가 그것을 찾았다. 배는 이미 갔으나 칼은 가지 않았으니 칼을 찾는 것이 이와 같다면 또한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시대는 이미 변했는데 법은 변하지 않았으니 이것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강을 건너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끌어 강으로 던지고자 하는 것을 보았다. 어린아이는 울고 있었다. 그 사람이 아이를 던지려고 하는 이유를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수영을 잘한다오." 그 아버지가 비록 수영을 잘하나 그 아들이 어찌 급히 수영을 잘할 수 있겠는가? 그 맡은 일은 또한 반드시 비뚤어질 것이다. 초나라의 정치는 이와 비슷하다.(夫不敢議法者 衆庶也 以死守者 有司也 因時變法者 賢主也 是故有天下七十一聖 其法皆不同 非務相反也 時勢異也 故曰良劍期乎斷 不期乎鏌鋣 良馬期乎千里 不期乎驥驁 夫成功名者 此先王之千里也 楚人有涉江者 其劍自舟中墜於水 遽契其舟曰 是吾劍之所從墜 舟止 從其所契者入水求之 舟已行矣 而劍不行 求劍若此 不亦惑乎 以此故法爲其國與此同 時已徙矣 而法不徙 以此爲治 豈不難哉 有過於江上者 見人方引嬰兒而欲投之江中 嬰兒啼 人問其故 曰 此其父善游 其父雖善游 其子豈遽善游哉 此任物亦必悖矣 荊國之爲政 有似於此)

-《여씨춘추》〈찰금(察今)〉

낭중지추의 유래

진(秦)이 한단(邯鄲)을 포위하자 조(趙)는 평원군에게 구원병을 청하고 초와 합종하기 위해 문하의 식객 중 용력(勇力)과 문무를 겸비한 20명을 함께 가라고 했다. … 19명은 뽑았으나 나머지는 뽑을 만한 사람이 없어 20명을 채울 수 없었다. 문하에 있던 모수(毛遂)라는 자가 앞으로 나와 평원군에게 스스로 추천하며 말했다. "제가 듣자하니 군께서 초와 합종하려고 문하의 식객 20명과 함께 가기로 약속하고 밖에서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부족하니 바라옵건대 군께서 저를 수행원으로 채워 가십시오." 평원군이 말했다. "선생께서는 저의 문하에 몇 년이나 계셨습니까?" 모수가 대답했다. "3년입니다." 평원군이 말했다. "무릇 현명한 선비의 처세는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 그 끝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선생께서는 제 문하에 3년이나 계셨지만 좌우에서 칭송하는 것이 없고 저 역시 듣지 못했으니 이는 선생께서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께서는 여기 남으십시오." 모수가 말했다. "신은 오늘 주머니 속에 들어가기를 청합니다. 저를 주머니 안에 넣어 주시면 바로 송곳 자루까지 뚫고 나와 보일 것이니 단지 송곳 끝이 보이지 않을 뿐이겠습니까." 평원군은 결국 모수와 함께 갔다. 19명은 서로 눈짓하며 모수를 비웃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모수가 초에 도착할 때까지 19명과 논의했는데 19명 모두가 모수에게 탄복했다. 평원군이 초와 합종을 위해 이해관계를 논의하는데 해가 뜰 때 시작했지만 한낮이 될 때까지 타결되지 못했다. 19명이 모수에게 말했다. "선생이 올라가시오."라고 했다. 모수가 칼을 쥔 채 올라갔다. … "합종은 초를 위한 것이지 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주군께서 앞에 계시는데 어찌 꾸짖는다 말입니까?" … 평원군은 합종이 정해지자 조로 돌아가는데 조에 도착하자 말했다. "제가 감히 다시는 선비를 고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선비를 고르면서 많게는 천 명 적게는 수백으로, 스스로 천하의 인재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수 선생께 실수를 했습니다. 모수 선생이 초에 한 번 가자 조나라를 구정(九鼎)과 대려(大呂)보다 무겁게 하셨습니다. 모수 선생의 세 치 혀는 백 만 군사보다 강했습니다. 제가 감히 다시는 선비를 고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모수를 상객으로 삼았다.

-《사기》〈평원군 열전(平原君列傳)〉

» 낭중지추(囊中之錐)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부끄러움 없이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모수가 스스로를 천거했다는 뜻으로 '모수자천(毛遂自薦)'이라고도 한다.

1~2 차시

13 관점을 넓혀 보기

학습 목표

-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단원 소개

고사성어는 일차적으로 고사(故事, 유래가 있는 옛날의 일)가 있는 성어이다. 고사는 역사 속에서 신화, 전설, 고전, 문학 작품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으면서 교훈, 경구, 비유, 상징 등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고사성어가 오랜 시간 동안 생명력을 가지고 언어생활에 깊이 자리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읽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며 그 의미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언어생활 속에서 자주 활용되는 '호가호위(狐假虎威)'는 본래 남의 권세에 의지하여 위세를 부리는 행동을 비판하는 뜻이였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는 여우의 재치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기도 한다.

이번 단원에서는 고사성어의 유래를 통해 생각을 확장해 보는 시간으로 구성하였다. 고사성어를 원문으로 풀이하는 과정에서 이미 알고 있는 속뜻에서 벗어나 새롭고 낯선 시각으로 성어를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이 가능한 성어를 알고 언어생활에서 맥락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문장을 읽을 때는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구두와 문장의 어기(語氣)에 유의하도록 읽는다.

③ 문장의 구조는 문장을 바르게 풀이하기 위한 정도에서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습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한다.

④ 〈창의 활동〉은 원전을 이해하되,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참신한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13 관점을 넓혀 보기

하나의 이야기는 읽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황과 맥락 속에서 다양한 속뜻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고사성어의 유래를 읽어 보며 생각을 확장하는 시간을 가져 보자.

尾生❶이 與女子로 期於梁下러니

女子不來일새 水至不去라가 抱梁柱而死라. 〈장자〉

新
梁 량 들보, 다리
柱 주 기둥
*魏 위 나라 이름
寡 과 적다
*龐 방 크다
*蔥 총 파

❶ 尾生 미생: 중국 춘추 시대 노(魯)나라 사람.

미생지신의 풀이와 이해

尾生, 與女子, 期於梁下,

미생이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 與(여): ~와/과
* 期(기): 기약하다, 약속하다

女子不來, 水至不去, 抱梁柱而死.

여자가 오지 않자 물이 (불어나) 이르러도 떠나지 않다가 다리 기둥을 껴안고 죽었다.

-《장자》〈도척〉

성어 미생지신(尾生之信): 미생의 믿음.
→「1」(우직하여) 약속을 굳게 지킴.
「2」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없음.

•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謂魏[2]王曰: "今一人이 言市有虎면 王은 信之乎아?"

王曰: "否라." (중략)

"三人이 言市有虎면 王은 信之乎아?"

王曰: "寡人은 信之矣라."

龐葱[3]曰: "夫市之無虎는 明矣로되 然而三人이 言而成虎라."

《전국책》

❷ 魏: 위: 중국 전국 시대 위나라.
❸ 龐葱: 방총: 중국 전국 시대 위(魏)나라의 대신.

13. 관점을 넓혀 보기 105

삼인성호의 풀이와 이해

謂魏王曰: "今一人, 言市有虎, 王信之乎?"
王曰: "否."

(방총이) 위왕에게 말했다. "지금 한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아니다."

"三人, 言市有虎, 王信之乎?"
王曰: "寡人信之矣."

(방총이 말했다.) "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한다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과인은 그것을 믿을 것이다."
* 寡人(과인): (덕이) 적은 사람. → 임금이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말.

龐葱曰:
"夫市之無虎明矣. 然而三人言而成虎."

방총이 말했다. "무릇 시장에 호랑이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말하여 호랑이를 만들었습니다."
* 夫(부): 문장 앞에 놓여 말을 시작할 때 사용함.

-《전국책》〈위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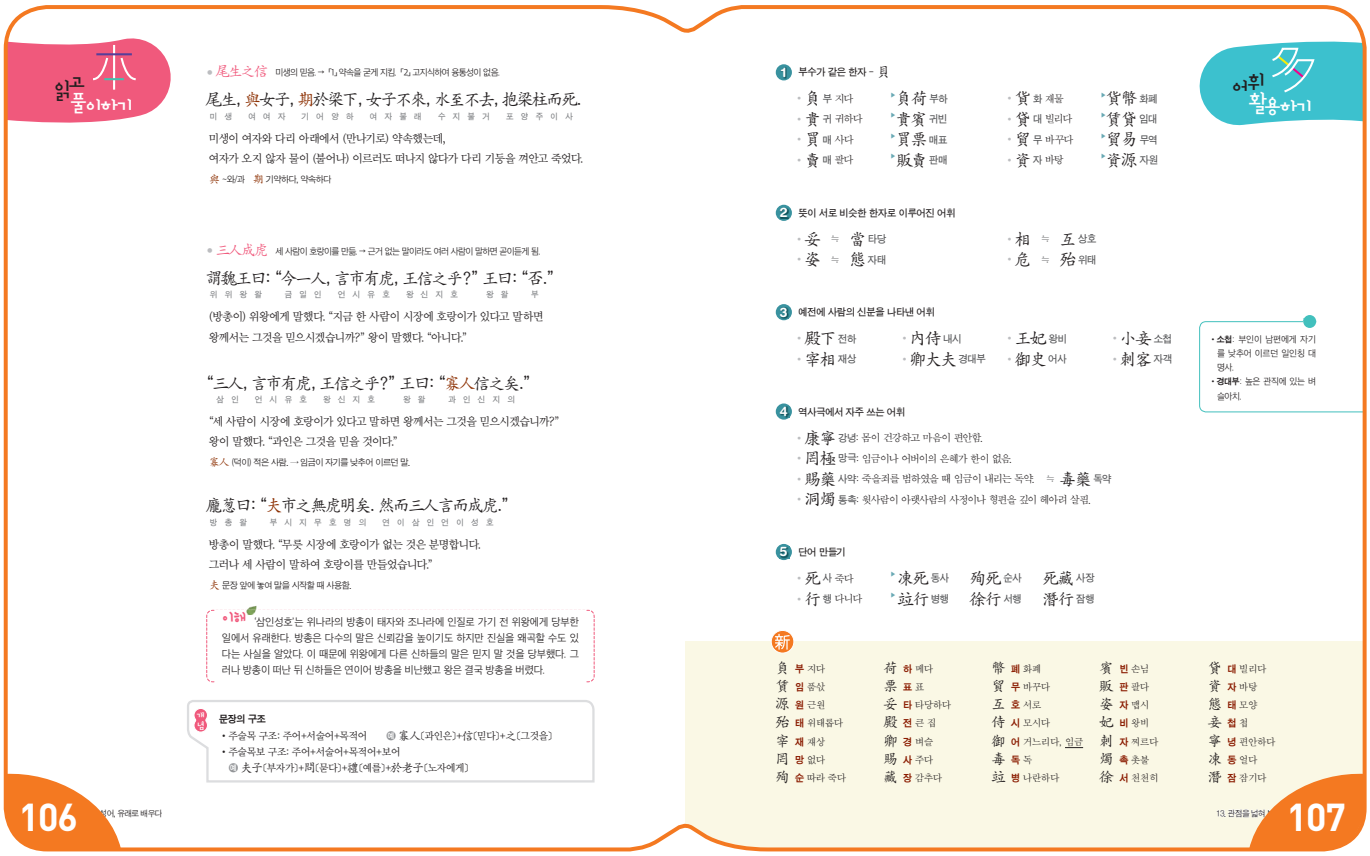
성어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듦.
→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됨.

이해 '삼인성호'는 위나라의 방총이 태자와 조나라에 인질로 가기 전 위왕에게 당부한 일에서 유래한다. 방총은 다수의 말은 신뢰감을 높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때문에 위왕에게 다른 신하들의 말은 믿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방총이 떠난 뒤 신하들은 연이어 방총을 비난했고 왕은 결국 방총을 버렸다.

참고 자료 _삼인성호 원문

방총(龐葱)이 태자와 함께 한단(邯鄲)에 인질로 가게 되어 위왕(魏王)에게 말했다. "지금 한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아니다." "두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과인은 그것을 의심할 것이다." "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한다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까?" "과인은 그것을 믿을 것이다." 방총이 말했다. "무릇 시장에 호랑이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말하여 호랑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단과 위나라 수도 대량의 거리는 시장보다 멀고 저를 헐뜯는 자들은 세 사람보다 많을 것이니 원컨대 왕께서는 살펴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과인이 알아서 하겠다." 이에 방총이 떠나자 그를 참소하는 말이 먼저 이르렀다. 후에 태자가 인질에서 풀려났으나 왕은 끝내 방총을 보지 않았다.(龐葱與太子質於邯鄲 謂魏王曰 今一人言市有虎、王信之乎 王曰 否 二人言市有虎 王信之乎 王曰 寡人疑之矣 三人言市有虎 王信之乎 王曰 寡人信之矣 龐葱曰 夫市之無虎明矣 然而三人言而成虎 今邯鄲去大梁也遠於市 而議臣者過於三人矣 願王察之矣 王曰 寡人自爲知 於是辭行 而讒言先至 後太子罷質 果不得見)

-《전국책》〈위책이(魏策二)〉



• 尾生之信 미생의 믿음 → 「1」 약속을 굳게 지킴. 「2」 고지식하여 융통성이 없음.

尾生, 與女子, 期於梁下, 女子不來, 水至不去, 抱梁柱而死.
미생 여여자 기어양하 여자불래 수지불거 포양주이사

미생이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여자가 오지 않자 물이 (불어나) 이르러도 떠나지 않다가 다리 기둥을 껴안고 죽었다.

與 ~와/과 期 기약하다, 약속하다

• 三人成虎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듦 →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됨.

謂魏王曰: "今一人, 言市有虎, 王信之乎?" 王曰: "否."
위위왕왈 금일인 언시유호 왕신지호 왕왈 부

(방총이) 위왕에게 말했다. "지금 한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아니다."

"三人, 言市有虎, 王信之乎?" 王曰: "寡人信之矣."
삼인 언시유호 왕신지호 왕왈 과인신지의

"세 사람이 시장에 호랑이가 있다고 말하면 왕께서는 그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과인은 그것을 믿을 것이다."

寡人 (덕이 적은 사람. →임금이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말.

龐葱曰: "夫市之無虎明矣. 然而三人言而成虎."
방총왈 부시지무호명의 연이삼인언이성호

방총이 말했다. "무릇 시장에 호랑이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말하여 호랑이를 만들었습니다."

夫 문장 앞에 놓여 말을 시작할 때 사용함.

이렇게 '삼인성호'는 위나라의 방총이 태자와 조나라에 인질로 가기 전 위왕에게 당부한 일에서 유래한다. 방총은 다수의 말은 신뢰감을 높이기도 하지만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때문에 위왕에게 다른 신하들의 말은 믿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방총이 떠난 뒤 신하들은 연이어 방총을 비난했고 왕은 결국 방총을 버렸다.

문장의 구조
• 주술목 구조: 주어+서술어+목적어 ◎ 寡人(과인은)+信(믿다)+之(그것을)
• 주술목보 구조: 주어+서술어+목적어+보어
◎ 夫子(부자가)+問(묻다)+禮(예를)+於老子(노자에게)

106

1 부수가 같은 한자 - 貝

負 부 지다 / 負荷 부하 / 貨 화 재물 / 貨幣 화폐
貴 귀 귀하다 / 貴賓 귀빈 / 貸 대 빌리다 / 貸貸 임대
買 매 사다 / 買票 매표 / 貿 무 바꾸다 / 貿易 무역
賣 매 팔다 / 販賣 판매 / 資 자 바탕 / 資源 자원

2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妥 ≒ 當 타당 / 相 ≒ 互 상호
姿 ≒ 態 자태 / 危 ≒ 殆 위태

3 예전에 사람의 신분을 나타낸 어휘

殿下 전하 / 內侍 내시 / 王妃 왕비 / 小妾 소첩
宰相 재상 / 卿大夫 경대부 / 御史 어사 / 刺客 자객

• 소첩: 부인이 남편에게 자기를 낮추어 이르던 일인칭 대명사
• 경대부: 높은 관직에 있는 벼슬아치.

4 역사극에서 자주 쓰는 어휘

康寧 강녕: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함.
罔極 망극: 임금이나 어버이의 은혜가 한이 없음.
賜藥 사약: 죽음죄를 범하였을 때 임금이 내리는 독약 ≒ 毒藥 독약
洞燭 통촉: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사정이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핌.

5 단어 만들기

死 사 죽다 / 凍死 동사 / 殉死 순사 / 死藏 사장
行 행 다니다 / 竝行 병행 / 徐行 서행 / 潛行 잠행

新

負 부 지다 / 荷 하 메다 / 幣 폐 화폐 / 賓 빈 손님 / 貸 대 빌리다
貸 임 품삯 / 票 표 표 / 貿 무 바꾸다 / 販 판 팔다 / 資 자 바탕
源 원 근원 / 妥 타 타당하다 / 互 호 서로 / 姿 자 맵시 / 態 태 모양
殆 태 위태롭다 / 殿 전 큰 집 / 侍 시 모시다 / 妃 비 왕비 / 妾 첩 첩
宰 재 재상 / 卿 경 벼슬 / 御 어 거느리다, 임금 / 刺 자 찌르다 / 寧 녕 편안하다
罔 망 없다 / 賜 사 주다 / 毒 독 독 / 燭 촉 촛불 / 凍 동 얼다
殉 순 따라 죽다 / 藏 장 감추다 / 竝 병 나란하다 / 徐 서 천천히 / 潛 잠 잠기다

13. 관점을 넓혀

107

>> 삼인성호(三人成虎)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짜 뉴스(fake news)의 폐해의 심각성과 연계하여 지도하기에 좋다. 주요한 쟁점이 있을 때마다 무언가를 위해 조작된 거짓 정보가 넘쳐 나는 현실에서 가짜 뉴스를 걸러 내는 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삼인성호는 '대중의 힘'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작은 힘이라도 여럿이 모이게 되면 큰 힘이 되어 감춰진 진실을 밝히거나 지켜낼 수 있다는 긍정의 해석이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한문 개념 _문장의 구조(2)

• **주술목 구조**: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예

	寡人(과인)	信(신)	之(지)
풀이	과인은	믿는다	그것을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 **주술목보 구조**: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 보어

예

	夫子	問	禮	於老子
풀이	부자가	물었다	예를	노자에게
성분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 부자(夫子): 공자(孔子)를 높여 이르는 말.

어휘 활용하기 _역사극에서 자주 쓰는 어휘

• **성은**(聖恩): 임금의 큰 은혜. 예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 **옥체**(玉體): 「1」 옥같이 아름다운 몸. 「2」 임금의 몸.
예 전하, 옥체를 보중하옵소서.
• **윤허**(允許): 임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함.
예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 **어명**(御命): 임금의 명령을 이르던 말. 예 어명을 받으라.
• **사직**(社稷): 나라 또는 조정.
• **능멸**(凌蔑/陵蔑): 업신여기어 깔봄.
예 종묘와 사직을 능멸한 죄는 …
• **고변**(告變): 「1」 변고를 알림. 「2」 반역 행위를 고발함.
• **저하**(邸下): 조선 시대에, 왕세자를 높여 부르던 말.
• **내명부**(內命婦): 조선 시대에, 궁중에서 품계를 받은 여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 빈(嬪), 귀인(貴人), 소의(昭儀), 숙의(淑儀), 소용(昭容), 숙용(淑容), 소원(昭媛), 숙원(淑媛), 상궁(尙宮) 따위이다.
• **수렴청정**(垂簾聽政): 임금이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을 때,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이를 도와 정사를 돌보던 일. 왕대비가 신하를 접견할 때 그 앞에 발을 늘인 데서 유래한다.

신출 한자

梁	(량) 들보, 다리 木, 11	棟梁 橋梁
寡	(과) 적다 宀, 14	寡默 衆寡不敵
負	(부) 지다 貝, 9	勝負 抱負
賓	(빈) 손님 貝, 14	主賓 貴賓
票	(표) 표 示, 11	票決 投票
資	(자) 바탕 貝, 13	資質 資金
互	(호) 서로 二, 4	相互 互惠
殆	(태) 위태롭다 歹, 9	危殆 殆半
妃	(비) 왕비 女, 6	王妃 后妃
卿	(경) 벼슬 卩, 12	公卿● 卿相
寧	(녕) 편안하다 宀, 14	安寧 康寧
毒	(독) 독 毋, 9	中毒 解毒
殉	(순) 따라 죽다 歹, 10	殉職 殉國
徐	(서) 천천히 彳, 10	徐行 徐徐
柱	(주) 기둥 木, 9	柱聯● 支柱
* 龐	(방) 크다 龍, 19	-
荷	(하) 메다 艸, 11	荷重 負荷
貸	(대) 빌리다 貝, 12	賃貸 貸出
貿	(무) 바꾸다 貝, 12	貿易
源	(원) 근원 水, 13	源泉 資源
姿	(자) 맵시 女, 9	姿勢 姿態
殿	(전) 큰 집 殳, 13	大殿 殿下
妾	(첩) 첩 女, 8	小妾 愛妾
御	(어) 거느리다, 임금 彳, 11	御史 制御
罔	(망) 없다 网, 8	罔極 罔測
燭	(촉) 촛불 火, 17	燭光 華燭
藏	(장) 감추다 艸, 18	所藏 貯藏
潛	(잠) 잠기다 水, 15	潛水 沈潛
* 魏	(위) 나라 이름 鬼, 18	魏志 北魏
* 葱	(총) 파 艸, 13	山葱 細葱
幣	(폐) 화폐 巾, 15	紙幣 僞幣
賃	(임) 품삯 貝, 13	賃金 賃借
販	(판) 팔다 貝, 11	販賣 販路
妥	(타) 타당하다 女, 7	妥結 妥當
態	(태) 모양 心, 14	態度 世態
侍	(시) 모시다 人, 8	侍女 內侍
宰	(재) 재상 宀, 10	宰相 主宰
刺	(자) 찌르다 刀, 8	刺客 諷刺
賜	(사) 주다 貝, 15	賜額● 賜藥
凍	(동) 얼다 冫, 10	凍傷 解凍
竝	(병) 나란하다 立, 10	竝設 竝行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주련(柱聯): 기둥이나 벽 따위에 장식으로 써서 붙이는 글귀. 주로 한시(漢詩)의 연구(聯句)를 쓴다.
- 공경(公卿): 삼공(三公)과 구경(九卿).
  ※ 조선 시대에 삼공(三公)은 삼정승(三政丞)으로, 의정부에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맡아보던 세 벼슬.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이르고, 구경(九卿)은 삼정승에 다음가는 아홉 고관직. 의정부의 좌우참찬(左右參贊), 육조 판서(六曹判書),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이른다.
- 사액(賜額): 임금이 사당(祠堂), 서원(書院), 누문(樓門) 따위에 이름을 지어서 새긴 편액을 내리던 일.

성어의 유래 _한단지보

- 한단지보(邯鄲之步): 한단의 걸음걸이. → 함부로 자기 본분을 버리고 남을 따라 하면 두 가지 모두 잃게 됨.

유래 "그대는 수릉(壽陵)의 젊은이가 한단(邯鄲)에 가서 그곳의 걸음걸이를 배웠던 일을 듣지 못했는가? 그는 한단의 걸음걸이를 배우기도 전에 본래의 걸음걸이도 잊어버리고, 엉금엉금 기어서 돌아갔을 뿐이다. 그대도 지금 돌아가지 않으면 그대 본래의 것을 잊어버리고 본업까지도 잃을 것이다."(子獨不聞夫壽陵餘子之學行於邯鄲與未得國能 又失其故行矣 直匍匐而歸耳 今子不去 將忘子之故 失子之業) -《장자》〈추수〉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고사성어 '조삼모사(朝三暮四)'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비판적으로 이해해 보는 활동이다. 고사성어 속에 등장하는 저공(狙公)과 원숭이의 태도를 이미 알고 있는 속뜻이나 기존의 해석에 얽매이지 말고 원전 속에 숨어 있는 행간의 뜻을 유추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시 답안

- **저공은 간사한 꾀로 원숭이를 속였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루에 먹일 도토리의 총 개수는 같다고 할지라도 아침에 줄 도토리의 양을 늘려 원숭이의 심리적 불만족을 해소해 줬기 때문이다.
- **원숭이는 어리석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같은 양의 도토리라도 언제 먹는가에 따라 심리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녁보다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좀 더 많이 먹는 것이 원숭이에게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성어의 유래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尾生之信
[해설] 尾生之信(미생지신): 미생의 믿음.

❷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 읽기: 과인신지
• 풀이: 과인은 그것을 믿는다.
• 문장의 구조: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해설] 寡人信之(과인신지) → 주술목 구조

❸ 성어의 속뜻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삼인성호(三人成虎):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듦.
→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됨.

참고 자료

미생지신 원문 읽기

세상에서 말하는 어진 선비로는 백이숙제만한 사람이 없는데 백이숙제는 고죽국 임금 자리를 사양하고 수양산에서 굶어 죽었는데 그들의 시체는 장사를 치러 주지 않았다. 포초는 행동을 엄하게 하고 세상을 비난하다가 나무를 끌어 안고 죽었다. 신도적은 임금에게 간했으나 들어주지 않자 돌을 지고 스스로 황하에 몸을 던져 물고기와 자라의 밥이 되었다. 개자추는 충성을 다해 자기 넓적다리를 베어 문공에게 먹였으나 문공이 훗날 그를 배신하자 노하여 진(晉)나라를 떠나 살다 나무를 껴안은 채 불타 죽었다. 미생은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여자가 오지 않자 물이 불어나 이르러도 떠나지 않다가 다리 기둥을 껴안고 죽었다. 이 여섯 사람은 제사에 쓰려고 찢어발긴 개나 제물로 강물에 던져진 돼지, 바가지를 들고 구걸하는 거지와 다를 것이 없다. 모두 자기 명분에 얽매여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삶의 근본을 생각하고 수명을 잘 기르지 못한 자들이다.(世之所謂賢士 莫若伯夷叔齊 伯夷叔齊辭孤竹之君而餓死於首陽之山 骨肉不葬 鮑焦飾行非世 抱木而死 申徒狄諫而不聽 負石自投於河 爲魚鼈所食 介子推至忠也 自割其股以食文公 文公後背之 子推怒而去 抱木而燔死 尾生與女子期於梁下 女子不來 水至不去 抱梁柱而死 此六子者 無異於磔犬流豕操瓢而乞者 皆離名輕死 不念本養壽命者也)

-《장자》〈도척(盜跖)〉

※《사기》 속 미생지신

소진이 말했다. "증삼 같은 효자는 부모를 떠나 밖에서는 하루도 잘 수 없습니다. 왕께서는 또 어찌 그런 사람을 천 리에 사신으로 보내 위기에 처한 연나라 왕을 섬기게 하시겠습니까? 청렴한 백이는 고죽군의 후계자를 거부하고 무왕(武王)의 신하가 되는 것이 싫어 제후의 책봉을 받지 않고 수양산 아래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청렴한 사람을 또 어찌 천 리에 사신으로 보내 제나라에서 얻어 오게 하시겠습니까? 믿음하면 미생인데 여자와 다리 아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으나 여자가 오지 않자 물이 불어나 이르러도 떠나지 않다가 다리 기둥을 껴안고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의 있는 자를 왕께서는 또 어떻게 천 리 밖에 사신으로 보내 제나라의 강한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겠습니까? 신(臣)은 이른바 그 충성과 신의 때문에 윗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을 말한 것입니다."

» 전국 시대 유세가 소진이 연나라 왕에게 유세할 때 나온 말이다. 소진은 증삼(曾參)의 효심, 백이(伯夷)의 청렴, 미생(尾生)의 신의는 비록 칭송할 만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충성과 신의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제나라를 이길 수 없다고 하였다. 미생의 신의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고지식하고 융통성 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자신이 미생보다 더 충성스럽고 믿을 만하다고 강변하면서 연나라 왕에게 자신을 등용해 줄 것을 유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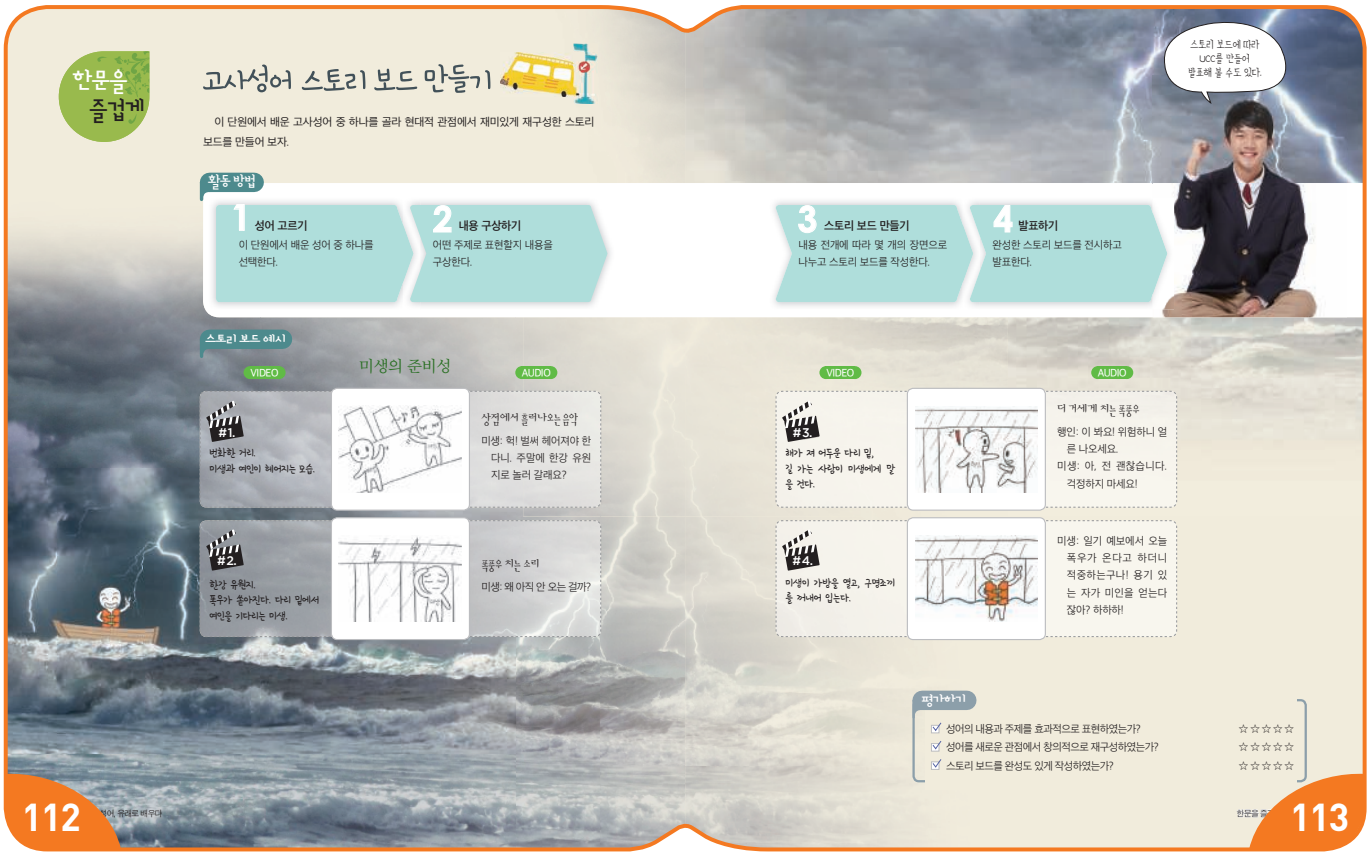
당랑거철의 유래 _《회남자》와 《장자》

- 제(齊)나라의 장공(莊公)이 사냥을 하러 나갔다. 발을 들고 그의 수레를 치려고 하는 한 마리의 벌레가 있었다. 그것을 보고 마부에게 물었다. "이것은 어떤 벌레인가?" (마부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이른바 당랑(螳螂: 사마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벌레는 나아가는 것은 알지만 물러나는 것은 알지 못하며,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못하여 적을 가벼이 여깁니다." 장공이 말하였다. "이것이 사람이 되면 틀림없이 천하에서 가장 용감한 무사가 될 것이다." 수레를 돌려서 그 벌레를 피해 갔다. 용감한 무사들이 장공의 이야기를 듣고 목숨을 걸고 죽을 곳을 알았다. 전자방(田子方)이 한 마리의 늙은 말을 가엾게 여겨서 위(魏)나라는 그를 떠받들었고, 제나라의 장공은 한 마리의 당랑(螳螂)을 피하여 용감한 무사들이 그를 존경하고 섬겨 따랐다.(齊莊公出獵 有一蟲 擧足將搏其輪 問其御曰 此何蟲也 對曰 此所爲螳螂者也 其爲蟲也 知進而不知却 不量力 而輕敵 莊公曰 此爲人而必爲天下勇武矣 廻車而避之 勇武聞之 知所盡死矣 故田子方隱一老馬 而魏國戴之 齊莊公避一螳螂 而勇武歸之)

-《회남자》〈인간훈〉

- 당신은 사마귀를 모르십니까? 화가 난 사마귀가 앞발을 들고 수레바퀴 앞에 막아서서 자기가 바퀴에 깔려 죽을 것도 모르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 재질의 훌륭함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의 훌륭함을 내세우면서 상대방의 권위를 건드리면 위태로워집니다.(汝不知夫螳螂乎 怒其臂以當車轍 不知其不勝任也 是其才之美者也 戒之 愼之 績伐而美者以犯之 幾矣)

-《장자》〈인간세〉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고사성어를 현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역할극 스토리 보드를 만드는 활동이다. UCC(User Created Contents)를 제작하기 전 스토리 보드를 만들어 봄으로써 고사성어의 속뜻과 유래에 대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나 타인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혹은 신념을 깊이 있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 정보 처리 능력, 창의적 사고 능력의 교과 역량을 기를 수 있다.

핵심 역량 이해하기

창의성 — **독창성**

스토리 보드 내용을 구성하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거나 선별하는 능력

인성

협동심

협동하여 스토리 보드의 내용을 구성하는 능력

타인 존중

모둠원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능력

참고 자료 _마부작침, 서시빈목

- **마부작침**(磨斧作針):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듦. →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

  유래 세상에 전하기를, 이태백(李太白)이 쓰촨성〔四川省〕 상이산(象耳山)에서 독서할 때 학업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떠났다. 떠나는 길에 이 냇가〔磨針溪〕를 지나는데, 어떤 할머니가 마침 쇠공이를 갈고 있었다. 이태백이 묻자 할머니는 '바늘을 만들고 싶다.'고 대답했다. 이태백은 할머니의 의지에 감동하여 다시 돌아가 학업을 마쳤다. -《방여승람》

- **서시빈목**(西施矉目): 서시가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흉내 냄. → 무조건 남의 흉내를 내어 웃음거리가 됨.

  유래 서시가 가슴을 앓아 얼굴을 찡그리니 그 마을의 다른 추녀가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여기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도 가슴에 손을 얹고 얼굴을 찡그렸다. 그 마을의 부자는 그것을 보고 문을 굳게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처자식을 데리고 떠났다. -《장자》

Ⅴ 단원 총괄 평가

정답 223쪽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楚人有涉江者, 其劍, ㉠自舟中, 墜於水, 遽契其舟曰: "是, 吾劍之所從墜." 舟止, 從其所契者, 入水求之.

(나) 宋人有閔其苗之不長而揠㉡之者, 芒芒然歸, 謂其人曰: "今日, 病矣! 予助苗長矣!" 其子趨而往視之, 苗則槁矣.

01 ㉠의 풀이로 옳은 것은?

① 자기 ② 저절로 ③ ~와/과
④ ~보다 ⑤ ~(으)로 부터

02 (가)의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번 잘못된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② 정신을 집중하면 힘든 일도 해낼 수 있다.
③ 위기의 순간에는 도전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④ 성공을 위해서는 어려움도 참아 낼 줄 알아야 한다.
⑤ 옛날만 고집하지 말고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03 ㉡이 가리키는 것은?

① 宋人 ② 苗 ③ 其人
④ 今日 ⑤ 予

04 서술형 | (나)에서 유래한 성어를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지으시오.

조건
1. 성어는 한자로 쓸 것.
2. 짧은 글은 25자 이내로 서술할 것.

[05~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尾生, 與女子, 期於梁下, 女子不來, 水至不去, ㉠抱梁柱而死.

(나) 謂魏王曰: "今一人, 言市有虎, 王信㉡之乎?" 曰: "否."(중략) "三人, 言市有虎, 王信之乎?" 王曰: "寡人信之矣." 龐葱曰: "夫市之無虎(㉢)矣. 然而三人言而成虎."

05 ㉠을 풀이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抱 - 梁 - 柱 - 而 - 死 ② 抱 - 柱 - 梁 - 而 - 死
③ 梁 - 抱 - 柱 - 而 - 死 ④ 梁 - 柱 - 抱 - 而 - 死
⑤ 柱 - 梁 - 抱 - 而 - 死

06 서술형 | ㉡이 가리키는 것을 한글로 쓰시오.

07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① 明 ② 生 ③ 死
④ 有 ⑤ 去

08 (나)에서 유래한 성어로 옳은 것은?

① 三人成虎 ② 尾生之信
③ 刻舟求劍 ④ 緣木求魚
⑤ 虎死留皮

VI

인물, 삶에서 깨닫다

14 사관의 정신

15 예술가의 삶

16 그리운 인물

우리 역사 속 수많은 인물 중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산 인물이 많다. 한 인간의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설정한 삶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의지를 다해 살아가는 자세일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투철한 역사의식, 예술에 대한 열정, 운명에 맞서는 강인한 용기로 인간의 위대한 정신을 보여 준 세 인물을 만나게 된다.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삶을 상상해 보며 무엇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하는지 생각해 보자.

대단원 학습 목표

-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른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 비추어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대단원 설정의 이유

역사란 어떤 사물이나 사실이 존재해 온 내력으로, '시간'과 '공간'의 결합이다. 1차원적으로 시간의 흐름만을 역사라고 하는데, 그것에는 어떠한 관점이 부여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것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존재했던 시대의 흐름과 '공간'을 부여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 인간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이탈리아 역사학자 크로체(Croce)는 '모든 역사는 현대의 역사다(contemporary history).'라고 하였다. '과거의 역사가 곧 현대사'라는 뜻이다. 이 대단원에서는 역사를 바라보는 통시적 관점에서 조선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을 살펴볼 것이다. 조선 초기 사관 민인생, 화가 최북 등 자기만의 개성과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선조들의 역사 기록 속 일화를 통해 그들의 삶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는 과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에게 또 다른 깨우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❶ 실사와 허사가 무엇인지를 단순히 묻기보다는 그 차이점을 구분하고 문장 풀이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❷ 학습 과정 중심의 수행 평가 형태가 되도록 하고 문법 내용보다는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중점을 둔다.

❸ 고전의 가르침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가치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❹ 일화 속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역사, 사회, 문화)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서사 구조 파악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❺ 산문을 이해하고 감상할 때는 작품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자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소단원	차시	교과서 쪽수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14. 사관의 정신	3	116~121	•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 구별하기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 이해하기	• 토의·토론하기 • 허사 쓰임 유추하기
15. 예술가의 삶	3	122~127	•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른 품사의 활용 구별하기 • 다른 교과 학습 용어(지리)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우리의 전통문화 바르게 이해하기	•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 품사 비교·분석하기
16. 그리운 영웅	3	128~133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 함양하기 • 우리의 전통문화 바르게 이해하기	• 문장 구조 분석하기 • 역사 신문 만들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134~137	•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기 •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 역사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감상하고 역사 기록과의 차이점 발표하기	•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 다른 창작물과 비교하기

1~3 차시

14 사관의 정신

학습 목표

-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단원 소개

글자는 단순한 표기 체계로서의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담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문자는 인간 문명의 발달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정치 제도 발달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기억은 잊혀져도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기록의 중요성은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류가 더욱더 첨단 문명으로 나아가도 시대를 뛰어넘어 유효할 것이다. 특히 인문학에서 기록의 중요성은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이 단원에서는 역사 속에서 기록이 지녔던 의미를 탐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역사에서 기록을 담당했던 사관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했는지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태종 이방원과 사관 민인생의 성격을 통해 서사 구조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풀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문장 속에 사용된 한자의 쓰임에 유의하되, 학습자들의 오역(誤譯)을 자연스럽게 활용하여 한자의 다양한 쓰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이야기 속 등장인물에 대한 단순한 평가를 지양하고, 사관 민인생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통해 확산적이고 발전적인 수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문화와 활동하기〉에서 제시한 '사관', '사초' 등과 같은 역사 용어는 역사 과목 수업과 연계하여 심화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한문과 역사에 대해 무관심했던 학습자들이 흥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한다.

14 사관의 정신

역사의 편찬을 맡아 기록하는 사람을 사관(史官)이라고 한다. 사관은 어떤 위세(威勢)에도 굴하지 않고 역사를 엄정하게 전달하려는 직필(直筆)의 자세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선 초기의 사관 민인생의 일화를 읽어 보고, 후대의 역사가들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지 생각해 보자.

上이 率武臣十餘人하여 沿江放鷹이라가 日暮還宮이라.

본문의 풀이와 이해

上率武臣十餘人, 沿江放鷹, 日暮還宮.

임금이 무신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강가에서 매를 놓고 사냥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대궐로 돌아왔다.

* 上(상): 임금 → 태종 이방원
* 率(솔): 거느리다

» 태종(太宗): 조선의 제3대 왕(1367~1422). 성은 이(李). 이름은 방원(芳遠). 자는 유덕(遺德). 조선을 건국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으며, 많은 치적을 거두어 왕조의 기틀을 세웠다. 재위 기간은 1400~1418년이다.

史官閔麟生, 隨至, 上見之,
目內豎問: "何爲而來乎?"

사관 민인생이 뒤따라 이르니 임금이 그를 보고 눈짓으로 내시에게 물었다. "무엇하러 왔느냐?"

* 之(지): 그(대명사) → 민인생
* 目(목): 눈 → 눈짓하다
* 內豎(내수): 내시.
* 何(하)~乎(호): 무엇 ~(인)가?

對曰: "臣以史官, 不敢廢職, 故來耳."

(민인생이) 대답하여 말했다.
"신이 사관으로서 감히 직무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왔을 뿐입니다."

* 以(이): ~로서(개사)　　* 耳(이): ~일 뿐이다(어조사)

이해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李芳遠, 1367~1422)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에게 가차 없는 엄벌을 내린 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태종이 가장 무서워했던 존재는 누구였을까? 바로 왕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사초(史草)에 기록하던 사관이었다. 직필을 위한 민인생의 행보는 거침없었다. 민인생은 왕의 일상까지도 공적인 업무라 여겨 문틈으로 엿들으며 기록했다. 태종 1년(1401년) 4월 29일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태종이 편전에 들자 민인생이 따라 들어갔다. 태종이 웃으며 "여기는 내가 편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지 말아야 한다." 하니 민인생이 대답했다. "신이 곧게 쓰지 않으면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

《태종실록》의 민인생 기록

• **태종 1년 신사(1401) 3월 18일**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조준(趙浚), 좌정승 이거이(李居易), 우정승 하윤(河崙) 등이 들에 설치한 악차(幄次)에서 연향을 베풀었다. 임금이 무신(武臣) 십여 명을 거느리고 강에서 매를 놓고 사냥하다가, 날이 저물어서 대궐로 돌아왔다. 사관(史官) 민인생(閔麟生)이 뒤따라 이르니, 임금이 그를 보고 내수(內竪)에게 눈짓으로 '무엇하러 왔느냐?'고 물었다. (민인생이) 대답하기를, "신(臣)이 사관으로서 감히 직무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왔을 뿐입니다." 하였다. 총제(摠制) 이숙번(李叔蕃)이 아뢰기를, "사관의 직책이 매우 중하오니, 원컨대 묻지 마옵소서."라고 하였다.(判門下府事趙浚 左政丞李居易 右政丞河崙等 設享于野次 上率武臣十餘人 沿江放鷹 日暮還宮 史官閔麟生隨至 上見之 目內豎問 何爲而來乎 對曰 臣以史官 不敢廢職 故來耳 摠制李叔蕃啓曰 史官之職甚重 願勿問之)

* 악차(幄次): 임금이 거둥할 때에 머무를 수 있도록 장막을 친 곳.

조선왕조실록

역사책을 편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한 왕조가 멸망한 뒤 다음 왕조에서 이전 왕조의 전체 역사를 정리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왕이 죽은 뒤 다음 대에서 선대 왕의 역사를 정리하는 방법이다. 전자를 전조사(前朝史)라 하고, 후자를 실록(實錄)이라 한다. 조선왕조실록은 후자에 속한다. 여러 왕조의 역사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통사(通史)도 있다. 편찬 체제는 사건을 연월일 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編年體)가 있고, 본기(本紀), 열전(列傳), 표(表), 지(志)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는 기전체(紀傳體)가 있으며, 그 외 사건이나 사실의 전말을 서술하는 기사 본말체(紀事本末體)가 있다. 실록은 편년체에 해당한다. 실록은 조선 왕조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국과 일본, 월남에도 있었다. 다른 나라의 실록은 주로 궁중에서 일어난 정치만 다루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조선왕조실록은 중앙 정치뿐만 아니라 민간의 시시콜콜한 일까지 중요한 것은 다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왕조실록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 472년에 걸쳐 총 1,893권, 888책이 간행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고종실록〉(52권 52책), 〈순종실록〉(22권 8책)이 더 간행되었으나 일본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기술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참조

한문 개념 _품사(品詞)

어휘를 의미와 기능에 따라 분류한 단어들의 갈래.

❶ 실사: 단독으로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

- **명사**(名詞): 사물의 개념이나 이름을 나타냄.
  예 日(일) 해, 月(월) 달, 人(인) 사람
- **대명사**(代名詞): 사람이나 사물 등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뜻을 나타냄. 예 吾(오) 나(1인칭), 汝(여) 너(2인칭)
- **수사**(數詞): 사물의 수량이나 차례를 나타냄.
  예 一(일) 하나, 三(삼) 셋, 千(천) 일천
- **동사**(動詞):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 소유, 존재 등을 나타냄.
  예 食(식) 먹다, 想(상) 생각하다, 在(재) 있다
- **형용사**(形容詞):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 상태 등을 나타냄. 예 美(미) 아름답다, 善(선) 착하다, 淸(청) 맑다
- **부사**(副詞):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한정하는 뜻을 나타냄. 예 益(익) 더욱, 皆(개) 모두

❷ 허사: 어휘적 의미가 없거나 실재적이지 않고, 단지 문법적인 의미만을 나타내는 단어.

- **개사**(介詞): 명사류 앞에 놓여 명사류와 서술어를 연결해 줌. 예 於(于, 乎): ~에, ~에서, ~에게
  • 一年之計, 在於春.: 일 년의 계획은 봄에 달려 있다.
- **접속사**(接續詞): 단어나 어구, 문장 등을 서로 이어 주는 구실을 함. 예 而: 그리고, 그러나
  • 登高山而望四海.: 높은 산에 올라서 사해를 바라본다.
- **어조사**(語助辭): 문법적인 의미나 어기 등을 나타냄.
  예 '也', '矣'는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판단이나 확인의 어기를 나타내고, '乎', '哉'는 주로 문장의 끝에 쓰여 의문이나 반어(反語)의 어기를 나타냄.
  • 朝聞道, 夕死可矣.: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다.
  • 豈不難哉?: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 **감탄사**(感歎詞): 말하는 사람의 부름, 느낌, 놀람이나 응답을 나타냄. 예 嗚呼!: 오호라!

신출 한자

率	(률) 비율 / (솔) 거느리다 玄, 11	確率 統率
還	(환) 돌아오다 辶, 17	還宮 歸還
*竪	(수) 더벅머리 立, 13	竪童 竪立
陵	(릉) 언덕 阜, 11	丘陵 王陵
缺	(결) 이지러지다 缶, 10	缺席 缺勤
障	(장) 막다 阜, 14	障碍 障壁
冒	(모) 무릅쓰다 冂, 9	冒險 冒瀆
延	(연) 늘이다, 끌다 廴, 7	延期 延長
享	(향) 누리다 亠, 8	享有 享年
却	(각) 물리치다 卩, 7	却下 退却
覽	(람) 보다 見, 21	觀覽 閱覽
岸	(안) 언덕 山, 8	海岸 沿岸
嶺	(령) 고개 山, 17	嶺南 峻嶺
弔	(조) 조문하다 弓, 4	弔問 弔意
沿	(연) 물가, 따르다 水, 8	沿岸 沿革
宮	(궁) 집 宀, 10	宮闕 宮殿
廢	(폐) 폐하다 广, 15	廢棄 廢墟
曆	(력) 책력 日, 16	冊曆 陰曆
階	(계) 섬돌 阜, 12	階段 階級
壁	(벽) 벽 土, 16	壁紙 壁畫
際	(제) 사이 阜, 14	交際 國際
遲	(지) 더디다 辶, 16	遲刻 遲延
釋	(석) 풀다 釆, 20	解釋 註釋
返	(반) 돌이키다 辶, 8	返納 返品
沙	(사) 모래 水, 7	沙場 沙漠
港	(항) 항구 水, 12	港口 出港
峯	(봉) 봉우리 山, 10	山峯 最高峰
凝	(응) 엉기다 冫, 16	凝結 凝集
*鷹	(응) 매 鳥, 24	放鷹 鷹坊●
*麟	(린) 기린 鹿, 23	麒麟 獲麟●
職	(직) 벼슬 耳, 18	職分 職業
陷	(함) 빠지다 阜, 11	陷落 陷穽
段	(단) 층계 殳, 9	手段 段落
險	(험) 험하다 阜, 16	危險 險難
廷	(정) 조정 廴, 7	朝廷 法廷
亨	(형) 형통하다 亠, 7	亨通 亨國●
棄	(기) 버리다 木, 12	棄却 抛棄
閱	(열) 보다 門, 15	校閱 檢閱
漠	(막) 넓다, 사막 水, 14	漠漠 漠然
鹽	(염) 소금 鹵, 24	鹽田 鹽分
慰	(위) 위로하다 心, 15	慰安 慰問
巡	(순) 돌다 巛, 7	巡察 巡廻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응방(鷹坊): 고려·조선 시대에, 매의 사육과 사냥을 맡아보던 관아. 중국 원나라에 매를 바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고려 충렬왕 원년(1275)에 설치하여 조선 숙종 41년(1715)까지 존속시켰는데, 설치 초기부터 민폐가 심하여 한때 폐지하기도 하였다.
- 획린(獲麟): 기린을 잡았다는 뜻으로, 붓을 끊는 일이나 사람의 죽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형국(亨國): 임금이 즉위하여 나라를 이어받음.

성어

- 동호지필(董狐之筆):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씀.
  ※ 춘추 시대 진(晉)나라의 사관(史官)이었던 동호(董狐)가 위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을 사실대로 직필(直筆)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
- 춘추필법(春秋筆法): 《춘추》와 같이 비판적이고 엄정한 필법.
  ※ 대의명분을 밝히어 세우는 역사 서술 방법이다. 공자는 자신의 저술을 '술이부작(述而不作: 옛사람의 말을 기록했을 뿐 창작한 것은 아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교과서 논란 이후 역사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조성되었다. 동아시아 역사 서술에 대한 기본 상식과 조선 시대 사관의 역할을 이해하는 글을 읽고 현재적 관점에서 역사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시 답안

- 역사는 사실의 상대적 기록이다.
- 역사는 과거를 선택하여 기술한 것이다.
- 역사는 선대 사실의 기록으로 후대에게 선택적 교훈을 주는 것이다.
- 역사는 과거의 객관적 사실을 통해 미래의 주관적 교훈을 제시하는 것이다.

» 역사란 과거 사실의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어떤 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건을 해석, 평가할 때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역사가 역시 그가 속한 시대와 사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역사적 사건을 기록하고 남기는 기준 역시 그 당대의 가치관이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역사를 대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다른 교과 학습 용어(한국사)를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 사관(史官 역사 사, 벼슬 관)
• 사초(史草 역사 사, 초고 초)

❷ 문장 속에 허사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史官閔麟生, 隨至, 上見之,: 사관 민인생이 뒤따라 이르니 임금이 그를 보고 ※ 之(지): 그(대명사)

❸ 문장을 바르게 풀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신이 사관으로서 감히 직무를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왔을 뿐입니다.

[해설] 신이〔臣〕 사관〔史官〕으로서〔以〕 감히〔敢〕 직무를〔職〕 그만둘 수〔廢〕 없기〔不〕 때문에〔故〕 왔을〔來〕 뿐입니다〔耳〕.

참고 자료

《태종실록》의 민인생 기록

• **태종 1년 신사(1401) 윤 3월 23일**

… 《대학(大學)》의 생재(生財) 일절(一節)을 강(講)하다가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의 백성은 사(士), 농(農), 공(工), 상(商)뿐이었지?" 하니, 사관 민인생이 나아가서 말하기를, "지금은 유수(遊手: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 있음)는 많고, 재물을 만들어 내는 백성은 적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유수가 참 많다." 하니, 인생이 말하기를, "유수는 이단(異端)과 같이 많은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헌부(憲府)에서도 또한 오교(五敎), 양종(兩宗)의 명리(名利)의 중〔僧〕을 파(罷)하고, 사사(寺社), 토전(土田), 장획(臧獲)은 모조리 공가(公家)에 붙이고, 오직 산문(山門)의 도승(道僧)에게 맡겨 두기를 청하였는데, 나도 역시 그 불가함을 알고 꼭 파하려고 하나, 태상왕(太上王)께서 바야흐로 불사(佛事)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차마 갑자기 혁파하지를 못한다." 하였다. …

» 재화(財貨)를 생산하는 데에는 큰 도가 있는데, 생산하는 사람은 많고 소비하는 사람은 적으며, 만드는 사람은 빨리 만들고 쓰는 사람은 천천히 쓴다면 재화는 항상 풍족하리라.(生財有大道 生之者衆 食之者寡 爲之者疾 用之者舒 則財恒足矣.)

- 《대학》

• **태종 1년 신사(1401) 4월 29일**

편전(便殿)에서 정사(政事)를 들었다. 사관 민인생이 들어오려고 하므로, 박석명(朴錫明)이 말리면서 말하기를, "어제 홍여강(洪汝剛)이 섬돌 아래〔階下〕 들어왔는데, 주상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일전(無逸殿) 같은 곳이면 사관이 마땅히 좌우에 들어와야 하지만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었다." 하였다. 인생이 일찍이 전지(傳旨)가 없었으므로 마침내 뜰〔庭〕로 들어왔다. 임금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사관이 어찌 들어왔는가?" 하니, 인생이 대답하기를, "전일에 문하부(門下府)에서 사관이 좌우에 입시하기를 청하여 윤허하시었습니다. 신이 그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 하니, 인생이 말하기를, "비록 편전이라 하더라도, 대신이 일을 아뢰는 것과 경연(經筵)에서 강론하는 것을 신 등이 만일 들어오지 못한다면 어떻게 갖추어 기록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웃으며 말하기를, "이곳은 내가 편안히 쉬는 곳이니, 들어오지 않는 것이 가하다." 하고, 또 인생에게 말하기를, "사필(史筆)은 곧게 써야 한다. 비록 대궐〔殿〕 밖에 있더라도 어찌 내 말을 듣지 못하겠는가?" 하니, 인생이 대답하였다. "신이 만일 곧게 쓰지 않는다면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史官閔麟生欲入 朴錫命止之曰 昨洪汝剛入階下 上曰 若無逸殿則史官宜入左右 便殿則勿入 麟生以未嘗傳旨 竟入于庭 上見之曰 史官何以入乎 麟生對曰 前日 門下府請史官入侍左右 允之 臣是以入 上曰 便殿則勿入 麟生曰 雖於便殿 大臣啓事 經筵講論 臣等若不得入 何以備記 上笑曰 此予燕處 勿入可也 又語麟生曰 史筆宜直書 雖在殿外 豈不得聞予言 麟生對曰 臣如不直 上有皇天)"

* 편전(便殿): 임금이 평상시에 거처하는 궁전.
* 전지(傳旨): 승정원의 담당 승지를 통하여 전달되는 왕명서.
* 무일전(無逸殿): 태종이 즉위 첫해(1401) 지은 정전(正殿).
* 문하부(門下府): 의정부를 설치하기 전까지 나라의 모든 정사를 맡아보던 중앙 최고의 의결 기관.

- 한국고전번역원(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

승정원

승정원(承政院)은 조선 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하던 관청이다. 조선 태조 원년(1392) 7월에 반포된 관제에 의하면 원래 왕명 출납의 일은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중추원 소속의 승지방(承旨房)에서 실무를 맡았다. 그러나 왕자의 난 이후 태종이 정권을 장악하자 사병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정종 2년(1400) 4월 중추원의 기능을 축소, 분할하고 승지방을 승정원으로 독립시켰다. 태종 원년(1401)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 군무를 통할하던 관아)가 승추부(承樞府)로 개편되면서 승정원의 기능도 여기에 귀속되었고, 그 명칭도 대언사(代言司)로 바뀌었다. 승정원의 직제는 도승지 이하 정3품의 승지 6인과 정7품의 주서(注書) 2인으로 이루어졌으며, 〈승정원일기〉는 주서가 맡아 작성했다. 주서는 매일 국왕이 정사를 보는 앞에서 사관(史官)과 함께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하는 과정을 기록 하여 메모한 초책(草冊: 속기록)을 하루치씩 하번주서(下番注書)에게 정서하게 하고, 상소(上疏)나 서계(書啓)와 같은 문자로 된 문건은 서리에게 베끼게 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그날의 일기가 만들어지고 한 달 또는 반 달 치씩 묶어 표지에 연월일을 적어 승지에게 제출하여 승정원에 보관하게 했다.

- 〈승정원일기(sjw.history.go.kr)〉

1~3 차시

15 예술가의 삶

학습 목표

-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른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단원 소개

이 단원에서는 조선 후기의 화가 최북의 삶과 그림을 한문 기록을 통해 이해해 보는 시간이다. 어떤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북의 기행(奇行)을 통해 그를 미치광이 화가로 보기보다는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시대와 개인의 상호 현상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최북의 기행(奇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러한 기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의 역량이 허락한다면 주체와 객체, 이성과 비이성, 객관과 주관 등 상대적 시각에 대해 토론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한문을 풀이할 때 품사의 활용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두어 수업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도록 유의하고, 한문의 표현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조사의 쓰임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서사 구조를 인물 중심의 접근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최북이라는 인물에 대한 단순한 평가를 지양한다. 학생들이 다각적인 시각에서 최북을 바라보고 평가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유도한다.

③ 〈문화와 활동하기〉에서 최북의 그림을 감상하는 것은 미술 수업과 융합해 인문학 지식과 예술적 감수성을 심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작품 감상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존중해 주고 자유로운 발표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도록 한다.

15 예술가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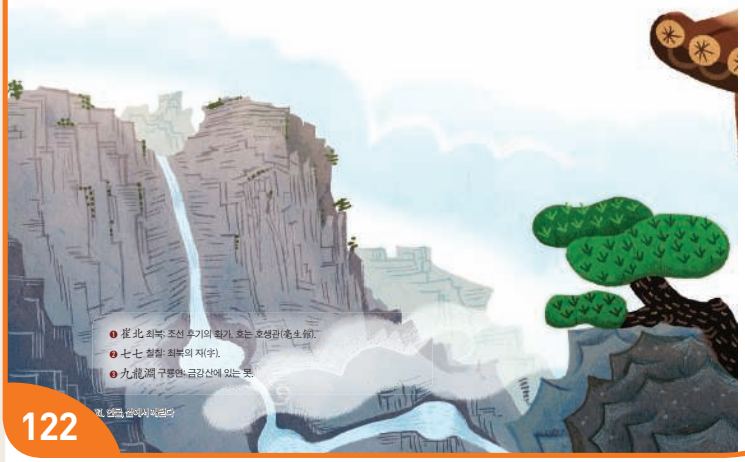
조선 후기의 화가 최북은 자신을 '붓으로 먹고사는 사람(毫生館)'이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 그림에 대한 자부심이 높았다. 하지만 보통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狂生)'라고 부르기까지 했다. 최북이 그린 그림은 어땠을지 상상하며 이야기를 읽어 보자.

崔北[1] 七七[2]者는 世不知其族系貫縣이라.

破名爲字하여 行于時라. (중략) 入九龍淵[3]에 樂之甚하여

飮劇醉하여 或哭或笑하고 已又叫號曰:

"天下名人崔北은 當死於天下名山이라." (중략)



❶ 崔北 최북: 조선 후기의 화가. 호는 호생관(毫生館).
❷ 七七 칠칠: 최북의 자(字).
❸ 九龍淵 구룡연: 금강산에 있는 못.

본문의 풀이와 이해

崔北七七者, 世不知其族系貫縣.

최북 칠칠은
세상 (사람들)이 그의 가계와 본관을 알지 못하였다.

* 者(자): ~은/는
  ※ '者'는 '수식어 + 者'의 구조로 쓰여 사람이나 사물을 나타냄.
* 貫縣(관현): 시조가 난 곳인 관향(貫鄕)으로, 여기서는 본관을 말함.

破名爲字, 行于時.

이름을 쪼개어 자로 삼아 당시에 행세하였다.

* 破名爲字(파명위자): 이름의 '北'이 마치 '七' 두 개가 서로 등지고 있는 모양 같기 때문에 자를 '七七'이라고 함.

入九龍淵, 樂之甚, 飮劇醉, 或哭或笑,

구룡연에 들어가서는 즐거움이 심하여
(술을) 마시고 매우 취하여 울다가 웃다가 하고
* 或(혹)~ 或(혹)…: ~하다가 …하다

已又叫號曰:
"天下名人崔北, 當死於天下名山."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크게 부르짖어 말하였다.
"천하의 명인 최북은 마땅히 천하의 명산에서 죽어야 한다."
* 已(이): 얼마 지나지 않아
* 於(어): ~에서

人有求爲山水, 畫山不畫水.

어떤 사람이 산수화를 그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최북이) 산은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않았다.
* 爲山水(위산수): 산수화를 그리다

人怪詰之, 七七擲筆, 起曰:
"唉! 紙以外, 皆水也."

그 사람이 괴상히 여겨 따지니
칠칠이 붓을 던지고 일어나 말하였다.
"어허! 종이 바깥은 모두 물이오."
* 之(지): 산을 그리고 물을 그리지 않은 것 또는 최북을 가리킴.
* 唉(애): 감탄사

최북

조선 후기의 화가 최북(崔北, ?~?)의 자(字)는 칠칠(七七)이고 호는 호생관(毫生館), 거기재(居基齋), 삼기재(三奇齋) 등이다. 산수화와 인물화에 능하였으며 심한 술버릇과 기행(奇行)으로 유명하다. 49세의 나이로 일생을 마쳤다고 전해지는데, 남공철의 《금릉집》과 조희룡(趙熙龍)의 《호산외사》에 비교적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규상(李圭象, 1727~1799)의 《일몽고(一夢稿)》 〈화주록(畫廚錄)〉에서는 최북의 인물됨에 대하여 "최북은 성품이 날카로운 칼끝이나 불꽃과 같아서 조금이라도 뜻에 어긋나면 곧 욕을 보이고는 하였다. 사람들 모두 그것이 망령된 독이어서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작품에는 인물, 화조, 초충 등도 포함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산수화로, 대표 작품은 〈하경산수도(夏景山水圖)〉, 〈추경산수도(秋景山水圖)〉, 〈관폭도(觀瀑圖)〉 등이다. 그의 괴팍한 기질대로 대체로 치기(稚氣)가 있는 듯하면서 소박하고 시정(詩情) 어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조어도(釣魚圖)〉와 〈풍설야귀도(風雪夜歸圖)〉와 같이 대담하고도 파격적인 자신만의 조형 양식을 이룩하여 조선 후기 회화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작가와 출전

- 남공철(南公轍, 1760~1840): 조선 시대의 문신이자 문장가. 자는 원평(元平). 호는 금릉(金陵). 대사성, 부제학을 거쳐 영의정을 지냈다. 글씨에 뛰어나 많은 금석문(金石文)을 남겼고 전사자(全史字)라는 동활자를 만들었다.
- 《금릉집(金陵集)》: 남공철(南公轍)의 시문집.

품사의 활용

품사(品詞)는 단어를 기능, 형태, 의미에 따라 나눈 갈래이다. 한문의 단어는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라 품사가 달라지기도 함.

- **명사의 동사적 활용**

  예 畫(화): 그림(명사) → 畫山(화산): 산을 그리다(동사)
  目(목): 눈(명사) → 目內竪問(목내수문): 눈짓으로 내시에게 물었다.
  ※ '目(목)'이 명사인 내수(내시) 앞에 놓여 '눈짓하다'는 동사처럼 쓰였음.

- **동사의 명사적 활용**

  예 生(생): 살다(동사)
  無求生以害仁(무구생이해인): 삶을 탐하여 인을 해치지 않는다.
  ※ '살다'는 뜻을 가진 '生(생)'이 '求(구하다)'라는 동사 앞에서 '삶'이라는 명사로 쓰였음.

참고 자료 _한자로 어휘 보기

'酉(유)'는 술항아리를 본뜬 상형자로, '酉(유)'가 부수인 한자는 술이나 발효된 것과 관련된 뜻을 가짐.

- 酌(작): 술 따르다 → 술(酉)을 국자(勺)로 뜨는 모습으로, '술을 따르다'는 뜻을 나타냄.

  예 • 참작(參酌): 이리저리 비추어 알맞게 고려함. 헤아림.
  • 짐작(斟酌): 사정이나 형편 따위를 어림잡아 헤아림.
  • 수작(酬酌): 「1」 술잔을 서로 주고받음.
  「2」 서로 말을 주고받음. 또는 그 말.
  「3」 남의 말과 행동을 낮잡아 이르는 말.

- 醉(취): 취하다 → 술(酉)과 마치다(卒)를 합해 술을 더 마실 수 없을 만큼 끝까지 마셔 '취하다'는 뜻을 나타냄.

  예 • 도취(陶醉): 「1」 술에 거나하게 취함.
  「2」 마음이 쏠려 취하다시피 됨.
  • 심취(心醉): 어떤 것에 깊이 빠져 마음을 빼앗김.
  • 숙취(宿醉): 이튿날까지 깨지 않는 취기.

신출 한자

*崔	(최) 성씨 山, 11	-
縣	(현) 고을 糸, 16	縣令 縣監
醉	(취) 취하다 酉, 15	滿醉 醉中
怪	(괴) 괴이하다 心, 8	怪異 奇怪
*唉	(애) 탄식하다 口, 10	-
幹	(간) 줄기 干, 13	幹線 根幹
築	(축) 쌓다 竹, 16	建築 新築
奇	(기) 기이하다 大, 8	神奇 奇妙
戚	(척) 겨레 戈, 11	親戚 外戚
酌	(작) 술 따르다 酉, 10	酬酌 參酌
額	(액) 이마 頁, 18	額面 總額
屛	(병) 병풍 尸, 11	屛風 屛居●
廊	(랑) 행랑 广, 13	行廊 畫廊
盲	(맹) 눈멀다 目, 8	盲人 盲目
毫	(호) 터럭 毛, 11	秋毫● 揮毫
系	(계) 잇다 糸, 7	體系 系統
*淵	(연) 못 水, 12	深淵 淵源
哭	(곡) 울다 口, 10	痛哭 哭聲
*詰	(힐) 꾸짖다 言, 13	詰難 詰責
粉	(분) 가루 米, 10	粉筆 花粉
懸	(현) 매달다 心, 20	懸板 懸賞金
模	(모) 본뜨다 木, 15	模範 模樣
跡	(적) 자취 足, 13	奇跡 痕跡
陶	(도) 질그릇 阜, 11	陶器 陶冶●
肖	(초) 닮다 肉, 7	肖像 不肖
*硯	(연) 벼루 石, 12	硯池● 硯滴
版	(판) 조각 片, 8	版本 出版
幅	(폭) 폭 巾, 12	大幅 增幅
染	(염) 물들다 木, 9	染色 汚染
館	(관) 집 食, 17	旅館 別館
貫	(관) 꿰다 貝, 11	貫徹 貫通
劇	(극) 심하다 刀, 15	喜劇 演劇
叫	(규) 부르짖다 口, 5	絶叫 阿鼻叫喚
*擲	(척) 던지다 手, 18	投擲 快擲
糖	(당) 엿 米, 16	糖分 糖尿
構	(구) 얽다 木, 14	構造 構成
倣	(방) 본뜨다 人, 10	模倣 倣古
姻	(인) 혼인 女, 9	姻戚 婚姻
醜	(추) 추하다 酉, 17	美醜 醜惡
寫	(사) 베끼다 宀, 15	寫生 寫眞
滴	(적) 물방울 水, 14	點滴 滴露
漫	(만) 흩어지다 水, 14	放漫 漫然
彩	(채) 채색 彡, 11	彩色 彩度
淡	(담) 맑다 水, 11	淡水 濃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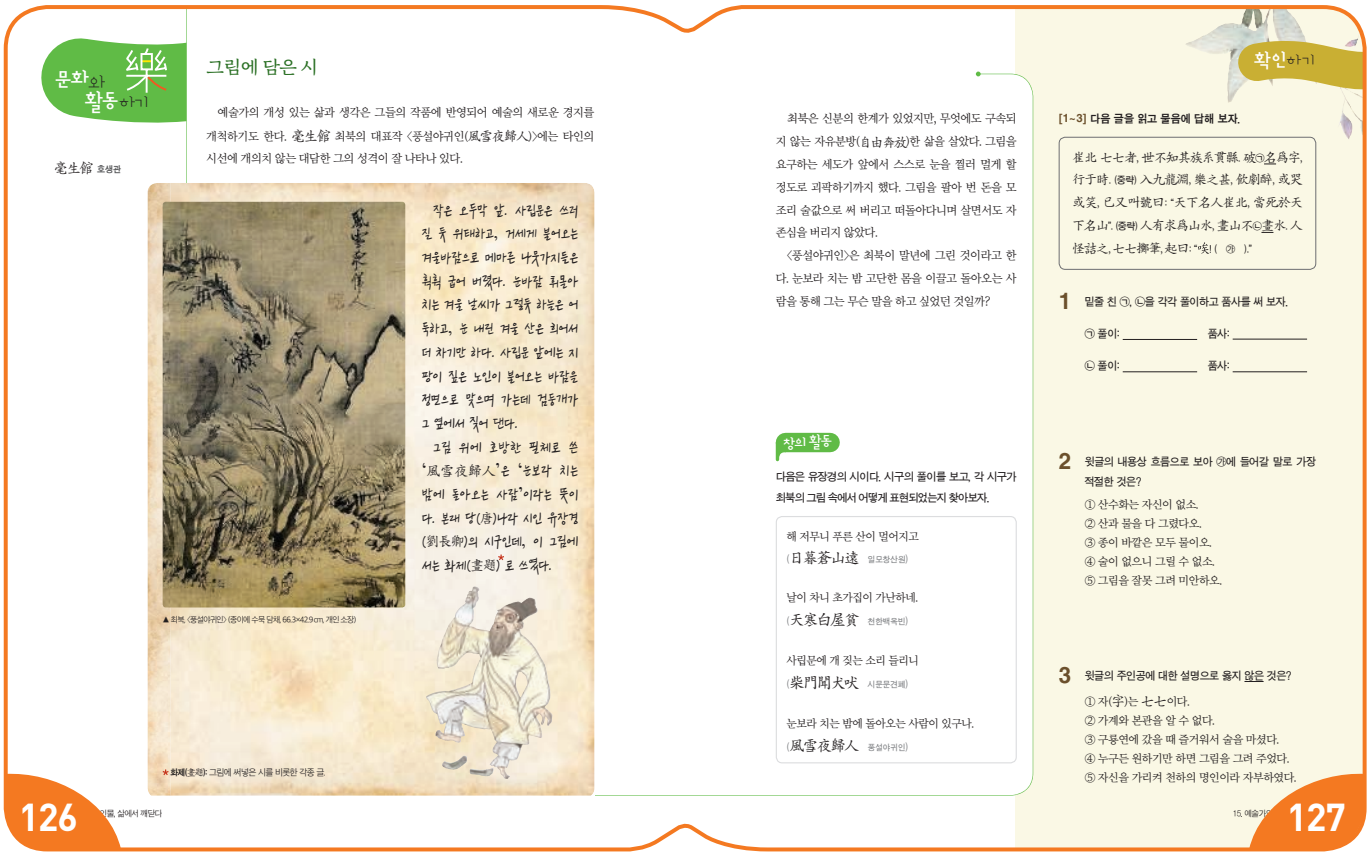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도야(陶冶): 「1」 도기를 만드는 일과 쇠를 주조하는 일. 「2」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닦아 기름.
- 연지(硯池): 벼루의 앞쪽에 오목하게 팬 곳. 먹을 갈기 위하여 물을 붓거나 간 먹물이 고이는 곳이다. 벼루못.
- 병거(屛居): 세상에서 물러나 집에만 있음.
- 추호(秋毫): 「1」 가을철에 털갈이하여 새로 돋아난 짐승의 가는 털. 「2」 매우 적거나 조금인 것.

성어

- 아비규환(阿鼻叫喚): 「1」 불교에서, 아비지옥과 규환지옥을 아울러 이르는 말. 「2」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울부짖는 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아비지옥(阿鼻地獄)은 오역죄를 짓거나, 절이나 탑을 헐거나, 시주한 재물을 축내거나 한 사람이 가는데, 한 겁(劫) 동안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다는 지옥이고, 규환지옥(叫喚地獄)은 살생, 절도, 음행, 음주의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데, 펄펄 끓는 가마솥이나 뜨거운 불 속에 던져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울부짖는다는 지옥이다.



문화와 활동하기 樂

그림에 담은 시

예술가의 개성 있는 삶과 생각은 그들의 작품에 반영되어 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도 한다. 毫生館 최북의 대표작 〈풍설야귀인(風雪夜歸人)〉에는 타인의 시선에 개의치 않는 대담한 그의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毫生館 호생관

작은 오두막 앞. 사립문은 쓰러진 듯 위태하고, 거세게 불어오는 겨울바람으로 메마른 나뭇가지들은 힘껏 굽어 버렸다. 눈바람 휘몰아치는 겨울 날씨가 그렇듯 화자는 어둑하고, 눈 내린 겨울 산은 희어서 더 차가워 하다. 사립문 앞에는 지팡이 짚은 노인이 불어오는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가는데 검둥개가 그 옆에서 짖어 댄다.

그림 위에 오방한 필체로 쓴 '風雪夜歸人'은 '눈보라 치는 밤에 돌아오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본래 당(唐)나라 시인 유장경(劉長卿)의 시구인데, 이 그림에서는 화제(畫題)*로 쓰였다.

▲ 최북, 〈풍설야귀인〉 종이에 수묵 담채, 66.3×42.9cm, 개인 소장

* 화제(畫題): 그림에 써넣은 시를 비롯한 각종 글.

126

최북은 신분의 한계가 있었지만,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분방(自由奔放)한 삶을 살았다. 그림을 요구하는 세도가 앞에서 스스로 눈을 찔러 멀게 할 정도로 괴팍하기까지 했다. 그림을 팔아 번 돈을 모조리 술값으로 써 버리고 떠돌아다니며 살면서도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

〈풍설야귀인〉은 최북이 말년에 그린 것이라고 한다. 눈보라 치는 밤 고단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는 사람을 통해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창의 활동

다음은 유장경의 시이다. 시구의 풀이를 보고, 각 시구가 최북의 그림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찾아보자.

해 저무니 푸른 산이 멀어지고
(日暮蒼山遠 일모창산원)

날이 차니 초가집이 가난하네.
(天寒白屋貧 천한백옥빈)

사립문에 개 짖는 소리 들리니
(柴門聞犬吠 시문문견폐)

눈보라 치는 밤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구나.
(風雪夜歸人 풍설야귀인)

확인하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崔北 七七者, 世不知其族系貫縣. 破㉠名爲字, 行于時. (중략) 入九龍淵, 樂之甚, 飮劇醉, 或哭或笑, 已又叫號曰: "天下名人崔北, 當死於天下名山". (중략) 人有求爲山水, 畫山不㉡畫水. 人怪詰之, 七七擲筆, 起曰: "奚(㉢)."

1 밑줄 친 ㉠, ㉡을 각각 풀이하고 품사를 써 보자.

㉠ 풀이: _____ 품사: _____

㉡ 풀이: _____ 품사: _____

2 윗글의 내용상 흐름으로 보아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산수화는 자신이 없소.
② 산과 물을 다 그렸다오.
③ 종이 바깥은 모두 물이오.
④ 술이 없으니 그릴 수 없소.
⑤ 그림을 잘못 그려 미안하오.

3 윗글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字)는 七七이다.
② 가계와 본관을 알 수 없다.
③ 구룡연에 갔을 때 즐거워서 술을 마셨다.
④ 누구든 원하기만 하면 그림을 그려 주었다.
⑤ 자신을 가리켜 천하의 명인이라 자부하였다.

15. 예술가의

127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최북의 대표작 〈풍설야귀인〉을 감상하며 화가 최북의 삶과 작품 세계를 이해해 볼 수 있다.

» 〈풍설야귀인〉은 약 42.9×66.3cm 크기의 그림으로, 지본 채색(紙本彩色: 종이에 색칠하여 그림)의 기법을 활용하였다.

예시 답안

- 日暮蒼山遠(일모창산원)
  → 어두침침한 분위기의 필치가 해질녘을 표현하였다.
- 天寒白屋貧(천한백옥빈)
  → 바람을 맞아 휘어지고 헐벗은 나무와 풀 없는 산이 황량하고 고달픈 겨울을 표현하고 있다.
- 柴門聞犬吠(시문문견폐)
  → 문 앞에 검은 개.
- 風雪夜歸人(풍설야귀인)
  → 초가집 앞길에 노인과 동자를 그려 넣었다.

» 유장경(劉長卿, 726?~786?): 중국 당나라 때의 시인이자 관리. 자연 경물(景物)을 빌려 정감을 표현하는 데 뛰어났다. 대표작은 〈봉설숙부용산주인(逢雪宿芙蓉山主人)〉으로, 이 시는 최북의 〈풍설야귀인〉 그림의 화제가 되었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문장 속 한자의 쓰임을 이해하고 품사를 구별하는지 묻는 문항

[정답] ㉠ 풀이: 이름, 품사: 명사
㉡ 풀이: 그리다, 품사: 동사

[해설] ㉠ 破名爲字(파명위자): 이름을 쪼개어 자로 삼았다.
㉡ 畫山不畫水(화산불화수): 산은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않았다.

❷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맥락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최북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성을 발휘해 물은 그리지 않은 산수화를 그렸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❸ 글을 읽고 내용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지문의 내용만으로 ④번은 분명히 알 수 없다. 최북에 관해 전해지는 다른 일화에 따르면, 최북은 세도가의 강압적인 부탁에도 응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고 한다.

참고 자료

〈최칠칠전〉

최북 칠칠은 세상 사람들이 그의 가계와 본관을 알지 못하였다. 이름을 쪼개어 자로 삼아 당시에 행세하였다. 그림을 잘 그렸으며, 한쪽 눈이 멀어 항상 안경을 한쪽만 낀 채 화첩을 임모(臨摸)하였다. 술을 즐기고 나가 노닐기를 좋아하였다. (금강산) 구룡연에 들어가서는 즐거움이 심하여 술을 마시고 매우 취하여 울다가 웃다가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크게 부르짖어 말하였다. "천하의 명인 최북은 마땅히 천하의 명산에서 죽어야 한다." 마침내 펄쩍 뛰어 몸을 던져 연못에 뛰어들었으나 곁에 구해 주는 자가 있어 떨어져 빠지지는 않았다. 마주 들려 산 아래 평평한 바위에 내려와 숨을 헐떡거리며 누워 있다 문득 일어나 찢어지는 듯 길게 울부짖으니, 메아리가 숲을 진동하여 깃들어 있던 매들마저 모두 획획 날아가 버렸다. 칠칠이 술을 마시면 늘 하루에 대여섯 되나 되었으며, 저잣거리에서 술을 가지고 지나가며 술을 파는 사람이 있으면 칠칠이 번번이 자기 집의 서책과 종이와 비단을 끌어내어 모두 털어 주고 술을 사니 집의 재산은 더욱 빈곤해졌다. 평양과 동래 두 부(府)를 떠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려 파니 비단을 가지고 그가 있는 집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산수화를 그려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산은 그리고 물은 그리지 않았다. 그 사람이 괴상히 여겨 따지니 칠칠이 붓을 던지고 일어나 말하였다. "어허! 종이 바깥은 모두 물이오." 자기 마음에 흡족하게 그린 그림인데 돈을 적게 주면 칠칠은 벌컥 화를 내고 욕을 퍼부으며 갈기갈기 찢어 버렸다. 간혹 자기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그림인데도 그림값을 후하게 주면 깔깔대고 웃으며 그 사람에게 주먹질하고 돈을 도로 주고 문밖으로 쫓았다가 다시 불러, "저자는 그림값도 모르는구나."라고 비웃었다. 이때 스스로 호를 '붓으로 먹고사는 사람〔毫生子〕'이라 하였다. 칠칠은 성격이 오만하여 남을 잘 따르지 않았다. … 칠칠의 그림이 날로 세상에 전해져 세상 사람들은 그를 '최 산수'라고 불렀다. 그러나 화훼, 영모, 괴석, 고목을 더욱 잘 그렸고, 장난삼아 쓴 초서는 빠르면서도 필묵가들의 뜻을 훨씬 초월하였다. … 세상에는 칠칠이 주객이라는 사람도 있고 화사(畫史)라고 칭하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는 미친놈이라고 헐뜯는 사람까지 있다. … 칠칠은 한양 어느 여관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그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겠다.

- 《금릉집》, 〈최칠칠전(崔七七傳)〉

눈 없는 최북과 귀 없는 고흐

최북과 고흐(Gogh, Vincent Willem van)는 둘 다 '미치광이 화가'라는 소리를 들었다. 반 고흐는 "새로운 화가를 세상은 광인 취급한다. 내가 돌아 버릴수록 더욱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는 줄 모르고…."라고 했다. 칠칠이 최북도 자신을 미친 사람 취급하는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돈보따리 싸 들고 와 거드름 피우는 고관에게는 엉터리 그림을 던져줘 희롱하고 득의작을 몰라 주면 그 자리에서 박박 찢었다. 두 화가는 자신의 미친 짓이 곧 '지독하도록 말짱한 세상 때문'이라 했다.

〈별이 빛나는 밤의 사이프러스(1890)〉(크뢸러 뮐러 미술관)

사이프러스 나무는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고흐의 절규를 닮았다. 초승달과 밝은 별들이 그의 절규에 답한다. 고흐의 풍경화는 오렌지색과 자주색, 불타는 진노란색과 아찔한 녹색으로 사람의 넋을 흔든다. 그는 밀레의 더럽고 비천한 농부 그림을 본받으면서 "예쁜 초상화나 세련된 풍경화는 내 것이 아니니 거칠더라도 영혼이 있는 인생을 그리겠다."라고 했다.

최북은 눈보라 치는 밤에 돌아오는 나그네를 그렸다. 가슴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저 흉흉한 바람이 최북의 고달픈 일생을 말해 주는 듯하다. 최북은 담홍색과 청색 그리고 짙고 옅은 먹색의 꾸밈없는 붓놀림을 즐겼다. 농 삼아 부른 별호가 '최 메추리'일 만큼 그는 중국산 꿩보다 토종 메추리 그리기를 좋아했다. 또 "중국과 조선이 다른데도 조선인은 중국의 산수만 좋아한다. 조선인이라면 조선의 산수를 그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 손철주,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1~3 차시

16 그리운 영웅

학습 목표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단원 소개

난세에는 늘 영웅이 있지만 우리 역사에 이만한 영웅이 또 있을까? 이순신 장군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존경하는 인물의 상위에 오르는 것은 단순히 위인전에 자주 나오는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단원에서는 역사 기록에 남은 이순신 장군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장군으로서 이순신의 전략적 천재성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모습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순신의 실사(實事)로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담긴 장계(狀啓)를 원문으로 읽어 보며 진정한 의미의 애국심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문장 속 허사의 쓰임에 중점을 두어 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이순신과 명량 대첩에 관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역사 등과 융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③ 학생들의 흥미를 최대한 유도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역사를 바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되, 단순한 강의 방식의 수업보다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16 그리운 영웅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말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 본 말이다. 우리는 임진왜란과 이순신(李舜臣) 장군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알고 있을까? 역사 기록을 읽고 이순신 장군이 이끈 전쟁의 의의를 생각해 보자.

自壬辰으로 至于五六年間에 賊이 不敢直突於兩湖者는
以舟師之扼其路也니이다. 今臣戰船이 尙有十二하니
出死力拒戰이면 則猶可爲也니이다.

본문의 풀이와 이해

自壬辰至于五六年間, 賊不敢直突於兩湖者,
以舟師之扼其路也.

임진년으로부터 오륙 년간에 이르기까지
적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를 바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수군이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 自(자)~ 至(지)…: ~부터 …까지
* 兩湖(양호): 호남과 호서. → 전라도와 충청도.
* 以(이): ~ 때문이다
* 舟師(주사): 수군(水軍)

今臣戰船, 尙有十二,
出死力拒戰, 則猶可爲也.

지금 신에게는 싸울 수 있는 배가 아직 열두 척이 있으니
죽을힘을 다하여 적을 막아서 싸운다면 오히려 할 수 있습니다.

* 則(즉): ~하면
* 猶(유) :오히려
* 可爲(가위): ~할 수 있다

今若全廢舟師, 則是賊之所以爲幸,
而由湖右達於漢水, 此臣之所恐也.

(그러나) 지금 만약 수군을 전부 없애면 이는 적이 다행으로 여길 것이어서 충청북도를 통하여 한강에 이를 것이니, 이것은 신이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 所(소): ~것, ~바
* 以爲(이위): ~(으)로 여기다, ~(이)라고 생각하다
* 湖右(호우): 충청북도를 달리 이르던 말.
* 漢水(한수): 한강.

戰船雖寡, 微臣不死, 則賊不敢侮我矣.

싸울 배가 비록 적으나 미천한 신은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 矣(의): ~일 것이다(추측)

» 이 글을 삼도 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 직후인 1597년 8월 15일 선조가 내린 "수군을 폐지하고 육지에서 싸우라"는 왕명을 받은 이순신이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한 소신을 밝힌 장계(狀啓: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管下)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문서)이다.

참고 자료

이순신은 매번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모든 장수들에게 훈계하되, 이기기만 하면 반드시 교만이 생기는 법이니 여러 장수들은 조심하라 하였다. 그때 왜적이 호남 지방을 자주 노리고 있으므로 순신은 우리나라의 군비는 다 호남을 의존하고 있으니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고 생각하였다.(舜臣每戰勝 輒戒諸將曰 狃勝必驕 諸將愼之 時賊屢窺湖南 舜臣以爲 國家軍儲 皆靠湖南 若無湖南 是無國家也)

» 계사년(癸巳年 1593년) 7월 16일, 이순신이 현덕승(玄德升, 1564~1627)에게 보낸 서한에 실린 글이다. 당시 사헌부 정오품 자리에 있던 현덕승은 이순신에게 군사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 주었고, 이순신은 이에 대한 고마움을 답장으로 보냈다.

작가와 출전

- 이순신(李舜臣, 1545~1598): 조선 선조 때의 무신. 자는 여해(汝諧). 시호는 충무(忠武). 1545년(인종 1) 4월 28일(음력 3월 8일) 한성부 건천동(乾川洞, 현재 인현동)에서 이정(李貞)과 초계 변씨(草溪卞氏)와의 사이에서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32세에 무과에 급제한 후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가 되어 거북선을 제작하는 등 군비 확충에 힘썼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한산도에서 적선 70여 척을 무찌르는 등 공을 세워 삼도 수군통제사가 되었다. 노량 해전에서 적의 유탄에 맞아 전사하였다.
-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 조선 선조 때 이순신의 전집. 정조 19년(1795)에 왕명에 따라 윤행임(尹行恁)이 편집, 간행하였다. 책머리에 정조의 윤음(綸音)을 비롯하여 권수도설에는 거북선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통제영귀선(統制營龜船)도와 전라좌수영귀선(全羅左水營龜船)도가 694자의 한문으로 쓰인 설명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이 그림은 가장 오래된 거북선 그림이며 거북선의 실체를 밝히는 가장 권위 있는 사료로 평가된다. 조선 시대 출판 문화의 표본 전적과 이순신 전기 자료 및 임진왜란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 두산백과 참조

《이충무공전서》 원문 읽기

[원문] 九月初七日 賊船十三來向我陣 公迎擊之 賊退走 是夜二更 賊復來放砲 欲驚我軍 公亦令放砲 賊知不可動 又退去 盖以夜驚 得利於閑山者云 時 朝廷以舟師甚單 不可禦賊 命公陸戰 公 啓曰 自壬辰至于五六年間 賊不敢直突於兩湖者 以舟師之扼其路也 今臣戰船尙有十二 出死力拒戰 則猶可爲也 今若全廢舟師 則是賊之所以爲幸 而由湖右達於漢水 此臣之所恐也 戰船雖寡 微臣不死 則賊不敢侮我矣

[풀이] 구월 초칠일 적선 13척이 우리 진을 향해 왔다. 공이 그들을 맞아 공격하자 적이 달아났다. 이날 밤 이경(二更)에 적이 다시 와서 포(砲)를 쏘며 우리 군대를 놀라게 하려고 했다. 공이 또한 포를 쏘도록 명령하였다. 적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또 다시 물러났다. 아마 밤에 놀라게 해서 한산(閑山)에서 이득을 본 자일 거라고 한다. 이때 조정에서는 수군의 숫자가 너무 적어 적을 방어할 수 없으므로 공에게 육전(陸戰)을 명했다. 공이 장계로 아뢰었다. 임진년으로부터 오륙 년간에 이르기까지 적이 감히 전라도와 충청도를 바로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수군이 그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략)

임진왜란 주요 사건

- **임진왜란 발발**(1592년 4월 14일)
- **옥포 해전**(1592년 5월 7일): 옥포(경남 거제시 옥포동) 앞바다에서 이순신이 지휘하는 수군이 왜장 도도 다카토라〔藤堂高虎〕의 함대를 무찔렀다.
- **한산도 대첩**(1592년 7월 8일): 한산도(경남 통영시 한산면) 앞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워 크게 이긴 일. 일본의 함선 47척을 격침하고 12척을 나포하였다.
- **진주성 대첩**(1592년 10월 5일~10월 10일): 김시민이 지휘하는 3,800명의 진주성 수성군(守城軍)이 왜장 나가오카 다다오키〔長岡忠興〕가 거느린 2만 명의 왜군을 물리쳤다.
- **행주 대첩**(1593년 2월 12일): 전라도 순찰사 권율이 행주산성에서 왜적을 크게 물리친 싸움.
- **명(明)의 참전과 화의(和議)의 시기**로, 명(明)과 왜(倭) 사이의 화의(和議)가 결렬되자, 1597년 1월 왜는 다시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다.(정유재란)
- **칠천량 해전**(1597년 7월 15일): 칠천량(경남 거제시 하청면)에서 당시 수군통제사였던 원균이 크게 패하고 전사하였다. 경상우수사 배설(裵楔)만 12척의 전선을 이끌고 남해 쪽으로 후퇴하는 데 성공하였다.

신출 한자

賊	(적) 도둑 貝, 13	盜賊 山賊
恐	(공) 두렵다 心, 10	可恐 恐怖
署	(서) 관청 罒, 14	署名 部署
吸	(흡) 마시다 口, 7	呼吸 吸入
嗚	(오) 탄식하다 口, 13	嗚咽● 嗚呼
宜	(의) 마땅하다 宀, 8	時宜 便宜
竊	(절) 훔치다 穴, 22	竊盜 竊取
抗	(항) 막다 手, 7	抵抗 抗菌
掠	(략) 빼앗다 手, 11	掠奪 侵掠
衛	(위) 지키다 行, 15	護衛 衛生
彈	(탄) 탄알 弓, 15	指彈 彈丸
營	(영) 경영하다, 군영 火, 17	經營 營爲
隊	(대) 무리 阜, 12	軍隊 部隊
術	(술) 꾀 行, 11	技術 術數
突	(돌) 갑자기, 부딪치다 穴, 9	突發 突然
微	(미) 작다 彳, 13	微細 微微
團	(단) 둥글다 口, 14	團體 集團
趣	(취) 뜻 走, 15	趣味 趣旨
穴	(혈) 구멍 穴, 5	穴見● 經穴
宣	(선) 베풀다 宀, 9	宣言 宣布
盜	(도) 훔치다 皿, 12	盜聽 盜用
侵	(침) 침범하다 人, 9	侵犯 侵入
奪	(탈) 빼앗다 大, 14	奪取 奪還
帥	(수) 장수 巾, 9	元帥 將帥
旗	(기) 기 方, 14	旗手 白旗
丸	(환) 둥글다 丶, 3	丸藥 彈丸
糧	(량) 양식 米, 18	食糧 軍糧
績	(적) 길쌈하다, 성과 糸, 17	紡績 成績
*扼	(액) 잡다 手, 7	扼守● 扼險●
盟	(맹) 맹세하다 皿, 13	同盟 聯盟
被	(피) 입다 衣, 10	被害 被告
暢	(창) 화창하다 日, 14	流暢 和暢
衝	(충) 찌르다 行, 15	衝突 衝激
誓	(서) 맹세하다 言, 14	盟誓● 誓約
抵	(저) 막다 手, 8	抵當 抵觸
略	(략) 간략하다, 빼앗다 田, 11	戰略 省略
圍	(위) 에워싸다 口, 12	範圍 周圍
爆	(폭) 터지다 火, 19	爆發 爆藥
屯	(둔) 진 치다 屮, 4	屯營 駐屯
銃	(총) 총 金, 14	銃傷 銃器
籍	(적) 문서 竹, 20	在籍● 除籍●
挑	(도) 돋우다 手, 9	挑戰 挑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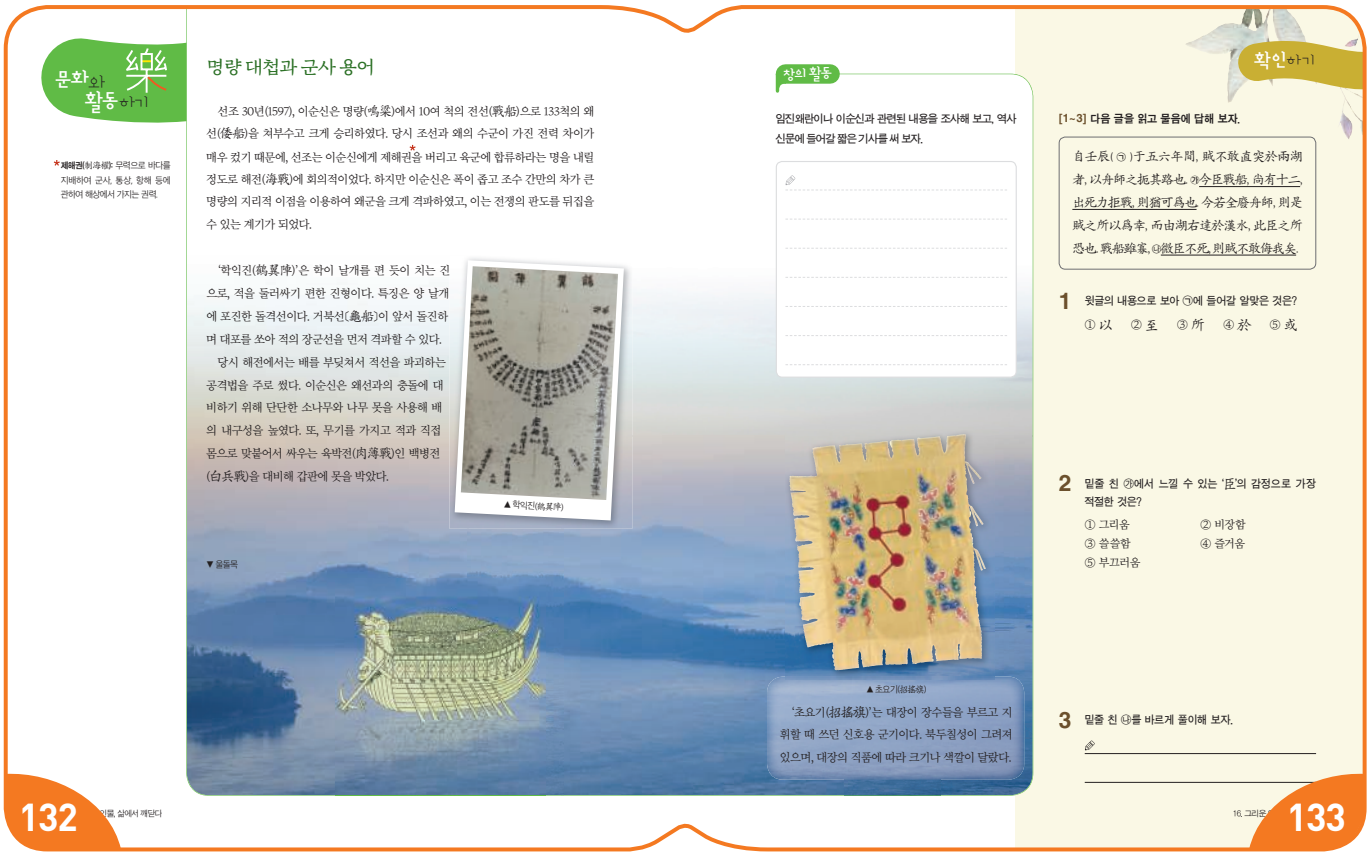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액수(扼守/隘守): 중요한 곳을 굳게 지킴.
- 액험(扼險): 험악한 일을 당하여 굳게 버티고 막아 냄.
- 오열(嗚咽): 목메어 욺.
- 혈견(穴見): 좁은 식견.
- 맹세(盟誓▽):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 ※ '▽' 표시는 음이 달라진 한자.
- 재적(在籍): 명부(名簿)에 이름이 올라 있음.
- 제적(除籍): 학적, 당적 따위에서 이름을 지워 버림.

학습 용어 _역사

- 삼도 수군통제사: 삼도통제사. 경상·전라·충청도 등 3도의 수군을 지휘 통솔한 삼남 지방의 수군 총사령관이다. 1593년(선조 26) 8월 평양과 서울 수복 이후 조정에서는 일본군의 해상 퇴로를 차단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수군에 통제사라는 새로운 직제를 만들고, 초대 수군통제사에 전라 좌수사였던 이순신을 임명하였다.

※ 좌수사는 좌수군절도사(左水軍節度使)로, 좌수영(左水營: 전라도와 경상도의 각 좌도에 둔 수군절도사의 군영)의 우두머리이다. 품계는 정삼품.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난중일기〉나 임진왜란을 제재로 한 작품이나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기사문을 작성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_'명량 대첩'의 다른 기록

왜적의 괴수인 내도수(來島守: 구루지마 미치후사)가 전선 수백 척을 거느리고 서해로 향하여 진도(珍島)의 벽파정(碧波亭) 아래에 이르렀다. 이때 통제사 이순신은 명량(鳴梁)에 진을 치고 난을 피해 온 배 백여 척이 모여 뒤에서 성원하였다. … 육박하여 난전이 되었을 때 … 화살을 쏘아대고 돌을 던지고 창검이 어울려서 찌르니, 죽는 자는 삼대가 쓰러지듯 하였고 불에 타 죽고 빠져 죽는 자가 그 수효를 알 수 없었다. 먼저 내도수(來島守)를 베어 머리를 돛대 꼭대기에 매달으니, 장수와 사병이 용맹을 떨쳐 달아나는 놈을 추격하고 패배하여 가는 놈을 따라가 목베어 죽인 것이 수백여 급이 되었으며, 도망하여 탈출한 것은 겨우 십여 척뿐이었고 아군의 병선은 모두 무사하였다. 왜적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전쟁담을 논할 때에는 반드시 명량의 싸움을 말하였다 한다. -《난중잡록(亂中雜錄)》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허사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自(자)~ 至(지)… : ~부터 …까지

❷ 글을 읽고 인물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今臣戰船, 尙有十二, 出死力拒戰, 則猶可爲也.'는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다. 수적인 열세에서도 백성을 위한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각오와 우국충정을 느낄 수 있다.

❸ 글을 바르게 읽고 풀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미천한 신은 죽지 않았으니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해설] 미천한〔微〕 신은〔臣〕 죽지〔死〕 않았〔不〕으니〔則〕 적이〔賊〕 감히〔敢〕 우리를〔我〕 업신여기지〔侮〕 못할 것〔不〕입니다〔矣〕.

참고 자료

〈난중일기〉 정유년 4월 부분 읽기

- **13일 계유.** 맑다.… 잠시 뒤에 종 순화가 배로부터 와서 어머님의 부고를 전했다. 뛰쳐 나가 뛰며 궁구니 하늘의 해조차 캄캄하다. 곧 해암(아산시 인주면 해암리)으로 달려가니 (어머니가 타고 오던) 배가 벌써 와 있었다. 애통하여 찢어짐을 어찌 다 적으랴. 나중에 기록하였다.(十三日癸酉 晴 … 有頃 奴順花至自船中 告天只訃 奔出擗踊 天日晦暗 卽奔去于蟹巖 則船已至矣 慟裂不可盡記 追錄)

- **15일 을해.** 맑다. 늦게 입관하였다. (친구) 오종수가 상을 치르는데 마음을 다해 보살펴 주니 뼈가 가루가 되어도 잊지 못한다. …(十五日乙亥 晴 晩入棺 吳從壽盡心護喪 粉骨難忘 …)

- **16일 병자.** 궂은 비. 배를 끌어 중방포(中方浦)에 옮겨 정박하여 영구(靈柩)를 상여에 싣고 본가로 돌아왔다. 마을을 바라보며 애통하여 찢어지는 마음을 어찌 말할 수 있으랴. 집에 이르러 빈소를 차렸다. 비가 억수로 내리고 남쪽 길을 떠나는 것이 또한 절박하니 통곡하였다. 단지 빨리 죽기를 기다릴 뿐이다. 천안 원이 돌아갔다. 나중에 기록하였다.(十六日丙 陰雨 曳船移泊中方浦 靈柩上轝行還本家 望里慟裂 如何可言 至家成殯 雨勢大作 南行亦迫 呼哭呼哭 只待速死而已 天安倅還歸 追錄)

- **19일 기묘.** 맑다. 일찍 길을 떠나며 영연(靈筵: 영위를 모신 자리)에 곡하며 하직을 고하였다. 천지에 나와 같은 일이 어찌 있겠는가. 일찍 죽는 것보다 못하다. …(十九日己卯 晴 早出登程 哭辭靈筵 天地安有如吾之事乎 不如早死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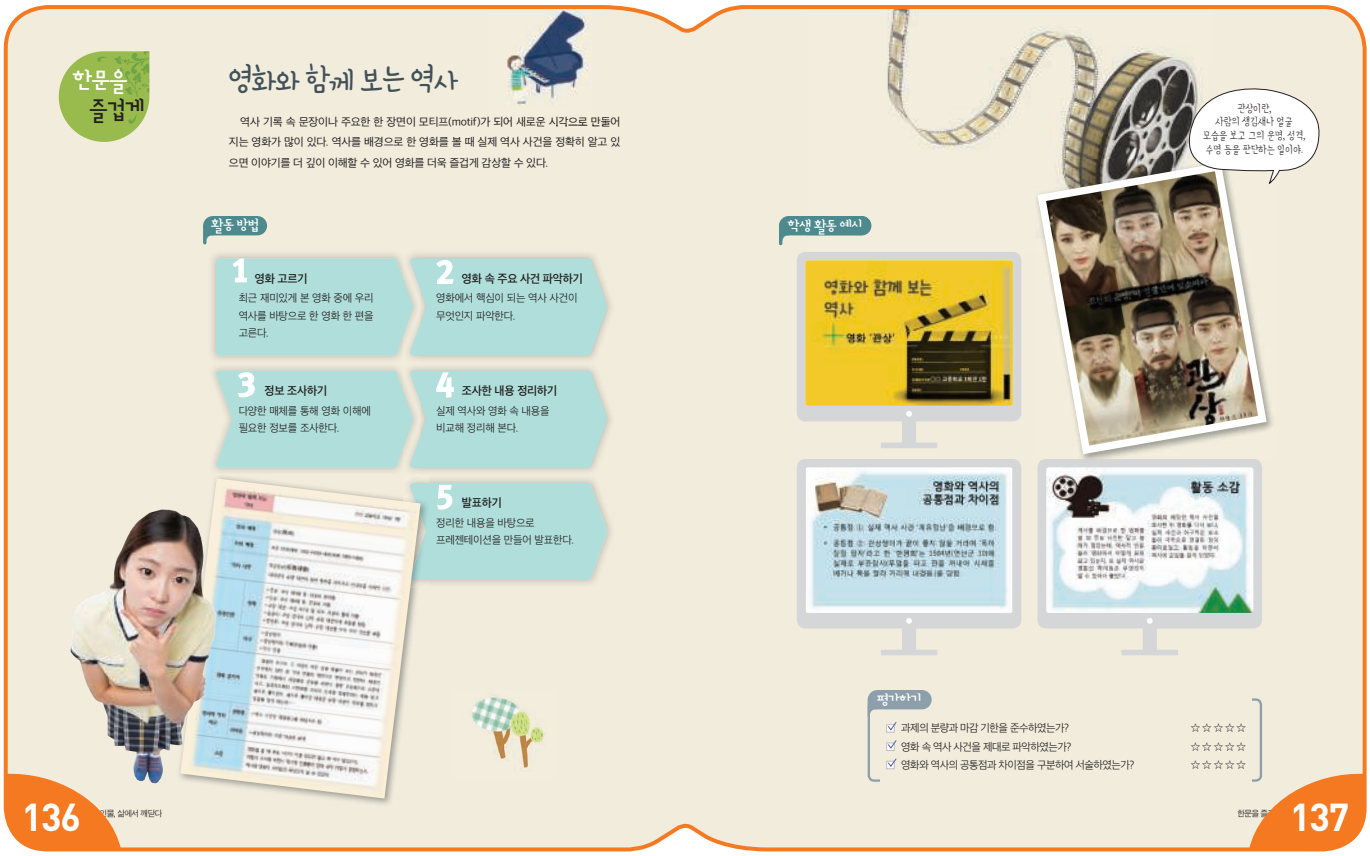
- **27일 정해.** 맑다. 일찍 떠나 순천 송원(순천시 서면)에 이르자 이득종, 정선 등이 와서 문안하였다. 저녁에 정원명 집에 이르니 원수(권율)가 내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군관 권승경을 보내어 조문하고 안부도 물었다. 저녁에 고을 원이 보러 왔다. 정사준도 왔는데, 원공(원균)의 패망(悖妄: 거칠고 망령됨)하고 전도된 상황을 많이 이야기하였다.(二十七日丁亥 晴 早發到順天松院 則李得宗 鄭愃來候 夕到鄭元溟家 則元帥知我之至 送軍官權承慶致吊 … 夕 主倅來見 鄭思竣亦來 多言元公悖妄顚倒之狀)

» 〈난중일기〉에는 인간 이순신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다. 정유년 1월 원균이 통제사가 되길 원하여 만든 비언(蜚言)으로 인해 조정에 불려가 국문을 당한 이순신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가 가까스로 사면당했다. 바로 4월 백의종군의 길을 떠나면서 아산에서 모친의 부고를 듣고 좌절하는 대목을 보면 영웅이 아닌 평범한 인간 이순신을 만날 수 있다.

명량 해전의 의의

1592년(임진년) 왜군이 부산 진성과 동래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육로로 진격하자 선조는 평양성을 거쳐 의주까지 피난을 가서 명(明)에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왜군의 거침없는 진격에 맞서 이순신은 한산도에서 일본 수군을 궤멸시키며 제해권을 장악하고 왜군의 해상 보급을 차단하였다. 이후 1593년 육지에서는 권율 장군이 행주 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하지만 1597년(정유년) 이순신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를 잡으라는 어명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1597년 2월 말에 한양으로 압송돼 옥고를 치른다. 정탁의 변호로 다행히 목숨만은 건진 이순신은 백의종군(白衣從軍)하였다. 그해 조선, 명(明), 왜(倭) 사이의 화의(和議)가 결렬되자 왜는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다시 침략하였다. 당시 이순신의 뒤를 이어 수군을 이끌던 원균은 7월 16일 칠천량(漆川梁) 전투에서 대패하고 자신도 전사하였고, 조선 수군은 겨우 12척 배만 도망하여 남았다. 이때 조정에서는 수군의 미약함을 알고 8월 15일 이순신에게 육군에 종사(從事)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순신은 수군의 작전이야 말로 승리의 요체임을 단호하게 주장했다. 9월 14일 왜적선 200여 척 가운데 55척이 어란진(於蘭鎭: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 도착하였고, 이순신은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으로 진을 옮기어 울돌목(鳴梁)을 지켰다. 9월 16일 오전 11시쯤 전투가 시작되자 이순신은 왜적선을 좁은 지형으로 유인하고 수중 철삭(鐵索: 쇠밧줄)을 설치하여 왜적선이 스스로 부딪쳐 충돌하게 함으로써 왜적선 133척 가운데 31척을 깨뜨리는 전과를 올렸다. 반면 조선 수군은 전선 13척, 초선(哨船) 32척으로 단 1척도 피해를 입지 않았고, 다만 전사자 2명과 부상자 2명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왜의 중부 지방 진출은 좌절되었다. 보급을 기다리는 왜군들은 울산성과 예교성에 등에 갇혀 추위와 배고픔에 지치게 되었고, 조선 침략 전쟁도 서서히 끝이 보이게 되었다.

-《문화원형백과》〈명량 해전〉 참조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최근에는 기술과 과학의 발전에 따라 활자로 간행된 서적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긴 호흡의 책을 읽기 어려워하는 학습자들에게 흥미로운 영화 혹은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매체 자료를 통해 역사적 인물과 사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참고 자료 _교실 내 영화 상영 관련 저작권법 Q&A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그중 법 제29조 제2항은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반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대학이나 교회를 포함해서 판매용 영상 저작물(영화 DVD 또는 제휴 파일)을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하등의 대가를 받지 않고 공개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하다. 다만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 저작물이어야 한다.

- 대한 저작권 위원회의 답변 참조

참고 자료 _계유정난(癸酉靖難)

조선 단종 원년(1453)에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반대파를 숙청한 사건. 세종(世宗)의 뒤를 이은 병약한 문종(文宗)은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좌의정 남지(南智), 우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에게 어린 세자를 보필할 것을 부탁했다. 1452년 5월 문종이 재위 2년 만에 죽고 단종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자, 모든 권력은 김종서가 장악하게 되었다. 수양 대군은 단종 즉위 후 2개월이 지난 7월경부터 권람(權擥), 한명회(韓明澮) 등을 심복으로 만들며 정치적 야심을 드러냈다. 1453년 4월 명(明)나라에 고명 사은사(誥命謝恩使)로 갔다가 돌아온 수양 대군은 신숙주를 막하에 끌어들이는 등 거사를 계획했고, 10월 10일 밤 마침내 김종서의 집을 불시에 습격하여 그를 철퇴로 쓰러뜨렸다. 수양 대군은 '김종서가 모반하였으므로 주륙(誅戮)하였다'고 거짓 상주(上奏)하고, 사전에 준비한 생살(生殺) 계획에 따라 황보인 등을 죽이고, '안평 대군이 황보인, 김종서 등과 한 패가 되어 왕위를 빼앗으려 했다.'고 거짓 상주하여 강화도로 귀양보냈다가 사사(賜死)하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Ⅵ 단원 총괄 평가

정답 223쪽

01 다음 뜻풀이에 해당하는 것은?

> 그림, 글씨, 사진 등을 끼우는 틀.

① 模寫 ② 屛風 ③ 額子
④ 肖像 ⑤ 硯滴

[02~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上㉠率武臣十餘人, 沿江放鷹, 日暮還宮. 史官閔麟生, 隨至, 上見之, ㉡目內竪問: "何爲而來乎?" 對曰: "臣以(㉢), 不敢廢職, 故來耳."

02 ㉠과 음이 같은 것은?

① 比率 ② 引率
③ 能率 ④ 換率
⑤ 確率

03 ㉡의 풀이로 옳은 것은?

① 눈이 ② 눈짓으로
③ 눈을 감고 ④ 눈을 마주치며
⑤ 눈을 보지 못하고

04 윗글의 내용상 ㉢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① 사관 ② 임금
③ 내시 ④ 양반
⑤ 무신

[05~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崔北七七者 世不知其族系貫縣. 破名爲字, 行于時. (중략) 入九龍淵, 樂㉠之甚, 飮劇醉, 或哭或笑, 已又叫號曰: "㉮天下名人崔北, 當死於天下名山." (중략) 人有求爲山水, 畫山不畫水. 人怪詰㉡之, 七七擲筆, 起曰: "唉! 紙以外, 皆水也."

05 ㉠, ㉡의 품사가 모두 옳은 것은?

	㉠	㉡		㉠	㉡
①	명사	대명사	②	어조사	명사
③	명사	어조사	④	어조사	대명사
⑤	수사	대명사			

06 서술형 | ㉮ 문장을 풀이하시오.

[07~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自壬辰至□五六年間, 賊不敢直突於兩湖者, 以舟師之扼其路也. 今臣戰船, 尙有十二, 出死力拒戰, 則猶可爲也. 今若全廢舟師, 則是賊之所以爲幸, 而由湖右達於漢水, 此臣之所恐也. 戰船雖寡, 微臣不死, 則賊不敢侮我矣.

07 □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① 之 ② 也 ③ 而 ④ 爲 ⑤ 于

08 윗글에서 주장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해로를 차단해야 한다.
② 육군의 전력을 빌려야 한다.
③ 전력을 다해서 수군이 싸워야 한다.
④ 일본군의 전력을 만만히 보아선 안 된다.
⑤ 호남을 지키는 것보다 한양의 안전이 급선무다.

VII

철학, 길을 묻다

17 인류의 스승 공자

18 묵자와 맹자

19 노자와 한비자

한문으로 쓰인 동아시아의 고전은 철학과 사색의 결정체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사고방식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상가들은 시대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보다 더 인간다운 삶과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자신만의 해법을 내놓았다.

이 단원에서는 유가의 경전과 제자백가의 책 가운데 그들의 사유 방식과 핵심 사상이 드러난 문장을 읽으면서 고전의 현재적 의미를 생각해 보자.

대단원 학습 목표

- 문장에서 생략되거나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 비추어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대단원 설정의 이유

고전(古典)은 우리를 철학과 사색의 길로 인도한다. 특히 동양 철학의 원류가 된 제자백가(諸子百家)는 중국 사상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보편적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단원에서는 유가의 경전을 넘어서 세계의 고전이 된 《논어(論語)》를 비롯해 맹자(孟子)와 묵자(墨子), 노자(老子)와 한비자(韓非子)의 핵심 사상과 사유의 방식을 드러내는 글을 읽으면서 그 역사적 생성과 현재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인간의 본성, 사회와 국가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들을 다루며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유가 담긴 문장을 한문으로 읽다 보면 수천 년 전 사상가들과 나란히 사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모습과 현재의 사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❶ 문장은 한자의 음과 뜻을 익힌 후 여러 번 소리 내어 읽으며 자연스럽게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❷ 제자백가의 문장에서 얻을 수 있는 의미를 통해 선인들의 삶과 지혜를 배우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특히, 선현들의 가르침이 학습자의 삶이나 현대인이 지향하는 가치와 대립되지 않고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❸ 제자백가 사상은 한자 문화권의 문화적 바탕이 된 근본이다. 제자백가 사상을 통해 한자 문화권의 사상적 공통점을 이해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한다.

❹ 동양의 사상과 철학에 대한 평가는 글의 의미만 풀이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나 일상에 적용된 사례를 통해 그 가치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토론 수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소단원	차시	교과서 쪽수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17. 인류의 스승 공자	3	140~145	• 문장에서 도치된 성분을 찾고 문장 풀이에 활용하기 • 선인들의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하기	• 문장 구조 분석하기 • 어순에 유의하여 문장 독해하기
18. 묵자와 맹자	3	146~151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하기 • 선인들의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하기	•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 명언·명구 암송하기
19. 노자와 한비자	3	152~157	•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을 찾고 문장 풀이에 활용하기 • 선인들의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 함양하기 • 한자 문화권의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하기	• 명언·명구 속에서 핵심 사상 찾기 • 문장 비교·분석하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158~161	• 주요 학습 내용을 정리하며 복습하기 •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 제자백가 사상 사색(四色)으로 새롭게 보기	•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1~3 차시

17 인류의 스승 공자

학습 목표

- 문장에서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단원 소개

《논어》는 유가의 근본 문헌으로, 중국 최초의 어록(語錄)이며,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공자(孔子)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문헌이며,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읽히는 동양 고전이다. 《논어》에 기록된 공자의 말은 삶의 여러 방면에서 보편적 진리를 제시하는 내용이 많다. 우리는 《논어》를 통해 배움, 사랑, 예절과 같은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순수하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면서 혼란한 사회를 개선하려고 했던 공자의 모습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논어》 공자가 말한 '배움〔學〕', '사랑〔仁〕', '예절〔禮〕' 등을 배우면서 이러한 가치들이 현재의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온고지신(溫故知新)'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유가의 기본 경전인 《논어》를 읽고 풀이하며 공자 사상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인(仁)' 사상이 요즘처럼 물질적 가치와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강조하는 세태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학습자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다. ※ 교훈만을 강조하지 말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례를 통해 학생 스스로 그 뜻을 음미하는 시간을 갖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다.

③ '문장 성분의 도치'는 한문 문장을 풀이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하며, 지나치게 강조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한다. 평가를 할 때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했는지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17 인류의 스승 공자

동아시아의 고전 중 현재에도 가장 많이 읽는 고전인 《논어》의 첫머리에서 공자(孔子)는 '배울 학(學)'과 '익힐 습(習)'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가? 《논어》의 첫머리에 이 구절이 놓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아?

有朋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아?"

不患人之不己知오 患不知人也니라.

140 VII. 철학, 길을 묻다

논어의 풀이와 이해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공자가 말하였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 不亦(불역) ~乎(호): 또한 ~하지 않은가?
* 說(열): 기쁘다 = 悅(열)

» '學(학)'은 '效(본받을 효)'나 '覺(깨달을 각)'과 관계가 있다. 배움이란 앞 사람을 본받는 일에서 시작해서 스스로 깨닫는 일까지를 가리킨다. '時(시)'는 보통 '때때로'라고 풀이하지만 '그때그때 늘'이란 뜻에 가깝다.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 朋(붕): 단순히 친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와 목적 또는 사상적 교유를 함께하는 사람을 가리킴.

• 문장에서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顔淵❶이 問仁한대 子曰: "克己復禮가 爲仁이니
一日克己復禮면 天下歸仁焉하리니
爲仁由己니 而由人乎哉아!" 《논어》

新 *慍 온 성내다
克 극 이기다

❶ 顔淵 안연: 중국 춘추 시대의 유학자 안회(顔回). 공자의 수제자로 학덕(學德)이 뛰어났음.
《논어(論語)》: 사서(四書)의 하나로, 중국 춘추(春秋) 시대의 사상가 공자(孔子)와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

顔淵, 問仁, 子曰: "克己復禮, 爲仁,

안연이 인을 묻자 공자가 말하였다.
"자기의 욕심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니

* 仁(인): 인간됨의 본질을 이루는 사랑의 정신과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
* 克己(극기): 자기의 무절제한 감정이나 욕심, 충동 따위를 이성적 의지로 눌러 이김.
* 復禮(복례): 예(인의 정신을 가진 사회 규범)의 본질로 되돌아가는 일. →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비정상적이고 변질된 모습이라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으며 이런 상태가 바로 정상적이고 원래적인 모습이라는 뜻이다.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하루라도 자기 욕심을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인에 돌아갈 것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말미암는 것이지 남에게서 말미암겠는가!"

* 歸(귀): 돌아가다, 귀속시키다 * 위(爲): 행하다, 실천하다

» 공자는 극기복례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사물(四勿)'을 말하였다. 극기복례는 인(仁)을 실천하기 위해 공자가 제시한 핵심 사항이다. 공자는 자기의 욕망을 예로써 이겨 내는 것이 사람됨의 길이고 나아가 이를 사회적으로 확충시키면 곧 천리가 운행하여 인(仁)을 온전히 이루는 도덕 사회가 된다고 보았다. 인을 하는 것은 남이 아닌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 자신을 극복하는 행위를 어렵게 여기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 君子(군자):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聖人)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을 갖춘 사람.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

» '患(환)'은 마음에 켕기는 것이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근심하지(불안해하지) 않아야 군자'라는 말을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헌문〉 편에도 비슷한 맥락의 구절(不患人之不己知 患其不能也)이 나온다.

극기복례 뒷이야기

안연이 말했다. "그 조목을 묻겠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안연이 말했다. "제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나 이 말씀을 받들겠습니다."(顔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顔淵曰 回雖不敏 請事斯語矣)

성어 사물(四勿):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며, 듣지 말며, 말하지 말며, 움직이지 말라는 네 가지 가르침.

알고 풀이하기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자 왈 학 이 시 습 지 불 역 열 호
공자가 말하였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은가?
子 선생님. 여기서는 공자를 가리킴. 不亦 ~乎 또한 ~하지 않은가? → 매우 ~하다. 說 열 기쁘다 = 悅.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유 붕 자 원 방 래 불 역 낙 호 遠方 먼 지방, 먼 곳.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온다면 또한 즐겁지 않은가?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인 부 지 이 불 온 불 역 군 자 호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않은가?"
慍 성내다 君子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을 갖춘 사람.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불 환 인 지 불 기 지 환 부 지 인 야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근심하지 말고, 남을 알아주지 못함을 근심하라.

顔淵, 問仁, 子曰: "克己復禮, 爲仁,
안 연 문 인 자 왈 극 기 복 례 위 인 復 회복하다, 돌아가다
안연이 인을 묻자 공자가 말하였다.
"자기의 욕심(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니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일 일 극 기 복 례 천 하 귀 인 언 위 인 유 기 이 유 인 호 재
하루라도 자기 욕심을 이기고 예로 돌아간다면 천하가 인에 돌아갈 것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은 자기에게서 말미암는 것이지 남에게서 말미암겠는가!"
歸 돌아가다, 귀속시키다 焉 형 형하다, 실천하다

참고 문장 성분의 도치
부정문에서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그 대명사가 서술어 앞에 옴.
예 知(알아주다) + 己(나를) → 不(않다) + 己(나를) + 知(알아주다)
서술어 목적어 부정사 목적어 서술어

142 철학, 길을 묻다

어휘 활용하기

1 부수가 같은 한자 - 人(亻)
- 仲 중 버금 · 伯仲 백중 · 依 의 의지하다 · 依托 의탁
- 係 계 매다 · 關係 관계 · 侯 후 제후 · 諸侯 제후
- 候 후 기후 · 症候 증후 · 側 측 곁 · 側近 측근
- 僧 승 중 · 高僧 고승 · 儒 유 선비 · 儒家 유가

2 뜻이 서로 상대 관계에 있는 어휘
- 強硬 강경 ⇔ 柔軟 유연 · 緩慢 완만 ⇔ 急激 급격
- 普遍 보편 ⇔ 特殊 특수 · 偏頗 편파 ⇔ 公正 공정

3 《논어》와 관련된 성어
- 不惑 불혹: 미혹되지 않음. → 마흔 살을 달리 이르는 말.
- 面墻 면장: 담벼락을 마주 대함. →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견문이 좁음.
- 孔門十哲 공문십철: 공자의 제자 가운데 특히 학덕이 뛰어난 열 명.
- 如履薄氷 여리박빙: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음. →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일.
- 牛刀割鷄 우도할계: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음. → 작은 일에 어울리지 않게 큰 도구를 씀.

"면장은 공자가 아들 리(鯉)에게 《시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담벼락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처럼 답답한 상태를 빗대날 수 없다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음.

4 단어 만들기
- 論 론 논하다 · 輿論 여론 · 討論 토론 · 辯論 변론 · 論據 논거
- 政 정 다스리다 · 政府 정부 · 政黨 정당 · 政局 정국 · 攝政 섭정

新
仲 중 버금 · 托 탁 맡기다 · 係 계 매다 · 侯 후 제후 · 候 후 기다리다, 기후
症 증 증세 · 側 측 곁 · 僧 승 중 · 儒 유 선비 · 硬 경 굳다
軟 연 연하다 · 緩 완 느리다 · 激 격 격하다 · 普 보 넓다 · 遍 편 두루
殊 수 다르다 · 偏 편 치우치다 · 頗 파 자못, 치우치다 · 惑 혹 미혹하다 · 墻 장 담
孔 공 구멍, 성씨 · 哲 철 밝다 · 履 리 밟다 · 薄 박 얇다 · 割 할 베다
與 여 수레, 많다 · 討 토 치다 · 辯 변 말 잘하다 · 據 거 의거하다 · 府 부 관청
黨 당 무리 · 局 국 판 · 攝 섭 다스리다

17. 인류의 스승

143

한문 개념 _문장 성분의 도치

부정문에서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그 대명사가 서술어 앞에 옴.

예 知〔알아주다〕 + 己〔나를〕
서술어 목적어
→ 不〔않다〕 + 己〔나를〕 + 知〔알아주다〕
부정사 목적어 서술어

» 한문의 문장 구조를 살펴볼 때에는 제일 먼저 어순을 보고, 그 다음에 성분들 사이의 관계를 보아야 한다. 어순이 바뀌면 비문(非文)이 되거나 문장의 성분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때로 한문의 문장은 특정한 환경 아래에서 어순이 도치되어도 문장의 성분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다. 술목 구조의 기본 어순은 서술어가 앞에 놓이고 목적어가 뒤에 놓인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에서는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놓이기도 한다. 곧 의문(疑問)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의문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또는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 지시 대명사나 인칭 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일 때 목적어가 서술어 앞에 온다.

- 의문문에서 목적어가 의문 대명사일 때
  예 王者誰謂?: 왕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 부정문에서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예 吾愛之, 不吾叛也.: 내가 그를 아꼈기 때문에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성어의 유래

- **면장**(面牆/面墻)

유래 공자가 백어에게 말했다. "너는 〈주남〉과 〈소남〉을 공부했느냐? 사람이 〈주남〉과 〈소남〉을 공부하지 않으면 담벼락을 마주보고 서 있는 것과 같다."(子謂伯魚曰 女爲周南召南矣乎 人而不爲周南召南 其猶正牆面而立也與) - 〈양화〉

* 伯魚(백어): 공자의 아들. 이름은 리(鯉), 백어는 자(字).

- **우도할계**(牛刀割鷄)

유래 공자가 무성(武城)에 갔을 때 현악기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가 들려왔다. 공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닭을 잡는 데 어째서 소 잡는 칼을 쓰느냐?" 자유가 대답했다. "옛날에 저는 선생님께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쉽다.'라고 들었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얘들아! 언(偃)의 말이 옳다. 내가 방금 전에 한 말은 그를 놀린 것일 뿐이다." - 〈양화〉

- **공문십철**(孔門十哲): 안회, 민자건, 염백우, 염옹, 재아, 자공, 염구, 자로, 자유, 자하를 이른다.

신출 한자

*慍	(온) 성내다 心, 13	慍意 慍色●
托	(탁) 맡기다 手, 6	托鉢 依托
候	(후) 기다리다, 기후 人, 10	氣候 徵候●
僧	(승) 중 人, 14	僧侶 高僧
軟	(연) 연하다 車, 11	軟骨 軟弱
普	(보) 넓다 日, 12	普遍 普通
偏	(편) 치우치다 人, 11	偏重 偏見
墻	(장) 담 土, 16	面墻 墻內
履	(리) 밟다 尸, 15	履行 履修
輿	(여) 수레, 많다 車, 17	喪輿 輿論
據	(거) 의거하다 手, 16	根據 證據
局	(국) 판 尸, 7	結局 局限
克	(극) 이기다 儿, 7	克己 克服
係	(계) 매다 人, 9	關係 係數●
症	(증) 증세 疒, 10	症狀 症勢
儒	(유) 선비 人, 16	儒學 儒生
緩	(완) 느리다 糸, 15	緩急 緩和
遍	(편) 두루 辶, 13	遍在 遍歷
頗	(파) 자못, 치우치다 頁, 14	頗多 偏頗
孔	(공) 구멍, 성씨 子, 4	毛孔 氣孔
薄	(박) 얇다 艸, 17	輕薄 淺薄
討	(토) 치다 言, 10	討伐 討論
府	(부) 관청 广, 8	府署 政府
攝	(섭) 다스리다 手, 21	包攝 攝政
仲	(중) 버금 人, 6	仲介 仲媒
侯	(후) 제후 人, 9	諸侯 王侯
側	(측) 곁 人, 11	側面 兩側
硬	(경) 굳다 石, 12	硬化 硬直
激	(격) 격하다 水, 16	感激 過激
殊	(수) 다르다 歹, 10	特殊 殊常●
惑	(혹) 미혹하다 心, 12	誘惑 迷惑
哲	(철) 밝다 口, 10	哲學 明哲
割	(할) 베다 刀, 12	役割 割引
辯	(변) 말 잘하다 辛, 21	答辯 雄辯
黨	(당) 무리 黑, 20	與黨● 黨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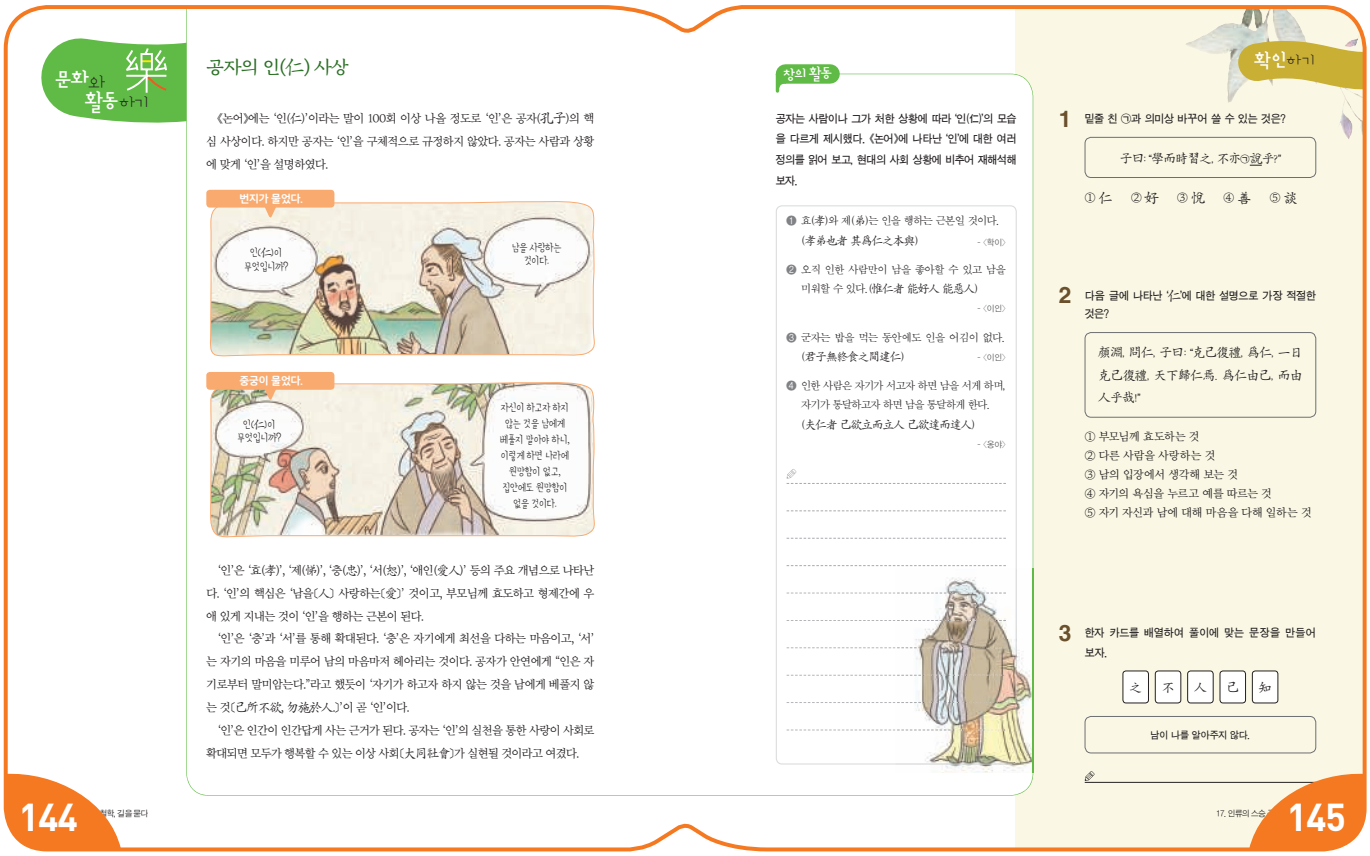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온색(慍色): 성난 얼굴빛.
- 계수(係數): 「1」 물리에서, 하나의 수량을 여러 양의 다른 함수로 나타내는 관계식에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비례 상수. 점성 계수, 팽창 계수 따위가 있다. 「2」 수학에서, 기호 문자와 숫자로 된 식에서, 숫자를 기호 문자에 대하여 이르는 말. $3x^2+2x+7$에서 3, 2 따위이다.
- 징후(徵候): 겉으로 나타나는 낌새.
  ※ 증후(症候): 병을 앓을 때 나타나는 여러 상태나 모양.
  = 증세(症勢).
- 수상(殊常): 보통과는 달리 이상하여 의심스러움.
- 여당(與黨): 「1」 정당 정치에서,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 「2」 짝이 되는 무리.

성어 _사서삼경

사서(四書)란 《논어(論語)》, 《맹자(孟子)》, 《대학(大學)》, 《중용(中庸)》을 말하고, 삼경(三經)은 《시경(詩經)》, 《서경(書經)》, 《역경(易經)》을 가리킨다. 송나라 때 《예기》에서 《대학》과 《중용》이 분리되어 《논어》, 《맹자》와 함께 '사서'라 일컬었다. 남송의 주희(朱熹)는 《대학》과 《중용》에 주해하여 '장구(章句)'라 하고, 《논어》와 《맹자》에 주해하여 '집주(集註)'라 했다. 그것을 《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註)》라고 한다. 명나라 영락제 때 《사서대전(四書大全)》이 편찬, 간행되었다. 사서를 줄여서 '논맹용학(論孟庸學)'이라 말한다.

» 《중용》은 《예기》 제31편이었다가 독립된 것으로, 인간의 본성을 성(誠)이라고 보고 성으로 복귀하는 방법을 궁구한 책이다.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논어에 나타난 '인(仁)'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며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다양한 '인'의 정의를 참고하여 현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 의미를 재해석해 보고 실천할 수 있다.

예시 답안

❶ 克己復禮(극기복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나친 욕심의 추구를 막을 수 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무분별한 개인의 욕심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간의 연대를 막는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욕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인(仁)의 정신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❷ 欲立而立人(욕립이립인)을 통해 상생의 윤리를 회복할 수 있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인(仁)은 개인과 가족의 관계를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상대의 입장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하는 관계의 윤리다. 인(仁)의 실천은 나와 반대 입장에 있는 상대가 모두 만족하고 상생하는 길을 열어 줄 것이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문장 속 한자의 쓰임을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說'의 여러 가지 음과 뜻

(1) (설) 말씀 예 說明(설명)

(2) (세) 달래다 예 遊說(유세)

(3) (열) 기쁘다 = 悅(열) 예 不亦說乎(불역열호)

❷ 글을 읽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克己復禮(극기복례): 자기의 욕심을 누르고 예의범절을 따름.

❸ 문장에서 도치된 성분을 파악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人之不己知

[해설] 人之不己知(인지불기지):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다. ※ 술목 구조의 도치 구문으로, 부정문에서 일인칭 대명사 '己'가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己'가 서술어 '知'의 앞으로 와서 '不己知'가 되었음.

참고 자료

공자와 《논어》

- **공자**(孔子, B.C. 551~B.C. 479):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이자 학자. 이름은 구(丘). 자는 중니(仲尼). '자(子)'는 선생의 뜻으로 높여 부르는 말이다. 춘추 시대 말기에 노(魯)나라 창평향(昌平鄕) 추읍(陬邑, 현재 산둥성 곡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이름은 흘(紇), 자는 숙량(叔梁)이고, 어머니는 안징재(顔徵在)이다. 공자는 세 살 때 부친을 잃고 빈곤 속에 자랐으나 주나라의 전통문화를 학습하였으며, 말단 관리를 거쳐 50세가 넘어 노나라 정공(定公)에게 발탁되었다. 공자는 노나라 실력자인 세 중신〔三桓氏〕의 세력을 눌러 공실의 권력을 회복하려 하였으나 56세(B.C. 497) 때 실각하고 노나라를 떠났다. 그 후 14년간 여러 나라를 떠돌며 인(仁)을 정치와 윤리의 이상으로 하는 도덕주의를 설파하며 덕치 정치를 유세하다가 69세(B.C. 484) 때 고향에 돌아가 교육에 전념하였다. 이 무렵 아들 리(鯉)와 제자 안회(顔回) 및 자로(子路)가 잇따라 죽는 불행을 겪었지만 교육에 전념하여 3,000여 명의 제자를 길러 내고, 《시경》과 《서경》 등의 고전을 정리하였다. 74세로 사망하였는데 제자들이 엮은 《논어》에 그의 언행과 사상이 잘 나타나 있다.
  - 공자의 일생에 관해 신뢰할 만한 기록은 《사기》의 〈공자 세가(孔子世家)〉이다. 이후에 나온 공자의 전기는 모두 이것을 기초로 하였다. 다만 사마천의 전기도 공자가 죽은 지 400년 뒤의 글이므로 확실치 않은 점이 많다.
- **《논어(論語)》**: 공자의 제자 및 그 뒤의 유가들이 공자의 말, 공자와 제자의 대화, 공자와 당시 사람들의 대화, 제자들의 말, 그리고 제자들 사이의 대화를 기록하여 엮은 중국 최초의 '어록(語錄)'이다. 공자 사후에 제자들이 엮은 기록을 토대로 후대 사람들이 개정한 것인 듯하다. 근세의 사학가 장학성(章學誠, 1738~1801)은 이 책이 전국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말하였다. 공자의 행실을 기록한 《공자가어(孔子家語)》가 있으나 위(魏)나라 왕숙(王肅, 195~ 256)의 위작이라고 한다. 따라서 공자의 인간됨과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는 《논어》 이외에 달리 없다. 현재의 《논어》는 모두 20편이다. 전반 10편을 상론(上論), 후반 10편을 하론(下論)이라고 한다. 각 편 첫 장에서 두 글자 또는 세 글자를 따다가 편명으로 삼았다. 〈학이(學而)〉는 학문의 필요성, 〈팔일(八佾)〉은 예(禮), 〈이인(里仁)〉은 인(仁), 〈공야장(公冶長)〉과 〈옹야(雍也)〉는 제자의 인물됨, 〈향당(鄕黨)〉은 공자의 용의(容儀), 행동, 음식, 의례, 〈자로(子路)〉는 정치, 〈요왈(堯曰)〉은 역대 성인의 정치적 이상을 설명하였다. 청대의 고증학자 최술(崔述, 1739~1816)은 뒤 4편(〈계씨(季氏)〉, 〈양화(陽貨)〉, 〈미자(微子)〉, 〈요왈〉)에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고 하였다.

《논어》 읽기

-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증자가 말했다. "부자(선생님)의 도는 충서일 따름이다."

  → 《논어》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인(里仁)〉 편의 이 구절이다. 어느 날 공자는 제자들과 마주하고 있다가 증자를 향해 "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 전체를 꿴다.(吾道一以貫之)"라고 했다. 공자의 이 말은 너무도 유명하다. 공자의 말씀에 대해 증자는 "네."라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공자가 방을 나간 뒤 다른 제자들이 증자에게 "조금 전 이야기는 무엇을 말한 것인가?"라고 묻자 증자는 위와 같이 대답했다.

- 君子 欲訥於言 而敏於行

  군자는 말을 신중하게 하고 행동에 민첩하려고 한다.

  → 《논어》는 말과 행동의 차이, 이론과 실천의 괴리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이인〉 편의 이 장도 그 하나다. '訥(눌)'은 '말 더듬다'가 아니라 '말을 신중하게 한다'로 풀이해야 한다. 옛사람은 지둔(遲鈍)이라고 풀이했다. '敏(민)'은 본래 부인이 머리를 매만지고 열심히 제사 일을 돕는 것을 의미했는데, 그 뒤 민첩하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 《심경호 교수의 동양 고전의 강의, 논어》

Q 공자의 시대에는 주로 무엇을 배웠나요?

A 중국 고대에는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육예(六藝)라 하여 여섯 가지 교양 과목으로 배웠다. 예절〔禮〕, 음악〔樂〕, 활쏘기〔射〕, 말타기〔御〕, 글쓰기〔書〕, 수학〔數〕을 말한다.

1~3 차시

18 묵자와 맹자

학습 목표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단원 소개

중국 춘추 전국 시대는 혈연 관계로 이루어진 봉건 제도의 주(周) 왕실이 붕괴되고 여러 제후국이 패권을 다투었던 동란기이다. '전국 칠웅'이라는 말처럼 이 시기에는 제후국들이 세력을 다투어 부국강병(富國強兵)을 내세우며 유능한 인재를 발굴했기 때문에 제자백가와 같은 학문의 중흥기를 이루었다.

묵자(墨子)는 자기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고, 자기 집과 나라를 사랑하듯 다른 나라를 사랑하면 천하가 다스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맹자(孟子)는 인의(仁義)를 기반으로 한 덕(德)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왕도 정치(王道政治)를 주장했다. 제자백가의 맞수라 할 만한 묵자와 맹자의 주장을 배우며 이들 사상이 어떻게 현재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한문 문장 풀이에 필요한 '품사의 활용', '어조사의 쓰임' 등은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문장 풀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② 혼란한 사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평등과 겸애, 이타주의를 주장했던 묵자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만 추구하는 삶의 태도와 경제적 불평등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묵자의 사상에 대한 이해와 학습 동기를 부여하도록 한다.

③ 제자백가 사상은 뜻이 깊기 때문에 표면적인 내용만 학습하는 것은 그 가치가 오히려 반감될 수 있다. 학습자들의 생활 경험이 부족하므로 구체적인 사회 현상이나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한다.

18 묵자와 맹자

춘추 전국 시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때이다. 주(周)나라 왕실의 권위는 무너지고 여러 제후국은 패자가 되기 위해 세력을 다투었다. 오직 힘의 논리만이 존재했던 때에 오히려 제자백가와 같은 학문적 중흥기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視人之國을 若視其國하고 視人之家를 若視其家하고

視人之身을 若視其身이라.

天下兼相愛則治요 相惡則亂이라. 《묵자》

《묵자(墨子)》: 중국 춘추(春秋) 시대의 사상가 묵적(墨翟)과 그 제자들의 사상을 엮은 책.

묵자의 풀이와 이해

視人之國, 若視其國, 視人之家,
若視其家, 視人之身, 若視其身.

남의 나라 보기를 내 나라같이 보고, 남의 집안 보기를 내 집안같이 보고, 남의 몸을 보기를 내 몸같이 보라.

* 家(가): 춘추 시대 때 경대부(卿大夫)를 말함.

天下兼相愛則治, 相惡則亂.

천하가 모두 서로 사랑하면 다스려지고,
서로 미워하면 어지러워진다.

이해 묵자는 인간 집단의 전체적 번영인 '이(利)'에 주목하고, 그것을 달성하는 강제적 연대와 무차별적 사랑인 겸애(兼愛)를 설파하였다.

» 춘추 전국 시대에는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한 도덕 질서의 문란과 경제 기반의 파탄으로 백성들에게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묵자는 형식적인 예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배 계급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가 사상을 비판하였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老吾老하여 以及人之老하며

幼吾幼하여 以及人之幼하면 天下를 可運於掌이라.

王은 何必曰利잇고? 亦有仁義而已矣니이다. 《맹자》

新
兼 겸 겸하다
亂 란 어지럽다

《맹자(孟子)》: 사서(四書)의 하나로, 중국 전국(戰國) 시대의 사상가 맹자(孟子)와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책.

묵자의 겸애

묵자(墨子, B.C. 480~B.C. 390)의 이름은 적(翟)으로,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사상가이다. 묵자에 관해 《사기》에서는 "묵적은 송나라 대부로서 성을 방어하는 기술이 뛰어났으며 절용(節用)을 주장했다. 혹은 공자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하고 혹은 그 후의 사람이라고도 한다.(蓋墨翟 宋之大夫 善守禦 爲節用 或曰並孔子時 或曰在其後)"라고 한 〈맹자 순경 열전〉의 마지막 20여 자의 기록이 전부이다. 그러나 《맹자》에서 "양주(楊朱)와 묵적의 학설이 천하에 가득 찼다. 천하의 말이 양주에게로 돌아가지 않으면 묵적에게 돌아간다.(楊朱墨翟之言盈天下 天下之言 不歸楊則歸墨)"라고 했을 정도로 묵가(墨家)는 당시 가장 유력했던 학파로, 유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하층민(공인이나 농민 등의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묵자는 처음에 유가(儒家)를 배웠으나, 유가는 번거로운 예의로 재물을 낭비하고 백성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치일 뿐이라고 여기고 근로와 절약을 중시했다. 묵자는 사회의 모든 재앙과 혼란의 근본 원인을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데에 있다고 하며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보편적 사랑인 겸애(兼愛)를 주장했다.

맹자의 풀이와 이해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 可運於掌.

내 집(안) 노인을 공경하는 것으로써 남의 노인에까지 이르고, 내 집(안) 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써 남의 아이에까지 이르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

* 老(로): ① 노인, 어른(명사) ② 어른을 공경하다(동사)
* 幼(유): ① 아이(명사) ② 아이를 사랑하다(동사)
* 可運於掌(가운어장): 손바닥 위에 놓고 움직일 수 있다.
  → 매우 쉽다.

王, 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왕은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역시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해 맹자가 위(魏)나라에 오자, 혜왕은 맹자도 다른 유세객들처럼 부국강병의 방책을 말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맹자는 오로지 인의(仁義)에 근본을 두고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다. 맹자는 추은(推恩: 은혜를 넓혀 나감)을 통해 인정(仁政)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맹자의 인의와 왕도 정치

맹자(孟子, B.C. 372~B.C. 289)는 전국 시대 중기 추나라에서 태어났다.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의 제자에게 배웠으며 공자의 학문을 사숙하여 유가 사상을 부흥시키는 것을 평생의 대업으로 삼았다. 맹자는 공자의 인(仁)에 의(義)를 더해 인의(仁義)를 강조했다. 인(仁)이 포용적 사랑이라면 의(義)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회적 정의이다. 맹자는 약육강식의 전쟁을 일삼는 전국 시대의 패도 정치를 비판하고, 덕으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 정치(王道政治)를 주장했다. 맹자의 덕치(德治)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백성을 정치의 주체로 보아 군주의 지위를 백성과 사직(社稷) 다음에 두었다. 맹자는 유가 가운데 가장 급진적인 정치 사상인 '역성혁명'을 주장했는데, "인을 파괴하는 사람은 도적이고, 의를 파괴하는 사람은 강도다. 도적이나 강도는 일개 필부(匹夫)다."라고 하며 폭군은 주살할 수 있다고 했다.

《묵자》

현재 남아 있는 《묵자》는 총 53편인데, 《한서》 〈예문지〉에는 71편으로 되어 있다. 중심 내용은 상현(尙賢), 상동(尙同), 겸애(兼愛), 비공(非攻), 절용(節用), 절장(節葬), 천지(天志), 명귀(明鬼), 비악(非樂), 비명(非命)의 '십론(十論)'을 풀이한 23편이다. 십론 이외에 일종의 논리학을 풀이하는 편과 비공론(非攻論)에서 출발한 방어술(防禦術)과 축성술(築城術)에 관한 편도 있다.

1. 상현(尙賢): 현명한 사람을 숭상해야 한다.
2. 상동(尙同): 윗사람을 높이 받들며 따라야 한다.
3. 겸애(兼愛):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한다.
4. 비공(非攻): 전쟁을 금지해야 한다.
5. 절용(節用): 재정 지출을 절제해야 한다.
6. 절장(節葬): 장례를 간소화해야 한다.
7. 천지(天志):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한다.
8. 명귀(明鬼):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9. 비악(非樂): 사치의 상징인 음악을 금지해야 한다.
10. 비명(非命): 주체적 노력에 반하는 숙명론(운명론)을 거부해야 한다.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참조

성어의 유래 _호연지기

공손추가 물었다. "선생님께서 제나라의 경상(卿相) 자리에 오르시어 도(道)를 행할 수 있게 되신다면, 비록 이로 인해 패업이나 왕업을 이루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신다면 마음이 흔들리실 것 같습니까, 안 흔들리실 것 같습니까?" … 공손추가 말했다. "감히 여쭙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점이 장점이십니까?" 맹자가 말했다. "나는 말을 알며, 나는 나의 호연지기(浩然之氣)를 잘 기른다." … 그 기(氣) 됨은 지극히 크고 강하니, 곧은 도(道)로 잘 기르고 해치지 않으면 천지 간에 꽉 차게 된다. 그 기(氣) 됨은 도의(道義)와 짝하고 있으니 이것이 없으면 줄어들게 된다. 호연지기는 의〔善行〕를 많이 쌓아야 생겨나는 것이지 의로운 행동을 하나 했다고 갑자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행동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줄어든다. … 호연지기를 기르는 사람은 반드시 의를 쌓는 일을 행하되 미리 그 결과를 기대하지 말 것이며, 마음속에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지도 말고 억지로 조장하지도 말아야 한다.

-《맹자》 〈공손추상〉

신출 한자

兼	(겸) 겸하다 八, 10	兼職 兼事
祈	(기) 빌다 示, 9	祈願 祈禱
祿	(록) 녹 示, 13	祿俸 祿邑
禪	(선) 참선 示, 17	禪宗 參禪
憎	(증) 미워하다 心, 15	憎惡 愛憎
厄	(액) 재앙 厂, 4	橫厄● 厄運
昇	(승) 오르다 日, 8	昇進 昇華
聘	(빙) 부르다 耳, 13	招聘 來聘
孟	(맹) 맏, 성씨 子, 8	孟子 孟浪●
浩	(호) 넓다 水, 10	浩然 浩氣
騷	(소) 떠들다 馬, 20	騷動 騷亂
誕	(탄) 태어나다 言, 14	誕生 誕辰
涯	(애) 물가, 끝 水, 11	天涯 生涯
亂	(란) 어지럽다 乙, 13	亂離● 外亂
社	(사) 모이다 示, 8	社會 社員
爵	(작) 벼슬 爪, 18	爵位 大爵
邪	(사) 사악하다 邑, 7	邪惡 邪道
嫌	(혐) 싫어하다 女, 13	嫌疑 嫌惡
疏	(소) 트이다 疋, 12	疏遠 疏外
憐	(련) 불쌍히 여기다 心, 15	哀憐 可憐
戱	(희) 놀다 戈, 17	戱弄 戱曲
遷	(천) 옮기다 辶, 16	遷都 變遷
斯	(사) 이 斤, 12	斯文 斯道●
搖	(요) 흔들다 手, 13	搖動 搖亂
蘇	(소) 되살아나다 艸, 20	蘇生 回蘇
啓	(계) 열다 口, 11	啓發 啓蒙
祥	(상) 상서롭다 示, 11	吉祥 祥瑞
慘	(참) 참혹하다 心, 14	悲慘 慘酷
役	(역) 부리다 彳, 7	代役 役割
航	(항) 배 舟, 10	航空 航海
贊	(찬) 돕다 貝, 19	贊助 協贊
憫	(민) 불쌍히 여기다 心, 15	憐憫 憫惘
弄	(롱) 희롱하다 廾, 7	嘲弄 弄談
捨	(사) 버리다 手, 11	取捨 捨身●
叛	(반) 배반하다 又, 9	背叛 叛逆
淫	(음) 음란하다 水, 11	姦淫 淫亂
畢	(필) 마치다 田, 11	軍畢 畢生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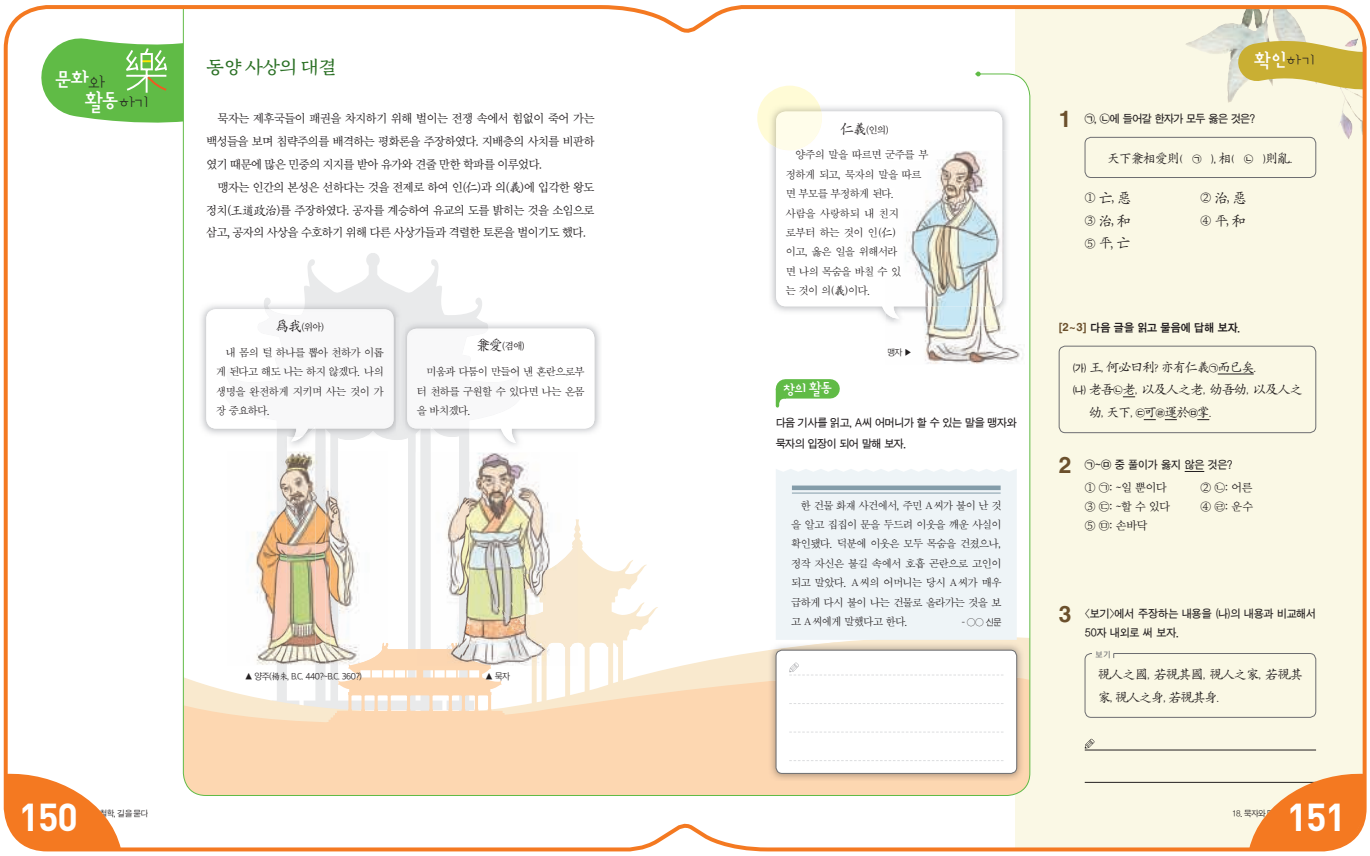
- 난리(亂離): 「1」 전쟁이나 병란(兵亂). ≒ 난(亂). 「2」 세상이 소란하고 질서가 어지러워진 상태. 「3」 작은 소동.
- 횡액(橫厄):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 = 횡래지액.
- 맹랑(孟浪): 「1」 생각하던 바와 달리 허망함.
  「2」 하는 짓이 만만히 볼 수 없을 만큼 똘똘하고 깜찍함.
- 사신(捨身): 불교에서, 수행과 보은을 위하여 속계의 몸을 버리고 불가에 들어가는 일이나 불사(佛事) 또는 불도의 수행을 위해 자기 몸과 목숨을 버림.
- 사도(斯道): 「1」 이 도리.
  「2」 유가(儒家)에서, 유학의 도리를 이르는 말.

성어

- 공맹지도(孔孟之道): 공자와 맹자가 주장한 인의(仁義)의 도(道).

»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으므로 후세 사람들은 유교를 '공맹지도(孔孟之道)'라고 불렀다. 맹자는 공자가 말한 인(仁)에 의(義)를 덧붙이는 등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켰다. 공자는 주나라를 중심에 두는 존왕(尊王)을 주장했으나, 맹자는 '어느 제후든 살육하지 않고 인의를 하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다(不嗜殺人者 一之)'고 주장했다.

- 사생취의(捨生取義): 목숨을 버리고 의를 좇는다는 뜻으로, 목숨을 버릴지언정 옳은 일을 함을 이르는 말.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공자의 인(仁)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서 사회로 확산되어 가는 것이고, 맹자는 공자의 인(仁)을 계승했다. 그러나 묵자는 유가의 생각〔존비, 친소의 구별〕은 출발부터 차별을 전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하며 무차별적 사랑인 겸애(兼愛)의 실천만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주장했다.

» 맹자는 "묵자의 겸애는 머리 꼭대기부터 갈아 발뒤꿈치까지 닳더라도 천하에 이익이 되면 한다.(墨子兼愛 摩頂放踵 利天下爲之)"라고 공격하며 겸애를 "부모를 업신여기고 군왕을 업신여기는(無父無君)" 사상이라고 심하게 비판했다.

예시 답안

- **맹자의 입장에서 말하기**: 너의 생명도 타인의 생명만큼 중요하다. 너는 나에게 하나뿐인 소중한 자식이다. 나와 우리 가족을 생각한다면 가지 마라.
- **묵자의 입장에서 말하기**: 위험에 처한 이웃의 생명 역시 우리 목숨만큼 중요하다.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붙잡을 수 있겠니? 어서 가서 도와주어라.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문장을 풀이하고 글의 맥락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天下兼相愛則治, 相惡則亂.: 천하가 모두 서로 사랑하면 다스려지고, 서로 미워하면 어지러워진다.

❷ 문장 속 한자의 쓰임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 運(운): 움직이다 ※ 可運於掌(가운어장): 손바닥 위에서 움직일 수 있다. → 매우 쉽다.

❸ 글을 읽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나)는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할 것을 〈보기〉에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해설] 묵자와 맹자는 큰 관점에서 보면 사랑을 추구하라는 내용은 같다. 그러나 맹자는 사랑이 내 가족과 가까운 사람부터 출발한다고 보았고, 묵자는 처음부터 이런 차별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視人之國 若視其國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묵자가 말했다. "모두 서로 사랑하고〔兼相愛〕 서로 이롭게 하는〔交相利〕 방법으로 바꾼다. 그러면 모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방법은 장차 어떻게 해야 할까?" 묵자가 말했다. "남의 나라 보기를 내 나라같이 보고, 남의 집안 보기를 내 집안같이 보고, 남의 몸 보기를 내 몸같이 보라. 이렇게 하면 제후들은 서로 사랑하여 싸우지 않을 것이다. … 천하의 사람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지 않고, 다수는 소수를 겁박하지 않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 대개 천하의 재앙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길 뿐이다.(何以易之 子墨子言曰 以兼相愛 交相利之法易之 然則兼相愛 交相利之法將奈何哉 子墨子言 視人之國 若視其國 視人之家 若視其家 視人之身 若視其身 是故諸侯相愛 則不野戰 … 天下之人皆相愛 強不執弱 衆不劫寡 富不侮貧 … 凡天下禍篡怨恨 可使毋起者 以相愛生也)

-《묵자》〈겸애중〉

天下兼相愛則治

반드시 혼란이 일어나는 원인을 알아야만 이에 다스릴 수 있다. … 혼란이 무엇에 의해 일어나는지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 생긴다. … 제후들이 서로 남의 나라를 침공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 만약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한다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공격하지 않고, 집안과 집안이 서로 어지럽히지 않고, 도적이 있지 않으며 임금과 신하와 부모와 자식이 모두 효도하고 자애로울 수 있다.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천하가 다스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일삼는 자이니, 어찌 미움을 금하고 사랑을 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가 모두 서로 사랑하면 다스려지고, 서로 미워하면 어지러워진다. 그러므로 묵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권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必知亂之所自起 焉能治之 … 當察亂何自起 起不相愛 … 諸侯之相攻國者亦然 … 若使天下兼相愛 國與國不相攻 家與家不相亂 盜賊無有 君臣父子皆能孝慈 若此則天下治 故聖人以治天下爲事者 惡得不禁惡而勸愛 故天下兼相愛則治 相惡則亂 故子墨子曰不可以不勸愛人者 此也)

-《묵자》〈겸애상〉

老吾老 以及人之老

제선왕(齊宣王)이 물었다. "제환공과 진문공의 일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맹자가 대답했다. "공자의 문하에서는 제환공과 진문공의 일을 말한 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후세에 전해진 것이 없어 저도 듣지 못했습니다. 기어이 말하라고 하신다면 왕 노릇하는 것〔王道政治〕은 어떻습니까?" … "내 집안 노인을 공경하는 것으로써 남의 노인에까지 이르고, 내 집안 아이를 사랑하는 것으로써 남의 아이에까지 이르면, 천하를 손바닥 위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시경》에 이르기를 '내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게 이르고 집과 나라를 다스린다.' 하였으니, 이 마음을 들어서 저기에 놓은 것뿐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미루어 가면 천하를 보전할 수 있고, 은혜를 미루어 가지 못하면 처자식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지금 사람들보다 크게 뛰어난 까닭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해야 할 것을 잘 미루어 나갔기 때문일 뿐입니다."(齊宣王問曰 齊桓 晉文之事可得聞乎 孟子對曰 仲尼之徒無道桓 文之事者 是以後世無傳焉 臣未之聞也 無以 則王乎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詩云 刑于寡妻 至于兄弟 以御于家邦 言擧斯心加諸彼而已 故推恩足以保四海 不推恩無以保妻子 古之人所以大過人者無他焉 善推其所爲而已矣)

-《맹자》〈양혜왕상〉

王 何必曰利

맹자가 양혜왕(梁惠王)을 만났는데 왕이 말했다. "노 선생께서 천 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무엇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왕께서는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역시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왕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시면 대부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할 것이고, 사대부와 서인(庶人)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 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 만일 의(義)를 뒤로 하고 이익을 앞으로 하면 빼앗지 않고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 왕께서는 인의를 말씀하셔야 할 따름이니 하필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맹자》〈양혜왕상〉

1~3 차시

19 노자와 한비자

학습 목표

-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단원 소개

노자(老子)는 일체의 인위를 거부하는 '무위(無爲)'와 시비(是非)가 양행(兩行)하는 상대주의를 강조했다. 반면 한비자(韓非子)는 법치가 꿈꾸는 궁극의 이상을 노자가 주장하는 '무위'와 '허정(虛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사물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음)'의 상태로 예를 들며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통제할 강력한 '법치(法治)'를 주장하여 전국 시대 전제적 지배를 지향하는 군주 통치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 단원에서는 자연에 순응하여 무욕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노자의 주장과 인간 본성의 악함을 극복하기 위해 '덕(德)'이 아닌 '법(法)', '술(術)', '세(勢)'를 강조한 한비자의 사상이 오늘날 어떤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노자의 '무위(無爲)', 한비자의 '법(法)' 사상의 핵심 내용을 본문을 풀이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전국 시대의 상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어 법가 사상이 나타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문장 성분의 생략은 앞 뒤 문장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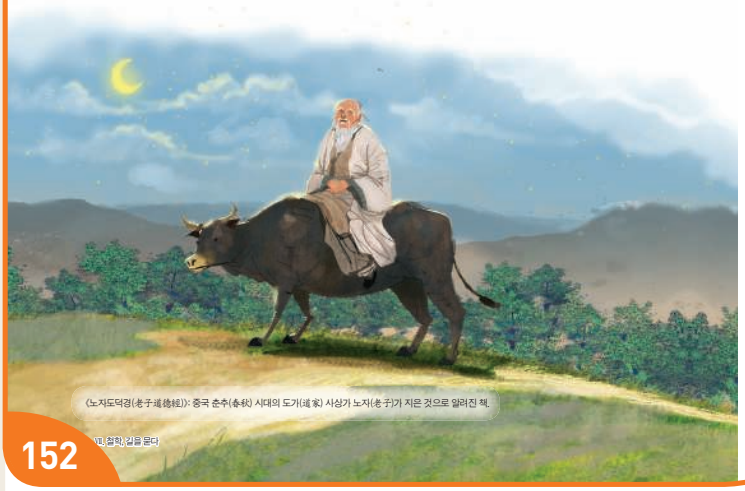
③ 글을 바르게 풀이하여 노자와 한비자의 사상적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사상적 특징을 현대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평가한다.
※ 도가가 왜 유학과 더불어 동양 사상의 양대 학파가 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유학과 노장을 비교해 설명할 수 있다.

19 노자와 한비자

동양의 사상가들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다스린다'는 뜻의 '정(政)'은 본래 '바로잡는다'는 의미이다.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치란 무엇인지 노자와 한비자의 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자.

天長地久라. 天地가 所以能長且久者는
以其不自生이니 故能長生이라.

爲無爲는 則無不治라. 《노자도덕경》



《노자도덕경(老子道德經)》: 중국 춘추(春秋) 시대의 도가(道家) 사상가 노자(老子)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책.

노자의 풀이와 이해

天長地久. 天地, 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

천지는 장구(영원)하다. 천지가 길고 오래갈(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오래갈 수 있다.

* 天長地久(천장지구) = 天地長久(천지장구): 천지는 영원함.
※ 호문(互文: 앞뒤의 문구에서 각기 교차 생략하고, 상호 보충하는 수사 방식)으로 표현된 문장이다.

爲無爲, 則無不治.

무위를 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

* 無爲(무위): 자연에 따라 행하고 인위를 가하지 않는 것. ※ 무위는 인위(人爲) 또는 작위(作爲)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노자는 인간의 지식이나 욕심이 오히려 세상을 혼란시킨다고 여기고 자연 그대로를 최고의 경지로 보았다.
* 無不(무불): ~하지 않음이 없다, ~이/가 아닌 것이 없다(이중 부정)

-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國은 無常強이요 無常弱이니

奉法者強이면 則國強하고 奉法者弱이면 則國弱이라.

夫嚴刑重罰者는 民之所惡也나 而國之所以治也라.

《한비자》

新 罰 벌 벌하다

《한비자(韓非子)》: 중국 전국(戰國) 시대의 법가(法家) 사상가 한비(韓非)가 지은 책.

153

이해 노자는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자연(自然, 스스로 그러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면서도 스스로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곧 천지(天地)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 영존(永存)하는 것처럼 백성의 자연스러운 삶을 간섭하는 모든 인위를 없애면 나라가 다스려진다고 하며 무위의 다스림을 주장하였다.

노자와 《도덕경》

《사기》에 따르면, 노자(老子)는 춘추 시대 초(楚)나라 고현(苦縣) 여향(厲鄕) 곡인리(曲仁里) 사람으로, 성은 이씨(李氏)이며 이름은 이(耳), 자는 담(聃)이다. 주(周)나라 도서관의 관리를 지냈는데, 주나라가 쇠퇴하자 이를 한탄하며 서쪽의 함곡관을 나간 이후 종적을 감추었다. 《도덕경》은 노자가 함곡관을 나갈 때 함곡관 문지기의 부탁으로 지어 준 책이라 한다. 약 5,000자, 81장으로 되어 있으며, 상편 37장을 〈도경(道經)〉, 하편 44장을 〈덕경(德經)〉이라고 한다.

한비자의 풀이와 이해

國無常強, 無常弱, 奉法者強, 則國強,
奉法者弱, 則國弱.

나라가 항상 강한 것이 없고 항상 약한 것이 없으니,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

夫嚴刑重罰者, 民之所惡也,
而國之所以治也.

대개 엄중한 형벌은 백성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나라가 다스려지는 까닭이다.

* 嚴刑重罰(엄형중벌) = 嚴重刑罰(엄중형벌): 엄중한 형벌.

이해 한비자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므로, 인간의 욕망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비와 《한비자》

한비(韓非, B.C. 280?~B.C. 233)는 전국 시대 말 한(韓)나라 왕족 출신으로, 젊어서 이사(李斯)와 함께 순자(荀子)에게 배우고 노장(老壯)의 무위자연을 받아들여 법가(法家) 사상을 집대성하였다. 한비자는 한나라가 갈수록 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 권력을 가지고도 신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며 국가를 강성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유가의 학설에 반대하면서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는 성문화된 법의 엄격한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비자는 강력하고 절대적인 왕권이 있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하였다. '법(法: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는 구체적인 법)', '술(術: 군주가 신하를 다루는 기술)', '세(勢: 군주만이 가진 세력으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군주의 절대 힘)'를 주장하며 군주가 신하를 통제하는 두 가지 핵심 수단〔이병(二柄)〕으로 상과 벌을 강조했다. 《사기》에 따르면, 기원전 234년 진왕 정(진시황)이 한비자의 저술인 〈고분(孤憤)〉과 〈오두(五蠹)〉를 읽고 감탄하여 한비자를 얻기 위해 한을 공격하였다. 한비자는 진왕의 요구대로 진나라에 사신으로 왔지만, 그의 재능을 시기한 이사가 한비자를 참소하여 투옥시킨 뒤 계속 자결하도록 종용하였고, 한비자는 결국 스스로 독약을 먹고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한문 개념 _문장 성분의 생략

한문은 문장 안에서 번잡하거나 중복을 피하고 표현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문장 성분의 생략은 앞뒤 문장을 살펴보아 생략된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❶ 주어의 생략

- 國無常強, (國)無常弱.
  나라가 항상 강한 것이 없고, (나라가) 항상 약한 것이 없다.
  → 앞에 주어〔國〕가 있기 때문에 뒤 문장에서는 주어〔國〕를 생략하였음.
- 天下有道則見, (天下)無道則隱.
  천하에 도가 있으면 드러내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숨는다.

❷ 목적어의 생략

- 人皆有兄弟, 我獨亡(兄弟).
  사람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형제가) 없구나.

성어의 유래

- **모순**(矛盾): 창과 방패.
  →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
  유래 초(楚)나라에 방패와 창을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방패를 자랑하며 "내 방패의 견고함은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 없다."라고 하였다. 또, 그 창을 자랑하며 "내 창의 날카로움은 뚫지 못하는 물건이 없다."라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그대의 창으로 그대의 방패를 뚫으면 어떠한가?" 하니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한비자》〈세난〉

- **역린**(逆鱗): 용의 목 밑에 거꾸로 자란 비늘.
  → 임금의 노여움.
  유래 무릇 용이라는 동물은 길들이면 탈 수 있지만 목 밑에 한 자쯤 되는 역린이 있으니 만약 사람이 역린을 건드리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인다. 군주에게도 역린이 있어 유세하는 자가 군주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면 도(道)에 가까울 것이다.(夫龍之爲虫也 柔可狎而騎也 然其喉下有逆鱗徑尺 若人有嬰之者 則必殺人 人主亦有逆鱗 說者能無嬰人主之逆鱗 則幾矣)
  -《한비자》〈세난〉

신출 한자

罰	(벌) 벌하다 罒, 14	罰點 罰則
券	(권) 문서 刀, 8	證券 福券
制	(제) 짓다, 억제하다 刀, 8	制裁● 制度
企	(기) 꾀하다 人, 6	企劃 企業
監	(감) 보다 皿, 14	監督 監察
總	(총) 합하다, 거느리다 糸, 17	總理 總選
違	(위) 어기다 辶, 13	違反 違背
項	(항) 목, 항목 頁, 12	項目 條項
犯	(범) 범하다 犬, 5	犯法 犯罪
牽	(견) 끌다 牛, 11	牽引 牽制
策	(책) 꾀 竹, 12	策略 計策
審	(심) 살피다 宀, 15	審査 審判
瞬	(순) 눈 깜짝하다 目, 17	一瞬 瞬間
刊	(간) 새기다 刀, 5	刊行 發刊
債	(채) 빚 人, 13	債務 負債
抑	(억) 누르다 手, 7	抑制 抑壓
副	(부) 버금 刀, 11	副次 副業
督	(독) 살피다 目, 13	總督 督促
衡	(형) 저울대 行, 16	均衡 衡平
憲	(헌) 법 心, 16	違憲 憲法
規	(규) 법 見, 11	規則 規制
懲	(징) 징계하다 心, 19	懲戒 懲罰
附	(부) 붙다 阜, 8	附與 附近
麻	(마) 삼 麻, 11	麻衣● 麻袋
裁	(재) 옷 마르다, 결정하다 衣, 12	裁斷 裁判
巷	(항) 거리 己, 9	委巷● 巷間
創	(창) 비롯하다 刀, 12	創造 創立
刷	(쇄) 인쇄하다 刀, 8	印刷 刷新
劃	(획) 긋다 刀, 14	計劃 區劃
辨	(변) 분별하다 辛, 16	辨別 辨明
獄	(옥) 감옥 犬, 14	監獄 脫獄
級	(급) 등급 糸, 10	等級 高級
遵	(준) 좇다 辶, 16	遵守 遵法
範	(범) 법, 모범 竹, 15	模範 範例●
符	(부) 부호 竹, 11	符號 符合
束	(속) 묶다 木, 7	結束 束縛
批	(비) 비평하다 手, 7	批評 批判
隔	(격) 사이 뜨다 阜, 13	懸隔 間隔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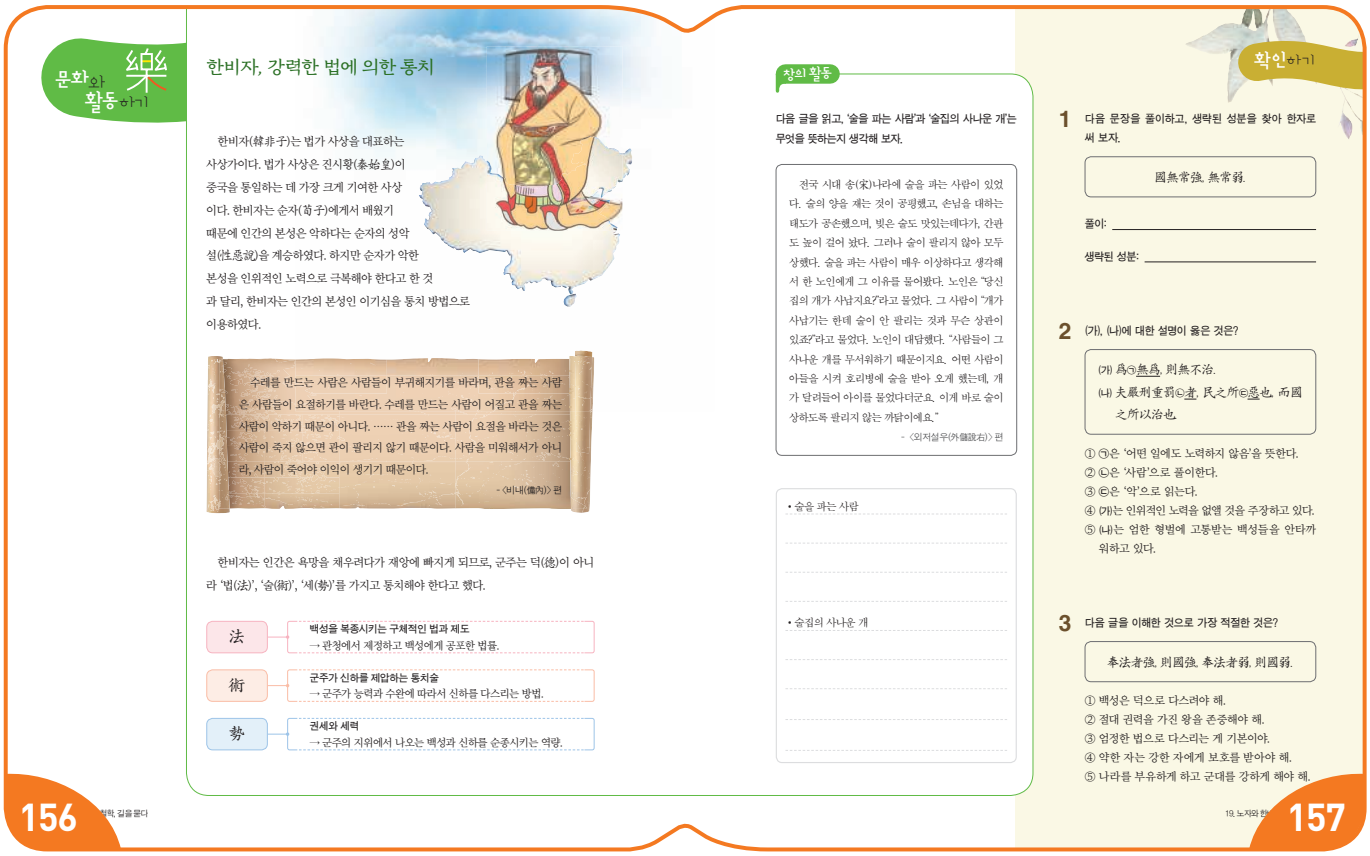
- 제재(制裁): 「1」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함. 「2」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함.
- 범례(範例): 예시하여 모범으로 삼는 것.
  ※ 범례(凡例): 일러두기.
- 마의(麻衣): 삼베옷.
  ※ 마의 태자(麻衣太子, ?~?)는 신라 경순왕 때 태자로, 경순왕 9년(935)에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자 이에 반대하여 금강산으로 들어가 마의(麻衣)를 입고 풀뿌리와 나무껍질을 먹으면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 위항(委巷): 좁고 지저분한 거리.

성어의 유래 _남취

- 남취(濫吹): 피리를 함부로 붊. → 무능한 사람이 재능이 있는 체하는 것이나 또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떤 지위에 붙어 있는 것을 이름. ≒ 남우(濫竽).

유래 제(齊)나라 선왕은 우(竽: 피리와 같은 관악기)를 연주하게 하였는데 반드시 삼백 명이 부르게 하였다. 남곽(南郭)이 선왕을 위해 연주하겠다고 청했다. 선왕이 기뻐하며 수백 명에게 줄 늠식(廩食: 나라에서 주는 쌀)을 주었다. 선왕이 죽고 민왕이 즉위했는데, 한 사람씩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자 남곽이 달아났다.

-《한비자》〈내저설상〉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한비자의 법, 술, 세를 이해한 후, 고금을 막론하고 군주가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고 싶어도 쉽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이다. '구맹주산' 이야기는 오늘날 대통령이나 최고 경영자 주변에 사나운 개와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그들의 눈과 귀가 가려지고, 좋은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사회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구맹주산(狗猛酒酸)은 개가 사나우면 술이 시어진다는 뜻으로, 나라에 간신배가 있으면 어진 신하가 모이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한비자는 신하가 상이나 칭찬을 해 줘도 노력하지 않고 벌을 주고 비난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제거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군주의 통치 방법이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술집의 사나운 개'가 있어서 술을 팔 수 없는 것에 비유했다.

예시 답안

- **술을 파는 사람**: 군주.
- **술집의 사나운 개**: 군주 주위에서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며 권세를 부리는 신하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을 파악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 풀이: 나라가 항상 강한 것이 없고, 항상 약한 것이 없다.
• 생략된 성분: 國〔주어〕

[해설] 앞뒤 문장을 살펴보아 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 일부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다. 앞에 주어인 '國(국)'이 있기 때문에 뒤 문장에서는 주어인 '國'을 생략하였다.

❷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한자의 쓰임을 아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 無爲(무위): 인위적인 억지와 노력으로 하지 않는 것.
㉡ 者(자): ~것 ㉢ 惡(오): 싫어하다

❸ 글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한비자는 엄중한 형벌과 강력한 법이 나라를 강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天長地久

천지는 장구(영원)하다. 천지가 길고 오래갈(영원할) 수 있는 까닭은 자기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오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은 몸을 뒤로 하나 앞에 오게 되고 몸을 (밖으로) 내던지나 몸을 보존한다.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므로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다.(天長地久 天地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 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 外其身而身存 非以其無私邪 故能成其私)

-《노자》〈제7장〉

爲無爲 則無不治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하지 않게 되며, 욕심낼 만한 것을 보여 주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백성들의 마음은 비우고, 배는 채워 주며, 백성들의 뜻은 약하게 하고 뼈는 튼튼하게 해 준다. 모름지기 백성들은 아는 것도 욕심도 없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백성들을 감히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무위를 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不尙賢 使民不爭 不貴難得之貨 使民不爲盜 不見可欲 使民心不亂 是以聖人之治 虛其心 實其腹 弱其志 強其骨 常使民無知無欲 使夫智者不敢爲也 爲無爲 則無不治)

-《노자》〈제3장〉

國無常強 無常弱

나라가 항상 강한 것이 없고 항상 약한 것이 없으니, 법을 받드는 것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지고, 법을 받드는 것이 약하면 나라가 약해진다. … 그런 까닭에 형장왕(초장왕)과 제환공이 있어 초나라와 제나라의 패권을 쥘 수 있었고, 연양왕과 안리왕이 있어 연나라와 위나라가 강할 수 있었다. 지금 이들 국가가 모두 쇠퇴한 것은 대신과 관리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쇠퇴했다 하여 모두가 국법을 버리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서 국가를 더 기울게 한다.(國無常強 無常弱 奉法者強則國強 奉法者弱則國弱 … 故有荊莊 齊桓則荊 齊可以霸 有燕襄 魏安釐則燕 魏可以強 今皆亡國者 其群臣官吏皆務所以亂 而不務所以治也 其國亂弱矣 又皆釋國法而私其外 則是負薪而救火也 亂弱甚矣)

-《한비자》〈유도(有度)〉

夫嚴刑重罰者 民之所惡也 而國之所以治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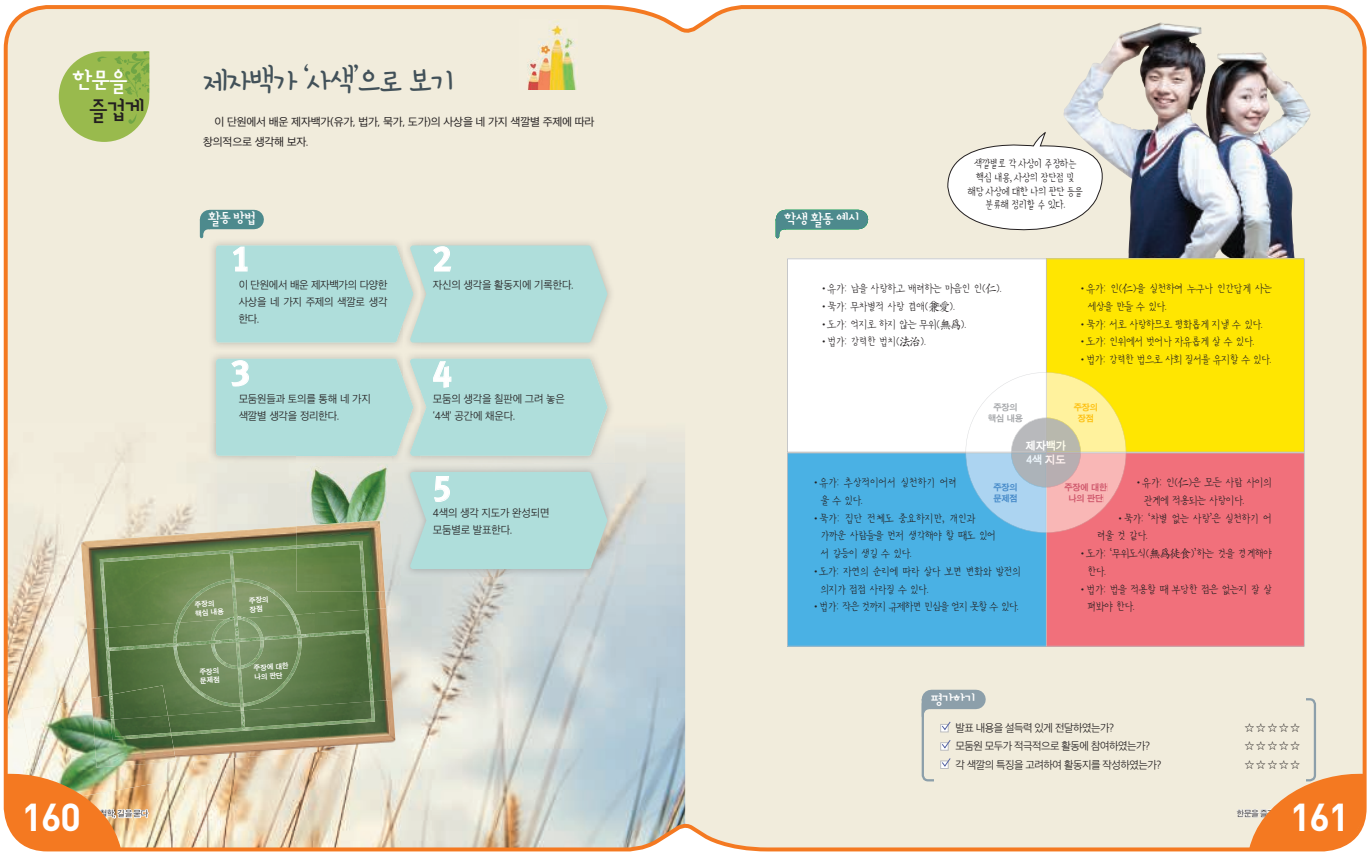
(그러므로) 그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밝은 법을 옳게 하고 엄형을 펼치어 장차 백성을 혼란에서 구하고 천하에 재앙을 없애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능멸치 못하게 하고 다수가 소수에게 폭거하지 못하게 하며 노인의 수명을 누리게 하고 유아나 고아가 자라게 하고 변경에 외세의 침입이 없게 하고, 군신이 서로 친애하게 하고 부자가 서로 보호해 주며 전쟁으로 죽거나 노비로 끌려가는 걱정을 없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로의 지극한 두터움이다. 어리석은 자는 알지도 못하고 도리어 폭정이라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자는 본디 다스리는 것을 원하면서도 다스려지는 방법을 싫어하고 모두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위태로워지는 방법을 기뻐한다. 무엇으로 이를 알 수 있는가? 대개 엄중한 형벌은 백성이 싫어하는 것이지만 나라가 다스려지는 까닭이다. 백성을 아끼고 어여삐 여겨 형벌을 가벼이 하는 것은 백성이 기뻐하는 것이지만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까닭이다.(愚人不知 顧以爲暴 愚者固欲治而惡其所以治 皆惡危而喜其所以危者 何以知之 夫嚴刑重罰者 民之所惡也 而國之所以治也 哀憐百姓輕刑罰者 民之所喜 而國之所以危也)

-《한비자》〈간겁시신(姦劫弑臣)〉

법과 술, 무엇이 중요할까

질문하는 자가 말했다. "신불해와 공손앙(상앙)의 말 중 어느 것이 나라에 급합니까?" (한비자가) 대답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열흘을 굶으면 죽게 되고, 큰 추위에 옷을 입지 않아도 죽습니다. 옷과 음식 중 어느 것이 더 급하냐고 한다면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생명을 유지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신불해는 술(術)을 말하고, 공손앙은 법(法)을 시행했습니다. … 군주에게 술이 없으면 위에서는 그 눈이 가려지고, 신하에게 법이 없으면 아래가 문란해집니다. 술과 법은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모두 제왕의 도구입니다."(人不食十日則死 大寒之隆 不衣亦死 謂之衣食孰急於人 則是不可一無也 皆養生之具也 今申不害言術 而公孫鞅爲法 … 君無術則弊於上 臣無法則亂於下 此不可一無 皆帝王之具也)

-《한비자》〈정법(定法)〉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춘추 전국 시대는 약육강식의 혼란기였다. 제후들은 서로 앞다투어 군사력과 국력을 키우는 데 힘을 쏟으며 패업을 이루기 위해 신분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고 학문을 장려했다. 학자들은 새로운 사회가 건설되기를 바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쳤고,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것이 제자백가 사상이다.

» 제자백가 사상을 4가지 색깔별 주제로 생각해 보는 활동을 통해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력를 기를 수 있다.
❶ 하얀색: 각 사상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 찾기
❷ 파란색: 각 사상의 주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생각하기
❸ 노란색: 각 사상의 장점 생각하기
❹ 빨간색: 각 사상에 대한 나의 판단 적기

※ 에드워드 드 보노(Edward de Bono)의 '여섯 색깔 모자 사고 기법'에서 하얀색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데이터, 빨간색은 직관과 감정, 검은색은 우울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논리의 부정, 노란색은 밝고 긍정적인 사고, 초록색은 녹색의 싱그러운 이미지에서 창의성과 새로운 아이디어, 파란색은 냉정한 이미지에서 사고 과정에 대한 통제를 나타낸다.

참고 자료 _제자백가

제자백가(諸子百家)는 중국 전국 시대(B.C. 403~B.C. 221)에 활약한 학자와 학파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제자(諸子)'란 여러 선생이란 뜻이고 '백가(百家)'란 수많은 유파를 뜻한다. 《한서》 〈예문지(藝文志)〉에서는 옛 서적을 유가(儒家), 도가(道家), 음양가(陰陽家), 법가(法家), 명가(名家: 논리학파), 묵가(墨家), 종횡가(縱橫家: 외교술파), 잡가(雜家), 농가(農家) 등 9류로 분류했는데, 여기에 소설가(小說家)를 더한 것이 제자백가이다. 《사고전서》에서는 육경(六經) 이외에 자기 학설을 세운 저술가의 서적을 자부(子部)에 넣고 그것을 모두 14부로 나누었는데, 이것이 대개 제자백가의 범주를 망라한다고 할 수 있다. 제자백가 가운데 공자의 유가(儒家)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인(仁)의 가르침을 수립하였고, 다음으로 묵적(墨翟)이 겸애(兼愛)를 주장하여 묵가를 일으켰으며, 다시 노자, 장자 등의 도가와 기타 학파가 나와 제자백가의 시대를 열었다. 이 가운데 유(儒), 묵(墨) 2가는 계보를 이루었으나 나머지는 자유사상가라 할 수 있다.

» 백가쟁명(百家爭鳴)은 많은 학자나 문화인 등이 자기의 학설이나 주장을 자유롭게 발표하여, 논쟁하고 토론하는 일을 말한다.

Ⅶ 단원 총괄 평가

정답 223쪽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 有朋自遠方來, 不亦(㉠)乎?
> 人不知而不慍, 不亦(㉡)乎?"

01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① 喜 ② 悲 ③ 哀
④ 怒 ⑤ 恐

02 ㉠, ㉡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옳은 것은?

	㉠	㉡		㉠	㉡
①	仁	孔子	②	禮	孔子
③	仁	君子	④	樂	孔子
⑤	樂	君子			

[03~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天下兼相愛則治, 相㉠惡則亂.
> (나) 王, 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03 ㉠과 음이 같은 것은?

① 惡役 ② 邪惡 ③ 凶惡
④ 憎惡 ⑤ 惡黨

04 (가)와 (나)를 주장한 사상가로 모두 옳은 것은?

	㉠	㉡		㉠	㉡
①	공자	묵자	②	묵자	맹자
③	노자	묵자	④	맹자	한비자
⑤	한비자	노자			

[05~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爲無爲, □無不治.
> (나) 國無常強, 無常弱, 奉法者強, □國強,
> 奉法者弱, □國弱.

05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것은?

① 以 ② 所 ③ 則
④ 於 ⑤ 矣

06 (가)를 주장한 사상가와 가장 관계있는 것은?

① 信賞必罰 ② 束手無策 ③ 名實相符
④ 孔門十哲 ⑤ 天長地久

07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의 풀이로 옳은 것은?

> 夫嚴刑重罰者, 民之所惡也, 而國之所以治也.

① 나라는 다스려야 한다.
② 나라가 다스리는 것이다.
③ 나라가 다스리는 것이 옳다.
④ 나라가 다스려지는 까닭이다.
⑤ 나라는 다스려질 수밖에 없다.

08 서술형 | 〈보기〉의 ㉠,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보기

> 문장 성분의 도치
> 부정문에서 대명사가 (㉠)(으)로 쓰이는 경우 그 대명사가 (㉡) 앞에 온다.
> 예 知 + 己 → 不 + 己 + 知

VII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20 천리마와 백락
21 고구려의 시조
22 초패왕의 최후
23 목민의 길

명문(名文)이란, 인간의 보편적 사고와 정서를 뛰어난 통찰과 정제된 표현으로 제시하여 수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글이다.
이 단원에서는 다양한 서술 방식으로 표현된 명문을 만나게 된다. 글을 읽으며 선인들의 역사와 인생에 대한 깊은 사색을 살펴보면서 글 속의 울림에 귀를 기울이고 감상해 보자.

대단원 학습 목표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고, 현재적 의미에 비추어 가치가 있는 것을 내면화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문화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대단원 설정의 이유

수천 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인 고전어(古典語)로 사용된 한문에는 다양한 사상과 감정이 담겨 있다. 그 가운데 시대를 넘어서 공감을 줄 수 있는 사유와 정서를 아름다운 문장으로 담아낸 글은 지금까지 살아서 수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있다. 이 단원에서는 명문(名文)으로 손꼽히는 네 편의 글을 함께 읽는다. 중국을 대표하는 한유(韓愈)의 산문 한 편,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를 담은 역사 기록들,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 나라에서 역사 서술의 모범이 되어 온 《사기(史記)》의 일부, 그리고 조선 후기 학자 정약용이 저술한 《목민심서(牧民心書)》의 서문을 배우게 된다. 고등학교 한문 I 의 마지막 단원으로 단문이나 일화를 넘어서서 비교적 긴 분량의 작품을 읽고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이해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❶ 글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서술 방식을 사용하는 한문 산문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❷ 한문 산문이 지닌 아름다움은 단순히 문장의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진정성과 박진감, 논리력과 설득력 등에 걸쳐 있음을 작품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❸ 작품의 배경과 전체 구성 등을 설명하되,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는 선으로 제한하고 본문으로 제시된 부분에 집중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❹ 평가는 지필 평가, 논술 등 다양한 방법의 평가를 실시하고, 지필 평가의 결과, 토의 및 토론의 참여도와 결과물 등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다양한 산출물 및 참여 태도를 종합하여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단원 구성과 지도 계획

소단원	차시	교과서 쪽수	학습 내용	교수·학습 방법
20. 천리마와 백락	3	164~169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하기 • 한자 문화권을 이해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 토 달아 읽기 • 토의·토론을 통한 한자 문화권 이해하기
21. 고구려의 시조	3	170~175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기	• 나만의 학습 노트 만들기 • 영상 매체를 통한 핵심 내용 파악하기
22. 초패왕의 최후	3	176~181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 한자 문화권을 이해하려는 태도 형성하기	• 한문 산문 서술 방식 비교·분석하기 • 비평하기
23. 목민의 길	3	182~187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기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 설명하기 •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 의미망 만들기 • 토의·토론을 통한 전통문화 이해하기
대단원 마무리와 활동	1	188~191	• 주요 학습 내용 정리하며 복습하기 • 실력 확인하기 문제로 점검하기 • 한문 고전 속 인물을 조사하여 가상 인터뷰해 보기	• 조사하기 • 가상 인터뷰하기

1~3 차시

20 천리마와 백락

학습 목표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단원 소개

이 단원에서는 중국 당나라 때 문인 한유(韓愈)의 〈잡설(雜說)〉을 다룬다. 〈잡설〉은 한자 문화권에서 널리 읽힌 한문 산문의 명편이다. 천리마와 백락의 비유를 들어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의 중요성에 대해 의론적 서술 방식으로 표현하였는데, 이 작품이 지금까지도 널리 읽히는 이유는 인재를 알아보는 것이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절실한 문제로 공감되고 있기 때문이다.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작품에 담긴 작가의 사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것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가를 살피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지도할 수 있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문법적인 설명에 치우치지 않되, 글자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가 어떻게 풀이되는지를 세분하여 설명해 줌으로써 한문을 바르게 풀이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② 비교적 긴 문장에 토를 붙여서 소리 내어 읽는다. 처음에는 잘 따라오지 못하더라도 풀이와 이해, 감상을 거친 뒤에 반복해서 여러 번 함께 읽음으로써 학생들이 한문 산문이 지니는 유장함과 낭독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③ 천리마와 백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 스스로 이야기해 보게 하고, 인재 등용의 문제를 오늘의 현실과 연결하여 보다 주체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평가한다.

20 천리마와 백락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자신은 다른 사람의 재능을 알아보는 데 소홀한 경우가 많다. 내 주변에는 과연 인재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인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인재를 알아보는 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世有伯樂❶이라야 然後有千里馬하니

千里馬는 常有로되 而伯樂은 不常有라.

故로 雖有名馬나 祇辱於奴隸人之手하며

駢死於槽櫪之間하여 不以千里稱也니라.

❶ 伯樂 백락: 중국 춘추 시대에 말을 잘 알아본 사람.

본문의 풀이와 이해

世有伯樂, 然後有千里馬, 千里馬常有,
而伯樂不常有.

세상에 백락이 있어야 그런 뒤에 천리마가 있으니,
천리마는 항상 있으되 백락은 항상 있지 않다.

* 伯樂(백락): 주(周)나라 사람으로 본명은 손양(孫陽). 백락은 본래 전설에 나오는 천마(天馬)를 주관하는 별 이름인데 손양이 말을 워낙 잘 다루는 까닭에 그렇게 불린 것이라고 함.
* 千里馬(천리마): 하루에 천 리를 갈 수 있을 만큼 잘 달리는 준마.

故雖有名馬, 祇辱於奴隸人之手,
駢死於槽櫪之間, 不以千里稱也.

그러므로 비록 이름난 말이 있더라도 다만 노예의 손에 욕을 당하고 마구간에서 (보통 말과) 나란히 죽어 천리마로 불리지 못한다.

* 駢(변): 나란하다 → 수레에 말(馬) 두 필을 나란히(幷) 매는 데서 비롯함.

馬之千里者는 一食에 或盡粟一石이어늘 食馬者가
不知其能千里而食也하니 是馬가 雖有千里之能이나
食不飽하고 力不足하여 才美不外見이라.
且欲與常馬等이라도 不可得이니 安求其能千里也리오? 《창려집》

新
*秖 지 다만
粻 량 종
*駢 변 나란하다
*槽 조 말구유
*櫪 력 말구유
稱 칭 일컫다
粟 속 조

馬之千里者, 一食, 或盡粟一石,
食馬者, 不知其能千里而食也,

말 중에서 (하루에) 천 리를 가는 것은 한 번 먹을 때 곡식 한 섬을 다 먹기도 하는데 말을 먹이는 사람이 그것이 천 리를 갈 수 있음을 모르고 먹이니

* 之(지): ~중에서　* 或(혹): ~하기도 하다
* 粟(속): 조, 곡식　* 石(석): 용량의 단위로 열 말(약 180리터).

是馬, 雖有千里之能, 食不飽, 力不足,
才美不外見.

이 말이 비록 천 리를 가는 능력이 있더라도 먹는 것이 배부르지 못하고 힘이 부족하여 재주의 훌륭함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 美(미): 훌륭하다　* 見(현): 드러나다

且欲與常馬等, 不可得, 安求其能千里也?

장차 보통 말과 같아지려고 해도 그럴 수 없으니, 어찌 그것이 천 리 가기를 구하겠는가?

이해와 감상 능력을 알아보는 백락(伯樂)을 만나지 못한다면 천리마도 평범한 말과 다를 바 없다. 한유는 천리마와 백락의 이야기를 통해 능력에 따른 인재의 발굴과 등용이 중요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밝혔다.

뒷이야기

채찍질을 그 도리〔道〕에 어긋나게 하고, 먹이기를 그 재능을 다할수 없게 하며 울어도 그 우는 뜻을 알지 못하면서 채찍을 들고 말 옆에서 말하기를 "천하에 좋은 말이 없다."라고 한다. 아! 진실로 좋은 말이 없는 것인가. 진실로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策之不以其道 食之不能盡其材 鳴之不能通其意 策而臨之曰 天下無良馬 嗚呼 其眞無馬耶 其眞不識馬耶) -《창려집》

작가

• 한유(韓愈, 768~824): 등주(鄧州) 남양(南陽, 현 허난성) 사람인데, 자는 퇴지(退之)이며, 시호는 문공(文公)이다. 3세 때 부친을 여의고 14세 때 형을 잃은 후, 형수 정씨의 손에서 자랐다. 정원 2년(786)에 과거에 응시했으나, 세 번이나 낙방하고 31세의 나이로 진사과에 합격했다. 36세 때 감찰어사가 되어 경조윤(京兆尹, 수도를 지키고 다스리던 관직) 이실(李實)의 폭정을 공격하였다가 연주(連州, 현 광둥성) 양산현(陽山縣)의 현령으로 좌천되었다. 원화 13년(818) 봉상(鳳翔, 현 산시성) 법문사(法門寺)의 불사리를 장안의 궁중으로 들여 공양하고자 하자, 이에 반대하여 〈논불골표(論佛骨表)〉를 올려 극간하였다가 황제의 역린에 거슬려 조주(潮州, 현 광둥성)의 자사로 좌천되었다. 헌종이 죽고 목종(穆宗)이 즉위하자 다시 중앙으로 소환되어 국자좨주(國子祭酒, 대학 학장)에 임명되었다. 장경 4년(824년) 질병으로 휴직하였으며, 그해 5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한유는 고문 부흥 운동을 일으켜 후세에 당송 팔대가(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시에서도 주지주의적 작품을 남겨 명성이 높은데다가 불교가 성행하던 시대에 유교를 부흥시킨 공로가 있어 그의 시문은 널리 읽혔다.

-《동양고전해제사전》 참조

한문 개념 _문체

한문의 문체(文體)는 언어의 형식적 특징에 따라 크게 산문(散文), 운문(韻文), 변문(駢文)으로 나눌 수 있다. 산문은 자수(字數)나 운율(韻律) 등의 외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문체로, 글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크게 설리문(說理文), 사전문(史傳文), 잡기문(雜記文), 실용문(實用文)으로 나눌 수 있다.

❶ 설리문(說理文): 사리(事理)를 밝히거나 시비(是非)를 가리는 문체로, 논(論), 변(辨), 설(說) 등이 대표적임.

❷ 사전문(史傳文):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는 문체.
- 편년체(編年體): 시간 순서에 따라 사건 서술.
- 기전체(紀傳體):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 서술.
- 기사 본말체(紀事本末體):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 서술.

❸ 잡기문(雜記文): 사실이나 사물을 기술하는 문체로, 기문(記文), 기사(記事), 필기(筆記) 등이 있음.

❹ 실용문(實用文): 전근대 사회의 전장(典章) 제도 및 일상생활의 필요에 부응하여 만들어져, 실용적 목적이 직접 나타나는 문체로 종류가 매우 다양함.

논변류와 설(說)

논변류(論辨類)는 사리를 분석하고 시비를 판명하는 문장이므로, 일반적으로 의론을 위주로 한다. 의론의 방식과 중점 배치에 근거하여 논(論), 변(辨), 원(原), 해(解), 설(說)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논**(論): 논증하고 의론하는 문체. 정면 논술의 문장이다. 유협은 《문심조룡》에서 "성인의 불변의 교훈을 경이라고 하고, 경을 조술하여 철학적 이치를 해명하는 것이 논이다."고 하며 논의 특징을 "뭇 언어를 다스려 하나의 이치만을 정밀하게 궁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변**(辨): 시비를 가리고 진위(眞僞)를 밝히는 문체.
- **원**(原): 사리의 본원(本原)을 추론하는 문체.
- **해**(解): 의문을 풀어 주는 문체.
- **설**(說): 설명하고 해석하는 문체. 《문체명변》에서 "설(說)은 해(解)이고, 술(述)이다. 의리를 해석하여 자기 뜻을 서술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설은 '논(論)'에 비해서 직언보다 우의를 사용하는 점이 많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 〈잡설〉은 말을 제재로 삼아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폈다.

-《한문 문체론》 참조

신출 한자

*秖	(지) 다만 禾, 10	-
*槽	(조) 말구유 木, 15	水槽 浴槽
粟	(속) 조 米, 12	滄海一粟
替	(체) 바꾸다 曰, 12	交替 代替
稿	(고) 원고 禾, 15	原稿 草稿
旱	(한) 가물다 日, 7	大旱 旱魃
傑	(걸) 뛰어나다 人, 12	豪傑 傑作
勵	(려) 힘쓰다 力, 17	督勵 激勵
珍	(진) 보배 玉, 9	珍珠 珍味
飾	(식) 꾸미다 食, 14	裝飾 修飾
響	(향) 울리다 音, 22	音響 影響
屢	(루) 여러 尸, 14	屢次 屢屢
悠	(유) 멀다 心, 11	悠久 悠長
豫	(예) 미리 豕, 16	豫定 豫想
隷	(례) 종 隶, 16	奴隷 隷僕
*櫪	(력) 말구유 木, 20	槽櫪
秒	(초) 초 禾, 9	分秒 秒速
稀	(희) 드물다 禾, 12	稀貴 稀代
寄	(기) 부치다 宀, 11	寄與 寄贈
穫	(확) 거두다 禾, 19	收穫 秋穫
顯	(현) 나타나다 頁, 23	顯考● 顯達
鳳	(봉) 봉황 鳥, 14	鳳凰 鳳雛
珠	(주) 구슬 玉, 10	珠玉 珠算
踏	(답) 밟다 足, 15	踏襲 踏步
循	(순) 좇다, 돌다 彳, 12	因循● 循守
耶	(야) 어조사 耳, 9	有耶無耶
奔	(분) 달리다 大, 9	奔走 奔忙
暫	(잠) 잠깐 日, 15	暫時 暫定
*駢	(변) 나란하다 馬, 18	駢儷文●
稱	(칭) 일컫다 禾, 14	名稱 稱號
租	(조) 조세 禾, 10	租稅 十一租
播	(파) 뿌리다 手, 15	傳播 播種
稻	(도) 벼 禾, 15	山稻
俊	(준) 뛰어나다 人, 9	俊傑 俊秀
奬	(장) 장려하다 大, 14	奬學 奬勵
*凰	(황) 봉황 几, 11	鳳凰
裝	(장) 꾸미다 衣, 13	裝置 包裝
影	(영) 그림자 彡, 15	影印 幻影
頻	(빈) 자주 頁, 16	頻度 頻繁
頃	(경) 잠깐 頁, 11	頃刻 食頃
肯	(긍) 즐기다 肉, 8	肯定 首肯
測	(측) 헤아리다 水, 12	測定 觀測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변려문(駢儷文): 중국의 육조와 당나라 때 성행한 한문 문체. 문장 전편이 대구로 구성되어 읽는 이에게 아름다운 느낌을 주며, 4자로 된 구와 6자로 된 구를 배열하기 때문에 사륙문(四六文)이라고도 한다. ≒ 변문, 사륙.
- 현고(顯考): 「1」 예전에, 고조부를 높여 이르던 말. 「2」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주나 축문 첫머리에 쓰는 말.
- 인순(因循): 「1」 내키지 않아 머뭇거림. 「2」 낡은 인습을 버리지 않고 지킴.

성어 _간담상조

- 간담상조(肝膽相照):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춤.
  →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친하게 사귐.

  유래 중국 당(唐)나라의 한유(韓愈)가 친구 유종원(柳宗元)의 묘지명에서 유종원과 유우석(劉禹錫)의 우정을 기리면서 "손을 맞잡고 폐와 간을 꺼내 서로 보여 주며 하늘의 해를 가리켜 눈물을 흘리며 생사를 걸고 서로 배반하지 않는다고 맹세하니(握手出肺肝相示 指天日涕泣誓生死不相背負) 정녕 믿을 만하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세종과 정조의 인재 등용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고 발표함으로써 창의적인 생각과 설득력 있는 표현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 개인의 생각을 존중함으로써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내되 근거를 명료하게 제시하게 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예시 답안

❶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면서 서로를 배려한다면 이 사회가 살기 좋아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❷ 특정한 분야에 남달리 푹 빠져서 남이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있는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문장 속 한자의 쓰임을 아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食馬者(사마자): 말을 먹이는 사람. ※ '食'이 '먹이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라고 읽는다.

❷ 문장을 바르게 풀이하고 글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 풀이: 천리마는 항상 있으되 백락은 항상 있지 않다.
• 의미: 인재는 항상 있지만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은 드물다.

[해설] 而(이): 그러나

❸ 글을 읽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인재와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을 천리마와 백락의 비유를 통해 표현한 글이다.

참고 자료

천리마와 백락의 다른 이야기 (1)

진(秦)나라 목공(穆公)이 백락(伯樂)에게 말했다. "그대는 나이가 많소. 그대의 자손 중에 말을 고를 만한 사람이 있소?" 백락이 대답했다. "좋은 말〔良馬〕은 생김새와 근육과 뼈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 저의 자식들은 모두 재주가 없어 좋은 말〔良馬〕은 고를 수 있지만 천하의 명마는 고를 수 없습니다. 저에게 땔나무와 채소를 가져다 주는 구방고(九方皐)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을 감정하는 것이 저보다 아래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 보기를 청합니다." 목공이 그를 만나 그에게 말을 구해 오도록 하였다. 그가 석 달만에 돌아와서 보고하였다. "이미 찾아서 사구(沙丘)에 있습니다." 목공이 말했다. "어떤 말이오?" "암놈이며 누렇습니다." 사람을 시켜 가져오게 하니 수놈에 검은 말이었다. 목공이 기뻐하지 않고 백락을 불러서 말했다. "실패요. 그대가 시켜서 말을 구하러 보낸 자는 물건의 색깔과 암수조차 구별하지 못하니 어찌 말의 능력에 대해 알 수가 있겠소?" 백락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끝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천만 명의 신하가 있다 하나 손에 꼽을 만한 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구방고가 본 것은 하늘의 기미〔天機〕입니다. 그는 그 정수만을 파악하고 그 대강은 잊어버린 것이며 그 속을 살피고서 그 외모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보아야 할 것만을 보고 그가 보지 않아도 될 것은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살펴야 할 것만을 살피고 살피지 않아도 될 것은 빠뜨린 것입니다. 구방고가 말을 보았다는 것은 말의 귀한 것을 본 것입니다." 말이 이르렀으니 과연 천하의 명마였다.(秦穆公謂伯樂曰 子之年長矣 子姓有可使求馬者乎 伯樂對曰 良馬 可形容筋骨相也 … 臣之子皆下才也 可告以良馬 不可告以天下之馬也 臣有所與共擔纏薪菜者 有九方皐 此其於馬 非臣之下也 請見之 穆公見之 使行求馬 三月而反 報曰 已得之矣 在沙丘 穆公曰 何馬也 對曰 牝而黃 使人往取之 牡而驪 穆公不說 召伯樂而謂之曰 敗矣 子所使求馬者 色物 牝牡尙弗能知 又何馬之能知也 伯樂喟然太息曰 一至於此乎 是乃其所以千萬臣而無數者也 若皐之所觀 天機也 得其精而忘其麤 在其內而忘其外 見其所見 不見其所不見 視其所視 而遺其所不視 若皐之相馬 乃有貴乎馬者也 馬至 果天下之馬也)

-《열자》〈설부(說部)〉

천리마와 백락의 다른 이야기 (2)

말은 평평한 땅에서 살면서 풀을 뜯어 먹고 물을 마시며, 기쁘면 목을 대고 서로 비벼 대고, 성나면 등을 지고 서로 걷어찬다. 말이 아는 것(말의 지혜나 분별)은 고작 이 정도에서 그친다. 그런데 인간이 이 야생의 말을 잡아 와서 수레를 끌게 하려고 말에게 가로나무와 멍에를 달고 달 모양의 장식을 붙여 가지런히 정돈하게 되자 말이 끌채 끝을 부러뜨리고, 멍에를 망가뜨리고 멈추고 더디 걷고 재갈을 토해 내고 고삐를 물어뜯을 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말의 지혜로 도둑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납게 된 것은 백락(伯樂)의 죄이다.(夫馬 陸居則食草飮水 喜則交頸相靡 怒則分背相蹏 馬知已此矣 夫加之以衡扼 齊之以月題 而馬知介倪 闉扼 鷙曼詭銜 竊轡 故 馬之知而態至盜者 伯樂之罪也)

-《장자》〈마제(馬蹄)〉

정조의 인재론

- 말〔馬〕의 상(相)을 잘 보는 사람은 그 말이 영묘하고 잘 달리는지를 살펴보고 그 말의 털이 검은지 누런지는 살펴보지 않으며, 글을 잘 읽은 사람은 그 뜻을 법 삼고 그 말을 법 삼지 않으며, 선비를 잘 취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취하고 그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善相馬者 相其神駿 不相其驪黃 善讀書者 法其意 不法其詞 善取士者 取其心 不取其貌)
- 사람을 쓰는 데 도가 있으니 오직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눈앞에 좋지 않은 사람이 없고 천하에 버릴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用人有道 惟捨短而取長乎 如此則眼前無不好底人 天下無可棄底人)
- 인재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대체(大體)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 재능만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서 현자와 불초한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각각 그 쓰임에 맞게 하는 것이니, 통틀어 헤아려 보면 한 사람도 쓸 수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人才無古今 惟在在上者導率之如何耳 有取其大體者 有取其一能者 賢不肖智愚高下 使之各當其用 而摠而計之 未見其有一箇不可用底人)

-《일득록(日得錄)》

1~3 차시

21 고구려의 시조

학습 목표

- 글을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단원 소개

이 단원은 고구려 건국 신화 '주몽 이야기'를 다룬 사료를 다룬다. 주몽 이야기는 천제와 하백의 후손으로 알에서 태어난 주몽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고구려를 건국하는 신화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나라 고대 역사와 민족의식이 담겨 있다. 이 단원에서는 비범한 능력을 지녔다는 이유로 다른 왕자들에 시기를 받고 고초를 당하는 가운데에도 놀라운 괴력을 발휘한 일화와, 쫓겨 가는 도중에 물고기와 자라들에게 명령을 해서 위기를 넘기는 신이한 일화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고구려 역사와 주몽 신화에 대해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장면이다.

단순한 어구 풀이를 넘어서 서사적 서술 방식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아가 한문 기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대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역사나 국어 교과와 연계하여 다양한 학습 활동이 가능하고, 중국과의 역사 논쟁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 수업으로 지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고구려 건국 신화의 전체 흐름을 흥미롭게 설명하여 학습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② 등장인물과 사건을 설명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서술과 대화의 인용에 유의하여 풀이하여 서사적 서술 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인공이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이적을 행함으로써 역경을 벗어나는 장면을 통해서 학생들이 신화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주몽은 천제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딸 유화 사이에서 태어나 동부여 금와왕의 궁에서 자랐다. 금와왕의 다른 왕자들은 어려서부터 능력이 뛰어난 주몽을 시기했다. 주몽은 이러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고구려 건국의 대업을 이루게 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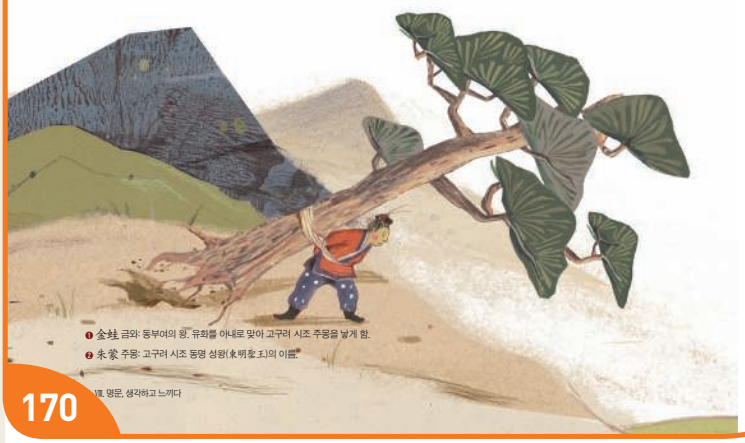
金蛙❶有子七人한대 常共朱蒙❷遊獵이러니

王子及從者四十餘人이 唯獲一鹿이어늘

朱蒙이 射鹿至多하니 王子妬之하다.

주몽을 질투한 왕자들이 주몽을 잡아 나무에 묶어 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자 주몽이 나무를 뿌리째 뽑아 등에 지고 돌아왔다.

〈동명왕편〉



❶ 金蛙 금와: 동부여의 왕. 유화를 아내로 맞이 고구려 시조 주몽을 낳게 함.
❷ 朱蒙 주몽: 고구려 시조 동명 성왕(東明聖王)의 이름.

동명왕편 부분의 풀이와 이해

金蛙有子七人, 常共朱蒙遊獵.

금와왕에게 아들이 일곱 명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다니며 사냥하였다.

* 金蛙(금와): 동부여의 왕.
* 遊獵(유렵): 놀러 다니면서 하는 사냥.

王子及從者四十餘人, 唯獲一鹿,
朱蒙射鹿至多, 王子妬之.

왕자들과 따르는 사람 사십여 명이
사슴 한 마리를 겨우 잡았는데,
주몽이 (활로) 쏘아 잡은 사슴은 매우 많았고
왕자들이 그것을 질투하였다.

* 及(급): ~와/과
* 唯(유): 오직, 겨우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내어 읽는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주몽이 오이❶등 세 사람과 벗이 되어 길을 가다가 엄수❷에 이르러서

告水曰: "我是天帝子요 河伯孫이라.

今日逃遁에 追者垂及하니 奈何오?"

於是에 魚鼈이 成橋하여 得渡하고 而橋解하여

追騎는 不得渡하다. 《삼국유사》

新
*蛙 와 개구리
蒙 몽 어리다
獵 렵 사냥하다
獲 획 얻다
*妬 투 샘내다
逃 도 달아나다
*遁 둔 숨다
垂 수 드리우다, 장차
奈 내 어찌
*鼈 별 자라
渡 도 건너다
騎 기 말 타다

❶ 오이(烏伊) : 고구려 초기의 장군. 주몽의 고구려 창건을 도움.
❷ 엄수(淹水) : 지금 중국의 소요수(小遼水) 혹은 송화강(松花江) 유역으로 추정되나 확실치 않음.

21. 고구려의 시조 171

〈동명왕편〉 부분 원문 읽기

금와왕에게 아들이 일곱 명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다니며 사냥하였다. 왕자들과 따르는 사람 사십여 명이 사슴 한 마리를 겨우 잡았는데, 주몽이 (활로) 쏘아 잡은 사슴은 매우 많았고, 왕자들이 그것을 질투하였다. (주몽을 질투한 왕자들이) 주몽을 잡아 나무에 묶어 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자 주몽이 나무를 뿌리째 뽑아 등에 지고 돌아왔다. 태자(太子) 대소(帶素)가 왕에게, "주몽은 신통하고 용맹한 장사여서 눈초리가 비상하니 만일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年至長大 才能竝備 金蛙有子七人 常共朱蒙遊獵 王子及從者四十餘人 唯獲一鹿 朱蒙射鹿至多 王子妬之 乃執朱蒙縛樹 奪鹿而去 朱蒙拔樹而去 太子帶素言於王曰 朱蒙者 神勇之士 瞻視非常 若不早圖 必有後患)

* 대소(帶素, ?~22): 동부여 금와왕(金蛙王)의 맏아들.

삼국유사 부분의 풀이와 이해

告水曰: "我是天帝子, 河伯孫. 今日逃遁, 追者垂及, 奈何?"

(주몽이) 물에게 고하였다. "나는 천제의 아들이고 하백의 손자이다. 오늘 도망가는데 추격하는 이들이 곧 이르니 어찌할까?"

* 是(시): ~이다
* 垂(수): 장차, 곧
* 奈何(내하): 어찌할까?

於是, 魚鼈成橋, 得渡, 而橋解, 追騎不得渡.

이에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만들어 주어 (주몽과 일행은) 건널 수 있었고 다리가 해체되자 추격하던 기마병들은 건널 수 없었다.

* 於是(어시): 이에
* 得(득): ~할 수 있다

이해와 감상 천제와 하백의 후손으로 알에서 태어난 주몽은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이 있어 다른 왕자들의 시기를 받았고, 결국 동부여를 떠나 도망가게 된다. 주몽은 동부여 군대의 추격을 받았지만, 물에 고하여 엄수를 건널 수 있었다. 남쪽의 좋은 땅에 새로 도읍을 정하고 왕이 되었으니 이 나라가 바로 고구려이다.

《삼국유사》 앞 이야기

금와에게는 일곱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놀았다. 그러나 그들의 기예가 주몽에게 미치지 못하자 맏아들 대소(帶素)가 말하였다. "주몽은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니 일찍이 도모하지 않으면 아마도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왕이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도록 하였다. 주몽은 준마를 알아보고 먹이를 조금씩 주어 마르게 하고, 늙고 병든 말은 잘 먹여 살찌게 하였다. 왕은 자신은 살찐 말을 타고 마른 것은 주몽에게 주었다. (금와)왕의 여러 아들들이 여러 신하들과 함께 장차 그를 해치려고 모의하였다. 주몽의 어머니가 알고 말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장차 너를 해치려고 한다.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안되겠는가? 마땅히 빨리 대책을 도모하여라." 이에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과 벗이 되어 가다가 엄수에 이르렀다.(於是蒙與烏伊等三人爲友 行至淹水)

-《삼국유사》〈기이(紀異)〉

주몽 신화

주몽 이야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록으로 〈광개토왕릉비문〉(414년), 《구삼국사》(10세기 중엽), 《삼국사기》(1145), 《삼국유사》(1281년 경)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구삼국사》는 지금 전하지 않지만, 이규보의 서사시 〈동명왕편〉(1193년)에 주석으로 인용되어 있다. 이상의 기록들 사이에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주몽이 천제와 하백의 후손이고, 알에서 태어났는데 동물들마저 그를 보호해 주었으며, 하늘에 호소하여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을 받아서 부여 군대의 추격을 물리친 일은 빠짐없이 들어 있다. 모두 주몽이라는 인물의 신성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신성한 권위를 통해서 고구려 건국의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다.

» 신화(神話)는 민족 사이에 전승되는 신적 존재에 관한 이야기로, 우주의 창생과 종말에 관한 우주 신화와 천지, 일월성신(日月星辰)에 관한 천체 신화 및 건국 신화와 국왕 신화 등이 있다. 전설(傳說)은 인간과 그 행위를 주체로 하는 이야기로, 주체가 되는 사물에 따라 지명 전설 등이 있으며 증거가 되는 암석이나 나무 등의 흔적이 남아 있다.

참고 자료 _〈동명왕편〉

고려 명종 23년(1193)에 이규보가 지은 영웅 서사시. 민족에 대한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지은 것으로 고구려 동명 성왕의 신이한 혈통과 탄생, 고난을 이겨 내는 건국 과정, 그리고 그의 아들 유리왕의 즉위 과정을 1,410자의 오언 장편 282구(句) 운문체(韻文體)의 한시로 그리면서 상세한 주(註)를 달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동명왕편〉은 당시 중화 중심의 역사의식에서 탈피하여 《구삼국사》에서 소재를 취하여 우리의 민족적 우월성 및 고려가 위대한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다는 고려인의 자부심을 천추만대에 전하겠다는 의도에서 쓰여진 것으로, 작자의 국가관과 민족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외적에 대한 항거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두산백과》 참조

» 이규보는 〈동명왕편(東明王篇)〉 병서(幷序)에서 "지난 계축년(1193, 명종 23) 4월에 《구삼국사(舊三國史)》를 얻어 동명왕 본기(東明王本紀)를 보니 그 신이(神異)한 사적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했다. … 더구나 동명왕의 일은 변화의 신이(神異)한 것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고 실로 나라를 창시(創始)한 신기한 사적이니 이것을 기술하지 않으면 후인들이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여 〈동명왕편〉을 지은 의도를 분명히 밝혔다.

신출 한자

*蛙	(와) 개구리 虫, 12	金蛙 井底蛙
獲	(획) 얻다 犬, 17	漁獲 捕獲
*遁	(둔) 숨다 辶, 13	隱遁
*鼈	(별) 자라 黽, 25	魚鼈
雅	(아) 맑다 隹, 12	高雅 淸雅
潤	(윤) 윤택하다 水, 15	潤氣 利潤
濟	(제) 건너다, 구제하다 水, 17	救濟 經濟
滯	(체) 막히다 水, 14	延滯 停滯
孰	(숙) 누구 子, 11	孰知
樣	(양) 모양 木, 15	樣相 樣式
娘	(낭) 아가씨 女, 10	娘子 女娘
亭	(정) 정자 亠, 9	亭子 老人亭
催	(최) 재촉하다 人, 13	開催 主催
促	(촉) 재촉하다 人, 9	促進 促急
蒙	(몽) 어리다 艸, 14	啓蒙 蒙古
*妬	(투) 샘내다 女, 8	嫉妬 妬忌
垂	(수) 드리우다, 장차 土, 8	垂直 垂楊
渡	(도) 건너다 水, 12	賣渡 不渡
肅	(숙) 엄숙하다 聿, 13	嚴肅 靜肅
澤	(택) 못, 윤택하다 水, 16	潤澤 恩澤
濁	(탁) 흐리다 水, 16	混濁 濁流
那	(나) 어찌 邑, 7	那落 刹那
聰	(총) 귀 밝다 耳, 17	聰明 聰氣
僅	(근) 겨우 人, 13	僅少 僅僅
姪	(질) 조카 女, 9	叔姪 甥姪
幕	(막) 장막 巾, 14	帳幕 黑幕
迫	(박) 핍박하다 辶, 9	驅迫 壓迫
脅	(협) 으르다 肉, 10	威脅 脅迫
獵	(렵) 사냥하다 犬, 18	密獵 涉獵
逃	(도) 달아나다 辶, 10	逃亡 逃走
奈	(내) 어찌 大, 8	莫無可奈
騎	(기) 말 타다 馬, 18	騎馬 騎兵
準	(준) 법, 준하다 水, 13	準備 標準
濫	(람) 넘치다 水, 17	汎濫 濫用
汚	(오) 더럽다 水, 6	汚名 汚染
奚	(해) 어찌 大, 10	奚琴
誦	(송) 외다 言, 14	暗誦 朗誦
夷	(이) 큰활, 종족 이름 大, 6	東夷●
驛	(역) 역 馬, 23	驛馬 驛舍
拓	(척) 넓히다 手, 8	開拓 干拓
緊	(긴) 팽팽하다 糸, 14	緊急 緊迫
麗	(려) 곱다 鹿, 19	美麗 秀麗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동이(東夷): 예전에, 중국에서 동쪽의 오랑캐라는 뜻으로 동쪽에 사는 민족을 낮잡아 이르던 말. 한국·일본·만주 등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다.

» 중화(中華) 사상은 중국의 자문화 중심주의적 사상으로, 한족(漢族)이 천하의 중심이면서 가장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나타낸다. 중화 외에는 '이적(夷狄)'이라 하여 배척하기 때문에 '화이 사상(華夷思想)'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사상은 한족이 이민족을 동이(東夷),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으로 구분하고 천자가 이민족을 교화하여 세상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국가관을 낳았다.

참고 자료 _《삼국유사》

고려 시대 승려 일연(一然, 1206~1289)의 《삼국유사》는 삼국의 역사뿐 아니라 불교 기사와 신화, 전설 등을 연대나 인물보다 사건 중심으로 수록했다. 《삼국사기》의 김부식이 당시 보편적이던 유교적 역사관을 보인 것과 달리, 일연은 신이(神異)한 이야기를 기록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성과 문화의 우위성을 강조하며, '유사(遺事)'라는 제목처럼 역사 기록에서 빠졌거나 전하지 않는 수많은 사료들을 인용, 수록하고 있어 우리나라 고대 문화유산과 설화의 보고(寶庫)로 평가된다.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광개토대왕릉비문은 주몽에 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을 담고 있다. 광개토대왕릉비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 일본 사이의 역사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는 언급을 통해 문헌 기록만이 아니라 금석문(金石文) 역시 중요한 한문학 유산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예시 답안

- **비문**: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剖卵降世 生而有聖□□□□□
- **독음**: 유석시조추모왕지창기야 출자북부여 천제지자 모하백여랑 부란강세 생이유성□□□□□
- **풀이**: 옛적 시조(始祖) 추모왕(鄒牟王)이 나라를 세웠는데 (왕은) 북부여(北夫餘)에서 태어났으며, 천제(天帝)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河伯: 물의 신)의 따님이었다.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성스러운 … (5글자는 불분명함) 이/가 있었다.

* 惟(유): 문장의 처음에 나오는 발어사로서, 특별한 의미는 없음.
* 創基(창기): 기반을 만들다, 나라를 세우다
* 女娘(여랑): 딸 * 降世(강세): 세상에 내려오다, 세상에 나오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문장 속 한자의 쓰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 及(급): ~와/과 ㉡ 至(지): 매우
㉢ 是(시): ~(이)다 ㉥ 追(추): 쫓다, 추격하다

❷ 문장을 풀이하고 글의 내용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주몽이 (활로) 쏘아 잡은 사슴은 매우 많았고 왕자들이 그것을 질투하였다.(朱蒙射鹿至多, 王子妬之.)

❸ 주몽 이야기의 신화적 특성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어별성교, 득도, 이교해, 추기부득도.

[해설]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어 건널 수 있었다.(魚鼈成橋, 得渡, 而橋解, 追騎不得渡.)'는 부분은 주인공이 남다른 능력을 발휘하고 이적을 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으로 신화적인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참고 자료

광개토대왕릉비와 고구려 건국 신화

광개토대왕릉비문은 고구려가 그 지역의 주도권을 잡았음을 대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고국원왕 시기에 다소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추모왕이 북부여에서 나왔다는 것은 고구려가 당시 이미 멸망한 부여의 정통을 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추모왕과 동명왕을 일체화시킴으로써 부여 유민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결속을 꾀하는 의미도 지닌다. 정복 지역의 신화를 자신의 신화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치적 우위성을 과시하고 주민들을 예속시키는 명분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 광개토대왕릉비문에 의하면 고구려의 시조는 추모(鄒牟)이고, 주몽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서 붙여 준 별명이었다. 《구삼국사》에서는 주몽의 사적을 〈동명왕 본기〉로 기술하였는데, 원래 동명왕은 그보다 이전에 고리국에서 태어나 부여를 건국한 별개의 인물이다. 고구려가 점차 부여를 능가하는 국력을 지니게 되면서 부여의 건국 신화마저 주몽의 이야기에 편입된 것이다. 《삼국사기》에서는 성스러운 임금이라는 뜻을 더하여 동명 성왕이라고 부르고, 성이 고씨, 이름은 주몽인데 추모라고도 부른다고 하였다.

광개토대왕릉비문과 역사 논쟁

조선의 식민지화를 노리던 일본이 광개토대왕릉비문에서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414년에 조선인의 손으로 세워진 비문에 이미 일본이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다음이 당시 일본이 내놓은 해석이다.

- 百殘新羅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 來渡海, 破百殘□□新羅, 以爲臣民.
  백제와 신라는 예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 왔다. 그런데 일본이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 신라를 깨뜨려 일본의 신민으로 삼았다.

» 이에 대해서 북한, 중국의 학자들이 이견을 내놓았고, 우리나라 학자들의 반론 역시 다양하게 제기되었지만, 아직 확정된 학설이 나오지는 않았다.

- 百殘新羅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渡海破, 百殘聯, 侵新羅, 以爲臣民.
  백제와 신라는 예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 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침입해 오자 바다를 건너가서 깨뜨렸다. 백제가 왜와 연합하여 신라를 침략하고 신민으로 삼았다. 〈정인보〉
- 百殘新羅舊是屬民, 由未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 王破百殘□□, 新羅以爲臣民.
  백제와 신라는 예부터 고구려의 속민이었는데도 아직 조공을 바치지 않았고, 왜는 신묘년부터 건너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왕은 백제와 왜를 깨뜨리고 신라는 복속시켜 신민으로 삼았다. 〈서영수〉
- 百殘新羅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渡, □破百殘, □□新羅, 以爲臣民.
  백제와 신라는 예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 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에 □ 건너와 백제를 깨뜨리고 신라를 □□하여 신민으로 삼았다. 〈노태돈〉
- 百殘新羅舊是屬民, 由來朝貢. 而倭以辛卯年來, 入貢于百殘□□新羅, 以爲臣民.
  백제와 신라는 예부터 고구려의 속민으로 조공을 해 왔다. 그런데 왜가 신묘년 이래로 백제와 □□ 신라에 대해 조공을 들이기 시작했으므로 고구려는 왜도 고구려의 신민으로 삼았다. 〈김병기〉

[활동] 고구려를 둘러싼 중국과의 역사 논쟁

中 고구려는 중국 고대 민족이 세웠고 조공 - 책봉 관계를 맺었으니 중국의 지방 정권이다.

韓 조공 - 책봉은 고대의 외교 형식이고 종족의 기원과 역사 계승 의식을 볼 때 고구려는 한국사의 일원이다.

中 고구려와 수, 당과의 전쟁은 중국 내부의 통일 전쟁이었다.

韓 고구려와 수, 당 간의 전쟁은 국가 간에 일어난 국제전이었다.

中 고구려 유민 중 중국인이 된 사람이 더 많으므로 고구려는 중국사다.

韓 역사 계승은 사람 수가 아니라 계승 의식과 부흥 의지로 평가된다.

中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아니다.

韓 중국 역사서에도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 〈광개토대왕릉비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동아시아 역사 논쟁에 대한 학습자의 논리적인 발표를 유도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1~3 차시

22 초패왕의 최후

학습 목표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단원 소개

이 단원은 사마천의 《사기》에 실린 항우의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사기》는 단순히 중국의 역사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자 문화권 나라에서 공동의 고전이 되어 후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연대기적 서술을 넘어서 그 시대를 살았던 개별 인물들에 대한 생동감 있는 서술과 논평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항우 본기〉는 《사기》에서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편 가운데 하나이다. 본문으로 제시한 부분은, 패배를 모르던 항우가 마지막에 사면초가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부하들에게 던진 말로서, 항우의 개성을 여지없이 보여 주는 대목이다. 젊은 나이에 입신하여 천하를 호령하였음에도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결국 유방의 군대에 패하고 만 비운의 인물 항우를 통해 역사 인물에 대해 학습자 스스로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논평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므로, 먼저 초나라와 한나라의 쟁패 상황과 항우의 일생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한 뒤 본시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한다.

② 자구 풀이와 함께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함으로써 대화체로 이루어진 서사적 서술 방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③ 항우라는 인물에 대한 역대 논평을 살피고 학습자 스스로 항우의 일생을 평가해 보도록 유도하되,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풍부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

22 초패왕의 최후

중국 진(秦)나라 말기의 사람인 항우는 제왕이 되지는 못했지만,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은 항우의 삶을 '본기'에 기록하였다. 초한 전쟁의 마지막이자 사면초가의 성어로 잘 알려진 해하(垓下)의 전투에서 겨우 빠져나온 항우가 한 말이 무엇인지 읽어 보며, 항우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생각해 보자.

吾起兵이 至今八歲矣라. 身七十餘戰에 所當者破하고 所擊者服하여 未嘗敗北하니 遂霸有天下라.

176

본문의 풀이와 이해

吾起兵, 至今八歲矣.

내가 군사를 일으킨 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팔 년이다.

* 至(지): ~에 이르다

» 항우의 일생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고, 본문이 등장하는 배경인 사면초가의 상황과 항우가 말하는 대상을 먼저 알려 준다.

身七十餘戰, 所當者破, 所擊者服,
未嘗敗北, 遂霸有天下.

몸소 (치른) 칠십여 번의 싸움에서 맞선 자는 깨뜨리고 공격한 자는 굴복시켜 패배한 적이 없어서 마침내 패자로서 천하를 소유하였다.

* 未嘗(미상): 일찍이 ~ 한 적이 없다
* 敗北(패배): 싸움에서 지다
* 有(유): 소유하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然이나 今卒困於此하니 此는 天之亡我요 非戰之罪也라.

今日에 固決死로니 願爲諸君快戰하여 必三勝之하노라. 〈사기〉

新
擊 격 치다
嘗 상 일찍이
*霸 패 으뜸

然今卒困於此, 此天之亡我, 非戰之罪也.

그러나 지금 갑자기 여기에서 곤경에 처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내가) 싸우기를 잘못한 것이 아니다.

* 亡(망): 망하게 하다 * 非(비) ~也(야): ~이/가 아니다

今日, 固決死, 願爲諸君快戰, 必三勝之.

오늘 진실로 죽기를 결심하고 그대들을 위하여 통쾌하게 싸워 반드시 세 번 승리하고자 하노라.

* 願(원): ~하기를 원하다 * 諸君(제군): 그대들

이해와 감상 자신이 나선 전투에서는 평생 한 번도 지지 않았던 항우였지만, 단 한 번의 패배가 결국 영원한 패배가 되고 말았다. 그 순간 항우가 던진 말은, "내가 전투를 못해서가 아니라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였다.

〈항우 본기〉의 앞뒤 이야기

항왕의 군대는 해하에 방어벽을 구축했지만 병사는 적고 양식은 다 떨어져 한군에 몇 겹으로 포위당했다. 밤이 되자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렸다. 항왕이 크게 놀라며 "한군이 이미 초를 손에 넣었던 말인가? 어찌 이리도 초나라 사람들이 많단 말인가."라고 했다. … 이윽고 항왕이 말에 올랐고, 휘하 장사 800여 명도 말에 올랐다. 그날 밤으로 포위를 뚫고 남쪽으로 달려갔다. 날이 밝은 뒤 한군이 이를 알고는 기장 관영에게 5천 기병으로 추격하게 했다. 항왕이 회수를 건널 때 남은 기병은 300여 명 정도였다. 항왕이 음릉에 이르러 길을 잃어서 농부에게 물었더니 농부는 왼쪽으로 가라고 속여서 일러 주었다. 왼쪽으로 갔더니 큰 늪에 빠졌다. 이 때문에 한군이 추격해 왔다. 항왕은 병사를 다시 이끌고 동쪽으로 가서 동성에 이르렀다. 겨우 28기가 남아 있었다. 한의 기병 수천이 추격해 오고 있었다. 항왕은 스스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는 기병들에게 "내가 군사를 일으킨 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팔 년이다. 몸소 칠십여 번의 싸움에서 맞선 자는 깨뜨리고 공격한 자는 굴복시켜 패배한 적이 없어서, 마침내 패자로서 천하를 소유하였다. 그러나 지금 갑자기 여기에서 곤경에 처하였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싸우기를 잘못한 것이 아니다. 오늘 진실로 죽기를 결심하고 그대들을 위하여 통쾌하게 싸워 반드시 세 번 승리하고자 하노라. 제군들을 위해 포위를 뚫고 적장을 베고 깃발을 쓰러뜨려 제군들로 하여금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지 싸움을 잘못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리라."라고 했다. … 이어 항왕은 동쪽으로 오강(烏江)을 건너려 했다. 오강의 정장(亭長)이 배를 갖다 대고 기다리다가 "강동이 비록 작지만 땅이 사방 천 리요, 무리가 수십 만이라 왕이 되기에는 충분합니다. 대왕께서는 서둘러 건너십시오. 지금 저한테만 배가 있기 때문에 한군이 와도 건널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항왕이 웃으며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데 내가 어찌 건너겠는가? 또한 이 항적이 강동 자제 8천과 강을 건너 서쪽으로 왔는데 지금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으니 강동의 부형들이 나를 가련하게 여겨 왕으로 삼는다 해도 내가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보겠는가? 설사 저들이 아무 말하지 않는다 해도 이 항적이 마음이 부끄럽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 항왕이 "내가 듣자니 한이 내 머리에 천금에 만 호의 읍을 걸었다 하니 내가 너를 위해 은혜를 베풀마."라고 말하고 자기 목을 찔러 죽었다. …

-《사기》〈항우 본기〉

한문 개념 _한문 산문의 서술 방식

한문 산문은 글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 다른 서술 방식을 사용한다.

- **서사적 서술 방식**: 인물의 언행이나 사건의 경과를 서술하는 글.
- **서정적 서술 방식**: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해 느낀 개인의 감정을 표현하는 글.
- **묘사적 서술 방식**: 산천의 경물이나 지리, 또는 사회의 풍속이나 인정을 기술하는 글.
- **의론적 서술 방식**: 사물의 이치를 따지거나 자신의 사상을 천명함으로써 남을 설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

» 한문 산문은 문학, 역사, 철학적인 글이나 심지어 실용적인 글조차도 각기 감사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다. 글을 읽을 때에는 글에 나타난 특징적인 서술 방식과 표현 방식을 이해하여 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서사, 서정, 묘사, 의론 등의 서술 방식은 한 편의 글 속에서도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 엄격한 구별을 강조하기보다는 작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서술 방식의 특징이 작품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데 얼마나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가 하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한다.

성어의 유래

- **파부침선**(破釜沈船): 솥을 깨뜨려 다시 밥을 짓지 않고 배를 가라앉혀 강을 건너 돌아가지 않음.
  →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함. ≒ 파부침주(破釜沈舟)
  유래 항우가 진(秦)나라 군대와 거록(鉅鹿)에서 싸우기를 앞두고 장하를 건넜을 때 병사들에게 타고 왔던 배를 가라앉히고 솥도 깨뜨리게 하여 병사들이 결사적으로 싸우게 만든 일에서 유래함.

- **두주불사**(斗酒不辭): 말술도 사양하지 않음.
  → 술을 매우 잘 마심을 이르는 말.
  유래 홍문의 연회에서 항우의 책사 범증의 지시를 받은 항장이 검무를 추며 유방을 찔러 죽이려 하자, 번쾌는 연회장으로 뛰어들어가 항우를 노려보았는데, 번쾌의 기상을 가상히 여긴 항우가 큰 잔에 술을 부어 번쾌에게 주었다. 번쾌는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 항우가 내어 준 생돼지 다리를 검으로 베어 먹었다. 항우가 번쾌에게 "술을 더 마실 수 있겠는가."라고 묻자 번쾌가 "어찌 한 잔 술을 사양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한 것에서 유래함.

신출 한자

擊	(격) 치다 手, 17	攻擊 打擊
抄	(초) 뽑다 手, 7	抄錄 抄本
掛	(괘) 걸다 手, 11	掛鐘 掛念
換	(환) 바꾸다 手, 12	交換 換率
携	(휴) 끌다 手, 13	提携 携帶
護	(호) 돕다 言, 21	保護 守護
襲	(습) 엄습하다 衣, 22	世襲 踏襲
欺	(기) 속이다 欠, 12	詐欺 欺瞞
畿	(기) 경기 田, 15	京畿 畿內
錦	(금) 비단 金, 16	錦衣 錦繡江山
殘	(잔) 남다 歹, 12	殘餘 殘黨
募	(모) 모으다 力, 13	募集 公募
捉	(착) 잡다 手, 10	捕捉 捉送
兮	(혜) 어조사 八, 4	-
嘗	(상) 일찍이 口, 14	未嘗不●
維	(유) 벼리, 매다 糸, 14	維新● 維持
掃	(소) 쓸다 手, 11	掃蕩 一掃
拂	(불) 떨치다, 치르다 手, 8	支拂 滯拂
帶	(대) 띠 巾, 11	地帶 一帶
攻	(공) 치다 攵, 7	攻擊 攻防
編	(편) 엮다 糸, 15	編輯 編纂
傾	(경) 기울다 人, 13	傾聽 傾向
鴻	(홍) 큰기러기 鳥, 17	鴻雁● 鴻毛
諾	(낙) 허락하다 言, 16	許諾 受諾
滅	(멸) 멸망하다 水, 13	滅亡 消滅
召	(소) 부르다 口, 5	召喚 召集
逮	(체) 미치다 辶, 12	逮捕
蓋	(개) 덮다 艸, 14	蓋然● 大蓋
*霸	(패) 으뜸 雨, 21	霸權 霸氣
揮	(휘) 휘두르다 手, 12	揮毫● 指揮
尋	(심) 찾다 寸, 12	尋訪 尋常
毁	(훼) 헐다 殳, 13	毁損 毁謗
擁	(옹) 끼다 手, 16	擁護 抱擁
專	(전) 오로지 寸, 11	專攻 專門
詐	(사) 속이다 言, 12	詐取 詐稱
斜	(사) 비끼다 斗, 11	傾斜 斜線
宴	(연) 잔치 宀, 10	宴會 回甲宴
暇	(가) 겨를 日, 13	休暇 閑暇
般	(반) 일반 舟, 10	一般 全般
捕	(포) 잡다 手, 10	捕獲 捕手
拔	(발) 뽑다 手, 8	選拔 奇拔●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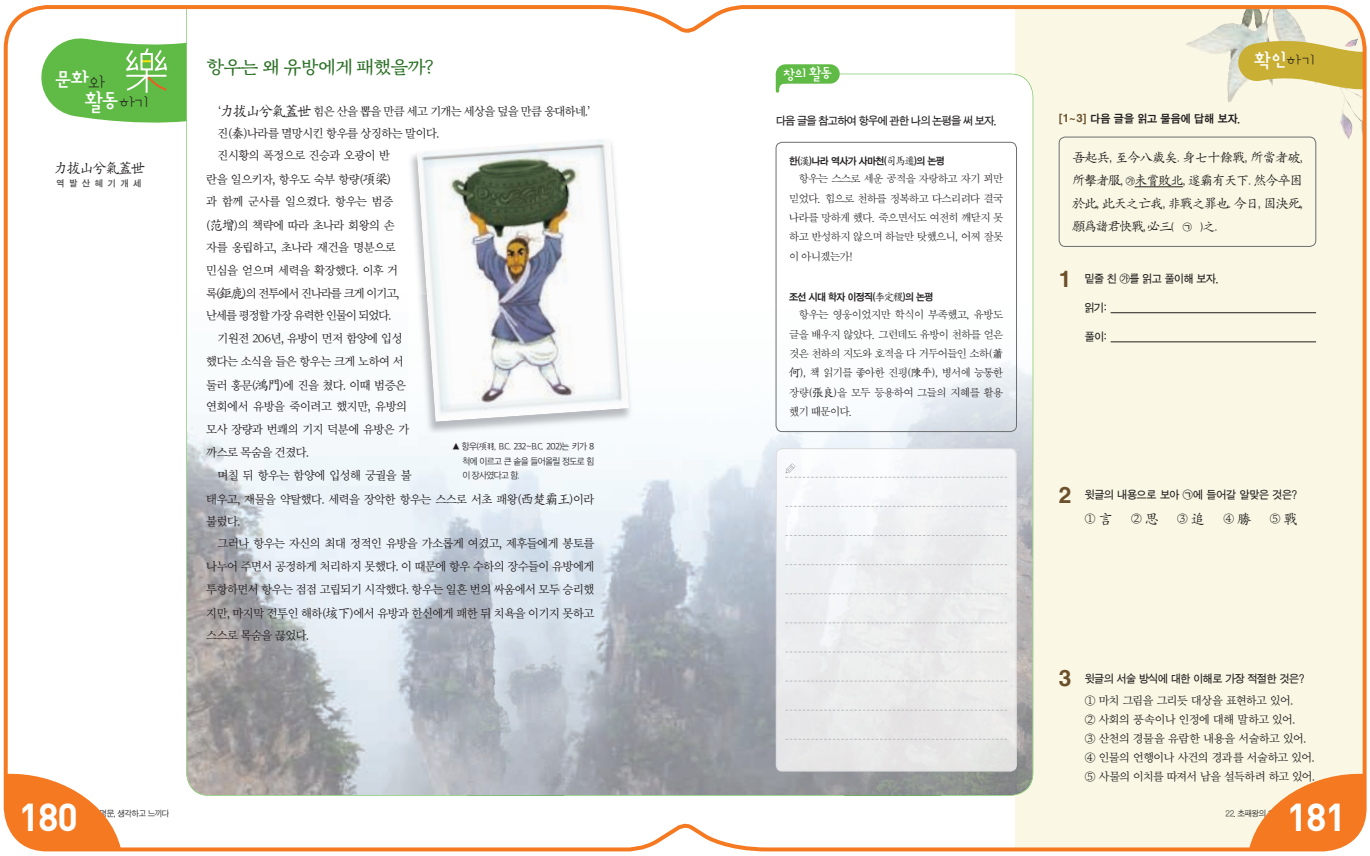
- 미상불(未嘗不): 아닌 게 아니라 과연.
- 유신(維新):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함.
- 휘호(揮毫): 붓을 휘두른다는 뜻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르는 말.
- 홍안(鴻雁): 큰 기러기와 작은 기러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 기발(奇拔): 「1」 재치가 뛰어남. 「2」 진기하게 빼어남.
- 개연(蓋然):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개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상태.

성어의 유래 _목후이관

- 목후이관(沐猴而冠): 원숭이가 관을 썼음.
  → 의관(衣冠)은 갖추었으나 사람답지 못한 사람.

유래 항우가 함양(咸陽)을 점령한 뒤 궁실을 불태우고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공(功)을 알리고 싶어하자 한생이 항우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초(楚)나라 사람은 원숭이가 갓을 쓴 것이라 하더니 정말이구나.(人謂楚人沐猴而冠 果然)" 항우가 그 말을 듣고 말한 사람을 삶아 죽였다.

-《사기》〈항우 본기〉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항우를 보는 다양한 시각의 논평을 참조하여 학습자 스스로 항우에 대한 논평을 다시 써 보는 활동이다.

» 사마천은 〈항우 본기〉에서 "항우는 자신의 공을 자랑하고 사사로운 지혜만 앞세운 채 지난 일을 배우지 못했다. 이 때문에 패왕의 업을 이루고도 힘으로 천하를 경영하려다가 5년 만에 끝내 그 나라를 망하게 만들고 몸은 동성에서 죽으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나무랄 줄 몰랐으니 이게 잘못이었다. 그러고도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지 내가 싸움을 못한 죄가 아니다'며 핑계를 댔으니 어찌 잘못이 아니랴!"라고 항우를 부정적으로 비판하였다.

예시 답안

❶ 항우는 '역발산기개세'라는 말을 들었을 만큼 영웅으로서의 자질이 있었으나, 자신의 능력만 믿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해 대업을 이루지 못한 인물이다.

❷ '병가상사(兵家常事)'라고 하는데, 항우가 해하에서 진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훗날을 도모했다면 중국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다. 겨우 한 번 당한 시련을 이기지 못했으므로 항우가 유방에게 진 것은 당연하다.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문장에 쓰인 한자에 대한 독음과 풀이를 묻는 문항

[정답] • 읽기: 미상패배
• 풀이: 일찍이 패배한 적이 없다.

[해설] 未嘗(미상): (일찍이) ~한 적이 없다.

❷ 글의 맥락을 이해하고 한자의 쓰임을 아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必三勝之(필삼승지): 반드시 세 번 이기다.

❸ 글에 나타난 서술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④

[해설] 《사기》 중에 항우의 일생을 그린 〈항우 본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전쟁에서 패한 항우가 말을 하는 장면이다. 본기(本紀)는 기전체의 역사 서술에서, 왕의 사적(事跡)을 기록한 것이므로 보통 서사적 서술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참고 자료

사마천과 《사기》

- **사마천**(司馬遷, B.C. 145?~B.C. 86?): 섬서성(陝西省) 용문(龍門)에서 출생하였다. 사마천이 7세 때 부친 사마담(司馬談)이 천문 역법과 도서를 관장하는 태사령(太史令)이 된 이후 무릉(武陵)에 거주하였다. 사마담은 아들 사마천에게 어린 시절부터 고전 문헌을 읽도록 가르쳤다. 기원전 110년 사마담이 죽으면서 자신이 시작한 《사기》의 완성을 부탁하였고, 그 유지를 받들어 기원전 108년 태사령이 되면서 황실 도서에서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마천은 흉노의 포위 속에서 부득이하게 투항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릉(李陵) 장군을 변호하다 무제의 노여움을 사서 기원전 99년 48세 되던 해에 남자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궁형(宮刑: 생식기를 제거하는 형벌)을 받았다. 사마천은 옥중에서도 저술을 계속하였으며 기원전 95년 황제의 신임을 회복하여 환관의 최고직인 중서령(中書令)이 되었다. 환관(宦官) 신분으로 사대부들의 멸시를 받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마천은 마침내 《사기》를 완성하였다. 사마천은 《사기》가 완성된 2년 후에 사망하였다.
- **《사기(史記)》**: 중국 전한(前漢)의 사마천이 상고 시대의 오제(五帝)로부터 한나라 무제까지의 중국과 그 주변 민족의 역사를 포괄하여 저술한 통사다. 본격적인 저술은 기원전 108년에서 기원전 91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마천은 저술의 동기를 "가문의 전통인 사관의 소명 의식에 따라 《춘추》를 계승하고 아울러 궁형의 치욕에 발분하여 입신양명으로 대효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대 중국 정사의 모범이 된 기전체(紀傳體)의 효시로서, 제왕의 연대기인 본기(本紀) 12편, 제후를 중심으로 한 세가(世家) 30편, 역대 제도 문물의 연혁에 관한 서(書) 8편, 연표인 표(表) 10편, 시대를 상징하는 인물을 다룬 열전(列傳) 70편의 총 130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기는 전체 구성은 물론 세세한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치밀한 의도하에 적어 넣어 자연스럽게 독자를 무한한 감흥으로 이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의 기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이성적 통찰과 감성적인 이해를 통한 추체험(追體驗)의 발로였다. 각 편의 마지막에는 '태사공왈'이라고 하여 저자 자신의 논평을 적어 놓는 등 예리한 비판 정신을 담고 있다.

- 두산백과 참조

〈항우 본기〉의 가치

진나라가 망하고 유방이 한나라를 세울 때까지 5년의 공백이 있다. 이 시기를 일반적으로 초한지제(楚漢之際)라 부른다. 초는 서초 패왕 항우, 한은 한중 제후 유방을 가리킨다. 이 시기에 진승과 오광의 반란을 계기로 각지의 영웅호걸들이 동시다발로 진나라를 공격했다. 그중 가장 세력이 크고 끝까지 자웅을 겨룬 세력이 항우와 유방이었다. 본기에 수록되려면 천하의 권력을 장악한 실세여야 한다. 5년의 공백을 메워 줄 인물은 항우였기 때문에 사마천은 항우를 열전이 아니라 본기로 다루었다. 사마천은 〈항우 본기〉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다. "진나라가 정치를 잘못하여 호걸들이 동시다발로 반기를 들었다. 항우의 숙부 항량(項梁)이 발판을 닦고 항우가 계승했다. 대장군 송의(宋義)를 죽이고 조(趙) 지역의 거록(鉅鹿)을 구원하자 제후들이 항우를 대장군으로 옹립했다. 그러나 투항했던 진(秦)나라의 마지막 황제 자영을 살해하자 온 세상이 비난했다." 항우는 잔인할 때 잔인하지 못하고 관대할 때 관대하지 못한 성격의 결함과 노회(老獪)한 정치가의 모략이 부족하여 결국 유방에게 패배하고 만다. 그러나 희대의 영웅적 이미지는 사마천의 절묘한 문장에 힘입어 천고에 약동하고 있다. 특히 해하에서 장렬하게 자살하는 장면은 압권이다. 〈항우 본기〉는 《사기》의 문학적 가치 및 인물 묘사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준다.

- 이인호, 《사기 본기》

항우를 보는 여러 시각

- 한신(韓信)의 논평: 항우는 사람을 공경하고 자애롭게 대하며 말도 자상하게 했다. 병에 걸린 사람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음식을 나눠 주기까지 했다. 그러나 공을 세워 봉토와 작위를 주어야 할 사람에게는 아까워서 손으로 매만지기만 하고 차마 주지 못했다. 이는 '아낙네의 자애로움(婦人之仁)'이다.
- 소순(蘇洵)의 논평: 항우는 천하를 얻을 재능은 있지만 천하를 얻을 지략이 없고, 조조는 천하를 얻을 지략은 있지만 천하를 얻을 인품이 없으며, 유비는 천하를 얻을 인품은 있지만 천하를 얻을 재능이 없다.

» 항우에 대한 논평들은 대부분 항우가 짧은 기간에 놀라운 공적을 이루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논평한 것이다.

1~3 차시

23 목민의 길

학습 목표

-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단원 소개

이 단원은 고등학교 한문 I 의 마지막 단원으로, 전통문화 가운데 오늘날 계승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삼을 것이 무엇인지 학습자들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대표 고전인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제시하였다. 특히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저술한 후 쓴 서(序)를 통해 책을 저술한 취지를 이해하고 조선 후기 실학자가 생각한 백성을 위한 정치란 어떤 것이었는지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습자들은 '한문'을 배우는 일이 단순히 한자와 문장을 풀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는 고전을 이해하고, 인문학으로서 평생 마음에 담고 살아갈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단원 지도와 평가상의 유의점

① 고등학교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900자) 수준을 넘어서는 한자가 많아 어렵게 느끼는 학습자들에게 반복해 읽게 하면서 내용과 주제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지도한다.

②《목민심서》 서문의 전체 내용 및 《목민심서》의 구성, 그리고 정약용의 생애와 일표이서(一表二書)의 저술 개관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다.

③ 정약용이 생각한 당시 사회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오늘날에 적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발표해 보도록 하되, 교사가 결론을 내려 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 정약용의 생애와 대표 저술들을 살펴보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지금의 사회 문제를 진단해 보는 계기로 삼도록 한다.

23 목민의 길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풀려난 뒤 스스로 쓴 자신의 묘지명에서 18년 유배 생활의 마지막에 《목민심서》를 저술한 일을 회고하며, "알아주는 이는 적고 나무라는 이는 많으니, 만약 천명(天命)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횃불로 태워 버려도 좋다."라고 했다. 그는 《목민심서》를 통해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일까?

君子之學은 修身이 爲半이요 其半은 牧民也라. (중략)

今之司牧者는 唯征利是急하여 而不知所以牧之라.

본문의 풀이와 이해

君子之學, 修身爲半, 其半牧民也.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이고 그 (나머지) 반은 목민이다.

* 修身(수신): 마음과 행실을 닦아 바르게 함.
* 牧民(목민): 임금이나 지방관이 백성을 다스려 기름.

今之司牧者, 唯征利是急, 而不知所以牧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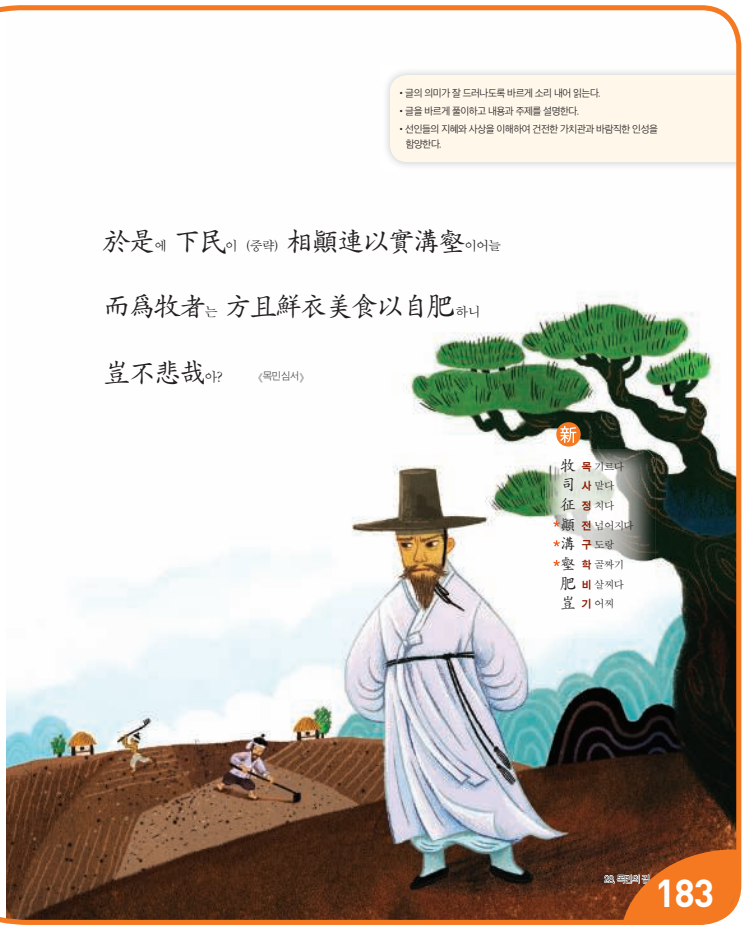
지금의 목민을 맡은 사람들은 오직 이익을 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목민하는 법을 모른다.

* 司牧者(사목자): 목민을 맡은 사람.
* 征利(정리): 이익을 취함.
* 所以(소이): ~하는 법

於是, 下民, 相顚連以實溝壑,

이에 백성들이 서로 넘어져 뒹굴며 도랑을 채우는데

* 下民(하민): 서민, 백성.
* 顚連(전련): 넘어져 뒹굴다. → 몹시 가난하여 쓰러짐.



而爲牧者, 方且鮮衣美食以自肥, 豈不悲哉?

목민하는 자들은 한창 고운 옷과 좋은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 方且(방차): 바로, 한창
* 豈不(기불) ~哉(재)?: 어찌 ~하지 않겠는가?

이해와 감상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57세 때 저술한 책으로 그가 신유사옥(辛酉邪獄) 때 전라도 강진에서 19년간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중에 집필하여 1818년(순조 18)에 완성된 것이다. 이 책은 학문적으로 가장 원숙해 가던 시기의 저술로, 조선 후기 지방의 사회 상태와 정치의 실제를 민생 문제 및 수령의 본무(本務)와 결부시켜 소상하게 밝혔다.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저술한 후 "고금을 조사하여 망라하고 병폐를 파헤쳐 밝혀서 목민관에게 주니, 백성 한 명이라도 그 혜택을 보는 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하였다.

참고 자료 _목민심서서(牧民心書序)

옛날에 순(舜) 임금은 요(堯) 임금의 뒤를 이어 12목(牧)에게 물어 그들에게 목민(牧民)하게 하였고, 주 문왕(周文王)이 정치를 할 때 사목(司牧)을 세워 목부(牧夫)로 삼았으며, 맹자(孟子)는 평륙(平陸)으로 가서 추목(芻牧)하는 것으로 목민함에 비유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양민(養民)함을 목(牧)이라 한 것은 성현이 남긴 뜻이다. 성현의 가르침에는 원래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사도(司徒)가 만백성을 가르쳐 각기 수신(修身)하도록 하고, 또 하나는 태학(太學)에서 국자(國子)를 가르쳐 각각 수신하고 치민(治民)하도록 하는 것이니, 치민하는 것이 바로 목민인 것이다. 그렇다면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그 반이요, 그 (나머지) 반은 목민이다. 성인의 시대가 이미 오래되었고 그 말씀이 희미해져서 도(道)가 점점 어두워졌다. 지금 목민을 맡은〔司牧〕 사람들은 오직 이익을 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목민하는 법을 모른다. 이에 백성들이 곤궁하고 피폐하여 서로 넘어져 뒹굴며 도랑을 채우는데 목민하는 자들은 한창 고운 옷과 좋은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君子之學 修身爲半 其半牧民也 聖遠言堙 其道寢晦 今之司牧者 唯征利是急 而不知所以牧之 於是下民羸困 乃瘰乃癘 相顚連以實溝壑 而爲牧者方且鮮衣美食以自肥 豈不悲哉) … 먼 변방에서 귀양살이한 지 18년 동안에 오경(五經), 사서(四書)를 되풀이 연구하여 수기(修己)의 학을 공부하였다. 다시 백성을 다스림은 학문의 반이라 하여, 이에 23사(史)와 우리나라의 여러 역사 및 자집(子集) 등 여러 서적을 가져다가 옛날 사목이 목민한 유적을 골라 세밀히 고찰하여 이를 분류한 다음 차례로 편집하였다. … 모두 12편으로 되었는데, 1은 부임(赴任), 2는 율기(律己), 3은 봉공(奉公), 4는 애민(愛民)이요, 그 다음 차례차례로 육전(六典)이 있고, 11은 진황(賑荒), 12는 해관(解官)이다. 12편을 각각 6조(條)씩 나뉘었으니 모두 72조가 된다. … 《주역》 대축괘(大畜卦)에 '옛사람의 말이나 행실을 많이 알아서 자기의 덕을 기른다.' 하였으니, 이는 본디 내 덕을 기르기 위한 것이지 어찌 반드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만이겠는가. '심서(心書)'라 한 것은 무슨 까닭인가. 백성 다스릴 마음은 있으나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한 것이다. 순조 21년인 신사년(1821) 늦봄에 열수 정약용이 서한다.

-《여유당전서》 〈목민심서서〉

알고 풀이하기

君子之學, 修身爲牛, 其半牧民也.
군 자 지 학 수 신 위 반 기 반 목 민 야
군자의 학문은 수신이 반이고 그 (나머지) 반은 목민이다.
牧民 임금이나 지방관이 백성을 다스려 기름.

今之司牧者, 唯征利是急, 而不知所以牧之.
금 지 사 목 자 유 정 리 시 급 이 부 지 소 이 목 지
지금의 목민을 맡은 사람들은 오직 이익을 취하는 데만 급급하여 목민하는 법을 모른다.
司牧者 목민을 맡은 사람. 征利 이익을 취함. 所以 ~ 하는 법

於是, 下民, 相顚連以實溝壑,
어 시 하 민 상 전 련 이 실 구 학
이에 백성들이 서로 넘어져 뒹굴며 도랑을 채우는데
下民 서민, 백성. 顚連 넘어져 뒹굴다 →몹시 가난하여 쓰러짐.

而爲牧者, 方且鮮衣美食以自肥, 豈不悲哉?
이 위 목 자 방 차 선 의 미 식 이 자 비 기 불 비 재
목민하는 자들은 한창 고운 옷과 좋은 음식으로 자기만 살찌우고 있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方且 바로, 한창

이익보 감상 정약용은 《목민심서》를 저술한 후 "고금을 조사하여 망라하고 병폐를 파헤쳐 밝혀서 목민관(牧民官)에게 주니, 백성 한 명이라도 그 혜택을 보는 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라고 하였다.

어휘 활용하기

1 부수가 같은 한자 - 辶(辵)
- 迷 미 미혹하다 · 昏迷 혼미 · 逝 서 가다 · 逝去 서거
- 透 투 통하다 · 浸透 침투 · 通 통 통하다 · 疏通 간통
- 逸 일 편안하다 · 安逸 안일 · 道 도 길 · 軌道 궤도
- 遞 체 갈마들다 · 郵遞 우체 · 遙 요 멀다 · 遙遠 요원

2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 搜 ≒ 索 수색 · 疲 ≒ 弊 피폐
- 賦 ≒ 役 부역 · 幽 ≒ 冥 유명

3 뜻이 서로 상대 관계에 있는 어휘
- 近鄰 근린 ⇔ 遠郊 원교 · 乾燥 건조 ⇔ 濕潤 습윤
- 需要 수요 ⇔ 供給 공급 · 隆起 융기 ⇔ 沈降 침강

4 한자 문화가 담긴 어휘
- 占卜 점복: 점술과 복술. 점치는 일.
- 網羅 망라: 물고기나 새를 잡는 그물. →널리 받아들여 모두 포함함.
- 塗炭 도탄: 진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탐. →몹시 곤궁하여 고통스러운 지경.
- 雷同 뇌동: 우레 소리에 맞춰 함께함. →줏대 없이 남의 의견에 따라 움직임.
- 罷場 파장: 과, 백일장, 시장 등이 끝남. →여러 사람이 모여 벌이던 판이 거의 끝남.

5 단어 만들기
- 官 관 벼슬 · 官吏 관리 · 官僚 관료 · 官廳 관청 · 譯官 역관
- 任 임 맡기다 · 赴任 부임 · 委任 위임 · 擔任 담임 · 任員 임원

新
迷 미 미혹하다 · 昏 혼 어둡다 · 逝 서 가다 · 透 투 통하다 · 浸 침 잠기다
衾 간 간사하다 · 逸 일 편안하다 · 遞 체 갈마들다 · 郵 우 우편
遙 요 멀다 · 搜 수 찾다 · 疲 피 피곤하다 · 弊 폐 폐지다
賦 부 부세 · 幽 유 그윽하다 · 鄰 린 이웃 · 郊 교 들
燥 조 마르다 · 濕 습 젖다 · 需 수 쓰이다 · 隆 륭 높다 · 占 점 점치다

卜 복 점 · *網 망 그물 · 罹 라 벌이다 · 塗 도 진흙 · 炭 탄 숯
雷 뢰 우레 · 罷 파 마치다 · 吏 리 벼슬아치 · 僚 료 동료 · 廳 청 관청
譯 역 번역하다 · 任 임 맡기다 · 赴 부 다다르다 · 委 위 맡기다 · 擔 담 메다
員 원 인원

184 Ⅷ.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23. 목민심서 185

참고 자료 _목민심서의 12편

- **제1편 부임**(赴任): 제배(除拜), 치장(治裝), 사조(辭朝), 계행(啓行), 상관(上官), 이사(莅事)의 6조
- **제2편 율기**(律己): 칙궁(飭躬), 청심(淸心), 제가(齊家), 병객(屛客), 절용(節用), 낙시(樂施)의 6조
- **제3편 봉공**(奉公): 첨하(瞻賀), 수법(守法), 예제(禮際), 보문(報聞), 공납(貢納), 왕역(往役)의 6조
- **제4편 애민**(愛民): 양로(養老), 자유(慈幼), 진궁(振窮), 애상(哀喪), 관질(寬疾), 구재(救災)의 6조
- **제5편 이전**(吏典): 속리(束吏), 어중(馭衆), 용인(用人), 거현(擧賢), 찰물(察物), 고공(考功)의 6조
- **제6편 호전**(戶典): 전정(田政), 세법(稅法), 곡부(穀簿), 호적(戶籍), 평부(平賦), 권농(勸農)의 6조
- **제7편 예전**(禮典): 제사(祭祀), 빈객(賓客), 교민(敎民), 흥학(興學), 변등(辨等), 과예(課藝)의 6조
- **제8편 병전**(兵典): 첨정(簽丁), 연졸(練卒), 수병(修兵), 권무(勸武), 응변(應變), 어구(禦寇)의 6조
- **제9편 형전**(刑典): 청송(聽訟), 단옥(斷獄), 신형(愼刑), 휼수(恤囚), 금폭(禁暴), 제해(除害)의 6조
- **제10편 공전**(工典): 산림(山林), 천택(川澤), 선해(繕廨), 수성(修城), 도로(道路), 장작(匠作)의 6조
- **제11편 진황**(賑荒): 비자(備資), 권분(勸分), 규모(規模), 설시(設施), 보력(補力), 준사(竣事)의 6조
- **제12편 해관**(解官): 체대(遞代), 귀장(歸裝), 원류(願留), 걸유(乞宥), 은졸(隱卒), 유애(遺愛)의 6조

» 제1편~제4편의 네 편은 목민관의 기본 자세에 대해 상세하게 논하였다. 특히 목민관 선임의 중요성, 청렴과 절검(節儉)의 생활화, 민중 본위의 봉사 정신 등을 언급하였다. 제5편~제10편의 여섯 편은 《경국대전》의 6전을 근거로 하여 목민관의 실천 정책을 자세히 밝혔다. 곧 지방 행정관의 단속을 엄하게 하고 현인(賢人)의 천거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목민심서》 전편에는 지방 행정의 원리를 관(官)의 입장이 아닌 민(民)의 편에 서서 관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폭로, 고발, 탄핵, 경계하는 정약용의 애민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신출 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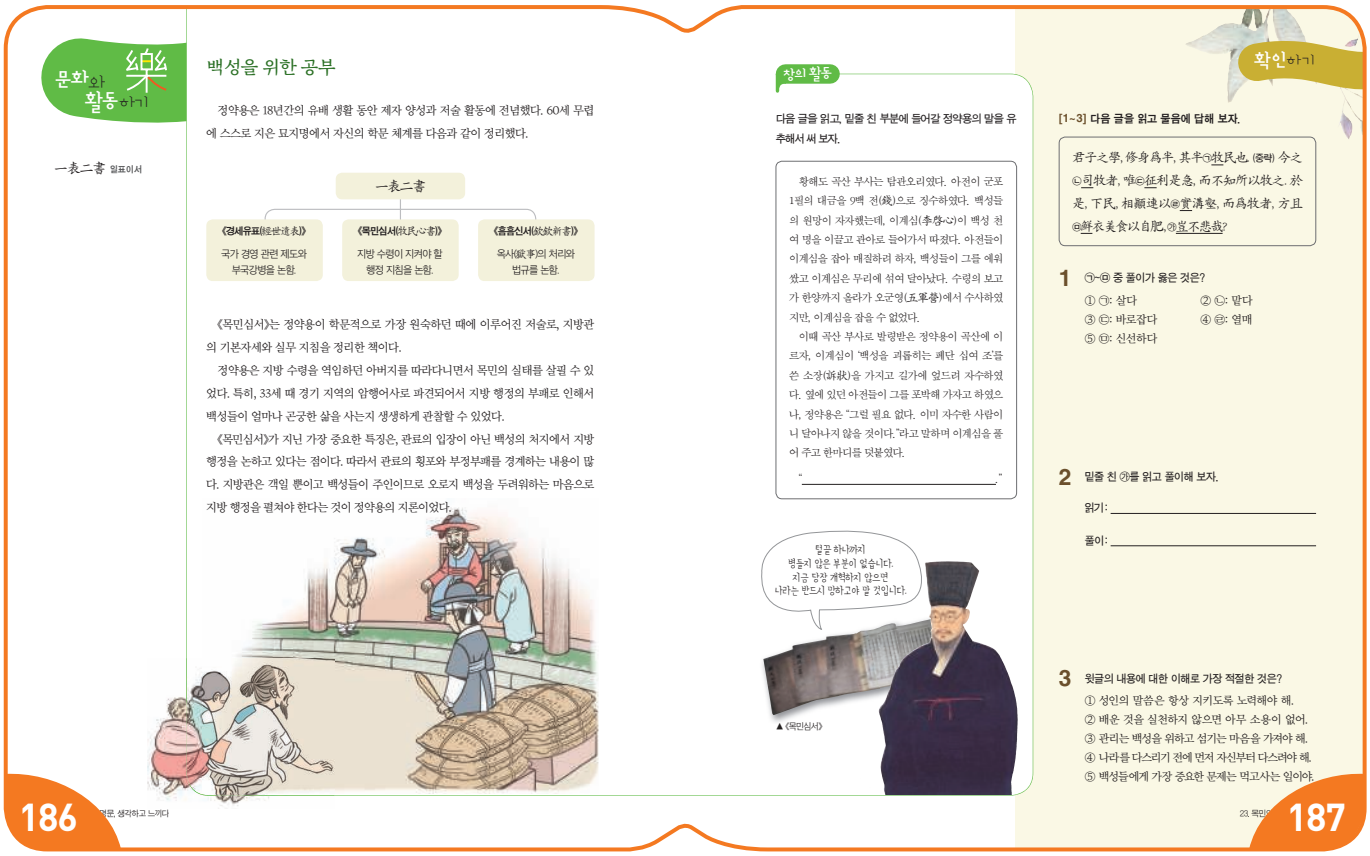
牧	(목) 기르다 牛, 8	牧師 牧場
*顚	(전) 넘어지다 頁, 19	顚倒 顚覆
肥	(비) 살찌다 肉, 8	肥大 肥滿
昏	(혼) 어둡다 日, 8	昏亂 黃昏
浸	(침) 잠기다 水, 10	浸水 浸濕
軌	(궤) 바퀴자국 車, 9	軌道 軌範
遙	(요) 멀다 辶, 14	遙遠 逍遙
疲	(피) 피곤하다 疒, 10	疲困 疲勞
幽	(유) 그윽하다 幺, 9	幽明 幽靈
郊	(교) 들 邑, 9	近郊 郊外
需	(수) 쓰이다 雨, 14	需要 必需
卜	(복) 점 卜, 2	卜居 占卜
塗	(도) 진흙 土, 13	塗炭 塗料
罷	(파) 마치다 罒, 15	罷業 罷免
廳	(청) 관청 广, 25	廳舍 大廳
赴	(부) 다다르다 走, 9	赴任
員	(원) 인원 口, 10	人員 職員
司	(사) 맡다 口, 5	司法 上司
*溝	(구) 도랑 水, 13	溝壑 海溝●
豈	(기) 어찌 豆, 10	-
逝	(서) 가다 辶, 11	逝去 逝者
姦	(간) 간사하다 女, 9	姦通 姦淫
遞	(체) 갈마들다 辶, 14	遞信 遞增
搜	(수) 찾다 手, 13	搜索 搜査
弊	(폐) 해지다 廾, 15	病弊 弊害
冥	(명) 어둡다 冖, 10	冥福 冥想
燥	(조) 마르다 火, 17	乾燥 燥熱
隆	(륭) 높다 阜, 12	隆盛 隆起
*網	(망) 그물 糸, 14	漁網 網膜
炭	(탄) 숯 火, 9	石炭 煉炭
吏	(리) 벼슬아치 口, 6	官吏 吏曹
譯	(역) 번역하다 言, 20	飜譯 通譯
委	(위) 맡기다 女, 8	委員 委任
征	(정) 치다 彳, 8	征伐 征服
*壑	(학) 골짜기 土, 17	溪壑●
迷	(미) 미혹하다 辶, 10	迷兒 昏迷
透	(투) 통하다 辶, 11	透過 透明
逸	(일) 편안하다 辶, 12	安逸 逸脫
郵	(우) 우편 邑, 11	郵便 郵票
索	(색) 찾다 糸, 10	索出 探索
賦	(부) 부세 貝, 15	賦稅 賦課
鄰	(린) 이웃 邑, 15	交鄰 鄰近
濕	(습) 젖다 水, 17	濕潤 濕度
占	(점) 점치다 卜, 5	獨占 占領
羅	(라) 벌이다 罒, 19	羅列 網羅
雷	(뢰) 우레 雨, 13	落雷 地雷
僚	(료) 동료 人, 14	同僚 官僚
任	(임) 맡기다 人, 6	任務 任員
擔	(담) 메다 手, 16	負擔 擔當

신출 한자 _활용 어휘 뜻풀이

- 해구(海溝): 대양(大洋) 밑바닥에 좁고 길게 도랑 모양으로 움푹 들어간 곳.
- 계학(溪壑): 시냇물이 흐르는 산골짜기.

성어 _과골삼천

- 과골삼천(踝骨三穿): 복사뼈에 세 번 구멍이 남.
  - 정약용의 제자 황상(黃裳)이 '선생님께서 유배 생활을 하실 때 복사뼈에 세 번 구멍이 날 정도로 공부하셨다.'라고 함.



창의 활동 _활동 취지와 예시 답안

이계심(李啓心, 조선 정조 때 곡산의 백성)은 법을 어겨 체포령이 떨어진 사람이었지만, 앞뒤 정황을 보면 그 원인이 탐관오리였던 전임 부사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어 다양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선 시대 군역은 6세부터 60세까지의 양인에게 부과했는데, 임진왜란 이후 모병제를 실시하면서 군역은 군포(軍布) 2필을 바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어 군포는 국가 재정에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삼정(三政: 田政, 軍政, 還穀)의 문란으로 힘 있는 계층은 군포 부과에서 빠져 나갔고 힘 없는 백성에게 책임이 전가되었다. 당시 곡산 부사는 보통 200전 정도하는 군포 대금을 4배가 넘는 900전으로 징수했다.

예시 답안

❶ 그동안 도망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네가 작성한 소장을 읽어 보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할 테니 너는 백성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하여라.

❷ 네가 무슨 죄가 있겠느냐? 탐관오리인 전임 부사가 잘못이지. 이제부터 건의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하도록 하여라.

확인하기 _정답과 해설

❶ 문장 속 한자의 쓰임을 이해하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②

[해설] ㉠ 牧(목): (백성을 다스려) 기르다
㉡ 征(정): (이익을) 취하다
㉢ 實(실): 채우다
㉣ 鮮(선): 곱다

❷ 허사의 쓰임을 알고 문장을 풀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

[정답] • 읽기: 기불비재
• 풀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해설] 豈不(기불) ~哉(재)?: 어찌 ~하지 않겠는가?
※ '豈(기)'는 '非(비)', '不(불)'과 결합하여 반문하는 뜻을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다.

❸ 글을 읽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

[정답] ③

[해설] 이 글의 초점은 관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있으며, 그 내용은 자신의 안위보다는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정약용과 《목민심서》

- **정약용**(丁若鏞, 1762~1836): 조선 후기의 학자. 자는 미용(美庸). 호는 다산(茶山)·사암(俟菴)·여유당(與猶堂) 등. 근기(近畿) 남인 가문 출신으로, 정조(正祖) 연간에 문신으로 사환(仕宦)했으나 청년기에 접했던 서학(西學)으로 인해 장기간 유배 생활을 하였다. 유배 기간 동안 학문을 더욱 연마해 육경 사서에 대한 연구를 비롯해 일표이서(一表二書) 등 모두 50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이 저술을 통해서 조선 후기 실학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정약용은 이익(李瀷)의 학통을 이어받아 발전시켰으며, 각종 사회 개혁 사상을 제시하여 '묵은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노력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역사 현상의 전반에 걸쳐 전개된 그의 사상은 조선 왕조의 기존 질서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혁명론'이었다기보다는 파탄에 이른 당시의 사회를 개량하여 조선 왕조의 질서를 새롭게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정약용이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指針)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로서, 48권 16책이다. 이 책은 부임(赴任), 율기(律己: 자기 자신을 다스림), 봉공(奉公), 애민(愛民), 이전(吏典), 호전(戶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형전(刑典), 공전(工典), 진황(賑荒), 해관(解官: 관원을 면직함) 등 모두 12편으로 구성되었고,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제되었다. 정약용은 경기도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지방 행정의 문란과 부패로 인한 민생의 궁핍상을 생생히 목도한 경험과 직접 찰방(察訪), 부사 등의 목민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근민관(近民官)으로서 수령의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는 《목민심서》 서(序)에 수령은 《대학》에서 이르는 '수기치인지학(修己治人之學)'을 배우는 데 힘써 수령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치민(治民)하는 것이 곧 목민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렴은 수령의 본무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수령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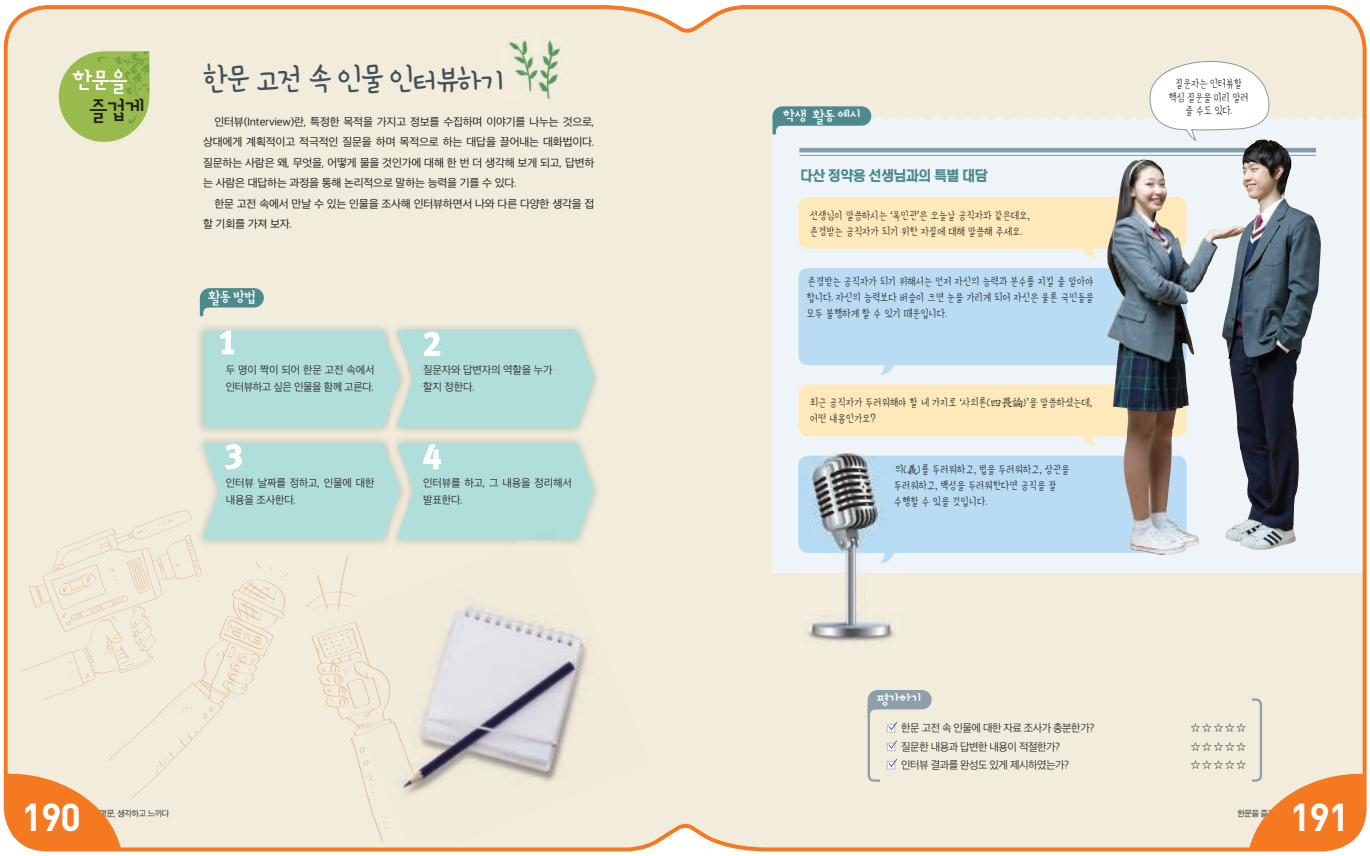
* 찰방(察訪): 조선 시대에, 각 도의 역참 일을 맡아보던 종육품 외직(外職) 문관의 벼슬. 중종 30년(1535)에 역승을 고친 것으로 공문서를 전달하거나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의 편리를 도모하였다.

» 《목민심서》를 비롯해 조선 초기의 여러 목민서가 지향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민관의 정기(正己: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함)와 청백(淸白: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곧고 깨끗함) 사상이 전편에 걸쳐 강하게 흐르고 있는 점이다.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 속 정약용

곡산 백성에 이계심(李啓心)이란 자가 있었는데, 본성이 백성의 폐단을 말하기를 좋아하였다. 전관(前官) 때에 포수보(砲手保) 면포 1필을 돈 9백 전(錢)으로 대징(代徵)하였다. 이계심이 소민(小民) 1천여 인을 거느리고 관부(官府)에 들어가서 다투었다. 관에서 그를 형벌로 다스리려 하니, 1천여 인이 벌떼처럼 이계심을 옹위하고 계단을 밟고 올라가며 떠드는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였다. 이노(吏奴)가 막대를 휘두르며 백성을 내쫓으니 이계심은 달아나 버렸다. 그리고 오영(五營)에서 수사하였으나 그를 잡지 못하였다. 용이 경내에 이르니, 이계심이 민막(民瘼) 10여 조를 쓴 소첩(訴牒)을 가지고 길 옆에 엎드려 자수하였다. 좌우에서 그를 잡기를 청하였으나 용이 말하기를, "그러지 말라. 이미 자수하였으니 스스로 달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하고, 이윽고 석방하면서 말하였다. "관이 밝지 못하게 되는 까닭은 백성이 자신을 위한 계책을 잘하여 폐단을 들어 관에 대들지 않기 때문이다. 너 같은 사람은 관에서 천금(千金)으로 사들여야 할 것이다." 이에 무릇 경영(京營)에 상납하는 포목은 용이 친히 면전에서 재어 보고 받았다. 향교에 《오례의(五禮儀)》가 있었는데, 포백척도(布帛尺圖)가 실려 있었다. 그것을 시용척(時用尺)과 비교해 보니 2촌(寸)이 차이가 났다. 이에 도(圖)를 상고하여 자를 만들어 기필코 경영(京營)의 동척(銅尺)과 합치시켜 백성의 포목을 받아들이니, 백성이 편리하게 여겼다. 그 이듬해 포목이 더욱 귀해졌다. 용이 칙수전(勅需錢) 및 관봉전(官俸錢) 2천여 냥을 내어 관서(關西)에서 포목을 사서 경납(京納)에 충당하고 그 대가를 백성에게서 거두어 갚으니, 모두 2백 전에 불과하므로 백성들은 집에 송아지 한 마리를 얻었다고 하였다.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한문을 즐겁게 _활동 취지와 참고 자료

가상 인터뷰 활동은 학습자 스스로 조사한 정보에 상상력을 더하여 설득력 있는 문답을 작성하는 과정이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가상 인터뷰 활동을 통해 고전 속 인물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_정약용의 사외론(四畏論)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네 가지 두려워할 것'이 있으니, 아래로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위로는 대간을 두려워하고 더 위로는 조정을 두려워하고 더 위로는 하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러나 목민관이 두려워하는 것은 항상 대간과 조정뿐이고, 백성과 하늘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 백성과 하늘은 바로 앞에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임하고 몸으로 거느리고 호흡을 함께 하고 있으니, 잠시도 떨어질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것이 바로 백성과 하늘이다. …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백성은 모두 하늘에 죄 없음을 호소하지만 수령은 어두워서 '네 가지 두려워할 것(四畏)'을 모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백성은 더욱 약해지고 부(府)는 더욱 피폐해지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

- 〈부령도호부사로 부임하는 이종영을 전송하는 서〉

참고 자료

정약용의 경세론은 백성의 삶을 끌어올려 모든 인간이 평등한 조건 속에 사회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자는 것이었다.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것이 《목민심서》다. 그는 목민관이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민관으로서의 정신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행정 실무에 앞서서 정신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약용은 '자신을 다스릴 것', '공무에 봉사할 것', '백성을 사랑할 것'의 세 가지 강령을 제시했다. 물론 그의 '목민' 사상이 곧바로 민주주의 사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왕권을 옹호하는 전제주의적 가치 질서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권력의 원천을 백성에서 찾고 권력의 목적이 백성의 삶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봉사하는 데에 있음을 인식하고 강조하였다. 조선 후기의 봉건적 전제 군주 체제 속에서 살다 간 정약용이 제시한 해결 방법들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백성을 위한 목민관의 정신 자세와 대책의 기본 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보편적 요구로서 살아 있을 것이다.

- 금장태, 《실천적 이론가 정약용》 발췌

Ⅷ 단원 총괄 평가

정답 223쪽

[01~0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吾起兵, 至今八㉠歲矣. ㉡身七十餘戰, 所㉢當者破, 所擊者㉣服, 未嘗敗北, 遂覇有天下. 然今㉤卒困於此, ㉮此天之亡我, 非戰之罪也.

01 ㉠~㉤의 풀이로 옳은 것은?

① ㉠: 나이 ② ㉡: 대신하다
③ ㉢: 마땅히 ④ ㉣: 정복하다
⑤ ㉤: 군졸

02 ㉮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성격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좇기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군.
②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이 처량하군.
③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군.
④ 자신이 천하 제일의 영웅이라 자부하는군.
⑤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태도가 매우 다정하군.

[03~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王子㉠及從者四十餘人, 唯獲一鹿, 朱蒙射鹿㉡至多. 王子妬之.
(나) 告水曰: "㉢我是㉣天帝子, ㉤河伯孫. 今日逃遁, ㉥追者垂及, 奈何?" 於是, 魚鼈成橋, 得渡, 而橋解, 追騎不得渡.

03 ㉠, ㉡의 풀이가 모두 옳은 것은?

	㉠	㉡		㉠	㉡
①	미치다	이르다	②	미치다	매우
③	~와/과	이르다	④	~와/과	매우
⑤	더불어	도착하다			

04 ㉢~㉥ 중 가리키는 인물이 같은 것만을 고른 것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05~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君子之學, ㉠修身爲半, 其半牧民也. (중략) 今之司牧者, 唯征利是急, 而㉡不知所以牧之. 於是, 下民, (중략) 相顚連以實溝壑, 而爲牧者, 方且鮮衣美食以自肥, 豈不悲哉?

05 ㉠과 단어의 짜임이 같은 것은?

① 讀書 ② 父母 ③ 千里
④ 諸君 ⑤ 逃遁

06 ㉡과 음이 다른 것은?

① 不動 ② 不滿 ③ 不足
④ 不實 ⑤ 不當

[07~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世有伯樂, 然後有千里馬, 千里馬常有, 而伯樂不常有. 故雖有名馬, 秖辱於奴隸人之手, 駢死於槽櫪之間, ㉮不以千里稱也. 馬之千里者, 一㉠食, 或盡粟一石, ㉡食馬者, 不知其能千里而㉢食也, 是馬, 雖有千里之能, ㉣食不飽, 力不足, 才美不外見, 且欲與常馬等, 不可得, 安求其能千里也?

07 ㉠~㉣의 음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① 식, 식, 식, 식 ② 사, 식, 사, 식
③ 식, 사, 사, 식 ④ 사, 식, 식, 사
⑤ 사, 사, 사, 식

08 서술형 | ㉮의 이유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부록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200

대단원 총괄 평가 정답 풀이 223

참고 문헌 및 사진 출처 224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Ⅰ. 한문을 만나다	소단원명	01. 한문의 기초	교과서 쪽수	10~13쪽
학습 목표	1. 한자의 모양·음·뜻을 구별한다. 2. 한자의 부수를 알고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데 활용한다. 3.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를 구별한다. 4. 한자를 순서에 맞게 바르게 쓴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한자와 한문은 어떻게 다른지, 한자나 한문을 배워 본 적이 있는지 질문하며 한문 과목에 흥미를 유발한다.	
전개	한자와 한문을 배우는 이유	• 한자와 한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한다. **[한자와 한문을 배우는 이유]** • 한자와 한문을 배우면 좋은 점에 관해 생각해 보고 발표한다. • 첫째, 우리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언어생활이 풍요로워짐. • 둘째, 선조들의 삶과 지혜를 이해하고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시킴. • 셋째, 한자 문화권을 이해하고 상호 이해와 교류 증진에 도움이 됨.	이해하기 토의·토론하기
	한문의 기초 지식	**[한문의 기초 지식]** • 한자의 3요소: 모양(形), 음(音), 뜻(義) • 부수와 자전 • 자전에서 한자를 찾는 방법: 부수 색인법, 자음 색인법, 총획 색인법 •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상형, 지사, 회의, 형성 ※ 전주와 가차 • 필순의 일반적 원칙	자전 활용하기 분석하기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며 익힌다.	발표하기
	우리말 속 한자 어휘	**[활동] 우리말 속 한자 어휘** • 평소 잘못 쓰고 있는 한자 어휘를 점검해 보고, 한자와 한문을 배우면 우리말 어휘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토의·토론하기 토론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적용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02과 '배움과 우정'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에서 한자 어휘를 잘못 사용한 사례를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Ⅰ. 한문을 만나다	소단원명	02. 배움과 우정	교과서 쪽수	14~19쪽
학습 목표	1. 배움과 우정의 뜻을 담은 성어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2.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고등학생인 나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발표하게 하여 배움과 우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한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성어를 읽고 풀이해 본다. • 배움을 주제로 한 성어: 溫故知新, 發憤忘食, 斷機之戒 • 우정을 주제로 한 성어: 伯牙絕絃, 管鮑之交, 金蘭之契 • 성어의 유래를 알고, 겉뜻과 속뜻을 함께 학습한다. • 배운 성어를 언어생활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糸(사) - 糾, 紀, 組, 絡, 絹, 緯, 繫, 繼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憤慨, 機械, 警戒, 敦篤 • 어휘 뜻풀이 예 琴瑟, 梅蘭菊竹 • 음악과 관련된 어휘 예 歌詞, 童謠, 拍子, 樂譜, 演奏, 伴奏 • 두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 예 弱冠, 雁書, 破鏡, 壓卷, 白眉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관포지교'의 유래를 만화로 읽으며 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친구나 우정에 관해 생각한 후 자신만의 정의를 내려 보고 발표한다.	역할 놀이하기 토의·토론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적용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03과 '역사 이야기'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이번 차시에서 배운 성어나 어휘의 활용 사례를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Ⅰ. 한문을 만나다	소단원명	03. 역사 이야기	교과서 쪽수	20~25쪽
학습 목표	1. 역사 이야기를 담은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2.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생각 열기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삼국지나 초한지와 같은 중국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성어에 대한 흥미를 이끌어 낸다.	발표하기
전개	새로 나온 한자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문화와 활동하기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본문 학습]** • 성어를 읽고 풀이해 본다. 吳越同舟, 指鹿爲馬, 背水之陣, 四面楚歌, 桃園結義, 泣斬馬謖 • 성어의 유래를 알고, 겉뜻과 속뜻을 함께 학습한다. • 배운 성어를 언어생활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한다.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肉(月) - 肝, 肩, 肺, 背, 胃, 腦, 腰 •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예 • 指 가리키다: 指摘 손가락: 屈指 • 越 뛰어넘다: 超越 나라 이름: 吳越 • 뜻이 서로 상대 관계에 있는 어휘 예 簡單 ⇔ 複雜, 具體 ⇔ 抽象 陳腐 ⇔ 斬新, 擴大 ⇔ 縮小 • 역사에서 유래한 성어 예 合從連橫, 三顧草廬, 國士無雙, 脣亡齒寒 **[창의 활동]** • 역사 인물에서 비롯된 성어의 유래를 읽어 보고, 성어의 유래가 된 시대적 상황, 사건, 인물의 행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 배운 성어를 하나 선택하여 성어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의 마인드맵을 작성해 본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정리	확인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 04과 '재미있는 이야기'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삼국지'와 관련된 성어를 찾아 유래를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성어의 유래 조사하여 발표하기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Ⅰ. 한문을 만나다	소단원명	04. 재미있는 이야기	교과서 쪽수	26~31쪽
학습 목표	1. 이야기에서 유래한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2.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생각 열기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재미있는 이야기에서 비롯한 성어를 소개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성어의 유래와 배경을 알면 성어를 학습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설명한다.	발표하기
전개	새로 나온 한자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문화와 활동하기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본문 학습]** • 성어를 읽고 풀이해 본다. 塞翁之馬, 愚公移山, 守株待兎, 畫蛇添足, 群鷄一鶴, 登龍門 • 성어의 유래를 알고, 겉뜻과 속뜻을 함께 학습한다. • 배운 성어를 언어생활에서 활용하는 연습을 한다.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心(忄) - 忌, 怠, 恣, 感, 愼, 慢, 慾 • 뜻이 서로 상대되는 한자 예 添 ⇔ 削 添加, 削除 虛 ⇔ 實 虛費, 實踐 • 수학과 관련된 어휘 예 鈍角, 銳角, 對邊, 倍數, 座標, 直徑 • 성어 예 乘勝長驅, 轉禍爲福, 矯角殺牛, 泥田鬪狗 **[창의 활동]** • '우공이산'의 유래를 만화로 읽고, 겉뜻과 속뜻을 함께 익힌다. • '우공이산'의 주인공 우공의 태도가 현명한지 어리석은지 생각해 보고 우공을 평가하는 글을 써 본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이해하기 표현하기
정리	확인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 05과 '생활의 지혜'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이 단원에서 배운 성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성어를 활용한 짧은 문장을 지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짧은 글 짓기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Ⅱ. 단문, 지혜를 찾다	소단원명	05. 생활의 지혜	교과서 쪽수	38~43쪽
학습 목표	1.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2. 토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는다. 3.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생각 열기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속담의 특징을 생각해 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속담을 발표해 본다.	발표하기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 烏飛梨落, 同價紅裳, 孤掌難鳴 • 積功之塔, 不墮. 我腹旣飽, 不察奴飢. 農夫餓死, 枕厥種子. •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비슷한 뜻을 가진 우리말 속담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한다.	읽고 풀이하기 단어 구조 분석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土(토) - 埋, 基, 域, 城, 境, 墓, 墳, 壞 • 모양이 비슷한 한자 예 鳥 ≠ 烏 比翼鳥, 烏竹軒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奴婢, 價值, 忍耐, 努力 • 성어 예 口尙乳臭, 累卵之危, 空中樓閣, 姑息之計, 同床異夢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우리 속담을 한역한 글이 실린 책을 살펴보고, 우리말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한다. • 중국과 일본의 속담을 보고 비슷한 뜻을 가진 우리 속담에는 어떤 표현이 있는지 써 본다.	이해하기
정리	확인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 06과 '나를 돌아보는 삶'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한문 문장으로 이루어진 속담을 찾아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조사하기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Ⅱ. 단문, 지혜를 찾다	소단원명	06. 나를 돌아보는 삶	교과서 쪽수	44~49쪽
학습 목표	1.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2. 문장 부호의 역할을 이해하고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는다. 3.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자신이 좋아하는 격언이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문장이 있는지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 有志者, 事竟成也. • 凡曰某事難者, 皆不爲也, 非不能也. • 滿招損, 謙受益. • 人必自侮然後, 人侮之. • 桃李不言, 下自成蹊. • 施恩勿求報, 與人勿追悔. • 단어의 짜임을 구별한다.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구두법에 대한 개념을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단어 구조 분석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言(언) - 訂, 訴, 詳, 試, 該, 誘, 誌, 讚 •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예 • 報 알리다: 弘報 갚다: 報償 • 與 더불다: 與民同樂 주다: 贈與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跳躍, 研磨, 貢獻, 中央, 終了, 娛樂 • 성어 예 百折不屈, 外柔內剛, 螢雪之功, 大器晩成, 孤軍奮鬪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성현들은 어떻게 자신을 반성하고 경계하였는지 살펴본다. • 평소에 가지고 있던 좌우명이 있으면 적어 보고, 없다면 이번 단원에서 배운 문장 중 제일 인상 깊었던 문장을 정하고 그 이유를 말해 본다.	자경문 만들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07과 '더불어 사는 삶'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반성'과 관련된 성어나 한문 문장을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Ⅱ. 단문, 지혜를 찾다	소단원명	07. 더불어 사는 삶	교과서 쪽수	50~55쪽
학습 목표	1.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2.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3.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더불어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생각해 보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배려와 나눔에는 무엇이 있을지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바르게 끊어 읽는다. •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 倉廩實, 則知禮節, 衣食足, 則知榮辱. • 太山, 不讓土壤, 故能成其大, 河海, 不擇細流, 故能就其深.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广(엄) - 序, 底, 度, 庫, 庸, 廟 • 뜻이 서로 상대 관계에 있는 어휘 예 尊貴 ⇔ 卑賤, 優秀 ⇔ 拙劣 富裕 ⇔ 困窮, 兩班 ⇔ 庶民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辭讓, 包容, 和睦, 排斥 • 단어 만들기 예 榮譽, 繁榮, 榮枯盛衰 / 豪言, 妄言, 巧言令色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관중'과 '이사'에 관한 글을 읽고, 본문에서 배운 문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 대우법의 개념을 익히고, 제시된 문장과 이어지는 문장을 대우법을 활용해 만들어 본다.	이해하기 적용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08과 '거위의 지혜'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나눔'이나 '배려'에 관한 뉴스나 신문 기사를 찾아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Ⅲ. 이야기, 나를 성찰하다	소단원명	08. 거위의 지혜	교과서 쪽수	62~67쪽
학습 목표	1. 문장의 유형을 구별한다. 2.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3.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자신이 생각하는 '지혜'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 보며 흥미를 유발한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는다. 人有畜野鵝者, 多與煙火之食. 鵝便體重, 不能飛. 後忽不食, 人以爲病, 益與之食而不食. 旬日而體輕, 凌空而去. 翁聞之曰: "智哉! 善自保也."	읽고 풀이하기 비교·분석하기
	어휘 활용하기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문장의 유형과 개념을 이해한다.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人(亻) - 付, 伸, 佐, 供, 健 •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예 • 空 비다: 空欄 하늘: 蒼空 • 善 착하다: 僞善 잘하다: 善防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智慧, 疾病, 旋回, 禽獸 • 과학과 관련된 어휘 예 發芽, 培養, 慣性, 朔望, 干潮, 觸媒, 赤血球, 核分裂, 紫外線, 玄武巖 • 단어 만들기 예 病菌, 病院, 疫病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나를 지키는 집'이라는 뜻의 '수오재(守吾齋)'와 관련된 글을 읽고,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말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나를 지킨다는 의미와 내가 꼭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해 써 본다.	자경문 만들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적용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09과 '양심의 소리'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과학 교과와 관련된 한자 어휘를 찾아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Ⅲ. 이야기, 나를 성찰하다	소단원명	09. 양심의 소리	교과서 쪽수	68~73쪽
학습 목표	1.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2.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3.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양심'에 대하여 자신만의 정의를 내려 보고, 양심을 지키지 못한 행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끊어 읽는다. 王密, 爲昌邑令, 謁見, 至夜, 懷金十斤, 以遺震. 震曰: "故人知君, 君不知故人, 何也?" 密曰: "暮夜, 無知者." 震曰: "天知, 神知, 我知, 子知, 何謂無知?" 密愧而出.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문장에서 유래한 성어의 속뜻을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金(금) - 鉛, 銅, 銀, 鐵, 鎭, 鑛, 鑄 •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예 • 密 빽빽하다: 周到綿密 숨기다: 祕密, 密輸 • '부정'의 뜻을 가진 한자 예 • 無: 無謀, 無妨, 無條件 • 不: 不拘, 不振, 不確實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鬼神, 靈魂, 慙愧, 飜覆 • 세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 예 胡蝶夢, 月旦評, 破天荒, 紅一點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선인들은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다양한 글을 읽어 본다. • '사불삼거'를 현대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 양심을 지키기 위한 자신만의 '사불삼거'를 만들어 본다.	이해하기 자경문 만들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0과 '고향 생각'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세 글자로 이루어진 성어를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Ⅳ. 한시, 노래로 말하다	소단원명	10. 고향 생각	교과서 쪽수	80~85쪽
학습 목표	1.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2.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자신이 살았던 고향을 떠나와 객지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느낌일지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한시를 바르게 띄어 읽는다. 〈靜夜思〉 牀前看月光, 疑是地上霜. 擧頭望山月, 低頭思故鄕. 〈絕句〉 江碧鳥逾白, 山靑花欲燃, 今春看又過, 何日是歸年? • 한시의 형식과 특징을 이해한다. • 시어를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火(灬) - 災, 烈, 煩, 熟, 熱, 燃, 爐 • '보다'라는 뜻을 가진 한자 예 看板, 卓見, 槪觀, 錯視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靜寂, 思惟, 光輝, 曉晨 • 국어와 관련된 어휘 예 比較, 對照, 情緖, 敍述, 含蓄, 象徵 • 단어 만들기 예 寢臺, 寢睡, 寢具類 / 閏年, 年輩, 年輪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중국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시인인 '이백'과 '두보'의 간단한 생애와 시의 특징을 살펴본다. • 〈정야사〉의 '달'과 〈월하독작〉의 '달'을 비교해 보고 같은 시어라도 시에서의 역할과 느낌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이해하기 감상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1과 '이별 노래'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이백'이나 '두보'의 다른 시나 작품을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Ⅳ. 한시, 노래로 말하다	소단원명	11. 이별 노래	교과서 쪽수	86~91쪽
학습 목표	1. 시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한시를 바르게 감상한다. 2.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 한시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자신이 아끼고 사랑했던 것들과 이별했을 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는지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한시를 바르게 띄어 읽는다. 〈送人〉 雨歇長堤草色多, 送君南浦動悲歌. 大同江水何時盡? 別淚年年添綠波. 〈燕巖憶先兄〉 我兄顔髮曾誰似? 每憶先君看我兄. 今日思兄何處見? 自將巾袂映溪行.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 한시의 시상 전개 방식을 이해하고 한시를 감상한다. • 시어를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艸(艹) - 英, 茫, 莊, 葬, 蒸, 蓮, 蔬, 蔽 • 여러 가지 뜻을 가진 한자 예 • 離 떠나다: 離別 떨어지다: 距離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戀慕, 懇切, 容貌, 整齊 •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 예 장부 - 丈夫, 帳簿 가공 - 加工, 架空 • 국어의 표현법과 관련된 어휘 예 誇張法, 倒置法, 詠歎法, 漸層法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누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박지원의 〈백자 증정 부인 박씨 묘지명〉을 읽고, 그리움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 '한시 감상 단계'를 참고하여 배운 시 중 하나를 골라 감상해 본다.	이해하기 감상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2과 '비유로 말하기'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그리움'을 주제로 한 가요를 찾아 듣고 감상한 느낌을 써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Ⅴ. 성어, 유래로 배우다	소단원명	12. 비유로 말하기	교과서 쪽수	98~103쪽
학습 목표	1.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2.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3.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비유'의 개념을 이해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楚人, 有涉江者, 其劍, 自舟中, 墜於水, 遽契其舟曰: "是, 吾劍之所從墜." 舟止, 從其所契者, 入水求之. • 宋人, 有閔其苗之不長而揠之者, 芒芒然歸, 謂其人曰: "今日, 病矣! 予助苗長矣!" 其子趨而往視之, 苗則槁矣. •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 문장에서 유래한 성어의 속뜻을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문장 구조 분석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水(氵) - 沈, 泊, 治, 況, 洗, 流, 派, 洪 • 모양이 비슷한 한자 예 • 劍 ≠ 檢 ≠ 儉 口蜜腹劍, 檢事, 勤儉 • 求 ≠ 救 求乞, 救援 • 한자 문화가 담긴 어휘 예 龜鑑, 角逐, 蜂起, 霧散, 鼓舞 • 단어 만들기 예 登錄, 登載, 登壇 / 漏落, 騰落, 零落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비유'로 표현된 성어 '연목구어'와 '낭중지추'의 유래와 뜻을 익힌다. • 이 단원에서 배운 성어가 활용된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성어를 활용한 짧은 문장을 지어 본다.	이해하기 짧은 글 짓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적용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3과 '관점을 넓혀 보기'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주술 구조'와 '주술보 구조'로 쓰인 단어나 문장을 찾아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Ⅴ. 성어, 유래로 배우다	소단원명	13. 관점을 넓혀 보기	교과서 쪽수	104~109쪽
학습 목표	1.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2.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3. 한자로 이루어진 성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차시	2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의 주제나 내용이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尾生, 與女子, 期於梁下, 女子不來, 水至不去, 抱梁柱而死. • 謂魏王曰: "今一人, 言市有虎, 王信之乎?" 王曰: "否." "三人, 言市有虎, 王信之乎?" 王曰: "寡人信之矣." 龐葱曰: "夫市之無虎明矣. 然而三人言而成虎." • 문장의 구조를 구별한다. • 문장에서 유래한 성어의 속뜻을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문장 구조 분석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貝(패) - 負, 貨, 貴, 貸, 買, 貿, 賣, 資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妥當, 相互, 姿態, 危殆 • 예전에 사람 신분을 나타낸 어휘 예 殿下, 內侍, 王妃, 小妾, 宰相, 卿大夫, 御史, 刺客 • 역사극에서 자주 쓰는 어휘 예 康寧, 罔極, 賜藥, 毒藥, 洞燭 • 단어 만들기 예 凍死, 殉死, 死藏 / 竝行, 徐行, 潛行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당랑거철'의 유래를 읽고, 하나의 성어가 여러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조삼모사'에 나오는 저공과 원숭이의 태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분석하기 토의·토론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적용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4과 '사관의 정신'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주술목 구조'와 '주술목보 구조'로 쓰인 단어나 문장을 찾아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VI. 인물, 삶에서 깨닫다	소단원명	14. 사관의 정신	교과서 쪽수	116~121쪽
학습 목표	1.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2.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3.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려면 어떤 태도나 정신(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上率武臣十餘人, 沿江放鷹, 日暮還宮. 史官閔麟生, 隨至, 上見之, 目內竪問: "何爲而來乎?" 對曰: "臣以史官, 不敢廢職, 故來耳."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품사의 개념을 이해하고 문장에 사용된 실사와 허사를 구별한다.	읽고 풀이하기 허사의 쓰임 유추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阜(阝) - 陵, 陰, 陷, 階, 障, 險, 際 • 모양이 비슷한 한자 예 廷≠延(朝廷, 遲延) / 亨≠享(亨通, 享樂)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釋放, 棄却, 返還, 閱覽 • 지리와 관련된 어휘 예 沙漠, 沿岸, 港口, 鹽田, 分水嶺, 最高峰 • 단어 만들기 예 慰問, 弔問 / 凝視, 巡視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왕들의 역사적 기록을 모아 엮은 '실록'을 알아보고,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가진다. • 제시된 단어들을 사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역사'의 정의를 내려 본다.	이해하기 표현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5과 '예술가의 삶'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한문에서 사용되는 품사의 종류에 대해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VI. 인물, 삶에서 깨닫다	소단원명	15. 예술가의 삶	교과서 쪽수	122~127쪽
학습 목표	1. 문장 안에서의 쓰임에 따른 품사의 활용을 구별한다. 2. 한자로 이루어진 다른 교과 학습 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3.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보통 사람과는 다르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여 남들에게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 보거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던 경험이 있으면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崔北 七七者, 世不知其族系貫縣. 破名爲字, 行于時. 入九龍淵, 樂之甚, 飮劇醉, 或哭或笑, 已又叫號曰: "天下名人崔北, 當死於天下名山." 人有求爲山水, 畫山不畫水. 人怪詰之, 七七擲筆, 起曰: "唉! 紙以外, 皆水也."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문장 안에서 쓰임에 따라 품사가 바뀔 수 있음을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木(목) - 末, 果, 根, 案, 構, 模 • 뜻이 비슷한 한자 예 奇 ≒ 怪(奇跡, 怪異) / 族 ≒ 戚(親族, 姻戚) • 어휘 뜻풀이 예 陶醉, 醜態, 無酌定 • 미술과 관련된 어휘 예 肖像, 模寫, 額子, 硯滴, 屛風 • 단어 만들기 예 版畫, 漫畫, 畫廊, 畫幅 / 色彩, 色盲, 染色, 淡色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최북의 〈풍설야귀인〉을 통해 최북은 자유분방한 성격임을 이해한다. • 그림이나 시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 시에 사용된 시구가 그림에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살펴본다.	감상하기 표현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6과 '그리운 영웅'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최북의 다른 일화나 작품을 찾아보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VI. 인물, 삶에서 깨닫다	소단원명	16. 그리운 영웅	교과서 쪽수	128~133쪽
학습 목표	1.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2.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3.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이순신 장군이 남긴 말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自壬辰至于五六年間, 賊不敢直突於兩湖者, 以舟師之扼其路也. 今臣戰船, 尙有十二, 出死力拒戰, 則猶可爲也. 今若全廢舟師, 則是賊之所以爲幸, 而由湖右達於漢水, 此臣之所恐也. 戰船雖寡, 微臣不死, 則賊不敢侮我矣.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문장에 사용된 한자와 단어의 쓰임에 유의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口(구) - 同, 名, 合, 告, 吸, 味, 和, 鳴 • 모양이 비슷한 한자 예 穴≠突(穴居, 衝突) / 宜≠宣(便宜, 宣誓)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竊盜, 抵抗, 侵略, 掠奪, 包圍, 防衛 • 전쟁과 군사에 관련된 어휘 예 將帥, 爆彈, 白旗, 屯營, 彈丸, 銃丸 • 단어 만들기 예 軍隊, 軍糧, 軍籍 / 戰術, 戰績, 挑戰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이순신 장군이 승리로 이끌었던 명량 대첩에 대하여 알아보고, '학익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 이순신 장군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역사 신문에 실릴 기사를 작성해 본다.	이해하기 역사 신문 만들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7과 '인류의 스승 공자'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이순신 장군이 활약했던 해전에 관하여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Ⅶ. 철학, 길을 묻다	소단원명	17. 인류의 스승 공자	교과서 쪽수	140~145쪽
학습 목표	1. 문장에서 도치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2.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3.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논어》의 첫 구절에 '배움'과 관련된 문장이 나오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 顔淵, 問仁, 子曰: "克己復禮, 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한문에서 문장 성분이 도치되는 경우를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人(亻) - 仲, 依, 係, 侯, 候, 側, 僧, 儒 • 뜻이 서로 상대 관계에 있는 어휘 예 強硬 ⇔ 柔軟, 緩慢 ⇔ 急激, 普遍 ⇔ 特殊, 偏頗 ⇔ 公正 • 《논어》와 관련된 성어 예 不惑, 面墻, 孔門十哲, 如履薄氷, 牛刀割鷄 • 단어 만들기 예 輿論, 討論, 辯論, 論據 / 政府, 政黨, 政局, 攝政	
	문화와 활동하기	• 공자는 '인'을 상황에 맞게 다르게 설명하였음을 이해한다. • 공자가 제시한 인의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고, 자신이 생각하는 '인'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이해하기 표현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8과 '묵자와 맹자'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논어》에 나오는 구절 중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을 찾아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Ⅶ. 철학, 길을 묻다	소단원명	18. 묵자와 맹자	교과서 쪽수	146~151쪽
학습 목표	1.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2.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3.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묵자의 '겸애'와 맹자의 '인의' 중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떤 사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視人之國, 若視其國, 視人之家, 若視其家, 視人之身, 若視其身. • 天下兼相愛則治, 相惡則亂. • 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 可運於掌. • 王, 何必曰利? 亦有仁義而已矣.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示(시) - 社, 祈, 祥, 祿, 禍, 禪 • 여러 가지 음과 뜻을 가진 한자 예 • 惡 악하다: 邪惡, 惡役 미워하다: 憎惡 • 運 움직이다: 運航 운수: 厄運 • 뜻이 서로 관계있는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親疏, 贊反, 昇降, 憐憫, 招聘, 戲弄 • 맹자와 관련된 성어 예 孟母三遷, 捨生取義, 浩然之氣, 斯文亂賊 • 단어 만들기 예 叛亂, 騷亂, 搖亂, 淫亂 / 誕生, 蘇生, 畢生, 生涯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 사상가의 주장을 살펴본다. • 제시문을 읽고 묵자와 맹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어머니가 했을 말을 생각해 본다.	이해하기 활용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19과 '노자와 한비자'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묵자》나 《맹자》에 나오는 문장 중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을 찾아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Ⅶ. 철학, 길을 묻다	소단원명	19. 노자와 한비자	교과서 쪽수	152~157쪽
학습 목표	1. 문장에서 생략된 성분을 찾고, 이를 문장 풀이에 활용한다. 2.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한다. 3.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좋은 정치란 어떤 정치인지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天長地久. 天地, 所以能長且久者, 以其不自生. 故能長生. • 爲無爲, 則無不治. • 國無常強, 無常弱, 奉法者強, 則國強, 奉法者弱, 則國弱. • 夫嚴刑重罰者, 民之所惡也, 而國之所以治也.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문장 성분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刀(刂) - 刊, 別, 券, 刷, 制, 副, 劃, • 뜻이 비슷한 한자 예 監 ≒ 督(監獄, 總督) / 平 ≒ 等(衡平, 等級) • 법과 관련된 어휘 예 違憲, 遵法, 條項, 規範, 犯罪, 懲罰 • 성어 예 名實相符, 牽強附會, 束手無策, 快刀亂麻 • 단어 만들기 예 批判, 審判, 裁判 / 間隔, 瞬間, 巷間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강력한 법에 의한 통치를 주장한 '한비자'의 사상을 살펴보고, '법치'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본다. • 현명한 신하가 옳은 정책을 군주에게 말해도 좋은 정치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이해하기 탐구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표현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20과 '천리마와 백락'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노자의 '무위'와 한비자의 '법치' 중 하나를 정하고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Ⅷ.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소단원명	20. 천리마와 백락	교과서 쪽수	164~169쪽
학습 목표	1.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2. 한자로 이루어진 일상용어를 맥락에 맞게 활용한다. 3.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내 친구들의 재능이나 장점을 발견해 말해 준 경험이 있으면 발표해 본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世有伯樂, 然後有千里馬, 千里馬常有, 而伯樂不常有. 故雖有名馬, 祗辱於奴隸人之手, 駢死於槽櫪之間, 不以千里稱也. 馬之千里者, 一食, 或盡粟一石, 食馬者, 不知其能千里而食也, 是馬, 雖有千里之能, 食不飽, 力不足, 才美不外見. 且欲與常馬等, 不可得, 安求其能千里也?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禾(화) - 秒, 租, 移, 稀, 種, 稿, 稻, 穫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俊傑, 顯著, 奬勵, 鳳凰, 珍珠, 裝飾 • 어휘의 뜻풀이와 활용 예 踏步, 影響, 循環, 頻繁, 屢次 • 성어 예 有耶無耶, 命在頃刻, 東奔西走 • 단어 만들기 예 肯定, 豫定, 暫定, 測定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세종'과 '정조'의 인재 등용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 자신이 생각하는 '인재'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본다.	이해하기 표현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21과 '고구려의 시조'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고 짧은 논설문을 지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Ⅷ.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소단원명	21. 고구려의 시조	교과서 쪽수	170~175쪽
학습 목표	1.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내어 읽는다. 2.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3. 한문 기록에 담긴 우리의 전통문화를 바르게 이해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주몽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발표하게 하여 흥미를 유발한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 金蛙有子七人, 常共朱蒙遊獵. 王子及從者四十餘人, 唯獲一鹿, 朱蒙射鹿至多, 王子妬之. • 告水曰: "我是天帝子, 河伯孫. 今日逃遁, 追者垂及, 奈何?" 於是, 魚鼈成橋, 得渡, 而橋解, 追騎不得渡. • 문장에 사용된 한자의 쓰임을 이해한다. • 글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水(氵) - 淡, 清, 準, 潤, 濫, 濟, 濁, 滯 • '의문'의 뜻을 가진 한자 예 那, 奚, 孰 • 뜻이 서로 상대되는 한자 예 明 ⇔ 暗 聰明, 暗誦 多 ⇔ 少 多樣, 僅少 • 한자 어휘 뜻풀이 예 東夷, 娘子, 叔姪, 驛亭 • 단어 만들기 예 開幕, 開拓, 開催 / 緊迫, 促迫, 脅迫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주몽이 다양한 역사 기록에 전해져 오는 이유를 생각해 보고, 주몽의 업적과 용맹함에 대해 생각해 본다. • 광개토대왕릉비문의 첫 구절을 자전을 활용하여 풀이해 본다.	자전 활용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읽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22과 '초패왕의 최후'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고구려 주몽 신화에 관한 《삼국유사》의 글을 읽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Ⅷ.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소단원명	22. 초패왕의 최후	교과서 쪽수	176~181쪽
학습 목표	1.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2. 한문 산문의 다양한 서술 방식을 통해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3. 한자 문화권의 문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통해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하려는 태도를 형성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발표하기
	생각 열기	• 항우와 관계있는 성어 '사면초가'의 유래를 발표하게 하여 수업에 흥미를 유발한다.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吾起兵, 至今八歲矣. 身七十餘戰, 所當者破, 所擊者服, 未嘗敗北, 遂霸有天下. 然今卒困於此, 此天之亡我, 非戰之罪也. 今日, 固決死, 願爲諸君快戰, 必三勝之. • 문장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 한문 산문의 서술 방식을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手(扌) - 抄, 持, 指, 掛, 掃, 推, 換, 損, 携, 擁 • 뜻이 서로 관계있는 한자 예 攻 ≒ 擊(專攻, 襲擊) 成 ⇔ 敗(編成, 慘敗) •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 예 사기 - 史記, 詐欺 경사 - 慶事, 傾斜 경기 - 競技, 京畿 • 항우와 관련된 성어 예 鴻門之會, 錦衣夜行, 季布一諾 • 단어 만들기 예 餘暇, 殘餘 / 全滅, 全般 / 募集, 召集 / 捕捉, 逮捕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장수로서 기질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항우였지만, 해하의 전투에서 유방에게 패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 항우를 논평한 글을 읽고, 항우에 대한 논평을 다시 써 본다.	탐구하기 비판하기
정리	확인하기	•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조사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23과 '목민의 길'에 관한 차시 예고를 한다. • 항우의 삶을 기록한 사마천을 조사해 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단원별
수업 지도 계획

대단원명	Ⅷ.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소단원명	23. 목민의 길	교과서 쪽수	182~187쪽
학습 목표	1. 글의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바르게 소리 내어 읽는다. 2. 글을 바르게 풀이하고 내용과 주제를 설명한다. 3. 선인들의 지혜와 사상을 이해하여 건전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한다.			차시	3
교수·학습 자료	교사		학생		
	교과서, 교사용CD, 수업 PPT, 활동지(A4)		교과서, 활동지(A4), 필기구		

단계	학습 내용	교수·학습 활동	학습 방법
도입	학습 목표 생각 열기	• 학습 목표를 제시한다. •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관리들을 비판하고 백성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힘썼던 정약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 본다.	발표하기
전개	새로 나온 한자	• 새로 나온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읽어 보면서 한자를 익힌다.	자전 활용하기
	읽고 풀이하기	**[본문 학습]** • 토에 유의하여 문장을 바르게 읽는다. 君子之學, 修身爲半, 其半牧民也. 今之司牧者, 唯征利是急, 而不知所以牧之. 於是, 下民, 相顚連以實溝壑, 而爲牧者, 方且鮮衣美食以自肥, 豈不悲哉? • 문장 속 한자의 쓰임을 이해한다. • 글의 내용과 주제를 이해한다.	읽고 풀이하기
	어휘 활용하기	**[한자와 어휘 학습]** • 부수가 같은 한자 예 辶(辵) - 迷, 逝, 透, 通, 逸, 道, 遮, 遙 • 뜻이 서로 비슷한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 예 搜索, 疲弊, 賦役, 幽冥 • 뜻이 서로 상대 관계에 있는 어휘 예 近鄰 ⇔ 遠郊, 乾燥 ⇔ 濕潤 需要 ⇔ 供給, 隆起 ⇔ 沈降 • 한자 문화가 담긴 어휘 예 占卜, 網羅, 塗炭, 雷同, 罷場 • 단어 만들기 예 官吏, 官僚, 官廳, 譯官 / 赴任, 委任, 擔任, 任員	
	문화와 활동하기	**[창의 활동]** •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제자 양성과 저술 활동을 하면서 백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한 정약용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본다. • 관리의 입장이 아닌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했던 정약용의 애민 정신을 이해한다.	이해하고 공감하기 적용하기
정리	확인하기 다음 차시 예고 과제 부여	• 확인하기 문제를 풀면서 학습 목표와 내용을 스스로 점검한다. •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지은 이유를 찾아오는 과제를 부여한다.	탐구하기

대단원 총괄 평가 정답 풀이

Ⅰ 한문을 만나다 55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④ **05** ①
06 ④ **07** 우공이산, 우공이 산을 옮김.
08 예시 답안
(1) 한자의 3요소는 모양(形), 음(音), 뜻(義)을 말한다. '羽'는 한자의 모양이고, '우'는 한자를 읽는 음(소리)이고, '깃'은 뜻이다.
(2) 회의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를 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들되, 그 글자들이 지닌 뜻을 합쳐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析(석)'은 나무(木)와 도끼(斤)라는 뜻 부분이 합쳐져 도끼로 나무를 '쪼갠다'는 뜻을 가진 회의자이다.

Ⅱ 단문, 지혜를 찾다 77쪽

01 ⑤ **02** ④ **03** ⑤ **04** ② **05** ④
06 ② **07** 인필자모연후, 인모지.
08 예시 답안
• 모든 일은 할 수 있다는 마음만 있으면 해낼 수 있다.
• 할 수 없는 것은 없으니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시도(도전)해 보라.

Ⅲ 이야기, 나를 성찰하다 93쪽

01 ③ **02** ① **03** ③ **04** ① **05** ②
06 ② **07** 暮夜, 늦은 밤.
※ '夜, 밤' 또는 '至夜, 밤이 되자'도 정답으로 인정함.
08 예시 답안
남 모르게 해도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므로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항상 양심을 지켜 행동해야 한다는 뜻이다.

Ⅵ 한시, 노래로 말하다 109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④ **05** ⑤
06 ③ **07** ③ **08** 故鄕

Ⅴ 성어, 유래로 배우다 125쪽

01 ⑤ **02** ⑤ **03** ②
04 예시 답안
• 현대 사회의 치열한 경쟁은 이기주의를 助長한다.
• 과소비와 사치를 助長할 우려가 있다.
05 ④ **06**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음.
07 ① **08** ①

Ⅵ 인물, 삶에서 깨닫다 147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② **05** ④
06 천하의 명인 최북은 마땅히 천하의 명산에서 죽어야 한다.
07 ⑤ **08** ③

Ⅶ 철학, 길을 묻다 169쪽

01 ① **02** ⑤ **03** ④ **04** ② **05** ③
06 ⑤ **07** ④ **08** ㉠ 목적어 ㉡ 서술어

Ⅷ 명문, 생각하고 느끼다 197쪽

01 ④ **02** ③ **03** ④ **04** ② **05** ①
06 ② **07** ③
08 예시 답안
천리마인지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어 자신이 가진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고 문헌 및 사진 출처

■ 참고 문헌

- 강신주, 《동양의 고전을 읽는다 2》, 휴머니스트, 2006.
- 국어국문학자료사전(terms.naver.com/list.nhn?cid=41711&categoryId=41711)
- 금장태, 《실천적 이론가 정약용》, 이끌리오, 2005.
-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
- 다카시마 도오시(이원규 역), 《이백 두보를 만나다》 심산, 2003.
- 동양고전해제사전(http://db.cyberseodang.or.kr)
- 두산백과사전(http://www.doopedia.co.kr/)
- 박현모, 〈경기 청백리에서 한국형 리더십 스토리 찾기〉, 2016.
- 손철주,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오픈하우스, 2011.
- 손희하, 《한·중 속담의 문화 언어학적 비교 고찰》, 2003.
- 심경호, 《논어》, 민음사, 2013.
- 심경호, 《한학입문》, 황소자리, 2007.
- 요시까와 코오지로오(심경호 역), 《당시 읽기》, 창작과비평사, 1998.
- 이인호, 《사기본기》, 사회평론, 2004.
- 정민, 《한시 미학 산책》, 휴머니스트, 2010.
- 진필상(심경호 역), 《한문 문체론》, 이회문화사, 2001.
- 한국고전번역원(http://www.itkc.or.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terms.naver.com/list.nhn?cid=44621&categoryId=44621)

■ 사진 자료 출처

- 31쪽, 《자전석요(字典釋要)》, 서울대 병원 의학 박물관 소장.
- 60쪽, 〈비익조〉, 〈연리지〉,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 집필진의 직접 집필인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았음.

※ 출처 표시를 안 한 사진 및 삽화 등은 저작자 및 발행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